

국립청주박물관 /
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청동기
초기
정치·사회
변동
초기
시대

2019.10.11.금

10:00~17:40 국립청주박물관 대강당

국립청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 주제 _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정치·사회변동

| 일시 _ 2019. 10. 11.(금) 10:00~17:40

| 장소 _ 국립청주박물관 대강당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1부 사회: 박진일(국립청주박물관)		
개회식	10:00 ~ 10:10	개회사_ 신영호(국립청주박물관장) 환영사_ 조진선(한국청동기학회장)
단상 정리		
기조강연	10:20 ~ 10:40	한국 청동기시대 사회 연구의 방향 발표: 김장석(서울대학교)
제1발표	10:40 ~ 11:10	고대 중국 문명과 청동기 발표: 이성원(전남대학교)
제2발표	11:10 ~ 11:40	신석기~청동기시대 사회발전단계 변화 발표: 천선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점심식사		
2부 사회: 박영구(한국청동기학회)		
제3발표	13:00 ~ 13:30	계층화의 관점에서 본 남한의 청동기시대 전기사회: 주거, 분묘, 청동기, 환구 발표: 이형원(한신대학교박물관)
제4발표	13:30 ~ 14:00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와 사회발전단계 발표: 이종철(전북대학교박물관)
제5발표	14:00 ~ 14:30	일본 야요이시대 정치·사회 변동 발표: 미야자토 오사무[宮里 修](일본 고치[高知]대학)
제6발표	14:30 ~ 15:00	장례습속으로 본 초기철기시대 사회의 발전 단계 발표: 서길덕(한성문화재연구원)
제7발표	15:00 ~ 15:30	청동기~초기철기시대 무기 조합과 정치사회 발전단계 발표: 조진선(전남대학교)
장내 정리 및 휴식		
종합토론	15:50 ~ 17:40	좌장: 김장석(서울대학교) 이기성(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손준호(고려대학교), 박진일(국립청주박물관)
한국청동기학회 총회	17:40 ~ 18:00	

개회사

청명한 가을날을 맞이하여 국립청주박물관과 한국청동기학회가 함께 학술 심포지엄 “청동기~초기철기 시대 정치·사회 변동”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국청동기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분야의 연구자 및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실 김장석 교수님과 7분의 주제발표자, 그리고 3분의 토론자 여러분께도 별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 7월, 한국 청동기문화의 이해와 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양 기관이 맺었던 업무 협약의 첫 번째 성과이기 때문인지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은 2020년에 국립청주박물관이 개최할 예정인 특별전 “**新 한국의 청동기문화(가제)**”를 준비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청동기사회의 형성기부터 삼한이 등장하기까지의 정치·사회 변동은 물론 우리와 이웃한 중국과 일본에서 전개되었던 동시기의 사회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의 가옥, 분묘, 도구, 의례 등을 살펴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의 사회발전 양상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국립청주박물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소중한 정보의 보고가 될 것이고, 특히 전시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깊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결과물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심포지엄에 거는 기대는 매우 특별합니다. 오늘 연구자 여러분의 발표와 토론은 우리나라 청동기사회를 한층 깊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한국청동기학회 조진선 회장님과 박영구 총무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립청주박물관과 한국청동기학회의 우애가 깊어지고 공동연구는 더욱 번성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국립청주박물관장 **신영호**

환영사

청명한 가을날에 국립청주박물관과 한국청동기학회가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정치·사회 변동”을 주제로 공동 학술심포지엄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국 고고학, 특히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연구에서 정치사회유형의 변동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1990년대에는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연구에서 정치사회유형의 변동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이상의 논의를 꺼려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습니다. 그 근처에는 이론적 뒷받침과 실제적 접근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적당하게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두 마리의 토끼는 존재 여부조차도 아른아른 합니다. 당초 굳건할 것 같았던 신진화론에 근거한 이론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생겨났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그것을 표징하는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고학자들이 이 두 방면에 모두 능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논의는 한국 고고학연구에 이미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고고학에서 정치사회유형의 변동에 대한 논의는 청동기-초기철기시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또는 삼국시대 이후는 정치사회유형의 정체성이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여하시는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고고학에서 정치사회유형과 그 변동에 대한 1차적인 논의가 무르익고 있을 때 공부를 시작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몰려 있는 세대, 그래서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연구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해도 좋을 분들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열릴 수 있는 것은 국립청주박물관 신영호 관장님, 박진일 실장님과의 의기투합, 그리고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립청주박물관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음속으로는 “내가 적격자야!”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쉽게 승낙하지 않으셨던 김장석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논의가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한국청동기학회 회장 **조진선**


기조강연 한국청동기시대 사회연구의 방향	011
제1발표 고대 중국 문명과 청동기	025
제2발표 신석기-청동기시대 사회발전단계 변화	055
제3발표 계층화의 관점에서 본 남한의 청동기시대 전기 사회 - 주거, 분묘, 청동기, 환구 -	079
제4발표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와 사회발전단계	105
제5발표 일본 야요이시대의 정치, 사회 변동	131
제6발표 장례습속으로 본 초기철기시대 사회의 발전단계 - 점토띠토기문화를 중심으로 -	157
제7발표 청동기~초기철기시대 무기 조합과 정치사회 발전단계	185



기조강연

한국청동기시대 사회연구의 방향

김장석
서울대학교



-
- I. 서론
 - II. 현재의 청동기시대 연구가 다시 생각해 볼 점들
 - III. 새로운 연구질문을 향하여
 - IV. 새 질문에 답하기 위한 조건: 결론을 대신하여
-

I. 서론

한국의 선사고고학에서 구석기시대나 신석기시대에 비해 청동기시대의 연구는 사회라는 어려운 연구대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보여왔다. 한국 청동기시대 사회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복합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가 수렵채집사회와 국가의 발생을 잇는 중간단계이므로 이 사회복합도의 증가에 대한 추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발생을 설명하는 틀을 제공해야 한다는 학계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물론 사회복합화라는 개념은 다음에 오는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의 연구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의 사회연구는 원삼국시대나 삼국시대의 사회연구와 차별적인 면을 보이는데, 그것은 원삼국시대나 삼국시대의 사회연구는 문헌자료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청동기시대 사회의 연구는 물질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청동기시대의 연구는 한편으로는 사회복합화라는 추상적이면서도 다면적인 개념을 주요연구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원론적 당위성과, 또 한편으로는 원삼국시대나 삼국시대와 같이 이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주는 문헌 대신 물질자료를 통해 이 연구를 진행

1) 본 발표문은 연구논문이 아니므로, 모든 참고 및 인용문헌을 생략한다.

해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발표자는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는 이와 같은 한국청동기시대 사회연구의 원론적 당위성과 현실적 어려움을 어떻게 연결시키기를 모색하지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발표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정답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봄으로써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에, 본 발표는 청동기시대 사회라는 커다란 화두의 전체를 다루기 보다는 한국청동기시대의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점 몇가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발표자가 생각하기에 한국청동기시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중요하지만 아직 연구자들의 관심을 덜 끌고 있는 연구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II. 현재의 청동기시대 연구가 다시 생각해 볼 점들

1. 사회연구는 사회성격과 종류의 판정과 같은 것인가?

한국청동기시대 사회연구를 자처하는 글들에는 문화인류학자인 엘만 서비스의 4단계론과 그 중 하나의 단계인 취프덤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으로 사용하든 부정적으로 사용하든 간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등장한다. 주지하듯, 서비스의 4단계론은 1980년대 최몽룡이 의해 한국고고학에 의해 도입되었다. 거의 40여년이 지난 지금 이 적용이 타당한 것이냐의 여부, 그리고 좀더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의 사단계론이 옳은 것이냐의 여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몽룡의 청동기시대 사회를 지식묘의 존재에 근거하여 취프덤으로 규정하였던 작업은 중요한 학사적 의미를 갖는데,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사회를 복원하려는 첫 시도였으며 청동기시대의 사회복합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몽룡에 의한 서비스의 4단계론 적용은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다른 여파를 갖는데, 그것은 이 연구가 이후 한국고고학계에 '사회연구'와 '발전/진화단계 또는 사회성격의 판정'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최몽룡이 청동기시대 사회를 지식묘 축조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이라는 특징에 근거해 취프덤으로 규정하면서 엘만 서비스가 제시한 취프덤의 다른 특징들(예를 들면, 재분배)도 존재하였다고 주장한 이래 이와 유사한 논리의 연구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 논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내가 알고 있는 단계론에 의하면 한 단계의 사회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보인다고 하니, 이 특징 중 몇몇을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찾는다면 그

시대는 어느 단계의 사회로 규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특징이 보이는 사회가 특정 단계에 해당하므로, 그 단계의 특징으로 제시된 다른 특징도 당연히 보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전개를 가진 주장들이 그 예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회의 성격에 대한 고고학적 입증이라는 목적하에, 특정 고고학적 양상과 그 사회의 특징으로 제시된 요소를 억지로 연결시키는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서비스나 단계론을 이용하느냐의 여부와 직접적 상관이 없다.

이러한 논리는 한 발전단계 또는 종류에 속하는 사회라 함은 서로간에 필수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는 여러 특징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만약 하나의 특징이 그 사회에서 발견된다면 그와 관련된 특징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즉, 하나의 특징이 전체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확대적용하면 다른 특징의 존재도 상정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 논리와 확대해석은 반드시 단계론의 경우뿐 아니라, 몇몇 개론서에서 사회를 구분한 틀을 적용할 때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청동기시대 사회연구는 발전단계나 종류의 판정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단계설정은 사회변동의 동인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사회 구분은 구분의 여러 기준 중 연구자가 자신의 주장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화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하는 개념적인 구분일 뿐이다. 사회변동의 주동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구분의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며, 구분된 각 단계 또는 사회는 고정된 실체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설정과 분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돕는 도구일 뿐이다. 고고학적 자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사회 및 단계분류체계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이니 이와 관련된 다른 특징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몇몇 개론서에 나와 있는 사회구분이나 단계구분은 개론서라는 글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단순화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적으로 구분한 것일 뿐이다. 이것을 단순적용하여 내가 연구대상으로 삼는 사회는 이 중 어떤 사회에 해당하므로,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식의 교조적 확대해석과 그에 따른 무논리는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인종, 문화, 종교, 정치 등을 모두 묶어 사회를 구분하고 특정사회를 발전단계의 한 부분으로 판정하려고 했던 19세기 사회다위니즘적 해석과 다를 바가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1960년대 북한역사학에서 벌어졌던 삼국시대 노예제-봉건제 논쟁의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 청동기시대 사회변동과 이주론

현재 한국청동기시대의 등장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외부로부터의 주민이주는 시대구분 및 문화

변동 설명에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동기시대의 시작, 송국리문화의 등장, 초기철기시대의 등장, 이후 철기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외부로부터의 이주는 청동기시대 거의 모든 분기설정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이주와 전파는 인간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항상 발생하였으며, 한국의 청동기시대에도 존재하였을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주/전파가 인간사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과 이주론/전파론은 엄연히 다르다. 이주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모든 문화변동의 요인을 이주의 결과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변동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가라는 연구질문은 그 자체로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 발표자가 한국청동기시대의 연구경향이 이주론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한국청동기시대에 이주가 없었거나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의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이유로 이주민의 존재를 미리 상정하고 그 기원지를 찾아 그곳에서 이주민이 왔으므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단정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고 있는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이주는 무주공산에 새로운 주민이 들어왔거나, 새로운 이주민이 재지민을 완전히 학살하였거나, 이주민의 기술과 무력이 재지민을 완전히 압도하여 재지문화는 이주민의 도착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 중 하나로 암암리에 간주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러한 극단적인 내용이 연구에 직접 언급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연구자가 이 중 어떤 것을 상정하든지 상관없이 이주민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원형의 문화를 남한지역에 이식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모든 문화변동을 주도하는 주인공은 항상 외부이주민이고 재지의 문화와 주민은 이 논의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 청동기시대의 등장은 돌대각목문토기 사용민의 남하이고, 송국리의 등장은 기원지는 모르지만 외부로부터 대규모 주민이 이주하여 한반도 남부지방에 정착한 결과이며, 초기철기시대의 등장은 고조선 유이민이 남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것이고, 청동기시대의 종말 역시 발달된 철기문화를 가진 집단이 북으로부터 남하한 결과이다. 즉, 적어도 한국청동기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변동시점을 바탕으로 분기가 설정되는 것은 사회 각 요소의 양적, 질적 변동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가 유지되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문화가 들어와 기존의 문화를 대체하고 이식된 결과로 보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주민이주 이후 어떤 일이 벌어져서 문화변동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외부로부터의 이주민이 신건설한 사회 내에서 자체적인 변화라고 하면 토기와 석기의 세부형태가 약간 변한다든지, 주거지의 장단비가 변화하는 정도이다.

이 논리를 청동기시대 사회복합화라는 개념과 연동시킨다면, 사회가 여러 요인에 의해 내부적으로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형지에서 좀 더 복잡한 사회를 유지했던 이주민이 그들의 사회를 남한지역에서 재현시킨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동기시대의 시작에서 원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사회변동 과정과 요인은 연구주제일 필요가 없다. 이주민의 존재가 곧 문화변동요인이기 때

문이다. 이주론은 위의 사회발단단계론 적용과 정면배치되고 상호모순되지만, 한국청동기시대 연구에서는 절묘하게 공존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이주에 입각한 분기설정은 한국고고학에서 사회의 연구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변동에 대한 매우 과감하되 단순한 연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3. 청동기시대 유형 설정

한국고고학에서 유형이라는 말은 000 문화, 000식 토기, 000 단계 등과 별 구분없이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였다.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유형이라는 개념이 고고학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박순발의 백제토기 연구부터이다. 박순발은 중부지역 삼국시대 제세력의 정치적 각축을 설명하기 위해 토기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유형을 설정한 후, 각각을 백제, 고구려, 예계집단 등과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삼국사기의 기록을 적극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토기 뿐 아니라 주거지, 분묘 등을 추가하여 이러한 일련의 양상이 조합을 이루어 나타날 때 이를 '유형'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지하듯, 삼국시대에는 삼국과 가야의 토기가 서로 간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별 무리없이 이용되고 있다.

박순발은 이후 이 개념을 청동기시대에 확대적용하여, 1999년 혼암리유형을, 2003년 미사리유형을 설정하였다. 청동기시대에서 그가 제안한 유형 개념의 내용 자체는 이전의 삼국시대토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질적인 문화전통을 지닌 집단'이지만, 실제의 용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가 설정한 혼암리유형과 미사리유형은 북쪽 어딘가에 있는 자료와 남한의 자료를 '집단'으로 동질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궁극적으로는 남한지역의 새로운 요소의 등장을 북으로부터의 집단 남하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자료상의 몇몇 특징을 바탕으로 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군의 유적, 유구 또는 일부요소를 집단과 연결시키면, 그 공간적 분포를 통해 이 유형을 만들었던 집단의 발상지를 지목할 수 있고 그들의 이주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도, 그는 혼암리유형을 설정하여 이 유형이 어디에서 최초로 형성되었고 어떤 루트를 통해 남한에 확산되었는지, 미사리유형의 설정을 통해 어디에서 이들이 처음 발생하여 한반도에 도래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결국 유형의 설정과 이주론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동전의 양면이다.

국내외 학계의 많은 연구에서 이미 지적되었듯, 물질문화의 특정요소를 인간집단과 직결시키는 것은 실증적으로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유형의 설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의 연구와 상관없는 듯해도, 실제로는 위에 말한 주민이주와 분기설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자체로 (극단적인) 사회적 해석이다. 문화의 제요소가 공간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을 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후보 중 하나로 집단이 상정될 수는 있어도, 인간집단을 추출하기 위해 특정요소를 집단의 지표로 간주 및 단정하

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 대한 모든 면이 알려져 있을 때나 가능한 작업인데, 이 작업을 과감히 해내기 때문이다. 이른바 연구방법으로서의 유형론 이용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청동기시대의 연구에서 일부 특징적 자료를 뽑아내어 유형을 설정하는 경향은 유행처럼 번져나가게 되었는데, 연구자마다 경쟁적으로 유형을 설정 및 명명하여 이제는 청동기시대에 몇 개의 유형이 있는지 세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세밀한 연구라는 명목하에 유형을 세분하고 신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소의 조합이 아니라 한가지 특징의 세밀한 차이를 바탕으로 집단이 설정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한 유적에서도 유구마다 서로 다른 유형이 설정되기도 한다.

문헌사료를 통해 집단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삼국시대의 연구에서 유형의 설정이 연구에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마저 유형설정을 통해 실제 구분한 것은 백제토기와 고구려토기의 구분이었을 뿐이며, 중도유형은 최근 발굴의 증가로 그리 선명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집단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는 한국청동기시대에서 집단과 물질문화의 직결은 오히려 역사시대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한국청동기시대에서의 유형 설정과 그 실제적 이용은 극단적 이주론의 적용을 용이하게 만드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집단으로서의 유형이 설정되는 순간, 그 유형을 구분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모사, 차용, 모방과 같은 메커니즘은 자체적으로 배제된다. 한 요소의 공간적 분포는 그 유형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분포와 동일시되고 있다. 여러 문화요소들의 공간적 분포를 연구하는 것은 고고학적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유형이라는 명칭 하에 인간의 분포 및 이동경로와 동일시하는 접근법은 1900년대 초반 독일 고고학자 코시나의 접근법이나 이른바 유사역사학의 접근법과 아무런 차별성도 갖고 있지 않다.

4. 새로운 질문의 부재

한국의 청동기시대는 농경사회의 시작, 사회복합화의 진전 등과 같은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던 시기로서, 위에서 언급하였듯, 이 시기 연구자의 상당수가 '사회'라고 하는 화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관심은 원론적일 뿐, 사회발전단계를 판정하고 그 특징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는 이주론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분기를 설정할 수 있을만큼 가시성이 높은 문화변동의 경우에도 외부로부터의 이주민 도래가 자동적으로 그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유형의 설정 역시 이 극단적 이주론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는 표지적인 유물이나 형식을 통해 유형을 설정하여 그것을 집단을 추정하여 기원지를 찾고, 단계를 세분하여 그들의 도래시기를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선사고고학의 유일한 방법론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학계에 새로이 등장하는 신진연구자들의 연구도 (불가피하거나 의식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선학이 설정한 유형이나 단계를 세분하거나, 이주민의 기원지를 더 정밀하게 지목하려는 시도가 주를 이룬다. 결국 연구질문 자체가 수십년간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시도도 다수 있지만, 이런 시도들은 현재의 연구경향 하에서는 주목을 끌지 못하거나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자료에 대한 세밀한 천착 또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학술지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그런데 심사자가 탈락이유로 말하는 '자료에 대한 천착과 이해'이란 사회와 별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일부 유물의 세부적 변형이 고려되지 않거나, 북쪽 어딘가에 있는 자료와 연결시키지 않았거나, 기존학계에서 전통적으로 잘 시도되지 않아 심사자에게 생경한 새로운 방법 또는 접근법을 이용하거나, 더욱 중요하게는 이 연구가 자신의 선행연구와 배치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것은 청동기학계 뿐 아니라 한국고고학계 전반에 만연한 경향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 상황 하에서 새로운 연구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이나 접근법을 채택하기 보다는 전통적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식이 학계전반은 물론 신진연구자들에게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III. 새로운 연구질문을 향하여

결국 새로운 질문이 던져지지 않는 이상, 새로운 접근법은 개발되기 어렵고, 기존의 시각이 가지는 편견적 전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로운 질문이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자료와 현상은 이미 주어져 있되 이 자료에 대해 기존의 연구가 잘 답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던져지지 않은 질문들은 많다. 여기에서는 발표자가 생각하기에 한국 청동기시대 사회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아직 학계에서 다른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진 연구 질문 또는 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물론 아래 질문의 일부는 현상황에서 즉답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럼에도, 또 다른 일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들로써, 향후의 연구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한국 전기청동기시대의 사회

한국청동기시대는 한국에서 농경이 주된 생계경제방식으로 채택된 첫번째 시점이다. 누구나 인정하듯, 농경사회의 성립은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발표자는 왜 신석기시대 수렵체

집경제가 폐기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논쟁도 있어 왔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하고자 문제는 어떻게 청동기시대가 남한지역에 시작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새로이 시작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고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겪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청동기시대의 최초 토기가 어떤 것이고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에만 과도한 초점을 둔 나머지,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표자 역시 청동기시대 가장 이른 토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지만, 이것과 그에 대한 반론이 타당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최근 20여년간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에 대한 연구는 이 골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학계의 현황은 시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시작 이후 어떤 일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 질문조차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근대사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이 시기 연구는 미국사에서 미국에 처음 등장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보스턴에 온 사람들인지 아닌지와 같은 문제에 집착해 왔던 것이다. 학문적으로 볼 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미국에 새로 정착한 사람들이 왜 보스턴 티파티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경제적 상황과 수요로 인해 노예수입에 열중하였는지, 왜 그리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했는지, 영국, 독일, 프랑스, 북유럽 등 다양한 기원을 갖는 민족들이 어떻게 정치/경제적으로 타협 또는 경쟁하였는지, 당시로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통령제와 같은 새로운 정치제도를 고안했는지 등일 것이다. 메이플라워호에 누가 타고 있었고 언제 어디에 입항했는지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사학자들은 없을 것이다. 혹자는 이 시기의 편년문제가 완결되어야 이러한 학문적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발표자가 보기에 이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원론적으로만 말하자면 편년의 세밀화는 당시에 대해 세밀한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세밀한 편년작업은 세밀한 사회상을 그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남한지역의 농경사회에는 전기청동기시대의 후반부 어느 시점에 들어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몇몇 연구에서 석기와 분묘의 양상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으며, 주거지와 취락에도 변화가 보이는 것 같다. 좀더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겠지만, 경기와 강원의 일부지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는 경향이 발견되며, 토기구연부 문양의 다양성이 점차 감소한다. 물론 이들 대규모 취락은 이전의 점유가 없었던 곳에 새로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점유되었던 취락 중 일부가 대형화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주변유적과 규모상으로 차별을 이루는 취락의 등장은 이전 시기에 비해 대규모 취락에 사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시기 들어 사회적, 어쩌면 경제적으로 무언가 변동이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즉, 그렇다면, 남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이전 시기의 농경사회와는 다른 사회관계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대규모취락을 선별하여 ‘중심지’ 또는 ‘상위취락’으로 단순규정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규모 취락들이 왜 형성되었는지, 여기에 개입된 요인은 어떤 것인지 등과 같은 질문이 던져질 필요가 있다.

2. 송국리단계의 남과 북

송국리단계 들어 사회복합화가 큰 진전을 이루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합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두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²⁾ 이에 반해, 고고학적으로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송국리단계의 사회복합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은 송국리분포권과 비분포권의 매우 선명한 경계이다. 최근 송국리식 집자리가 경기남부는 물론 강원지역에서도 발견되지만, 남쪽의 송국리분포권과 북의 공렬토기 분포권의 경계는 매우 뚜렷하다. 전통적으로 경기와 강원의 공렬토기문화는 남쪽의 송국리에 비해 덜 주목을 받아왔는데, 여기에는 공렬토기는 이른 것, 송국리식토기는 늦은 것이라는 단절적 편년관이 개입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간 10여년간의 연구로 공렬토기 유적의 상당수가 남쪽의 송국리단계 유적과 동시기임이 규명되었고, 특히 최근 중도유적의 발굴로 인해 공렬토기분포권의 사회복합화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분포상의 경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 정황상 송국리분포권에서 수도작이, 공렬토기분포권에서는 전작이 주된 생산방식이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식량생산방식의 차이로만 이 경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양 지역의 교류나 상호작용은 있었는가, 양 지역은 갈등관계였는가, 교류가 있었는가 등의 질문이 추가적으로 던져질 필요가 있다. 물론, 질문의 첫 단계부터 두 분포권 경계의 전반적 성격에 대해 답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해석의 차원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질문과 관련한 연구의 우선적인 절차는 양지역에 대한 비교 검토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가 허용하는 한 최고의 시간적 해상도로 양지역 자료의 동시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달성하는가도 질문으로 유효할 것이다. 어찌됐든, 중기청동기시대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경계의 의미는 반드시 본격적인 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발표자 역시 송국리 단계 저장시설의 외부화, 그리고 저장전문유적의 존재를 통해 당시의 권력의 재원조달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그 글에서는 송국리유적을 주변으로부터 식량조달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소비전문유적으로 본 바 있지만, 송국리유적의 발굴이 계속되면서 송국리유적에서도 저장시설이 많이 존재함이 알려졌다. 그럼에도 필자의 공유재의 형성 및 전용을 통한 권력재원조달 메커니즘과 그로 인한 사회복합화과정은 지금의 자료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농업생산물이 주거지 외부에 저장되었다는 사실이 결국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다만, 송국리 유적 내 자체적 저장시설의 존재는 송국리 주변의 저장전문유적의 존재와 더불어 송국리의 잉여축적이 필자의 생각보다 더 큰 규모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아직 해석이 더 필요하지만, 송국리유적에서 제의 또는 공공적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유구의 존재가 추정되는 등, 송국리 유적은 필자가 당시 상정하였던 소비전문유적을 넘어서는 수준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3. 송국리단계-초기철기시대 전환과 원형점토대토기사회

세형동검과 점토대토기의 기원지로 중국동북지방이 지목된 1990년대 이래, 이 시기의 연구는 주로 고조선과의 관련성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조선이 한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받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경향이 이해는 되지만, 여기에 연구가 집중되면서 정작 남한지역의 점토대토기시대가 어떤 사회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 또한, 화려한 부장품을 자랑하는 분묘에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다른 부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만약 원형점토대토기 제작자들이 중국동북지방으로부터의 이주민이었다면, 이들과 재지민의 관계는 어떠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시기 사회는 어떤 것이었나? 사실, 분묘자료를 바탕으로 세형동검과 원형점토대토기를 항상 세트를 이루는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였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에 대한 답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다. 연의 침공으로 인해 고조선 유이민이 일거에 남한지역으로 유입되었고, 발달된 청동제작기술을 가졌던 이들이 손쉽게 남한지역을 접수한 것처럼 묘사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원형점토대토기와 공렬토기나 송국리토기와 같은 재지토기가 한 유구에서 공존하는 예가 상당수 알려지고, 그 연대 역시 기존의 세형동검 유입연대보다 상당히 일렀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복잡해지게 되었다. 연의 침공이라는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원형점토대토기의 등장이 일종의 정복민 도래처럼 그려지던 것과는 달리, 원형점토대토기 단 순취락의 발견이 매우 부진하고 세형동검 관련 분묘의 집중 분포권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된다는 점, 그리고 분묘유적을 제외하고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수혈이나 구 등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점은 기존의 생각들에 의거할 때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만약 초기철기시대를 원형점토대토기가 주를 이루던 시기로 설정한다면, 분묘는 많되 취락은 없는 시기가 된다. 물론 원형점토대토기를 사용하던 집단이 고상가옥에 거주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은 입증불가능한 가능성일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가설적 견해들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천착보다는 대체로 두 집단이 갈등관계였을 것이라든지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추정만 간단히 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발표자 역시 재지 송국리집단의 권력층이 청동기제작기술을 가진 일부 유이민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지만, 이 역시 정황적인 추론에 불과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심지어 세형동검을 마한 성장의 초기적인 양상으로 보기도 할 만큼 분묘에서 세형동검과 원형점토대토기의 양상은 중요하지만, 이 시기 사회상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다. 고조선과 남한지역의 관계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남한의 초기철기시대가 어떤 사회였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고조선과 남한지역의 관계라는 연구주제 역시

피상적인 추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점토대토기의 분묘는 많고 밀집되어 있는데, 취락은 보이지 않는가 이다. 누가 분묘에 묻혔고, 왜 그리도 화려한 청동기를 부장했는가? 단지 내세에 대한 믿음 때문인가? 이들은 누구에게 군림했는가? 북쪽 어딘가에 살고 있던 고조선 또는 위만조선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무덤만 짓고 돌아갔는가? 왜 점토대토기는 잘 안보이는가? 진짜 이 시기 남한지역을 점유, 지배했던 사람들이 맞는가? 이 문제는 단지 세밀한 편년을 하거나, 청동기가 중국동북 어디에서 왔는가만을 논할 때, 그리고 점토대토기집단의 도래만으로 이 시기를 단정할 때, 이 시기 연구대상을 분묘와 그 부장품으로만 한정해 버릴 때, 결코 풀릴 수 없는 문제이다.

남한지역 초기철기시대의 사회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후대의 원삼국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은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물론, 호서와 호남의 여러 분묘유적에서 청동기와 철기가 공반되는 사례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이것을 철기의 본격적인 생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원삼국시대를 본격적 철기 사용과 각지에서 삼한으로 통칭되듯 여러 정치체가 발호하는 단계로 본다면, 왜 이러한 양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한지역의 초기철기시대의 사회에 대한 위의 질문은 좀더 본격적으로 던져질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청동기시대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중요한 질문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 위의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잘 간취하고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한지에 대한 질문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어찌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이 당연히 해결된 것으로 보아 왔거나, 연구주제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왔거나, 결코 알 수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을 수도 있다.

IV. 새 질문에 답하기 위한 조건: 결론을 대신하여

고고학 자료를 통해 과거의 사회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 거창한 사회이론이 동원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고고학자료 일부를 확대해석하여 사회현상과 사회성격을 단정하거나, 논리비약에 비약을 반복하여 뜬구름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회연구로 오해되어서도 안된다.

발표자가 보기에 사회연구란 대체로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자료의 현상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나, 고고학적인 양상이 특정 시공간에서 변화하였을 때 왜 이런 변화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첫 단계일 것인데, 항상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학들이 고수했던 것과 다른 시각에서 보거나 전통적 접근법이 가지고 있던 전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지, 혹시나 편견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 단계로는 자료가 허용하는 한에서 내가 던진 질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와 변수를 엮어 적절한 방법과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답변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사회연구라고 본다.

이 답변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국학자들의 주장이나 이론이 동원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던진 질문을 답함에 외국이나 다른 학문의 이론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하거나 무지해서는 안된다. 내가 부지불식 간에 가지고 있거나 전통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접근법의 오래된 편견이나 단순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이들의 연구성과를 오해, 오독, 호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새로운 시각과 이론 및 다른 학문의 연구성과를 필요에 의해 이용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관심자체가 없어서 못 이용하거나, 이걸 고고학이 아니라는 핑계로 아예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문제이다.

만약 특정 시각이나 이론을 이용한다면 그것이 가지는 논리와 의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강점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모든 이론이나 시각은 각각 고유한 질문과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론이나 시각마다 강점과 한계는 다양하다. 이 점을 오해한 채 특정 이론을 맹신하면, 그 이론이 제공하는 편견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 하나의 이론이 유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질문에 완벽한 답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떤 외국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으니, 또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했으니, 이것이 항상 옳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형태의 단순 맹신이다. 또한, 한 주장 또는 이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논리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맥락에도 맞지 않은 일부만을 발췌하여 그 글의 결론이 그런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자신의 연구에 단순대입하는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무지와 회피, 그리고 맹신은 적어도 고고학에 있어서는 동일한 결과물을 생산한다.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련함에 있어 이론을 현명하게 '이용'해야지, 있는 그대로 '대입'하여서는 안된다.

청동기시대 사회연구가 풍부해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루는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양적으로만 볼 때 한국청동기시대의 자료는 세계 어느지역과 비교해도 훨씬 풍부하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수십년전이나 지금이나 그리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 청동기시대의 연구가 채택하는 방법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에 기인한다.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높아질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설명의 질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수많은 형사들이 달라붙어 전통적 수사기법으로 2만명을 탐문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한 연쇄살인사건의 해결에 DNA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최근의 뉴스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1발표

고대 중국 문명과 청동기

이성원
전남대학교

- I. 다원적인 신석기 문명의 발전
- II. 다원적인 신석기 문명의 발전
- III. 祭祀공동체와 청동 禮器
- IV. 軍事공동체와 폭력
- V. 사라진 문명의 靑銅像, 三星堆와 蜀
- VI. 禮樂의 정립과 樂器의 향연

I. 다원적인 신석기 문명의 발전

1920~30년대에 河北지역의 周口店유적, 河南지역의 仰韶文化, 山東지역의 龍山文化 등의 발견으로 화북 지역 선사문명의 실체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그리고 이어진 國共內戰 등으로 한동안 본격적인 고고발굴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1949년 사회주의 신정부 수립 이후 지난 70년간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지하에 잠들어 있던 찬란한 선사 문명이 다시금 빛을 보게 되었다. 우선 황하유역만 하더라도 다양한 신석기문명이 집중적이며 누층적으로 발전했음이 밝혀졌다. 우선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5천 년 경의 仰韶문화기를 훨씬 상회하는 기원전 7천 년을 전후한 磁山文化和 裴李岡문화가 황하의 상류와 중류지역에 걸쳐 발굴되었는데, 초기 耨田農耕의 흔적과 문자이전 단계의 圖像符號[token]들, 그리고 다채로운 彩色토기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특히 하남성 賈湖유적에서 발견된 裴李岡문화기의 정교한 骨笛은 중국음악사에 새로운 전기를 제시해주었다. 공간적으로도 황하 상류, 중류, 하류에 걸쳐 광범하게 앙소문화가 분포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섬서형의 大地灣 仰韶, 馬家窯文化, 仰韶 半坡문화에서 하남형의 仰韶 廟底溝문화가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둥지방에서도 龍山문화기에 선행하는 신석기문명이 발견되었는데, 仰韶문

황기와 비슷한 시기의 北辛문화에 이어 大汶口문화의 발견은 중국 선사문명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황하유역의 선사문화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유명한 쟁점이 초기 앙소문화에서 출토된 彩色 토기의 문제이다. 근대적 고고발굴에 일조했던 1920년대에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학계에 일조했던 일군의 서양학자들 가운데, 스웨덴의 지리학자이자 고고학자였던 안데르손(Johan G. Andersson)은 특히 仰韶 유적지 발굴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일원론적인 문명전과설이 풍미하던 당시 학계에서 앙소유적에서 출토된 대량의 彩陶들은 서구인이었던 안데르손의 시각에서는 어디까지나 근동지방 토기의 아류로 보였다. 심지어 갑골문도 메소포타미아의 설형문자의 영향으로 보았던 서구학자들은 동아시아 선사문명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지중해와 근동지방이 아프리카-유라시아 대륙 문명의 중심이자 보편적인 것이었으며, 문명은 그 중심으로부터 주변부와 대륙의 변방으로 시간적인 차이를 보이며 단선적으로 전파되었다고 보았다. 그런 관점에서 동아시아는 문명의 변두리에 불과했으며, 서방으로부터 전래된 선사문명을 변용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입론이 오랫동안 통용되었던 것은 앙소문화의 채도가 근동의 채도와 매우 흡사했던 점도 한 요인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중국 학계도 이러한 시각에 반박할 새로운 담론이나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 문제는 사회주의 신정부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일원론적인 문명전과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검증이 요구되었다. 즉 황하중류 유역에서 보다 서쪽으로 갈수록 앞선 시기의 채도가 발견되거나, 또는 하남지역보다 동쪽으로 갈수록 후대의 채도가 계통적으로 출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만에 걸쳐 황하유역의 광범한 지역에서 통시적으로 발견된 다양한 채도는 기존의 학설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었다. 서방



〈그림 1〉 다원적인 신석기 문명

에서 일방적으로 전래되었다고 보기에는 황하유역 채도의 연대가 기원전 6~5천년 경까지 소급되었으며, 계통적으로 전래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다원적이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산둥지역 大汶口지역에서 출토된 채도들로서 이 가운데에는 앙소문화 하한연대보다 앞선 시대의 채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남지역 앙소문화보다 후

대에 속하면서도 서쪽 甘肅지방에서 발견된 기원전 5천년 경의 馬家窯문화나 기원전 2천5백년 이후에 해당하는 齊家문화 등에서도 채도가 출토되어, 채도를 통한 단선적인 계보는 이제 성립하기 어렵게 되었다. 비단 채도만이 아니라 여러 유물의 양상에서 복잡하고 다원적인 선사문명이 누층적으로 발전했음이 오늘날 학계의 결론이다.

앙소문화기를 지나 황하유역의 중심문화로 자리잡은 것은 龍山문화기이다. 기원전 2천 5백년 경에서 약 천여 년 동안 풍미했던 용산문화는 초기에는 산둥지방을 중심으로 발굴되었지만 이후 하남형과 섬서형의 용산문화,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山西 襄汾의 陶寺유적의 발견으로 산서용산문화로까지 불리는 광범한 용산문화권이 신석기 말기 황하유역의 주류문화로 발전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용산문화기는 바야흐로 선사에서 역사,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문명, 그리고 곧 초기 국가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기였다.¹⁾

신석기 문명의 다원성은 비단 황하 유역과 중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즉 遼河 주변지역, 長江 상류, 중류, 하류 지역, 장강 이남의 화남 비역, 몽골의 초원지역에 걸친 다원적인 선사유적이 발굴됨으로써 중국 선사문명의 다원성이 입증되었다. (표 참조)

〈표〉 중국 주요 신석기문명의 분포

	上流	中流	下流
北方草原·東北地區			昂昂溪文化(5-4) 紅山文化(3.5-2.5) 夏家店下層文化(2.5-1)
黃河流域	大地灣제1기(5.5-4.5) 大地灣仰韶文化(5-4) 馬家窯文化(3.5-2.5) 齊家文化(2.2-1)	磁山文化·新鄭裴李岡(6-5) 仰韶半坡類型文化(5.5-4) 仰韶廟底溝文化(4.5-3.5) 河南·陝西龍山文化(2.5-1.5) 二里豆文化(1.8-1) 二里岡(殷中1.5-1)	北辛文化(5.5-4) 大汶口文化(4.5-2.3) 山東龍山文化(2.5-1.3) 殷中·後期(1.5-1)
長江流域	彭頭山(7.5-6) 三星堆(1.5-1)	萬年縣仙人洞(8-6) 大溪文化(4.5-3) 屈家嶺文化(3.5-2.5) 盤龍城(殷中1.5-1)	河姆渡文化(5.5-4.5) 馬家浜文化(4.5-3) 良渚文化(3-1.5)
華南地區		石峽文化(2.5-1.5)	

1) 이상 중국 황하유역의 先史문명은 李成珪, 1989, 〈中國文明的 起源과 形成〉(서울대학교東洋史學研究室編, 《講座中國史》1, 지식산업사) 참조.; 拙稿, 2010, 〈대하천문명의 새로운 모색〉(김동수 외, 《역사에서의 물과 문화》, 엔터).

그 가운데 지난 1973년에 발굴된 기원전 5천 년 경으로 추정되는 長江하류유역의 河母渡文化는 非中原文化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주목받았다. 적어도 현재까지 동아시아 水稻作문화의 기원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하모도문화는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선진적인 수도작 농경문화를 전파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연중 온난하고 강우량이 풍부한 이 지역의 기후조건은 쌀농사가 발전하기 적합하였으며, 이 수도작 문화는 이후 중위도지방의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²⁾

기원전 3천 여 년으로 소급되는 장강하류의 良渚문화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화북지역의 고고유적을 통해 고대 동아시아인들이 玉을 숭상했음은 알려져 왔으나 양저문화에서 출토된 대규모 玉器들은 그 규모나 형태에서 이례적이었다. 이들은 新政정치를 운용했으며 그들이 숭배하는 神들에게 대량의 玉器를 봉헌하고 때로는 그 神像을 玉器에 표현했음이 밝혀졌다. 이 밖에도 장강상류의 大溪문화, 중류지역의 馬家浜문화 등도 발굴됨으로써 장강이 고대 선사문명의 또 하나의 축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다원적인 신석기문명은 황하와 장강 유역만이 아니라 洛河, 渭水, 蘭滄江, 珠江, 淮河, 遼河 등 여러 대하천과 그 지류의 유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공존하고 발전했음이 밝혀졌다. 비유하자면 신석기 선사문명은 문명이라는 長途의 마라톤에서 여러 선수들이 일군을 이루고 고만 고만 비슷하게 무리지어 출발하는 스타트라인에 비유할 수 있다. 출발 즈음에는 비슷하게 무리지어 출발했지만 초반을 넘어서면서 여러 문명들이 일순 그룹핑을 이루어 선두, 중반, 후진 그룹으로 나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중반을 넘어서자 소수의 선두그룹이 약진하며 후진그룹과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그 가운데에는 낙오되어 탈락한 선수들도 속출했을 것인데, 그들은 일종의 사라진 문명[Lost Civilization]들이었다. 선수 개인들의 선천적인 역량, 후천적인 노력과 연습, 당일의 컨디션, 혹은 레이스 전략 등 마라톤에서 이들이 그룹핑을 이루고 분화하게 된 요인들은 다양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히 황하유역에서 출현하여 발전한 夏·商·周 초기국가들은 중국 전 대륙에 걸쳐 무리지어 출발했던 다원적인 신석기 선사문명 중에서 단연 선두권을 형성하게 된 역사체였다. 이들 초기왕조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진문명에 진입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결과론적일 수 있지만 필자가 착목한 결정적 요인은 청동기와 문자이다.

2) 고대 일본문명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고대 長江문명에 대해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를 진행했는데 《日中文化研究-特輯 長江文明》第7號(勉誠社, 1995)와 《日中文化研究-特輯 長江文明 II》第10號(勉誠社, 1996)가 대표적이다. 특히 早稻大學 長江流域文化研究所는 장기간에 걸친 長江研究 성과를 모아 2002년 이후 매년 研究集인 《長江流域文化研究所年報》를 출간했다.

II. 석기에서 청동기로의 전환

1928년부터 중국 河南省 安陽縣 小屯村에서 전개된 고고발굴은 중국에서 진행된 근대적 고고 발굴의 위대한 서막이자 신화로 점철된 상고사를 실증사학으로 입증하는 대전환의 계기였다. 결론적으로 이 유적은 고대 商왕조의 후기 수도였던 殷墟유적으로 성곽과 대형 왕묘, 그리고 건축유지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유적에서는 다량의 청동기와 현재까지 약 15만 片의 갑골이 출토되었다. 그렇다면 이 집트 나일강 유역,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유역, 그리고 인더스 강 유역의 문명과 더불어 황하 지류인 洹河 유역의 이 유적이 인류의 4대 문명의 한 축으로 평가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물론 계절적 변화가 뚜렷한 북반구 중위도 20°~40°에 분포된 온대 환경, 풍부한 水源에 기반한 대하천 유역의 생태학적 조건, 인구의 집중과 그에 수반한 노동집약적 수리 농경의 발전, 그리고 도시(국가)의 형성 등³⁾ 다양한 요인을 찾을 수 있지만 ‘先史’문명이나 ‘新石器’문명과 확연히 구분된 이들 지역의 방대한 ‘文字’의 활용과 ‘靑銅器’로 대표되는 정교한 금속문명은 여타 요인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인다. 특히 본고에서는 중국 문명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과 청동기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석기에서 청동기로의 전환이 갖는 문명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청동 농기구 사용을 통한 생산의 비약적 증가, 청동 무기의 활용을 통한 전쟁에서의 압도적 우위 등 주로 기술 문명의 명백한 ‘진화’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청동 문명의 진입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각 문명권마다 여전히 차이점을 보이며 논란도 분분하다.⁴⁾ 초기 금속문명의 맹아기로부터 현대의 소위 ‘Dr. Copper’의 시대까지 구리와 몇몇 광석이 융합하여 만들어진 청동기는 분명 장기간 인류 문명과 함께 한 기술문명의 총아였으며 단순히 소재의 전환 이상의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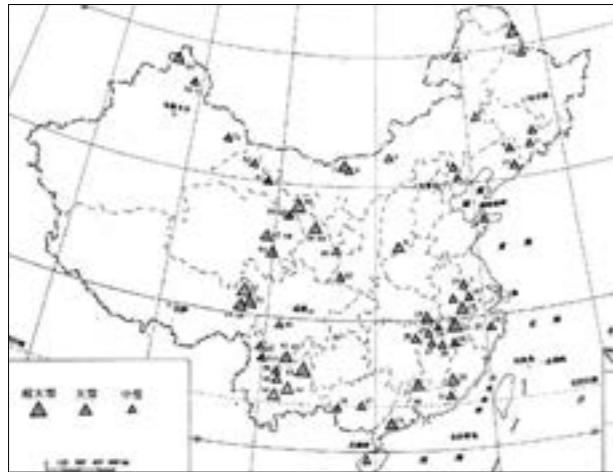
고대 여러 문명이 전하는 청동기와 철기에 대한 표상을 수집하고 분석한 엘리아데(M. Eliade)의 매력적 시도를 요약하면 금속은 곧 인간이 범접하지 못하던 ‘神의 창조물’이었고 때문에 ‘聖스러운 것’이었다.⁵⁾ 그리스인들에게는 헤파이스토스의 전유물이 인간에게 전수된 것이었고, 북유럽에서는 하늘의 토르 신을 통해 雷雨와 해머로 부식된 것이었다. 또한 많은 문명에서 고대인들은 하늘의 별과 운석이 인간 세상의 땅 깊은 곳으로 떨어져 大地母의 자궁 속에서 ‘정제되고 성숙된 것’이 금속으로 인식되었고 그 완성체는 ‘황금’이었다. 때문에 그 정결하고 성스러운 것이 미처 다 완성되기 전에 함부로 땅

3) Clayton, Peter A. Dent, John, 1973, The Ancient River Civilization, Elsevier.; 拙稿, 2010, 《대하천문명의 새로운 모색》.

4) 석기에서 금속문명으로의 진입에 대한 고전적인, 그래서 상식이 되어버린 해석으로는 V. Gordon Childe, B.Lit, 1930, The Bronze Age,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참고. 본서는 유럽, 지중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광범한 사례를 통해 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의 진입을 조감했다.

5) Mircea Eliade, 1962, The Forge and the Crucible, Flammarion(불어 원본 Forgerons et alchimistes는 1956년 출간. 이재실 역, 1999,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문학동네)

에서 채굴돼도 안 되지만 채굴된 금속을 또 아무나 소유하고 다룰 수도 없는 것이었다. 금속을 다룰 수 있는 자는 반드시 淨化의식을 거쳐 神命을 받은 선택된 자이므로 때론 비범함이 분식된 불구자인 경우도 있었다.⁶⁾ 즉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발견과 발명을 통해 진화시킨 금속에서 신화적 분식을 배제하더라도 금속은 태생적으로 소수의 권력자에게만 허용된 지극히 배타적인 물질이었다.



〈그림 2〉 중국 주요 銅鑛의 분포도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銀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구리[銅]는 인간의 기술 문명에 가장 일찍이,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된 금속이었다. 초기에는 노출된 銅鑛石이 돌의 일종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는 대부분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溶解되지 않은 동광석의 활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청동기시대의 진입이라고 보기 어렵다.⁷⁾ 교역이 원활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동광석 자체도 동광이 분포된 지역에서나 확보할 수 있는 물질이었다. 청동기의 제작은 영역 내의 동광의 확보 혹은 제련된 동의 안정된 공급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가령 중국 하남성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城邑 국가 商의 경우 邑內와 주변에 동광의 자원이 풍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상나라는 대량의 청동기 제작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때문에 동광이 분포된 주변 方國으로부터 교역이나 조공의 형식으로 구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했는데 결국은 봉건 제후들은 물론 호혜적이거나 때론 대립적인 方國과의 정치외교 관계가 관건이었다. 필요한 경우 적대적인 方國과의 전쟁을 통한 약탈도 한 방법이었다. 상나라 말기 군주인 帝辛[紂王]이 제위 기간동안 빈번하게 淮河지역으로 遠征을 감행했던 목적이 그 지역의 풍부한 동광석 확보를 위한 군사적 시위였다는 주장은⁸⁾ 그런 점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연적인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노동력의 문제였다. 어렵게 동광석을 채굴하였다 해도 100kg의 원석에서 추출 가능한 구리는 약 1~2kg 정도에 불과하였다. 가령 商朝에서 100kg 가량의 청동 鼎 하나를 제작한다고 가정하면 약 10,000kg 즉 10ton 분량의 원석을 채취해야 가능한 것이었

6) 이러한 이형자나 불구자에 관한 인류학적 관점에 대해서는 松田 修, 1994, 《異形者の力》, 靑玄社. 참고. 그리스신화의 금속을 주재하는 헤파이스토스가 절름발이 불구자로 설정된 것도 그러한 전통의 소산으로 보인다.

7) V. Gordon Childe, B.Litt, 1930.

8) 島邦男, 1958, 《殷墟卜辭研究》, 中國學研究會.

다. 뿐만 아니라 청동기의 주물인 陶范의 주재료인 황토도 內范과 外范을 포함하여 청동의 5배 가량의 분량이 필요하였다. 제련된 구리와 주석 등을 1,100℃ 이상의 열에너지로 녹이고 陶范을 굽기 위해서는 다시 대량의 木炭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청동기의 제작은 방대한 노동력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었다. 1939년 안양에서 출토된 상대 후기 청동기 后母戊方鼎의 경우 높이가 133cm, 무게는 834kg에 달했으니⁹⁾ 이 거대한 청동기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었을지 능히 짐작이 간다.



〈그림 3〉 后母戊方鼎 (商, 中國國家博物館)

그렇다고 모든 이에게 노동의 기회가 부여된 것도 아니었다. 고대 청동기의 제작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가장 전형적 집단은 '여성'이었다.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문명에서 冶金의 과정에 여성의 접근은 禁忌되었다.¹⁰⁾ 성문법이 보편화되기 전 오랫동안 규범으로 관철된 금기[taboo]는 각 문명의 축적된 관습과 지혜이자 권력을 둘러싼 정치활동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정치·경제·군사의 중심이 되는 청동기나 금속에서 여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진행된 남녀의 역할과 위상의 분화를 더욱 가속화시켰을 것임은 자명하다.

노동력 못지않게 중요한 직능은 전문적 匠人の 기술력이었다. 동광석에서 구리와 기타 성분을 분리하는 選鑛의 과정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데 오늘날에 보편적인 전기분해법이나 발포제를 활용한 浮游選鑛法은 만무하고 각 성분의 녹는점을 활용한 용해의 방법이 고대의 선광법이었기에 초기 청동 제련은 火工에 가까웠다. 구리는 탁월한 展성과 延성을 지니고 있어 액화되었을 때 주조법과 연마법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외형의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禮器의 경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무기의 경우 실제 硬化된 이후 예리하지만 銅의 내구성만 못하여 석기 무기를 압도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초기 장인들은 구리의 전연성을 유지하면서도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역시 전연성이 뛰어난 朱錫을 첨가하여 용해시킨 합금, 즉 靑銅[bronze]을 만들어냈

9) 嚴志斌, 洪梅, 2008, 《殷墟靑銅器: 靑銅時代的中國文明》, 上海大學出版社.

10) James G. Frazer, 1890, The Golden Bough, Macmillan and Co. 실제 중국의 경우도 고대 야금과 관련 여성의 참여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는 전무하며 여성은 제사와 전쟁에서 배제되었다. 다만 상왕 武丁의 王后 무덤으로 추정되는 殷墟 婦好墓의 묘주가 정말 여성이라면 그녀가 청동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¹¹⁾ 이 과정은 자연물에 물리적 변형을 가하는 석기의 단계를 넘어 고온의 열에너지와 복합 소재의 화학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물질을 창조한 획기적인 전환이었으며 소재의 영역에서 인간이 신에게 도전한 최초의 사례였다. 초기에 주로 제작되었던 禮器의 경우 주석의 비율은 상대 중기까지는 10% 미만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지만, 상대 중기에는 아연의 함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10% 내외를 보이기도 하였다. 상말에서 서주 초기에 이르면 주석의 함량이 15% 정도까지 증가하였다. 악기와 무기의 경우는 초기부터 강도를 높이기 위해 주석의 비율이 15%에 육박하였고, 전쟁이 빈번하였던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면 주석의 함량이 30%를 넘는 무기도 제작되었다. 이러한 성분의 변화를 시도하고 조율한 것도 초기 장인들의 몫이었다.



〈그림 4〉 찬란한 청동 문양들
(商, 上海歷史博物館)



〈그림 5〉 失蠟法으로 제작된 曾侯乙墓 盤尊
(戰國, 湖北省博物館)

청동 예기는 기능과 성격에 부합하는 형태로 디자인되었고 그 표면에는 饗饗, 龍, 鳳凰, 각종 獸面紋과 火紋 등 신성한 힘을 지닌 귀신이나 자연물을 모방한 문양이 刻鑄되었다. 張光直의 해석에 따르면 동시대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이른 고대 중국의 청동예술은 개인의 탐미적 예술이라기보다 신과의 소통을 위한 주술적 목적이 중심이었다.¹²⁾ 비록 주술적 목적이었지만 예술적으로 이미 정점에 이른 찬란한 상대 청동기의 도안과 제작은 온전히 황하유역의 황토고원에 쫓겨이 쌓여있던 황토를 주재료로 한 陶工의 과정이었다. 춘추전국 시대 失蠟法이 활용되기 전까지 고대 중국의 청동 주조는 대부분 황토로 제작된 陶范의 조합으로 구성된 合范法과 이를 세분화한 分鑄法이 중심이었다. 즉 청동의 형태와 문양은 모두 화북의 황토를 물에 적서 粘度和 密度를 높인 진흙으로 빚은 陶范이 주효하였다. 내범과 외범의 사이 홈에 청동 물을 부으면 1,100℃ 이상의 고온에도 황토는 변형없이 청동기의 형태와 섬세한 문양을 구현하였다. 청동물이 식

어 경화되면 内外范을 파괴해서 뜯어내야 했으므로 하나의 청동기에는 하나의 陶范이 모두 破碎되어야 했다. 기타 失蠟法이나 象嵌法 등 다양한 청동 주조 기술은 개량되고 추가되었다.

이상 다소 장황하게 검토한 내용, 즉 청동기를 제작하고 점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동광이 있는 영토를 직접 지배하거나 동광이 있는 읍과의 교역·조공·혹은 약탈을 통한 안정적인 동의 확보가 관건임을 이해하였다. 동광을 확보하였을 경우에도 광석의 채굴에서 제작까지 소요되는 방대한 노동력의 징발, 그리고 형태와 문양의 디자인에서부터 다양한 제작 기법을 활용하는 匠人의 확보와 기술력의 통제와 관리도 중요하였다. 결국 이러한 전 과정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씨족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인구 구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 전제되어야 함도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씨족 사회 규모의 사회에서 이러한 청동기의 제작, 보급, 운영은 역부족으로 보이며 적어도 부족연맹체나 초기 왕조 규모 정도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 양소문화 姜寨유지 복원도

현재까지 고대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금속 유물이 발견된 것은 陝西省 西安 외곽 臨潼縣에서 1972~79년에 걸쳐 양소 문화 중기에 해당하는 姜寨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기원전 4500년 경 신석기시대 화북지역 聚落의 전형을 보여주는 강채 유적은 전체 5만㎡의 부지에 주거지 면적은 약 2만㎡로서 약 100여 채의 가옥이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조성되어 있었다. 각 가옥군 중심에 대형 가옥이 한 채씩 있었던 것으로 보아 5개 씨족공동체로 구성된 사회로 짐작된다. 인구는 약 5~600 여명으로 추산되며 거주지 주변에 600여 좌의 묘군도 발견되었다. 출토된 유물로는 생활용기 약 3천 점 대부분이 陶器였고 공구류 3천 8백여 점 대부분도 石器와 骨器였다. 다만 이 유적에서 ‘黃銅片’ 하나와 ‘黃銅管’ 일부가 발견되었다. 중국의 학자들은 이를 통해 고대 신



〈그림 7〉 姜寨유지의 黃銅片



〈그림 8〉 林家유지의 銅刀

11) V. Gordon Childe, B.Litt, 1930.; 李學勤, 1987, 《中國青銅器的奧秘》, 商務印書館(심재훈 역, 2005, 《중국청동기의 신비》, 학고재).

12) Chang, Kwang-chih, 1983, Art, Myth and Ritual: The Path to the Political Authority in Ancient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張光直, 李徽 譯, 《신화 미술 제사》, 동문선, 1990).

석기 시대에 이미 적용된 銅의 製鍊과 鑄造를 포함한 冶金術의 전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발견된 유물이 너무 제한적이고 이들 황동편이 직접 鑄造방식으로 제작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의 발견으로 곧 청동기시대의 진입이라고 해석하기는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

그 점은 신석기시대 황하 상류유역 馬家窯문화에서 발견된 銅刀도 비슷하다. 1976~79년 甘肅省 臨夏回族自治州 東鄉族自治縣 林家村에서 발견된 林家遺址는 기원전 약 3천년 경의 마가요문화에 속하는 유적으로 이곳에서 대량의 彩陶와 石器가 출토되었다. 그런데 이 유적에서 길이 12.7cm의 銅刀 한 점이 발견되었다.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구리와 소량의 주석이 혼합되어 있었다. 때문에 중국의 학자들은 이 유물을 주석과 동을 합금으로 주조한 '靑銅'으로 확신하며 기존 청동기시대를 천년 앞당긴 유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청동기로서의 성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 청동 칼 한 점의 발견으로 이 유적은 물론 당대 사회를 청동기사회라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강채유지와 임가유지는 분명 석기에서 청동기로의 전환이라는 기 여정의 한 부분일 수는 있다. 그러나 두 유적은 수천 점의 석기, 동기, 골기가 대량으로 발견된 전형적인 신석기 사회였다. 인구 규모는 천명을 넘지 못하는 씨족공동체였으며 그들이 이례적으로 자연에서 습득한 황동 혹은 청동을 연마하여 도구를 제작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청동의 특징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이 소재가 석기를 대체할만한 매력적 물질이라는 확신도 아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황하 유역의 이들 유적은 곧 도래할 청동기 시대의 여명을 예고하고 있었음은 사실이다. 우리는 앞서 중국 전 대륙에 걸친 다원적인 신석기 문명을 조감해 보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공존했던 그 수많은 신석기 문명 가운데 결국 청동기 문명에 진입한 지역과 역사체는 제한된 일부지역이었으며 결론적으로 가장 인구가 집적되고 문화가 누적되었던 황하 중하류 유역에서 청동기 문명에 진입한 초기 국가가 출현하였다. 훗날 이들 초기국가들을 사마천은 夏·殷·周로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Ⅲ. 祭祀공동체와 청동기

1. 주요 靑銅 祭器

1928년 殷墟유적의 발굴로 殷왕조의 실체가 확인되면서 중국 학계는 상당히 고무받았고, 이제 관심은 《史記》에 기록된 첫 번째 왕조 夏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소위 '夏墟'의 발굴은 사회주의 신정부 사회과학원의 숙원이 되었다. 이로 인해 1959년부터 河南省 洛陽市 偃師縣 일대의 고고발굴이 진행되었고 기원전 1800~1500여년에 해당하는 이 유적지는 이후 '二里頭'유적으로 명명되었다. 1970년

말까지 진행된 발굴에서 宮殿유지를 비롯 靑銅鑄造의 흔적이 발견됨으로써 학계는 이 유적이 청동기 문명에 진입했음을 확신하였다. 이후 90년대까지 진행된 2단계 발굴과정에서 陶器, 玉器, 漆器를 비롯하여 아직은 다소 조잡하고 조형미는 떨어지지만 드디어 18점의 청동기가 발견되었다. 이들 청동기는 주로 爵과 罍 등 酒器를 중심으로 한 祭器였다는 점이 고대 중국의 청동기의 성격을 단적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아직 문자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이들 유적이 정확히 夏 왕조인지 세계 학계로부터 공인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商문명에 선행하는 실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때문에 이들 유적을 '先商文明(Pre-Shang Civilization)'으로 보는 유보적인 입장도 있지만, 중국학자들은 '商에 선행하는 문명이라면 夏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夏왕조의 실체로 확신하는 분위기이다. 가까운 주변지역에서 비슷한 시기 공존했던 상왕조의 초기 유적에 해당하는 하남의 偃師 商城이나 鄭州商城 등도 잇따라 발견됨으로써 초기왕조의 형성은 기원전 2천년 전후까지 소급되었다. 어쨌든 이들 유적은 이미 대규모 성곽으로 구성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던 대규모 노동력을 조직하고 운용했던 강력한 권력이 등장했음을 시사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왕궁터의 발견과 祭祀儀禮의 흔적들, 그리고 비록 조야한 수준이지만 이리두유적에서 이미 靑銅器가 등장했던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요인들로 보인다.



〈그림 9〉 銅爵(二里頭)

그런데 황하유역을 중심으로 출토된 商周시기 청동기의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는 것은 놀랍게도 청동 祭器들이었다. 고대 중국 사회가 祭祀공동체이자 軍事공동체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¹³⁾ 당대의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력이 응집된 청동기의 주 용도가 제사용기였다는 점은 중국의 초기국가의 성격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제사란 개인이나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신에게 축원하는 행위이자, 신과 인간 혹은 천지가 교호하는 성스러운 장이었다. 제사의식이 거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요구되었다. 첫째, 神이 강림하는 공간이자 제사 참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신전이나 聖所가 요구되며, 둘째, 神人을 매개하며 祭儀를 주재하는 제사장 및 巫·祝·樂·史와 같은 제사관들이 필요했다. 제사관들이 절기와 대상에 따라 天·地·山·河·日·月·星·辰 등의 여러 신의 강림과 접신을 위한 의식을 수행했다. 셋째, 신에게 봉헌할 犧牲[sacrifice]이 반드시 있어야 했으며 희생제물의 봉헌은 의식의 정점이었다. 끝으로 그 희생물을 담는 祭器도 필요하였다. 제사의식은 선사시대부터 지속돼왔지만 초기국가

13) 이를 웅변하는 가장 유명한 經文은 아마 다음일 것이다.《左傳》, 成公13年, “國之大事, 在祀與戎. 祀有執膺, 戎有受脤, 神之大事也.”

의 제사의식은 보다 대규모화되고 조직화되었다. 특히 청동주조 기술이 적용되면서 商代를 전후하여 祭器는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으며, 때론 청동제기가 이 제사의식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제물이 초기왕조의 총아인 청동기에 담기면 이제 청동기는 단순한 기물이 아니라 신과 교통하는 성스러운 수단이 되는 것이었다. 오늘날 출토된 그 규모의 청동제기와 심지어 제사희생을 위해 봉헌된 대량의 人身供養者들의 흔적은 황하유역의 왕조가 얼마나 제사의식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존의 문헌은 물론 甲骨文과 金文, 그리고 고고유물자료는 제사공동체에 필요한 이러한 모든 요소를 입증해주고 있다.



〈그림 10〉 銅爵(商代)

이처럼 소중한 청동제기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으며, 商周王을 비롯한 극소수의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음은 당연했다. 봉건제도는 봉지와 인민을 매개로 왕의 권위를 분여하는 제도였으며, 청동기는 그 冊命의식의 방편이었다. 봉건제도는 주지하다시피 왕이 제후에게 封地를 하사하여 세습적인 관리를 위임하고, 제후는 왕에게 제사와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는 쌍무적인 권력 분배의 체계였다. 이 봉건제도는 周代에 이르면 혈연적인 親疎관계를 우선하여 지배계층의 서열관계를 규정함으로써 宗法제도와 결합하였다. 상주왕은 제후에게 冊命을 통해 封地의 권한을 위임했으며, 제후는 합법적으로 권위를 分與받아야 봉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왕이 제후에게 권위를 사여할 때 가장 중요한 의식도 청동기를 하사하는 것이었다. 청동기는 왕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청동기는 제후가 봉읍에서 왕을 대리하여 통치할 수 있는 권위의 증거였다.¹⁴⁾ 하사받은 청동기 가운데에는 鼎이나 敦, 豆, 尊, 簋, 甗, 壺, 盤 등 다양한 기물이 망라되어 있었겠지만 오늘날 출토된 청동기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된 청동 술잔 爵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실제 왕은 제후에게 冊命儀式을 하며 封地로 떠날 제후에게 한 잔의 술을 爵에 담아 하사했을 것이며, 이러한 '賜爵' 의식은 중요한 관행이 되어 훗날 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와 은혜를 의미하는 '爵位'로 추상명사화 되고, '爵制'로 제도화되었을 것이다. 한편 출토된 청동기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된 청동기가 爵을 비롯 酒器였다는 점은 신에게 봉헌된 祭酒의 의미와 제사 이후 제사공동체의 음복도 중요했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商紂王의 폭정을 과장한 '酒池肉林'의 비유는 과장이었겠지만 제사공동체로서의 음주와 동작의 양산은 당시의 제사의식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다.

14) 청동기를 매개로 한 주왕과 제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松丸道雄 編, 1980, 《西周青銅器とその國家》, 東京大學出版會. 참조.

술잔이 많았기에 尊과 酉 등의 술통도 많이 주조되었는데, 상대 후기에 집중적으로 주조되었던 酒器의 일종인 尊은 그 봉헌 형식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청동기였다. 尊은 문자학적으로 술통[酉]과 이 술통을 떠받치고 있는 손[寸]이 결합된 상형문자였다. 실제 尊자의 고문자를 통해서도 짐작을 할 수 있었지만 1986년 三星堆 유적의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청동기단에는 여성으로 짐작되는 인물이 무



〈그림 11〉 尊字(西周 金文) 〈그림 12〉 奉尊銅基(三星堆)

릎을 꿇고 청동기 '尊'을 두 손으로 받들고 머리 높이 올려 술을 신에게 봉헌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조형되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尊敬', '尊重' 등으로 표현하는 '높일 尊'자의 원형은 실은 두 손으로 '높이' 받들어 신에게 봉헌하던 청동 술통에서 연원하였던 것이다.

모든 청동 제기 가운데 상주왕의 권위를 가장 대표하는 것은 단연 '鼎'이었다. 청동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제사희생물을 담은 祭器였다. 鼎은 곧 上帝를 대신하여 천하를 통치하는 왕의 제사 권력을 상징했다. 전설에 의하면 夏왕조의 시조 禹가 자신이 구획한 천하 九州를 상징하는 9개의 鼎을 주조하여 신에게 제사를 봉헌했다고 한다. 소위 '九鼎'은 이후 천하 통치의 정당성을 대변하여 하왕조에서 상왕조, 상왕조에서 주왕조로 九鼎이 계승되었다고 한다. 춘추시대 후기 남방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한 楚의 莊王(기원전? ~ 기원전 591)은 周의 사신에게 周왕실의 鼎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물었다고 하는데,¹⁵⁾ 이 유명한 '問鼎'의 고사 또한 周王의 권위에 대한 楚 莊王의 도전으로 회자되었다. 춘추전국시대의 장기 혼란을 종식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일통제국을 수립한 시황제가 망실된 九鼎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고사도 유명하다. 구정을 찾지 못한 시황제는 대신 천하의 청동을 모아 12명의 銅人을 주조하여 황궁에 시립하게 하였다고 한다.¹⁶⁾ 청동 무기류나 농기구류는 강도가 보다 높은 철기로 대체되었지만 제기만큼은 그 권위와 신성함이 유지되며 전근대 시대 제기로 지속적으로 鑄造되고 사용되었다.

15) 《左傳》, 宣公3年, “楚子伐陸渾之戎, 遂至於雒, 觀兵于周疆, 定王使王孫滿勞楚子, 楚子問鼎之大小, 輕重焉, 對曰, “在德不在鼎, 昔夏之方有德也, 遠方圖物, 貢金九牧, 鑄鼎象物, 百物而爲之備, 使民知神, 故民入川澤, 山林, 不逢不若, 螭魅罔兩, 莫能逢之, 用能協于上下, 以承天休, 桀有昏德, 鼎遷于商, 載祀六百, 商紂暴虐, 鼎遷于周, 德之休明, 雖小, 重也, 其茲回昏亂, 雖大, 輕也, 天祚明德, 有所底止, 成王定鼎于郊, 卜世三十, 卜年七百, 天所命也, 周德雖衰, 天命未改, 鼎之輕重, 未可問也.”

16) 《史記》, 卷6, 秦始皇本紀, “分天下以爲三十六郡, 郡置守·尉·監, 更名民曰黔首, 大酺, 收天下兵, 聚之咸陽, 銷以爲鍾鐻, 金人十二, 重各千石, 置廷宮中, 一法度衡石丈尺, 車同軌, 書同文字.”

2. 청동기와 金文

앞서 상주 시대 봉건제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특히 주는 혈연관계를 매개로 봉건제도를 정립하였다. 중원 전 지역에 걸친 周族의 분봉은 자연스럽게 문화적 통합과 확산을 촉진시켰다. 오늘날의 甘肅省 동부, 陝西省, 山西省, 河南省 서부에 기초한 주왕조의 역사와 문화는 봉건제도를 통해 河南省 동부, 河北省, 山東省, 江蘇省, 湖北省 북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商族의 근거지였던 齊·舊지역은 姜太公과 周公이 분봉됨으로써 지역적으로는 東奏 지역에 속하면서도 周原문화의 보지자로서 성장했다. 그런 점에서 주의 봉건제도는 중원문화의 교류와 전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봉건제도를 통한 문화적 교류와 확산의 실례는 청동기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청동기는 제후와 왕의 공고한 유대의식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확인시키는 중요한 器物이었기 때문이다. 왕이 제후에게 권위를 수여할 때 청동기를 하사한 점에서 상과 주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했다. 고대 중국에서 청동기는 玉石이 아니면서도 ‘永遠性’을 담보할 수 있는 聖스러운 기물이자 당시 기술문명의 총아였다. 제사용기로서의 청동기는 신과 교통하는 제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병기로서의 청동기는 군사적 권위와 전쟁의 실질적인 도구였다는 점에서 청동기는 제사공동체이자 군사공동체의 수장인 왕의 권력을 상징했다.¹⁷⁾ 때문에 청동기의 수여는 곧 왕의 권력의 분배이자 수여였다. 제후입장에서 청동기는 분봉받은 읍의 인민들에게 왕의 대리자로서 冊命받았음을 입증하는 기물이었다. 바로 이 점에서 서주시대에 진입하여 청동기는 새로운 질적 전환을 맞게 되었다. 상대 청동기에는 신령함을 분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神獸 문양은 찬란하였으나 銘文, 즉 문자를 刻鑄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그러나 상대 말기에 이르면 청동기에 2字, 4字 혹은 10字 미만 정도 청동기 소유자나 作器者의 간단한 명칭이 새겨지기 시작하더니 서주시대에 진입하면서 청동기에 각주된 문자 즉 金文은 십 수자에서 수십 자, 심지어 1, 2백 자를 넘는 문자가 각주되는, 일종의 정형화된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金文의 형식과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청동기를 제작한 연대(주왕의 연대와 일시), 제작한 배경(주왕의 영광과 특정한 國政이나 전쟁에서 공신이나 제후가 세운 과업), 청동기가 사용될 제사, 頌辭(가문과 일족의 영광을 기원)’ 등의 내용이 각주된다. 청동기가 녹아 없어지지 않는 한 그 금문은 주왕과 제후가 이룩한 役事를 영원히 전했으며 금문은 양자의 관계를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환기시켰다. 金文 대부분의 말미에는 ‘자손 대대로 [이 청동기를] 영원히 간직하고 사용하라(~子子孫孫 永保(寶)用(之))’ 라며 축원하는데 소위 ‘家寶’란 이러한 청동기를 의미했다. 그러나 정말로 자손들은 그 청동기를 대대로 간직하며 사용했을까? 물론 주왕이 하사한 청동기는 정말

로 가보와 디름 없었으며 공신들과 제후들은 여러 신과 조상신을 모시는 각종 제사에서 이들 청동기를 통해 가문의 영광을 현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청동기들은 때론 자손에게 계승되지 않고 그 공훈을 세운 제후나 國人이 죽으면 저승에서도 자신의 신분과 업적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는지 그의 무덤에 함께 부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고발굴을 통해 출토된 당시의 방대한 청동기들은 대부분 이처럼 부장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제후의 무덤에 청동기를 부장하더라도 長子가 그 읍을 계승하게 되면 선대에 이어 주왕에 대한 충성과 봉건적 의무와 신의를 확인하기 위해 주왕은 다시 청동기를 제작하고 그 ‘歷史적 投事’를 금문을 통해 기록한 후 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주왕과 제후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주왕은 다량의 청동기를 제작하고 금문을 각주하였다. 청동기와 그 금문은 봉건제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청말 陝西省 岐山 周原유지에서 출토된 毛公鼎은 그 형태와 금문이 考釋된 결과, 周 宣王(기원전 827~782) 때 제작된 것으로 선왕 초기 주왕궁을 보위하며 군공을 세웠던 毛公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금문의 문자는 무려 499자로 현재까지 확인된 금문 가운데 가장 많은 문자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정도면 한편의 작은 사료집에 가까울 정도였다.¹⁸⁾ 때문에 이 금문을 통해 기존의 사료에서는 거의 확인된 적이 없었던 宣王과 毛公의 歷史는 오롯이 복원될 수 있었다. 신탁의 결과를 각서한 신성문자 갑골문에 비하면 세속적인 주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금문은 본격적인 역사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상조의 갑골문 대부분이 상대 후기 수도였던 殷墟에서 출토되었던 것은 중요한 제사와 신탁이 대부분 王都에서 거행되었고 극소수의 제사관들만 갑골의 제작에 참여하고 해독할 수 있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금문이 각주된 주대 청동기는 중원 전 지역에 걸쳐 출토되었다. 이는 금문의 문자와 서식 그리고 금문이 담고 있는 주왕조의 역사가 중원 전 지역에 걸쳐 확산되고 공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는 분명히 ‘金文의 시대’였으며 그것은 주왕조의 봉건제도가 낳은 결과물이었다.¹⁹⁾



〈그림 13〉 毛公鼎과 金文拓本(西周宣王)

18) 毛公鼎에 대해서는 王輝, 2006, 《商周金文》, 文物出版社. 참조.

19) 拙稿, 2011, 《先秦시대 중앙과 지방의 장》, 김동수 외, 《역사 속의 중앙과 지방》, 엔터.

17) Chang, Kwang-chih, 1983, Art, Myth and Ritual: The Path to the Political Authority in Ancient China.

IV. 軍事공동체와 폭력

춘추전국시대 이전 전쟁은 지배계층의 車馬戰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단기전이었다. 때문에 청동 무기류는 양적으로 청동 제기에는 미치지 못하며, 시기적으로도 춘추전국시대 이후 대량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청동 무기의 제작과 활용은 제사용기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령 이리두유 적이나 상대 유적에서 이미 확인된 대형 청동 斧鉞 등은 실전에 사용하는 전투용 병기라기보다는 군사공동체의 수장으로서의 군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같다. 이미 전쟁은 신석기시대에도 일상화되었



〈그림 14〉 族字 (商, 甲骨文)

으며 돌도끼와 돌칼, 그리고 활과 화살만으로도 고대인의 폭력성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견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결합된 씨족이나 부족의 어원인 ‘族’자의 어원인 갑골문 족자가 깃발아래 모인 弓矢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族’의 본질은 군사공동체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청동 무기가 점차 도입되면서 황하유역이 주변 문명을 압도하는 물리적 기제로 작용하였으며, 그로부터 천 여 년이 흘러 춘추시대 장강유역의 楚, 吳, 越 등의 열국들이 중원을 압박할 수 있었던 요인도 금속무기의 발전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동 무기 도입 이후 초기왕조시대의 폭력성은 좀 더 적나라하고 특별했다.

1. 伐祭와 肉刑

상대 청동기에는 사회의 각 고유 직역을 담당한 씨족을 상징하는 다양한 族徽들이 각주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청동으로 주조된 칼이나 도끼 등을 사용하여 동물을 도축하거나, 그 문양으로 보면 사람의 목을 베는 듯한 형상의 처형자의 族徽도 보인다. 갑골문에도 제사의식과 관련된 신탁이 상당히 많이 보이며, 특히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할 때 卜問하는 ‘用物’의 사례도 많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갑골 복사에는 여러 喪葬禮와 제사의식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베어 바치는 ‘伐祭’라는 참혹한 희생의 용례들도 확인되었다.

상대 갑골문과 고고유적을 통해 斬首의 가장 오래된 방식이 伐祭로 널리 알려져 있다. 창[戈]과 같은 병기로 사람[人]의 목을 베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상형한 고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伐은 가장 일반적인 斬首의 초기 방식이었다. 갑골문을 통해 확인되는 伐의 용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즉 (가) ‘~有伐’, (나) ‘~伐羌’, 그리고 (다) ‘~伐某方’ 등으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15〉 伐字 (商, 甲骨文)

- | | |
|--------------------------|----------------------|
| (가) ① …貞有伐于成 | (900正) |
| ② …貞勿有伐八月 | (985) |
| ③ 壬午, 卜穀貞有伐上甲十又五卯十小宰 | (901) |
| (나) ① …有伐五羌…王亥 | (22152) |
| ② 貞射伐羌 | (6618正) |
| ③ 貞…人呼馘伐羌 | (6619) |
| ④ 乙卯, 卜行貞王賓祖乙, □伐羌十又五卯宰無 | (22551) |
| ⑤ 于司丙寅, 有糸司伐三十羌卯三十豕 | (32049) |
| (다) ① 己卯, 卜王于來, 春伐兴 | (6559) |
| ② 己未, 卜穀貞王鄉, 三千人呼伐□方哉 | (6640) |
| ③ 甲辰, 卜爭貞我, 伐馬方帝受我祐一月 | 6664正 ²⁰⁾ |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고대 초기왕조 商은 주기적으로 ‘伐’의 시행 여부와 시기를 神에게 卜問했으며(가), 그 伐의 주요 대상은 여타 肉刑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羌族에 대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나) 주지하다시피 商族과 오랫동안 긴장관계에 있던 羌族은 전쟁의 주요 대상이었으며 대량으로 포획된 羌族은 祭祀犧牲과 肉刑의 被刑者로 처형되었다. 羌族은 10명에서 15명, 많게는 30여명이 伐祭로 희생되었으며 때론 돼지(豕)나 양(羊) 같은 동물과 함께 처형되기도 하였다. (나-④, ⑤) 刑刑과 같은 肉刑의 경우는 때론 80명에서 100여명의 羌族이 일시에 처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戈로 목을 베었겠지만 弓矢를 이용한 射殺의 과정이 병행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며(나-②), 머리를 벤다는 의미에서 ‘馘伐’이란 직접적인 표현이 기록된 용례도 확인된다. 더 나아가 개별적·육체적 존재로서의 異族만이 아니라 집단적 존재로서 주변 方國도 伐의 대상이었다. (다) 주지하다시피 황하유역의 초기 商周국가는 부족연합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며 소위 方國(國)으로 대변되는 주변 국가들은 때론 동맹관계와 적대관계를 교차하며 공존하였다. 때문에 商에게 있어 ‘伐某方’이란 여러 方國에 대한 일종의 군사원정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伐方’은 이후 서주-춘추시대 열국 간에 빈번했던 ‘攻伐’의 원형이기도 했다. 이상의 복사를 통해 잠정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伐祭의 특징은 그 대상이 異族과 그 異族의 方國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伐方이 곧 方國의 滅亡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인에게 그 지향만큼은 伐祭와 맥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다. 복사에 의하면 이들 인신공양의 대상

20) 이상 갑골문은 姚孝遂·肖丁 編, 1989, 《殷墟甲骨刻辭類纂》, 中華書局.

들은 羌族을 비롯한 당시 商族과 경쟁관계나 대립관계에 있던 주변 부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마도 이들 타부족들은 전쟁과정에서 잡아들인 전쟁포로들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 번의 의식을 위해 수십에서 백여명에 이르는 포로들이 단번에 伐祭로 처형되었다.

폭력의 형식에는 벌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죽이지는 않되 수십 명에서 백여 명의 羌族의 다리 하나를 칼로 잘라 내거나, 생식기를 거세시키며, 때론 코를 베거나 피부를 벗기고 문신을 새기는 등 소위 신체를 훼손하거나 절단하는 '肉刑'을 시행하기도 했다. 즉 고대 중국의 형벌이란 이처럼 신체의 일부를 직접 훼손하거나 절단하는 육형이었는데, 그 기원은 사회내의 일탈자나 범죄자보다는 타부족에게 행하는 주술적 폭력에서 기원하였다. 때문에 형벌의 기원은 태생적으로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불구가 되거나 異形을 강제받은 被肉刑者들은 일종의 문지기인 守門職이 부과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폭력상은 주대이후 사회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도 시행되는 형벌로 전화되었다가 무려 2천 여 년이 지나 漢 文帝 13년(B.C.167)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²¹⁾

이상의 역사상을 수용한다면 초기 국가인 황하유역의 상조는 당시로서는 유례가 없이 조직적이며 대규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문명이었다. 이는 전쟁의 격화와 인신공양의 요구, 육형의 강제와 이들에 대한 주술적인 직무의 부과라는 유기적인 관계가 맞물린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폭력상이 가능했던 기술적인 요인은 황하유역의 상조가 청동 병기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구체적인 물적 증거로 확인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50년대 은허 주변의 侯家莊과 西北岡 유적 등 상대 대형 墓群이 발굴되면서 그 폭력적인 역사상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들 십여 좌의 십자형 대형묘들은 그 엄청난 규모와 방대한 부장품, 그리고 일부 순장자들의 유골 등으로 추측컨대 상대 왕족들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이들 대형묘들의 주변에 점처럼 산재한 수백여 개의 작은 配葬坑들이었다. 정식 무덤이라기보다는 구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작은 갭들이 발굴되자 연구자들은 그 참혹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 갭 하나에는 수구에서 십수구의 유골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유린당한 채 빼곡하게 폐기되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진열된 無頭有骨과 따로 쌓아놓은 두개골들은 바로 伐祭의 실체였다.²²⁾ 바야흐로 수립된 중국 사회주의공화국 입장에서 이 배장갭들은 마르크스가 규정한 고대 노예제사회가 증명된 것일 수도 있었으나, 2천 5백여년 동안 孔子를 필두로 한 수많은 聖賢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三代 理想社會의 실체가 이렇게 참혹하게 드러나자 당혹감을 감출 수는 없었다.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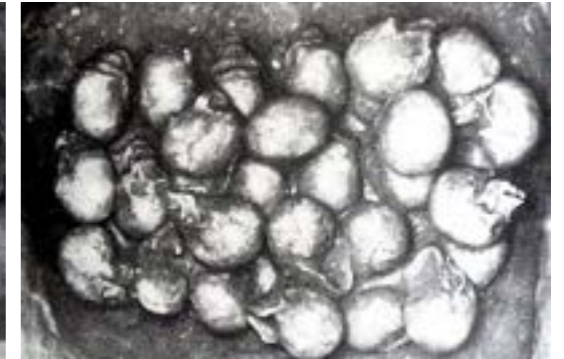
21) 고대 중국의 肉刑制와 그 폭력상에 대해서는 富谷 至, 1995, 《古代中國の刑罰》, 中央公論社; 拙稿, 1999, 《古代中國의 刑罰觀念과 肉刑 - '非人化'觀念을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67 참조.

22) 이상 고대 중국의 인신공양과 폭력상에 대해서는 黃展岳, 2004, 《古代人牲人殉通論》, 文物出版社. 참조.

고대 사회에서 근대적인 인권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대량의 청동무기가 도입되면서 타자와 타부족에 대해 행해진 배타적이며 적나라한 폭력상, 그것이 황하문명이었다.



〈그림 16〉 伐祭된 유골들(商代)



〈그림 17〉 봉헌된 두개골들(商代)

2. 戈와 斧鉞

폭력적 형벌의 필요조건으로 靑銅器를 반드시 상정할 필요는 없지만, 청동무기는 斬首를 포함한 肉刑의 충분조건은 되었던 것 같다. 이미 신석기 유적의 발굴을 통해 전쟁의 폭력상과 신체훼손의 흔적들은 확인되었지만, 석기에 비해 내구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액화된 청동의 延性を 극대화하여 제작된 청동 병기의 예리함은 五刑체계와 같은 조직적인 肉刑이 제도화하



〈그림 18〉 銅戈(商, 殷墟)

는데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앞서 벌제의 고문자에서 언급했듯이 참수의 가장 일반적인 刑器는 물론 창(戈)이었다. 戈는 고대 중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병기였으며, 邑에 모인 군사공동체를 의미하는 國



〈그림 19〉 戈字(商, 甲骨文)

[或]자가 戈를 핵심으로 구성된 조어이다. 族이 弓矢를 근간으로 조합된 문자인데 반해 國이 청동 병기 戈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車馬를 중심으로 한 서주-춘추시기 군단의 기본 편제는 御와 射, 그리고 戈를 기본으로 한 三人一乘 체제였으며, 실제 殷墟유지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청동병기도 戈였다.

상대 청동기에 각주된 '戈' 관련 族徽는 30여 건에 이를 정도로 매우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본래 '戈' 씨족은 商이전부터 戈와 같은 병기와 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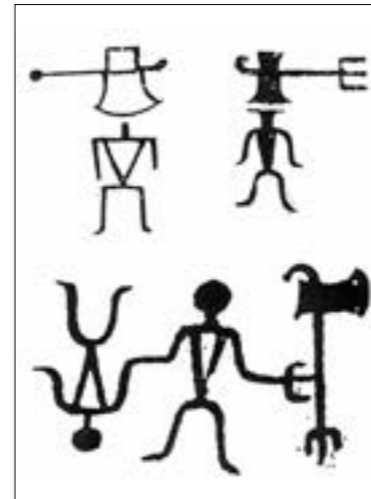
〈그림 20〉 戈 관련 族徽 (商)

된 유력한 씨족이었으며, 이들은 갑골문을 통해서도 고유 氏族과 연관된 人名과 地名으로 기록되어 이미 戈 邑을 영유한 제후로도 알려져 있다.²³⁾ 넓은 의미에서 ‘戈’족은 이미 석기시대 이래로 군사력의 상징인 石 戈나 玉 戈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고유의 씨족에서 유래하였으며, 銅 戈의 제작으로 이들은 더욱 유력한 氏族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戈 관련 다양한 族徽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씨족으로 분파되어 확장되었다. 특히 이들 戈 관련 氏族가운데에는 伐祭의 역할과 관련된 씨족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斬首의 형기는 戈만이 아니라 斧鉞도 중요한 수단이었다. ‘斬以斧鉞’(*《周禮》掌戮*) 혹은 ‘大刑用甲兵, 其次用斧鉞’(*《國語》魯語*) 등의 전형적인 기록은 차치하고 ‘斬’자체가 도끼를 의미하는 ‘斤’임은 참

수의 주요 수단이 부월이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상대 동기에 각주된 族徽는 너무도 사실적인 묘사로 유명하다. 거대한 銅鉞에 의해 목이 베어지거나, 혹은 銅鉞과 함께 처형자와 피형자가 함께 묘사된 族徽는 斧鉞을 통한 참수의 모습을 적시하고 있다. 부월과 참수의 신화적 모티브는 이미 『山海經』(海外西經)에서 전승되고 있다. 태초에 上帝와 쟁패를 다투었던 전쟁의 神 ‘形天(刑天)’은 결국 上帝에게 斬首되어 常羊山에 매장되었다고 한다. 머리가 없게 된 形天은 젓꼭지를 눈으로 삼고 배꼽을 입으로 삼아 도끼와 방패를 들고 춤을 추었다고 전해진다. 이 신화적 모티브는 黃帝와 蚩尤와도 연관될 수 있음은 袁珂도 이미 지적했지만, 形天의 ‘干戚之舞’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도끼로 참수되었음을 시사한다. 고문자 ‘天’은 본래 커다란 머리가 강조된 형상이지만, ‘天’은 ‘夫’字와 비교하면 오히려 머리가 없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形天의 斬首는 그에게 일종의 天刑이 된 것이다. 形天의 斬首신화는 <大荒西經>에서는 夏나라 耕의 고사로 변주되었다. 즉 전설에 의하면 商의 成湯이 夏를 ‘攻伐’하며 夏나라 耕을 斬首했는데, 그는 창과 방패를 들고 다시 일어나(操戈盾立) 巫山에 내려왔다고 한다. 이 고사의 흥미로운 점은 갑골문의 ‘伐方’처럼 伐은 군사적 원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斬首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자신을 참수한 과를 경이 잡고 있음은 形天의 고사와 유사하며, 이를 통해 斬首의 주요 형기가 戈와 斧鉞임도 시사해 주고 있다.

23) 丁 山, 1988, 《甲骨文所見氏族及其制度》, 中華書局.



〈그림 21〉 斧鉞伐祭 族徽



〈그림 22〉 形天(山海經)



〈그림 23〉 銅鉞(殷墟婦好墓)

이미 二里頭 문화에서부터 고대 중국에서는 정교하고 장엄한 靑銅斧鉞이 제작되었으며 斧鉞은 단연 군사권의 상징이었다. 상대에서도 다량 출토된 이들 斧鉞들은 군사적 병기나 의제적 수단, 그리고 斬首와 같은 처형의식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형기일 수 있었다. 때문에 이들 斧鉞에는 때론 신성하고 전율에 가까운 神獸의 모습이 형상화되거나 각주되었으며 때론 斬首의 모습이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殷墟婦好墓에서 출토된 대형 銅鉞에는 호랑이로 보이는 두 마리의 동물이 벌린 입 사이에 놓여 있는 인두상이 浮彫되어 있다. 일찍이 張光直에 의해 ‘虎食人首’처럼 人獸交感을 통한 接神을 祈求하는 형상일 수 있음이 지적되기도 했음은 유명하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이 人頭像이 人獸交感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제사의식에 인신공양을 시행했던 상대에서, 그리고 청동기의 기능과 문양 및 명문의 상호연관성을 감안하고, 특히 斬首의 형기였던 銅鉞에 묘사된 문양임을 고려하면 人頭像을 斬首와 연관짓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3. 봉헌된 三星堆의 靑銅人頭像

한편 長江의 지류 岷江유역에서는 지난 1986년 소위 縱目假面으로도 불리는 대형 청동가면과 262m에 이르는 대형 청동입신상, 그리고 높이 384m에 이르는 대형 청동 神樹에 이르기까지 이제껏 어디에서도 출토된 적이 없는 거대한 규모와 경이로운 형상의 청동상들이 출토되었다. 근래 金沙유적의 발굴로 고대 蜀 문명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三星堆유적은 黃河유역의 商문명과 공존했던, 그러나 독자적인 長江유역 청동기문명을 입증하였으며, 『華陽國志』(권3, 蜀志)의 신화적 고사의 실체가 유물로 확인되었지만, 무문자단계의 문명으로서 많은 미스터리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하다. 蜀문명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림 24) 青銅人頭像(三星堆)

그런데 아마도 고대 巫祝王이나 聖王의 구현임이 확실해 보이는 이들 대형청동상에 비해 1호갱에서 함께 출토된 약 50여개의 青銅人頭像(假面像 포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분석과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無文字단계였던 三星堆유적에서 이들 人頭像의 성격과 매장의 이유를 확인하기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이들 유적이 고대 蜀문명을 발원했던 聖王들의 신화적 역사를 재현하고 복원했던 일종의 祭祀坑이란 점에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들 坑에서 출토된 대량의 玉器와 토기, 그리고 尊과 같은 전형적인 商지역의 청동기 등은 그들이 행했던 제사에 방대한 제물이 동원되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동시대 황하유역의 상문명이 대량의 人·獸를 犧牲物로 동원되었던 점을 상기하면 삼성퇴유적의 祭祀坑에 별다른 犧牲物이 출토되지 않았던 점은 의문이다. 때문에 오히려 함께 매장된 青銅人頭像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들 人頭像이 제사공동체에 참여한 三星堆人들을 표현했다거나, 이들 頭上이 標識와 결합하여 顯揚되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일종의 희생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들이 異族의 노예가 아니라 三星堆人들을 전제로 주조된 것일지라도 희생물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가장 이상적인 희생물은 본래 巫祝 자신이어야 했으며 그 존재가 고귀할수록 犧牲의 의미는 배가된다. 그러나 異族의 人頭를 대량으로 희생물에 동원한 商에 비해 蜀은 가장 희소가치가 높으며 당시 기술문명의 총아인 청동기술을 활용하여 때론 金箔을 입혀 사실적인 인두상을 주조하여 이들을 봉헌한 것은 아닐까. 물론 이들 인두상은 참수의 행형절차는 불필요했을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자였다면 참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인두였기 때문이다.

V. 사라진 문명의 青銅像, 三星堆와 蜀

이상에서 祭器와 武器류를 중심으로 고대 중국의 청동기를 검토하였는데, 청동이란 소재로 전혀 다른 유물을 남긴 문명도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동경해 마지않는 聖王을 青銅像으로 직접 구현하였다. 오늘날도 지리적으로 中原과 격절된 지역인 長江상류의 한 지류인 岷江유역의 四川지방은 고대에는 蜀으로 불리었다. 이 지역이 실제 중국역사상에 전면적으로 부각되었던 것은 3세기 삼국시대로서, 208년 赤壁大戰 후 刘备와 曹操가 '天下三分之計'를 추진하며 확보한 땅, 즉 蜀지방을 선택함으로써 蜀漢으로 불리었던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蜀지방의 고대문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었다. 다만 이 蜀지역의 신화·역사지리에 대해 전하는 후한시대 문헌인 《蜀王本紀》나 東晉시대의 문헌 《華陽國志》에는 이 지역의 起源에 대한 짧지만 흥미로운 신화적 고사가 전하고 있다. 이들 기록을 정리하면 일찍이 고대 四川지방 蜀國의 古聖王으로 아마도 눈의 모양이 독특했던('其目縱') 蠶叢, 농경과 治水灌漑와 관련있는 柏灌, 물고기와 새리는 뜻의 魚鳧 등의 왕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었으며,²⁴⁾ 때론 洪水·治水神話의 문화영웅이기도 한 황하유역의 高성왕 禹가 蜀지방에서 출생했다거나,²⁵⁾ 훗날 禹가 직접 이 지역에서 장강의 지류인 岷江의 治水사업도 이끌었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²⁶⁾ 그런데 蠶叢, 柏灌, 魚鳧 등의 왕들에 이어 훗날 두견새 전설의 기원이기도 한 杜宇王때 岷江에 큰 홍수가 나서 治水에 실패하자 蜀은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떠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 소략한 문헌의 기록은 이후 蠶叢, 柏灌, 魚鳧, 杜宇 등의 古聖王들이 누구이며, 그 특이한 왕들의 명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역사적 실체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긴 채 잊혀져가고 있었다. 이 역시 적어도 1986년까지는 그랬다.

1986년 7월 어느 날, 四川省 廣漢市 三星村에서 일군의 농민들이 들에서 우물을 파던 중 우연히 발견된 2개의 坑은 일거에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이들 坑에서는 다량의 玉器와 青銅器가 발견되었는데, 연대 추정결과 기원전 1,500년경으로 동시대에 黃河유역에서는 商왕朝가 병존하였다. 문제는 이 坑에서 발견된 청동기들은 그 거대한 규모와 형태, 용도, 그리고 그 鑄造기술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어떠한 器物과도 이질적인 것이어서 세계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대형청동假面[幅1m37], 대형청동立身像[高2m62], 대형청동神樹[高3m84], 황금杖[高1m50]과 青銅鳥獸 들은 지금부터 약 3천5백 년 전 三星堆문화인들이 설정한 신화 상의(혹은 그들에게는 엄연한 역사

24) 《蜀王本紀》, “蜀之先稱王者曰蠶叢, 柏灌, 魚易(鳧), 開明”; 《華陽國志》, 卷3, 蜀志, “周失紀綱, 蜀先稱王, 有蜀侯蠶叢, 其目縱, 始稱王, 死, 作石棺, 石槨, 國人從之, 故俗以石棺槨為縱目人冢也, 次王曰柏灌, 次王曰魚鳧.”

25) 《史記》, 卷15, 六國年表, “故禹興於西羌, 湯起於亳, 周之王也以豐鎬伐殷, 秦之帝用雍州興, 漢之興自蜀漢”; 《蜀王本紀》, “禹本汶(岷)山郡廣柔縣人, 生于石紐, 其地名痢兒畔”.

26) 《尚書》, 禹貢, “岷山導江, 東別爲沱, 又東至于澧, 過九江, 至于東陵, 東迤北, 會于匯, 東爲中江, 入于海.”



〈그림 25〉 青銅縱目假面(三星堆)

로 믿었던) 古聖王들을 연상케 하고 있어 흥미로우며, 새삼스레 신화적 고사에 전하는 고성왕들이 환기되었다.

그런데 三星堆유지에서 출토된 유물들 가운데 특히 大形縱目假面은 그 눈의 독특한 형태로 인해 이미 일찍부터 고성왕 蠶叢으로 지목되어, 출토된 大形青銅神樹(扶桑)와 함께 이 지역의 養蠶文化和 太陽崇拜思想

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었다. 이 가설이 맞다면 대형 눈과 누에를 연상시키는 벌레가 결합되어 이 지역의 지명으로 쓰이는 고문자 '蜀'도 사실은 고성와 蠶叢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黃金杖의 새와 물고기문양 등은 고대문화의 鳥魚토템의 전형을 보여주거나 혹은 실제 가마우지과의 새를 이용한 이 지역의 전통적인 어로(鵜飼漁撈)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자연스럽게 蜀의 고성왕인 魚鳧와의 연관성이 추론되었다.²⁷⁾ 그렇다면 일찍이 생업의 근간으로 川西平野에 발달했던 농경문화와, 농경에 절대적인 灌溉와 治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를 주재하는 古聖王의 설정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문헌상으로는 그 이름 외에 어떠한 설명도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蜀의 古聖王 柏灌의 '柏'은 일찍이 巴蜀지역에 번성했던 낙엽수였다거나, '灌'자는 곧 灌溉水利를 의미하며 지금도 岷江 중류 都江堰 유적이 있는 곳의 지명이 灌縣이고, 都江堰으로 양분된 岷江이 主流는 四川盆地로 흐르고 그 외의 支流가 합류하는 하천이 곧 柏條河라는 사실,²⁸⁾ 그리고 岷山山脈에서 발원한 岷江이 퇴적층을 형성하며 비옥한 扇狀地를 이룬 곳이 곧 다름 아닌 지금의 灌縣이란 점²⁹⁾ 등은 柏灌과 이 지역 水利農耕문화와의 오래된 관련성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三星堆청동유물을 대표하면서도 단지 巫祝(王)이라고 추측되어 왔던 大形立身像이 古蜀國의 水利農耕文化를 주재하는, 이를테면 古聖王 柏灌을 표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삼성퇴문명은 청동기문명에서도 중원이외의 다원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신화와 역사의 경계를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문명이었다. 적어도 청동주조술에 있어서 당대의 商을 능가하는 이 경이로운 청동문명인들 역시 중원에서 설정했던 야만적 蠻夷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三星堆유적이 발굴될 지 25여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문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미스테리가 남아있다. 이 문명의 주체가 누구였으며, 이들 유물들은 어떠한 용도로 제작되고 또 坑에 왜

27) 屈小強·李殿元·段渝, 1993, 《三星堆文化》, 四川人民出版社, pp.53-54.; 徐朝龍, 1999, 《長江文明의 謎-古代「蜀」王國의 遺寶》, 雙葉社, pp.136-138.

28) 徐朝龍·NHK取材班, 1993, 《謎의 古代王國 - 三星堆遺跡は何を物語るか》, 日本放送出版協會.

29) 鶴間和幸, 《古代巴蜀の治水傳説の舞臺とその背景-蜀開明から秦李冰へ》, 森田明 編, 1995, 《中國水利史の研究》, 國書刊行會.

폐기되었을까. 청동주조기술로 미루어 어떤 면에서는 황하유역보다 오히려 발달했던 이 문명은 왜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가. 黃河유역의 商周문명과 長江유역의 三星堆문명은 어떠한 관계였으며 어느 정도의 문화교류를 하였을까.³⁰⁾ 아직까지도 이러한 중요한 의문이 많이 남겨진 이유는 이 문명에서는 뜻밖에도 文字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시대에 商朝가 갑골문을 통해 文字, 즉 歷史시대에 진입했음을 입증했다면, 주변 城郭의 흔적, 青銅器, 神政정치 등의 소위 문명의 요소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유물에 근거해 볼 때 삼성퇴문명이 無文字사회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도의 기술문명을 文字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先史'문화 혹은 '야만'의 문화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은 회의적이다. 이처럼 三星堆문화는 'literacy'와 '文明'과의 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문명이 지속되지 못하고 갑자기 사라진 원인과 이 문명의 'illiteracy'는 또한 무슨 관계가 있을까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점차 이 유적과 고대 촉국과의 연관성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기왕에 출토된 유물들만으로도 삼성퇴문명의 기술적 선진성과 독자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마침 21세기 벽두부터 삼성퇴유적으로부터 그리 멀지않은 사천성 金沙에서 기원전1000년경 蜀國의 수도로 추정되는 대규모의 궁전유적과 청동기를 포함해서 삼성퇴문명과 유사한 유물들이 다량 출토됨으로써 이 지역이 당시 중원의 商·周到 비견되는 역사체요, 문명의 한 축이었음이 입증되어가고 있다. 어느 문명보다도 청동기술에 있어 정점을 자랑했던 中原이 中華사상과 華夷관념을 구체화하던 그 시기, 中原 밖의 또 다른 문명 蜀은 중원을 능가하는 경이로운 청동기물들을 제작했다. 비범한 異形의 청동상들은 아마도 蜀의 古聖王들이 재현된 것으로서 이들은 이 지역의 농경과 치수, 양잠과 어로 등의 문화를 전수해 준 문명의 영웅들이었을 것이다. 이는 3천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신화와 역사의 접점이었던 시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림 26〉 金沙 청동상(좌)과 三星堆 청동상

30) 《華陽國志》에는 周 武王이 商을 멸망시킬 때 蜀과 연합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며, 삼성퇴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尊의 경우 그 형태가 상의 것이었으며, 청동성분을 분석한 결과 商의 청동기 성분과 거의 동일함이 밝혀진 상태다.

VI. 禮樂의 정립과 樂器의 향연

고대 중국 청동기의 마지막 변주는 제사 의례, 전쟁, 형벌과는 관련되면서도 전혀 다른 목적과 용도를 지닌 기물들이다. 그것은 바로 통치 기제로서 청동 樂器가 출현한 것이다. 고대 신석기 시대부터 제사 의례는 물론 모든 상장의례에도 樂舞가 반드시 수반되었으며 이미 신석기 이래로 다양한 타악기, 현악기, 취주악기 등이 제작되고 활용되었다. 특히 타악기 '鼗'는 가장 원초적인 리듬악기로서 모든 의례에 중심이 되는 악기였다. 중원 지방만이 아니라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와 형식의 북을 제작하고 활용하였다. 악무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성의 발현으로서 여러 통과 의례와 집체의식, 강신과 접신을 위한 퍼포먼스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이미 상대 후기에 이르면 청동으로 제작된 鈸, 鐃, 甬 등의 초보적인 타악기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중원지방에서 획기적인 청동 악기가 제작되는데 그것은 타악기면서도 打鼓 시에 일정한 음률을 낼 수 있는 '鐘'을 개발하게 되었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고대 악관과 장인들은 적절한 종의 크기, 두께, 무게, 그리고 청동 성분에 따라 절대음을 조율하여 일정한 樂律을 구현할 수 있는 편종 세트를 제작하게 되었다. 성스러운 소재 청동으로 제작된 鐘은 단연 의례의 중심이 되었다.

禮가 기본적으로 王을 정점으로 公, 卿, 大夫, 士, 民에 이르는 종적 서열에 대한 일체의 분별을 규범화한 것이라면, 보다 큰 차원에서 국가 전 구성원에 대한 통합이 궁극적인 정치의 이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분별을 강조하는 禮와 더불어 통합을 지향하는 樂은 相補적인 관계였다. 물론 악은 지나치게 되면 감성에 경도되고 사치와 방탕에 이를 수 있기에 대부분의 제자백가는 악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특히 《墨子》에서는 〈非樂〉篇을 구성하여 맹렬하게 음악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유가는 정치의 궁극은 '태화'의 경지로 보았으며 그 큰 화합의 기제로 음악이 지닌 마성적 매력을 간과하였다. 이러한 유가의 입론은 《荀子》의 〈樂論〉 편에 집대성되었다. 춘추전국시대 열국들은 이제 대량의 청동을 활용하여 樂器의 제작에 주력하였다. 청동의 새로운 용도가 열린 것이었다.



〈그림 27〉 曾侯乙墓 編鐘(戰國시대, 湖北省博物館)

선진시대 樂舞의 번영을 가장 극명하게 증명하는 것은 단연 1978년 湖北省 隨縣 戰國시대 曾侯乙墓에서 출토된 방대한 樂器群의 위용이다. 남방의 강대국 楚의 부용음으로 알고 있던 小國 曾의 諸侯墓에서 출토된 樂器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9種의 선진시대 악기편성을 보여주었다. 그 규모는 樂器의 개수만 125점에 그 부

속물까지 포함하면 총 1,851점의 방대한 樂器遺物群이었다.³¹⁾ 125점의 樂器가운데 여전히 타악기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으며 특히 65개의 銅鐘으로 구성된 曾侯乙墓編鐘의 웅장함과 정교함은 당시 禮樂 문화의 중심에 銅鐘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³²⁾ 부장된 전체 125점의 악기편성이 당시 曾國의 실제 악단의 규모라고 일단 가정하면, 이들 악단의 연주에만 해도 최소 백 이십여 명의 樂人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결국 小國임에도 불구하고 曾侯乙墓의 악기유물은 전국시대 列國들이 통치의 수단으로 얼마나 樂에 비중을 두고 있었는지를 짐작케 하며, 특히 編鐘과 같은 樂器의 제작과 재연을 위해 국가가 인적·물적·기술적 역량을 총동원했음을 시사한다.

천하일통을 완수한 진시황제는 냉철한 법가사상에 기반하여 제국을 운영하였고 평소 법가의 중사한비자를 흠모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법가는 유가의 의례보다도 더 성문법인 율령에 기반하여 통치했음도 당연하였다. 그러나 최근 西安市 大白陽에서 출토된 戰國末期 秦國의 銅鐘은 秦이 樂을 통해 무엇을 지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높이 23.5cm, 지름 12.2~12.9cm 의 이 銅鐘의 鐘身 앞뒤에는 각각 두 자의 銘文이 刻鑄되어 있는데, 그것은 '應鐘'과 '太和'이다.³³⁾ '應鐘'은 律管의 律數로는 四寸二分三分二이고, 5음으로는 羽音에 해당하는 12樂律의 하나라는 점에서,³⁴⁾ 이 銅鐘이 應鐘의 律을 표현하는 銅鐘임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 銅鐘의 大義는 '應鐘의 樂律로 太和를 구현한다'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應鐘'의 原義가 '鐘에 調應한다'는 것임도 충분히 자연스럽다면, 이 종의 명문 '應鐘太和'의 지향은 '鐘 혹은 樂에 調應하여 太和를 구현한다'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다. 그 어느 해석이든 이 銅鐘은 일통체제를 향해 매진하던 전국말기 최강대국 秦, 혹은 統一帝國 秦의 大統슴의 구현을 위해 樂舞와 銅鐘이 중요한 기제였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8〉 '應鐘太和' 銅鐘(戰國末, 秦)

31) 譚維四, 2001, 《曾侯乙墓》, 文物出版社.

32) 王世民, 《春秋戰國葬制中樂器和禮器的組合狀況》, 湖北省博物館 外編, 1992, 《曾侯乙編鐘研究》, 湖北人民出版社. 이 銅鐘들의 무게만 해도 총 2.6톤에 달하며, 걸개와 기둥 등에 소요된 靑銅을 포함하면 編鐘의 제작에 무려 4.4톤의 靑銅이 사용되었다. 禮器와 樂器를 포함하여 曾侯乙墓에 매장된 6,239점의 靑銅器의 전체 무게가 10.5톤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 가운데 약 절반에 달하는 靑銅을 오직 이 編鐘 한 세트만을 제작하는데 집중했음을 의미한다.(舒之梅·譚維四, 《曾侯乙墓發掘의 主要成果》(日本國立博物館, 1992, 《曾侯乙墓》, 日本經濟新聞社.)

33) TBSテレビ·博報堂, 2006, 《始皇帝と彩色兵馬俑殿》.


34) 《史記》, 卷25, 律書, "律中應鍾. 應鍾者, 陽氣之應, 不用事也. 其於十二子爲亥. 亥者, 該也. 言陽氣藏於下, 故該也. … 應鍾長四寸二分三分二, 羽."



제2발표

신석기-청동기시대 사회발전단계 변화

천선행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
- I. 머리말
 - II. 신석기시대의 사회 성격과 다양성
 - III. 청동기시대 초기의 사회변화
 - IV.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회발전단계는 1960년대 초 신진화론을 기반으로 엘만 서비스가 제시한 [무리(band)-부족사회(tribe)-수장사회(chiefdom)-국가(state)]로의 모델이다. 한국 청동기시대 지식묘로 대표되는 사회가 수장사회, 족장사회, 추장사회, 군장사회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며, 한국 선사시대를 설명하는 유효 모델로 소개되었다. 물론 지식묘사회가 세습적 지위에 기반한 사회분화가 진행된 수장사회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비판적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뿌리 깊게 한반도 청동기시대하면 떠오르는 수석어처럼 수장사회가 따라붙는다.

서비스의 모델¹⁾에 대한 대안으로 모튼 프리드는 사회질서의 편성 원리를 바탕으로 [평등사회(Egalitarian Society)-위계사회(Rank Society)-계층사회(Stratified Society)-국가(State)]의 4단계 모델을

1) 서비스는 부족사회와 수장사회를 사회진화선상에서 다른 단계로 보고, 지도자가 있는 사회는 부족사회보다 사회적 밀도가 더 높은 사회이고, 지도자가 있는 사회가 부족사회보다 더 정교한 사회조직과 고도로 전문화되고 중앙집권화 된 정부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족사회와 지도자가 있는 사회를 사회진화선상에서 선후의 관계가 아닌 동시대에 서로 대응하는 다른 종류의 사회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고, 부족사회와 지도자가 있는 수장사회의 차이를 개념상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모튼 프리드(박성우, 박지연 옮김 2017, 109).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서비스의 모델을 바탕으로 [이동성 수렵채집단(유단, band)-분절사회²⁾(부족 사회)-군장사회-국가 단계로 나누어 설명(콜린 렌프류·폴 반(이희준 옮김) 2006)하기도 하고, 존슨과 얼(Johnson & Earle)은 위 개념을 고고학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의 지리적 범위를 고려하여 사회 진화를 가족레벨의 집단(가족·캠프집단, 가족·hamlet집단의 2타입), 지역집단(無頭지역집단, Bigman 지역집단의 2타입), 地方政治體(수장국, 국가, 국민국가의 3타입)로 나누어 제시하기도 하였다(高橋龍三郎 2007). 그러나 각 사회발전단계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거나, 사회유형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들이 존재하는 등 특정 지역의 사회발전과정을 위 모형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이후의 사회유형 연구는 특정 사회가 기존의 모델의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규정하기보다는 사회의 특정 요소-가령, 사회적 불평등, 권력이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연속적인 사회 변화를 탐구하고, 공들여 그 사회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주류를 이루는 듯하다.

사회유형을 분류하려는 연구와 더불어 민족지연구를 통해 알려진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회가 위의 사회유형에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각 사회유형에 해당하는 사회의 모습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양한 변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본 발표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부족사회'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발표자는 부끄럽지만 고고학을 시작하면서 의미 있게 들어온 부족사회에 대한 이미지, 청동기시대 중기의 수장사회가 갖는 사회적 불평등의 반대급부로 부족사회는 평등사회로서만 단순하게 이해해 왔다. 리더는 있지만 구성원간에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회, 간혹 부족 내 개인적 분쟁이나 폭력이 존재하였을 것이지만, 주변 부족과 평화롭게 사이좋게 어울려 사는 모습, 부족 구성원은 아마 단일 혈통으로 이루어진 혈연적 집단일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민족지연구는 부족의 규모가 다르며, 결혼제도와 더불어 부족 구성원 혹은 외부가 인지하는 소속의식이 다르고, 반드시 혈연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며, 부족규모에 따라 리더 외에도 지도자적 성격을 갖는 인물이 있으며, 부족 내에서 혹은 부족 간에도 빈번한 형태로 분쟁 혹은 전쟁이 발생하며, 또한 부족 간의 관계는 늘 평화적이지도 혹은 늘 적대적이지도 않고 간혹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기도 하며, 부족 내에서도 저장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모튼 프리드(박성우·박지연 옮김) 2017). 즉 부족이라는 용어로 하나의 사회를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네 가지 사회유형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어떤 집단이 어느 범주로 분류되어야 할지

에 관해 고심하느라 지나치게 시간을 쓴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잘못된 일일 것이다. 또 사회들이 어떤든지 유단으로부터 분절사회로, 혹은 군장사회로부터 국가가 필연적으로 진화한다고 가정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고고학의 난제 중 한 가지는 왜 어떤 사회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어떤 사회들은 그렇지 않은가를 설명하는 일인데..”(콜린 렌프류·폴 반(이희준 옮김) 2006, 181)라는 지적처럼, 특정 사회가 위 유형의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밝히는 것보다 각 사회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어떻게 변하며, 사회의 변화 동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고, “사회발전단계론을 참고하면서도 그 틀에 얽매이지 않도록 연속 진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이희준 2011, 38) 것이 중요하다.

발표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신석기-청동기시대 사회발전단계 변화]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조기의 즉 양 시대의 사회발전단계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신석기시대 사회와 청동기시대 초기사회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무의미할지 모르지만, 양 시대의 차이를 사회 규모와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리몽실하지만 해당 사회가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사회에 대하여 생업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정착 수렵채집사회, 농경사회로 이야기될 뿐, 사회유형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가령 “신석기시대 사회 구성에 대해 ‘외국 개념을 그대로 따와서 부족사회라고 하거나 또는 국내학자가 말한 ‘분절사회’ 이외의 언급이 거의 없는 편이다”는 지적(신숙정 2011, 54)이 단적으로 보여 주듯이, 청동기시대 지식묘사회를 군장사회로 보거나 “앞선 시대와 달리 청동기시대에는 일대 취락이나 국소적 공동체를 넘어서는 광역적 사회조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느슨하게나마 수장의 통제를 받는 광역적인 사회조직의 등장은 복합사회(complex society)로 진입”(김범철 2015, 186)하였다거나 “송국리문화 사회는 분절사회에서 벗어난 정도였으며 이제 군장사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 정도”(안재호 2019, 91)였다고 평가하는 견해들이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조·전기 사회형태를 표현하는 거의 전부일 것이다.³⁾

사회유형은 일반적으로 인구 및 사회 규모와 사회복합화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사회복합화는 다시 전업집단의 존재, 식량생산 집약화, 사회적 지위의 차별과 계서의 등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수장사회에 내재된 계층의 의미, 사회적 불평등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이희준 2011)하고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신석기시대는 부족사회, 청동기시대 중기의 지식묘사회는 사회규모와 지식묘의 존재와 무덤 부장품을 고려할 때, 분명히 이전 시기와 다른 사회

2) 부족이라는 용어는 “작은 단위들이 모여 이루어진 좀 큰 집합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그 공동체들이 공동된 족속적 정체성과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다고들 가정하지만,” 이는 일반적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되면서 분절사회라는 용어 주로 사용된다. 분절사회는 “대개 자신들의 일을 자율적으로 통할하는 농경민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자치적 집단을 가리킨다.” 다른 분절사회와 합쳐져 큰 단위, 혹은 부족을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콜린 렌프류·폴 반(이희준 옮김) 2006, 181).

3) 그 외에도 취락분석을 통해 신석기시대 가옥간 위계차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그 경향이 청동기시대 전기전반까지 지속된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송만영 2006, 15)

적 불평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군장사회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럼 그 사이의 청동기 시대 초기와 전기는 어디에 해당할까? 대답하기 곤란하지만, 경험칙 상 역시 부족사회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⁵⁾ 그렇다면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초기가 모두 분절사회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양 사회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는다.

분절사회로 분류되는 사회 가운데 다양한 변이들이 존재함이 이미 알려져 있고, 분절사회 내 복합화의 정도도 사회마다 다르며, 후술하듯이 신석기시대 사회를 복합수렵채집사회로 보는 연구처럼, 분절사회 내 각 사회유형의 형태는 다양하다. 본 발표는 이러한 시각, 분절사회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다는 점에 입각하여,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사회가 기존의 사회유형 가운데 분절사회 범주에 포함되지만, 생업과 취락, 사회분화 형태와 정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양 시대의 서로 다른 사회유형 그리고 서로 다른 발전방향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신석기시대의 사회 성격과 다양성

1. 생업경제적 측면의 신석기시대 사회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술변화를 기준으로 삼시대법의 하나로 탄생한 신석기시대는 이후 새로운 식량생산 방법인 농경을 기준으로 초기 농경사회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신석기시대는 농경, 토기, 마제석기, 정주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위 요소들이 동시에 등장하지도 않고, 모든 사회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신석기시대로 진입하지도 않는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는 농경에 앞서 토기가 먼저 등장하고, 고전적 의미의 집약화된 농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이 시기에 주변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얻는 정주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특징을 통해 한반도 신석기시대 사회는 정착 수렵채집사회로 규정된다.

신석기시대 동안 남겨진 수많은 패총과 야외노지와 주거를 보면, 신석기시대인들이 수렵채집민으로서 자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생업활동을 벌이고 정주하였음을

분명하다. 그러한 이들을 단순한 수렵채집민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1957년 황해도 지담리유적에서 탄화된 조가 확인되면서 신석기시대 농경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 부산 동삼동유적, 진주 상촌리유적 등에서는 조와 기장을 비롯하여 경작에 수반하는 잡초류가 확인되었다. 창녕 비봉리패총 전기 지층에서 조가 확인되었고, 진주 평거동유적에서는 조와 기장, 맥류(보리와 밀), 두류(콩과 팥), 벼가 재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밖에도 인천 운서동유적의 팥 압흔, 고성 문암리유적과 양양 지경리유적의 콩 압흔, 옥천 대천리유적에서 보리와 밀 등의 곡류가 확인되었다. 이 자료들은 한반도 신석기시대인들의 생업이 수렵채집어로 외에 초기농경⁶⁾이 일정부분 추가된 형태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식물재배가 생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존도가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반도 토양환경에서 극히 남기 어려운 곡물자료의 축적과 연구성과를 감안할 때, 초기농경은 적어도 신석기시대 전기부터(최근에는 조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농경이 신석기시대인들의 정주를 추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석기시대 초기의 부산 범방패총에서 조와 기장 압흔이, 부산 동삼동패총에서는 기장 압흔이 확인(이경아 2015, 100)되며, 이후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대부분 조와 기장을 중심으로, 맥류, 두류, 벼가 전반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중기의 동삼동패총에서는 조와 기장 이용하면서 멧아주 등의 일년생 초본류가 확인되거나 견과류가 부채한다. 조의 경우 늦봄에 파종하면 7, 8월에, 여름에 파종하면 9, 10월에 수확가능하고 이러한 일정이 주 활동이 늦가을~초봄에 집중되는 수렵채집어로의 계절성과 겹치지 않고(이경아 2005, 37-38), 신석기시대의 주 재배작물인 조와 기장은 별다른 노동력 투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마저 감안할 때, 신석기시대 초기농경은 주변의 기후자연환경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초기농경이 수렵채집어로와 더불어 생업의 한축을 담당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생업경제상으로 본 신석기시대는 큰 틀에서 수렵채집어를 중심으로 초기농경을 병행하고, 이전과는 다른 비교적 안정된 정착생활을 영위하여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며 마을을 이루고, 인접 취락집단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락집단들 사이에서 아직 수장이라 부를만한 존재를 인지하기 어렵고 집단 간의 우월을 엿보기 어렵다. 이러한 특징은 신석기시대 수렵채집사회가 분절사회 혹은 평등사회에 포함되는 형태임을 말해준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신석기시대 조~중기 사회를 복합수렵채집사회로 이해하기도 하고, 신석기시대 후·말기에는 다시 이동성이 강해진다. 즉, 신석기시대를 통틀어 사회를 일원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고, 생업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지역집단의 사회규모와 조직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한국고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고고학전국대회는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2006)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여기에 발제된 대부분의 논고에서 보면, 사회복합화의 주요 기준인 계층성의 출현을 대체로 대규모 취락의 등장, 취락 간의 위계관계 등장, 무덤에서의 양상을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문화단계부터로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대규모 취락의 등장, 무덤의 출현 등을 감안하면, 계층화의 현상은 전기 후반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5) 청동기시대 전기 사회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 즉 분묘가 축소되고 동검을 모방한 위세품인 석검이 부장되기 시작하는 전기를 계층화가 진전되었다고 보기도 하고(배진성 2006, 90), 혼합경제사회에서 사회적 차별화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빅맨사회같은 성취서열이 존재한 것(김승욱 2006, 56)으로 보기도 한다.

6) 초기농경(early agriculture)은 원경(horticulture) 또는 소규모 텃밭관리경제(horticulture, small gardening), 초기농경 광역적 혼합경제(broad spectrum mixed economy), 저차원 식량생산단계(low level food production system)라고도 한다(이경아 2005)

2. 신석기시대 조~중기의 수렵채집사회와 복합화

신석기시대 사회에 대한 논의로 조~중기 수렵채집민의 사회적 성격을 분석한 연구(임상택 2015)가 주목된다. 이 논고에 수록된 신석기시대 사회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신석기시대 사회를 사회분화가 엿보이거나 복합수렵채집사회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복합화의 기준으로 이야기되는 수직적 위계 또는 사회적 불평등의 제도화 등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간 이견이 보인다.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임상택은 한반도 중서부 이남 지역의 신석기시대 조~중기의 정착 수렵채집 사회를 복합수렵채집사회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신석기시대 조~중기 복합수렵채집사회로서의 특징으로 수혈주거로 구성된 마을에 기반한 정착생활, 활발한 저장 전략 구사, 비전업적 전문화에 의한 기술체계의 발달, 단속적인 원거리 교역의 구사, 곡물재배(전기 이후), 종적 사회문화의 미약한 발달 및 생업, 의례 등과 관련된 횡적 사회분화, 획득 지위 지도자의 존재 가능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직적 위계의 제도화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복합수렵채집사회를 특징짓는 요소와 차이가 있고, 이는 복합수렵채집사회의 넓은 스펙트럼을 고려할 때, 개별 집단들의 다양성을 권력의 분포나 생업 기술체계의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임상택 2015, 52-55).

<표 1> 신석기시대 사회 성격에 대한 연구(임상택 2015에서 정리)

연구자	사회성격	근거
안승모 (2005-2007)	• 전기: 사회분화 맹아 • 중기: 사회분화 가능성 추론	• 전기: 토기, 정착, 저장시설, 무덤, 원거리교역 • 중기: 초기농경, 정착성 증대, 원거리 교역강화
Anne-Habu (2006)	• 복합수렵채집사회 (수직적 분화 뚜렷하지 않고 수평적 분화가 진전)	• 후포리유적(그러나 시기문제) ⇒생업/주거의 복합도 기준을 추가
신숙정 등 (Shin et al 2012)	• 중기이후 복합수렵 채집사회	• 정착, 초기농경, 식료의 대량획득 기술 진전, 저장전략, 무덤 부장품, 교역 (전문장인 및 종교적 리더의 존재 상정) ⇒조달이동전략과 식료 대량획득 전략이 사회의 기능적 분화를 촉진
김민구 등 (Kim et al 2015)	• 복합수렵채집사회	• 복합수렵채집사회에 해당하나, 사회적 지위분화, 전문 장인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증거 미약.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의 제도화를 언급하기는 무리 ⇒인구증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복합도의 증가가 한반도 신석기시대 집단들의 경우에 집단 분할이라는 조절 메커니즘을 통해 억제
임상택 (2015)	• 조~중기 복합수렵 채집사회	• 생업과 기술체계: 전문화된 도구, 비전업적 전문화, 저장전략-사회의 기능성분화 또는 지위 차이를 발생시키는 토대 • 취락과 인구: 전기후반에서 중기단계 취락 증가. 인구증가 • 원거리 교역: 흑요석, 조개팔찌-교역을 매개로 한 지위의 차이 발생 가능. 제도화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위계 존재 • 무덤과 의례: 결상이식, 기타 옥제 장신구, 조개팔찌, 암각화, 토우, 적색토기 ⇒사회복합화의 여러 요소의 존부가 아닌 정도에 따라, 다양한 조합에 의해 수렵채집사회의 성격을 규명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복합수렵채집사회로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일 것이다. 사회복합화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전업집단의 존재, 식량생산 집약화, 사회적 위계, 즉 수직적 사회 불평등이다. 한국 신석기시대 사회가 이들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피기 위해 임상택(2015, 28-37)은 사회복합화를 알려주는 요소로 사회분화와 위계, 원거리 교역과 위세품, 의례, 복잡한 기술체계의 발전과 (비전업) 전문장인 집단의 존재, 정착과 마을생활, 인구증가에 대해 설명하고 각 요소들이 사회복합화를 알려주는 주요 요소임과 동시에 한편으로 사회복합화와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 깊게 설명하고 있다. 즉 한반도 신석기시대 사회는 원거리 교역을 통해 거점 집단과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존재가 충분히 상정되나 아직 특정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생업활동 및 의례 활동의 개시와 노동배분, 원거리 교역의 유지 등과 관련된 주도적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존재가 인정되고,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사회는 큰 틀에서 볼 때 소위 '집단 중심적, 또는 협동 중심적 지도자를 가진 사회'로 보았다(임상택 2015, 53).

수직적 사회분화와 더불어 수평적 사회분화⁷⁾라는 측면에서 신석기시대 초기~중기 사회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일반적인 단순 수렵채집사회와는 구별되는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발표자도 이러한 논의와 결론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신석기시대 사회복합화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청동기시대 사회 혹은 수장사회의 사회복합화와 어떠한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합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취락 및 인구증가의 양상은 전기 후반에서 중기 단계에 증가한다. 그 예로 전기 인천 운서동 I 유적 2지점에서 58동, 중기 시흥 능곡동과 안산 신길동에서 각각 24동의 주거지가 확인되고 취락 내 열상배치의 특징이 확인된다(임상택 2010). 취락 및 인구증가의 증거는 한반도 중서부지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반면 신석기시대 조전기의 전문화된 기술체계를 보여주는 증거(결합식납시, 조합식작살, 통나무배, 어망추, 초기농경, 저장시설, 어망추 등) 일부와 원거리 교역의 증거(조개팔찌, 흑요석, 장신구), 무덤 내 부장품(결상이식, 기타 옥장신구, 조개팔찌 등), 의례에서 보이는 복합사회의 토대와 수평적 사회분화 증거들은 대체로 동해안~남해안에 이르는 지역에 집중한다. 필자도 밝히고 있듯이 큰 틀에서 한반도 남부지역이 복합수렵채집사회에 포함되지만 지역에 따라 복합수렵채집사회의 규모와 조직, 표출방식이 다양하였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7) 임상택(2015, 30-35)은 일반적으로 사회분화를 수직적 분화 즉 위계 형성과 동일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위계라는 측면에서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지도자 존재와 권력행사 방식이고, 후자는 한시적으로라도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부분 등에서 친족범위를 넘어 타자에 행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혈연 노동력의 지속적 강제적 통제와 위계의 제도화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복합수렵채집민의 지위는 상실하고 일반 수렵채집민의 범위가 광대해진다. 그리고 사회 복합성증대라는 측면에서 설명해도 복합수렵채집민은 군장사회로 가기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평가가 힘들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적 복합성을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3. 신석기시대 후·말기의 다양한 적응전략과 사회형태

신석기시대 후·말기 사회를 조~중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복합수렵채집사회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듯 신석기시대 후·말기로 가면서 인구규모의 감소, 저장 전략의 감소, 정착성의 감소 등 사회복합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임상택 2015, 55)고 봐야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반도 신석기시대 후·말기의 사회를 양자택일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양상부터 살펴보자. 신석기시대 후·말기는 중기와 달리 취락유적이 급감한다. 안승모(2015)의 집계에 따르면 한반도 중남부 전체에서 중기의 취락 수 77개소, 주거 259동이 후기가 되면 25개소 139동, 말기가 되면 8개소 12동으로 급감한다(표2). 전체 취락 수와 주거 수로 보면 후·말기의 취락감소와 인구감소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가 아닌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서에서 중기의 취락 수 5개소, 후기에 취락 수 3개소로 줄어들지만 주거 수는 42동에서 57동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양상은 경기 내륙지역, 영서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남부지역도 8개소로 취락 수는 같지만 주거 수는 39동에서 45동으로 늘어나고 호남지역에서도 신석기시대 중기 유적수가 17개소에서 53개소 증가하고 주거가 확인된 유적만 보아도 4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난다(천선행·정다운 2017, 127). 따라서 후기의 취락유적 급감을 한반도 전체의 일률적 양상으로 보기 어렵다.

후기에 해당하는 영종도 중산동유적(35동)처럼 취락 내 주거 밀집도가 높은 곳이 있는가 하면, 청천강 및 대동강유역처럼 궁산2기에 해당하는 마산리유적에 주거가 10동 확인되고 이후 시기의 금탄리 유적 5동, 남경유적 1기 3동, 2기 2동 등 중기에 이어 후기에도 소규모 취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곳도 있다. 그리고 호남지역처럼 주거유적은 극히 적고 대부분 야외노지 등의 시설 혹은 패총유적이 대부분인 지역이 있다.

표2. 신석기시대 주거 수/취락 수(안승모 2015 인용)

시기	경기 도서	경기 해안	충남	경기 내륙	영서	영동	중부 전체	남부	전체
전기	68/2			36/2	3/1		107/74	6/3	113/7
중기	42/5	77/4	59/29	10/2	2/2	30/7	220/69	39/8	259/77
후기	57/3			21/8	8/4	8/2	94/17	45/8	139/25
말기	6/3				3/3		9/6	3/2	12/8

한편, 취락 수 및 주거 수가 가장 급감하는 지역은 경기해안지역과 충남지역이다. 이 시기에 호남지역 익산 옹포리유적, 익산 신용리 갯점유적처럼, 충청지역에 유행하던 대천리식주거가 확인되는 점(김성욱 2014)을 감안할 때, 후기에 지역집단의 이동 혹은 이합집산이 중기에 비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기와 거의 동일한 사회규모 및 형태가 유지되는 지역도 있고, 대규모

및 소형 취락이 산재하는 경우, 소형취락 중심의 지역, 취락보다 생산 및 가공 관련 시설이 중심을 이루면서 소규모 취락이 산재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취락의 규모를 사회복합화의 조건으로 보자면, 후기에 한반도 각 지역은 복합수렵채집사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고,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집단의 해체와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복합수렵채집사회가 와해되는 경우도 있다.

말기에 들어서면 집단 규모 및 인구의 감소폭은 더욱 가속화된다. 후기와 달리 지역에 따른 예외도 없다. 남해안지역의 말기는 이른바 이중구연토기문화 단계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취락유적보다는 패총이 대표적이다. 호남지역도 후기와 동일한 비중으로 패총의 조성이 활발해진다. 반면 패총에서 확인되는 단기적 주거를 제외하고 뚜렷하게 취락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적이 거의 없다. 특히 이중구연토기가 형성되자 내륙부에서 주거유적이 새롭게 조성되지 않는 점(천선행 2011)으로 보아 남해안지역보다 내륙지역에서 취락유적 해체가 더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즉 내륙부에서는 인구가 급감하면서 일부 명맥을 유지하고, 남해안일대에서 농경, 수렵, 채집, 어로 등 다양한 생업활동을 하던 주민들은 농경과 수렵의 비중이 약화되면서 이동성이 강한 생활로 복귀(안승모 2005·2006, 암상택 2008, 천선행·정다운 2017)⁸⁾하였을 것이고, 계절에 따라 상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해양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천선행·정다운 2017, 146).

신석기시대 후·말기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배경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초래하는 기후환경의 악화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찌되었건 후·말기 특히 말기의 집단규모는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축소되고, 이동성이 강해진다. 바꾸어 말해 사회복합화의 토대가 되는 인구규모와 취락의 증가, 그리고 장기 정착성이 축소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석기시대 후기 나아가 말기에는 사회복합화를 지시하는 고고학적 자료가 부재한다. 고배의 경우 중국동북지역의 편보문화와의 직간접적 영향(교류)을 상정하기도 하지만(박순발 2015·2016), 한반도 내 자체발생 가능성(김재운 2018)도 제기된바, 현재로서 원거리교역을 논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기타 무덤의 조성, 부장품 부장 등의 양상도 말기에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고고학적 자료의 부재를 그대로 사회복합화의 감소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지만, 신석기시대 중기의 복합수렵채집사회는 이후 생산성 안정, 정착성, 인구규모 유지, 개인 및 집단의 수평적 관계의 표출이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⁹⁾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기후악화에 따른 생업환경의 불안정에서 야기되는 사회

8) 신석기시대 후말기 이동전략으로 인해 신석기시대인들은 광역적 지역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중구연토기 단계에 남부내륙-남해안-서해안 일부 지역에 이르는 이중구연토기문화권이 형성된다고 보기도 한다(천선행 2011, 25-27)

9) 후·말기 취락 및 인구 감소, 이동성 강화양상은 일본의 조몬 후·말기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 달리 환상석열, 무덤 조성, 석봉 및 토우 등의 종교적 의례제사가 더욱 발달하고, 이는 사회통합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 이후 수장제 사회를 이끌어 내는 중요 요소로, 이 시기에 이미 계층적 사회질서 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谷口康浩 2007), 한반도의 양상과 매우 대조적이다.

적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석기시대 집단은 이동, 이합집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생존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복합수렵채집사회는 그에 적합한 적응전략으로 소규모화되고 기존과 다른 사회형태로 변화 적응하였을 것이며, 중기의 사회복합화가 후·말기에 가속화되지 못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신석기시대 중기이후 한량화로 인해 농경이 위축되면서 이동성이 강한 수렵채집경제로 전환되었고(임상택 2010) 그리고 인해 사회복합화가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임상택 2015). 즉 신석기시대 후기 사회복합화 감소, 이동성 강화를 통한 수렵채집경제로의 회귀 원인을 농경에서의 생산력 감퇴에 찾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후기 중산동유적(4860-3930cal. BP)과 말기 운서동유적(3680-3520cal. BP)에서 조나 기장 압흔이 확인되고, 후기 유적인 진주 평거동유적, 상촌리B유적, 어은1유적에서 모두 조와 기장이 수습되고, 후기 합천 봉계리유적, 김천 지좌동유적, 부산 동삼동패총, 범방패총 및 말기의 동삼동패총과 범방패총에서도 조나 기장 압흔이 확인되는 점, 조와 기장은 농경지를 황폐할 만큼 지력에 손상을 주는 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후기에 중기 농경의 집약화로 인한 지력의 상실과 생산성 감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이경아 2015). 최근의 곡물자료의 증가에 그리고 신석기시대 이래 청동기시대까지 주된 곡물 구성이 거의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농경축소 즉 생업형태의 변화를 사회복합화의 감소, 이동성 강화, 취락 소규모화의 원인으로만 보기 어렵다. 오히려, 초기농경을 포함한 생업 구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생업의 비중이 차이를 두는 형태로 생존적응전략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형태의 변화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II. 청동기시대 초기의 사회변화

1. 청동기시대 초기의 취락 특징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안재호 2000·2010·2016, 천선행 2005·2007·2015, 김장석 2008·2011·2018 등), 여전히 초기를 인정하는 견해와 초기와 전기를 구별하지 않고 한 시기로 보고자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발표자가 전자의 입장에 있기도 하고, 주어진 주제가 청동기시대 초기를 대상으로 하므로, 초기 설정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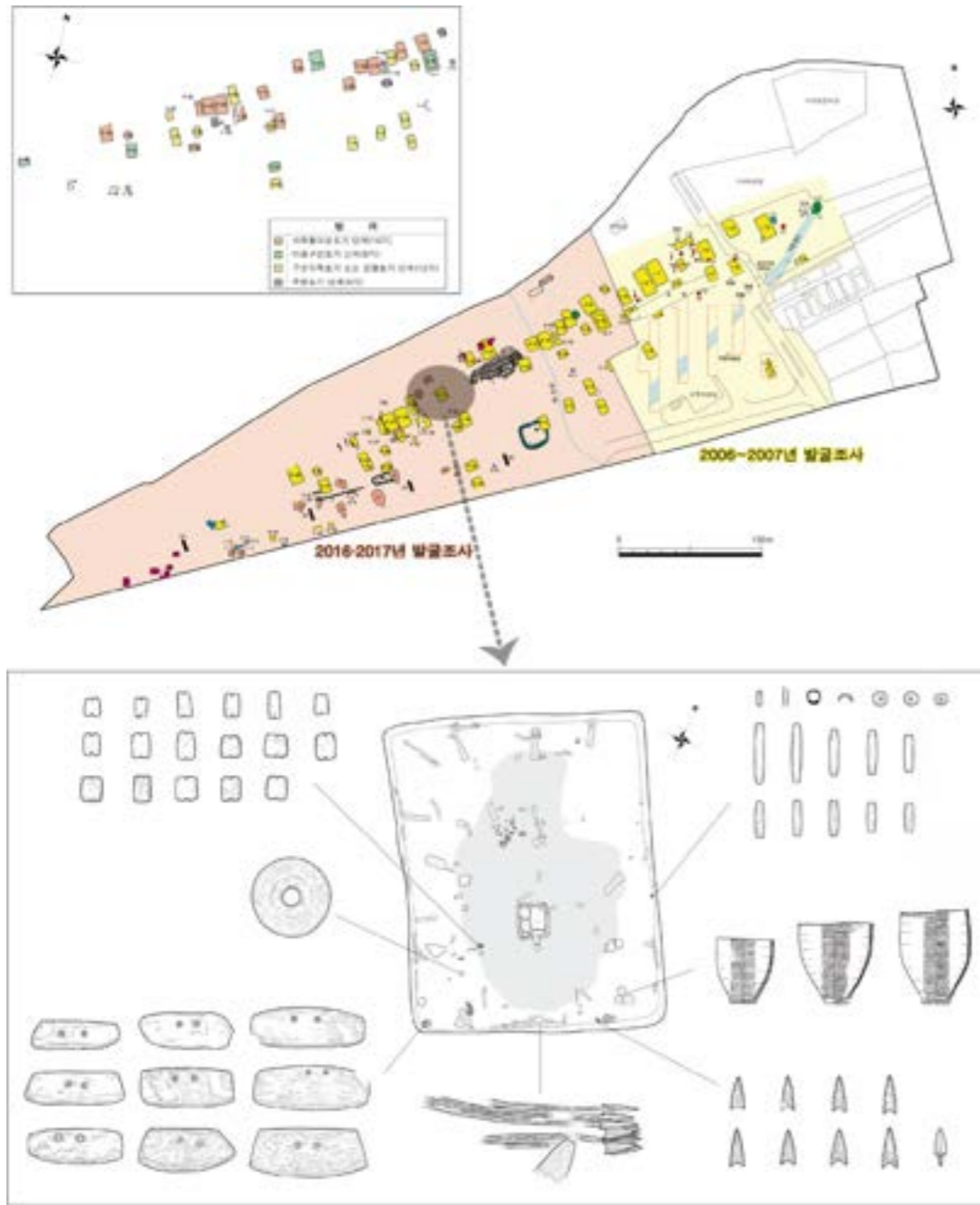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초기는 방형 또는 장방형 주거에 석상위석식·토광위석식노지(무시설실노와 주혈 포함)가 설치되고 심발·천발·호형토기가 조성되며 적색마연토기가 공반하지 않는다. 문양은 돌대문을 중심으로 하여 구연이 외반하는 옹형토기, 가락동식토기와 구별되는 이중구연토기, 돌대문에서 발생

하는 구순각목문이 확인된다. 석기는 석도(장방형), 석부(방형편인), 석촉(삼각만입), 지석이 중심이고 마제석검은 공반되지 않으며 단면 반원형과 장방형의 방추차와 신석기시대 것과 유사한 어망추가 확인된다(천선행 2007·2015). 주지히는 바와 같이 초기의 돌대문토기 단독기가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미사리·가락동·역삼동혼암리유형 병존 조기론(이형원 2010)이 떠오르고, 초기의 내용이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즉 연구자마다 초기의 편년 기준이 다르지만, 여기서는 발표자의 기존 연구(천선행 2015)에 제시한 기준과 편년을 바탕으로 한다.

남한강유역 정선 아우라지유적의 경우, 돌대문토기가 출토된 주거 6동을 모두 동시기의 초기로 보기도 하지만, 위석식노지가 전기까지 이어지고 주거가 인접하고 있어 동시기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전주하는 돌대문토기를 중심으로 외반구연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공반하는 주거(1·6·12호), 돌대가 구연에 접하고 절상돌대가 능가하며 유상돌기가 출토되는 단계(8호), 구연에 접하는 돌대문이 더욱 증가하고 구순각목과 들류문이 확인되는 주거(11·13호)로 나뉘고 앞의 2단계가 초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천선행 2015). 아우라지유적Ⅱ의 경우, 보고자는 돌대문토기출토 단계, 이중구연토기단계, 구순각목 또는 공렬문토기단계로 나누고 있으나(강원문화재연구소 2019) 주거가 서로 인접하는 등 각각을 동시기로 간주하기 어렵기도 하다. 1차 조사에 비추어 볼 때, 석상위석식노가 확인되고 일주 돌대문중심의 토기가 출토되는 17호·18호·30호·31호·32호·42호 정도가 초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전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고 이는 연대측정결과로도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전주 동산동유적에서는 돌대문계 주거가 18동 확인되나 대체로 전기로 판단된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천선행 2016). 또한 보고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은 춘천 중도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주거 1400여동이 확인되었다. 최근의 분류에 따르면, 돌대문토기 단계의 I 유형과 II A 유형 주거지를 동시기에 조성된 성격이 다른 주거형태로 추정(정원철 2019)하기도 하는데, 해당 주거의 수, 분포양상을 알 수 없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실제 동시기 즉 초기?의 대규모 취락유적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모두 초기에 해당한다면, 춘천 중도유적의 특수적 양상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 보면 초기로 판단되는 돌대문토기 주거는 대체로 한 유적에 2~3동, 많아도 6동을 넘지 않는 소규모(천선행 2015, 24)이고, 취락들이 군집하기보다 한반도 내륙부의 수계를 따라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취락간의 입지선정에서의 우월성 등은 대부분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주거는 하천변의 충적대지 상에 열을 지어 분포하고, 주거 규모는 정선 아우라지유적의 경우 90㎡ 이상, 흥천 외삼포리유적은 80㎡ 이상, 춘천 중도유적은 돌대문토기 단계가 61.6~172㎡의 대형인 것을 비롯하여 순창 원촌유적 40㎡ 이상으로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대형 주거의 모습을 띤다. 내부에는 석상위석식노지 또는 토광위석식노지가 1개 내지 2개의 복수로 설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청동기시대 초기 단계의 취락규모는 크다고 볼 수 없고, 한 취락 내 인구규모도 몇

개 세대로 이루어진 혈연적 결속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구나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잔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토기, 석기, 각종 생업도구가 함께 출토되며, 집단 간의 우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기 집단의 취락구성, 입지, 규모, 출토유물에서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사회적 격차 혹은 불평등을 인지하기 어렵다.



〈도면 1〉 정선 아우라지유적Ⅱ 및 17호 주거와 출토유물

다만, 아우라지유적Ⅱ 17호 주거가 주목된다(도면 1). 17호 주거는 면적 60.5㎡로 여타 주거에 비해 크지 않지만, 돌대문토기주거의 중간부에 분포하고, 다른 주거들이 인접하여 배치되는 데 비해 주변이 공지로 남아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옥기와 청동기가 출토된다. 아우라지유적Ⅱ에서 출토된 총 1,171점의 유물 가운데, 옥제품이 137점이고 그 중 115점은 1호 고인돌, 9점은 5호 고인돌에서 출토되고, 유일하게 주거에서는 17호에서 옥기가 13점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동제 장신구 4점과 환상석부 1점이 확인되는 등 다른 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물 구성이 다양하고 출토량도 많다. 17호 주거에서 출토된 청동제 장신구 및 옥기의 소유가 특정 개인에게 속하였는지 혹은 17호 주거 집단¹⁰⁾에게 속하였는지의 검토, 17호 주거에 거주하는 집단의 취락 내에서의 위치와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조기 후반단계의 일부 지역 취락 내에서 특정 집단이 사회적 위세를 소유하고 그 상징성을 이용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그곳이 돌대문토기문화의 초기 정착지인 남한강유역인 점은 후술하는 돌대문토기문화 기원지 양상을 고려할 때, 주목된다.

2. 청동기시대 조기의 생업과 농경

청동기시대 조기의 돌대문토기문화는 요동산지 태자하 일대를 본향으로 하는 마성자문화 집단이 압록강중상류로 유입되고, 여기서 이차적으로 한반도 내륙 수계를 따라 남한강유역 및 북한강유역에 정착하고 다시 수계를 따라 각지로 파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돌대문토기문화는 이전 시기에는 없는 독특한 문화요소로 인해 쉽게 이주민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이주민은 도작 농경민으로 강을 터전으로 한 하천어로, 강 배후의 구릉 산지를 터전으로 수렵, 충적지를 터전으로 한 전작형태의 도작을 복합적으로 일구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천선행 2015, 23).

돌대문토기문화 집단이 농경을 중요 생업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음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난다. 미사리유적 돌대문토기 주거지(KC011·KC015·KC018)에 대한 토기 압흔 분석 결과가 주목되는데, 50점 가운데 벼 1점, 기장 5점, 불명 종자 4점이 확인되었다(孫曉鎬·中村大介·百原新, 2010). 가평 연화리 1호 주거지에서도 벼와 기장이 검출되었고, 전기 돌대문토기 주거인 진주 대평리 어은1지구 104호 주거지에서도 벼, 조, 맥류(보리와 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춘천 중도유적에서 구상경작유구가 돌대문토기 출토 주거지와 중복관계에서 선행하고, F구역 구상경작유구 노출면에서 2개소의 빗살무늬토기와 무문토기군이 확인되고 하층에 신석기시대로 추정되는 수혈유구에 후행 중복하는 것이 밝혀졌으며, 연대는 BC 2210~BC 1270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많지는 않으나, F구역 구상경작유구의 종실유체 분석에서 재배종인 보리 1개체, 기장 4개체, 곡물과편 1개체가 확인되었다(정원철

10) 청동제 장신구와 옥기가 개인에게 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에서 출토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거주하는 집단도 유물이 갖는 사회적 상징성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2019). 즉 돌대문토기문화 단계에 신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벼, 조와 기장, 맥류(보리와 밀), 두류 작물이 전작의 형태로 경작되었음은 분명하다.

돌대문토기문화 집단이 농경을 주 생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은 정착성과 더불어 도구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이삭을 따는 수확구는 청동기시대 돌대문토기문화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초기 주거의 대부분에서 장방형을 띠는 정형화된 석도가 출토되는 점은 돌대문토기문화 단계 주민들의 생업방식의 하나로 신석기시대의 초기농경의 형태를 벗어난 도작을 주축으로 하는 농경이 생계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였음을 의미한다.

조기문화가 도작을 중심으로 한 농경, 수렵, 채집, 하천어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신석기시대 수렵채집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 생계활동이 벌어지는가이다. 신석기시대는 단연코 수렵채집어로활동이 중심이고 이들의 포획 및 획득 시기에 맞추어 생업활동이 벌어지고, 수렵채집어로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초기농경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생업활동은 반드시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¹¹⁾로 한다기보다 대체로 소규모 인원의 생업활동만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돌대문토기문화 사회는 다르다. 농경민인 이주민이 들어오면서 이들의 생활은 파종, 재배, 수확의 사이클을 가진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시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렵, 채집, 어로가 이루어진다. 수렵채집어가가 적은 인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데에 비해, 농경 그리고 경작지를 확대하여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집단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돌대문토기문화 사회는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의 조직화된 협동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였다. 이러한 노동력 확보는 초기에 집단규모가 작을 때는 철저히 혈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노동력의 협동 및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장치이자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세대공동체의 공동 거주형태로 나타난다고 봐야할 것이다. 즉 돌대문토기문화 사회는 농경사회로서 집단의 규모가 아직 그리 크지 않지만, 정착, 잉여가 발생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갖추어졌고, 농사의 시기와 일을 결정하고 노동력을 배분하며 공동체적 결속을 이끌어내던 혈연집단의 서열상 리더와 리더가 포함된 집단이 농경이라는 생업수단 안에서 생산성 확대와 집단유지를 이념화시켜 사회적 지위(권위·권력)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기원지의 양상과 돌대문토기문화 사회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한반도 돌대문토기문화는 소규모 이주 농경민에 의해 형성된다. 앞에서 다룬 사항 이외에 돌대문토기문화는 (장)방형편인석부, 장방형석도, 삼각만입촉 등 정형적인 석기를 특

징으로 한다. 각 집단마다 형태가 정형화되었다는 점에서 석기생산의 집단 내 비전문적 전문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초기 단계의 무덤은 아직 확인된 바 없어 실제로 사회적 분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대문토기문화가 압록강중상류 주민, 나아가 요동산지의 마성자문화에 기원을 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성자문화 양상은 한반도 돌대문토기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성자문화는 요동산지 태자하유역에 분포하는 전기 청동기시대 동굴묘와 출토 자료를 표지로 하는데, 이후 동검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토착문화이다. 특히 한반도 입장에서 마성자문화는 무문토기문화의 형성 및 전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압록강중상류 공귀리유형이 마성자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형성되고(姜仁旭 2011), 마성자문화의 돌대문요소가 한반도 돌대문토기와 관련된다는 견해(安在晔 2000, 朴淳發 2003, 千羨幸 2005·2015)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무순시 신빈현 동승촌유적 출토 호형토기가 한반도 채문토기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며(姜仁旭 2003, 천선행·장순자 2012, 송영진·하용인 2014), 한반도 각지에서 출토되는 이중구연단사선문에 절상돌대문이 부착된 문양 중복양상이 환인 대리수구유적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安在晔 2010). 최근에는 남강유역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내만구연 이중구연완과 전기 토광묘계열의 무덤들을 마성자문화와 관련짓기도 한다(송영진·하용인 2014).

본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마성자문화의 경제와 사회이다. 먼저 마성자문화 동굴묘에서 멧돼지, 사슴을 중심으로 개, 양, 닭뼈 등이 일부 부장되고, 어망추가 부장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마성자문화 주민들은 농업, 가축사육과 어로, 수렵을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석기제작에서 이미 규범화, 전업화, 정형화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산성자에서 5km 떨어진 두도하자(頭道河子)유적에서 대량의 석기와 미완성품이 출토되어 이곳에서 석기제작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무덤에서 출토된 다량의 농업생산구는 마성자문화가 남성노동을 토대로 한 농업경제가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한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다음으로 마성자문화는 인근에 위치하는 동굴 안에 무덤을 설치하는데, 한 동굴에 묻힌 사람들은 혈연적으로 가까운 가족묘적 성격을 띠고, 여러 동굴묘가 밀집하는 양상은 각 혈연집단의 출계 차이를 나타낸다고 추정된다. 보고자는 동굴무덤의 무덤위치와 화장정도, 부장유물 수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혈연관계로 맺어진 유대관계를 유지하던 씨족 내 성원간에 재산축적상의 불균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완만하게 사회변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본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실제로 무덤의 부장양상을 살펴보면, 무덤에 부장되는 유물 수량이 4점미만(3등급), 4~12점미만(2등급), 12점이상(1등급)으로 구분된다(표 3).

11) 전략적으로 대규모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상으로 마성자문화의 생활유적이 분명하지 않지만 무덤유적으로 보는 한, 동굴묘군은 여러 혈연 집단으로 구성된 분절적 사회구조를 보여준다. 무덤의 부장유물 수와 특정 유물을 선호하는 측면에서 혈연집단 내 주민 및 집단 간의 격차가 확인되므로 마성자문화 사회는 혈연에 뿌리를 둔 서열사회(위계사회)로서 농경을 기반으로 자발적 권위를 발휘하는 리더 및 리더집단의 존재를 엿볼 수 있는 정도의 위계화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무덤을 따로 쓰지 않고 공동으로 묻히는 점, 무덤위치와 종류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마성자문화가 생업경제의 안정성을 내세워 집단을 유지하고 결속시키는 데에 주안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리더를 포함한 집단의 위계화가 진행되지만, 그 정도가 현저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최근 정선 매둔동굴에서는 재층(최대 두께18cm)에서 청동기시대 4명분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화장흔적이 확인되며, 연대측정치는 BC 12-8세기로 전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상은 마성자문화 풍습과 관련될 가능성 높다(천선행 2018). 또한 앞서 설명한 아우라지유적Ⅱ에서 확인된 청동제품과 형태는 다르지만, 마성자문화의 장가보A동 M11·M24·M26·M50호에서 6개의 청동장식품이 출토되는 점도 유사하다. 동제품이 출토된 무덤은 3등급도 있지만, 대체로 1·2등급에 집중하고 청동유물 부장이 매우 드물다는 측면에서 당시에 그것을 소유한 집단의 상대적 우월성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현재 아우라지유적Ⅱ 17호 주거에서 출토된 청동장식품은 자체적으로 제작되었다기보다는 교역에 의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교역을 담당할 주체가 누구인지, 일상적이고 항시적인 형태였는지 불확실하고, 교역을 그 지역 집단이 주도한 결과인지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이르다. 다만, 현재의 정황으로만 보자면, 단속적인 원거리 교역을 매개로 한 교역집단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특정 집단에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마성자문화의 석기구성과 정형화된 석기제작형태는 한반도 돌대문토기문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다만, 마성자문화의 경우 석기제작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되어 석기제작의 전업화를 추정하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 석기제작의 전업화를 뒷받침할 사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역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전업적 석기제작형태를 취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청동기시대 초기는 취락규모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고 취락은 몇 개 세대공동체로 구성된 혈연적 결속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 집단의 취락구성, 입지, 규모, 출토유물에서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사회분화,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격차, 위계 등의 뚜렷한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더구나 무덤이 아직 확인된 바 없고 이러한 양상이 전기 일부 시점까지 지속되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 차원의 수직적 관계가 제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청동기시대 초기 사회를 평등사회로 규정할 수는 없다. 초기 돌대문토기문화는 농경사회로서 정착 및 잉여가 발생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갖추어지고 사회복합화의 제 조건이 완비된

사회이다. 기원지인 마성자문화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서열사회를 경험한 농경민에 의해 형성되었음은 분명하다. 물론 마성자문화와 청동기시대 초기문화의 사회형태를 동일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취락, 무덤, 유물의 양상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청동기시대 초기 돌대문토기문화 사회는 혈연중심의 분절사회(서열사회/위계사회)로써, 농경사회 유지를 위해 혈연중심의 노동력 집중화가 요구되는 사회였다. 이에 따라 구성원의 결속력 강화의 장치로 구사되는 세대공동체의 공동거주형태를 보이는 대형주거를 만들고, 농경에 필요한 석기를 비전업적으로 전문제작하며, 혈연 및 성별을 중심으로 한 분업 및 간헐적 교역을 시행한다. 그 결과로 일부 주거에서 유물상의 차이가 드러나고, 특정 집단에 옥기 및 청동기가 집중되기도 한다. 다만 소규모의 농경이주민이 사회분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지향하였더라도, 당시의 농경형태와 집단규모를 생각하면 서열의 정점에 선 리더와 리더를 포함한 집단은 그러한 권위의 표출이 제한되거나 권위를 표출하는 방식이 아직 제도화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IV. 맺음말

신석기시대 후·말기-청동기시대 초기의 사회발전 차이를 설명하는 일은 발표자에게 너무 큰 짐이다. 게다가 고고학에서 특정 시대 특정 지역 주민의 사회 형태를 복원하는 것은 부족사회(분절사회)에 대한 여러 민족지적 연구와는 분명하게 다르고, 그에 따른 제약이 너무 확실하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신석기시대 후·말기에는 사회형태를 논의할 만큼의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발표자에게 청동기시대 초기의 사회형태가 청동기시대 전기와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도 이 문제를 푸는 장애였다.

어떤 형태로든 신석기-청동기시대 사회형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시도가 필요했고, 기존의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신석기시대 조~전기의 복합수렵채집사회에 대한 논의, 돌대문토기문화의 기원지로 여겨지는 마성자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초기의 사회형태를 개략적이거나 살펴볼 수 있었다. 사회분화, 신분분화, 불평등, 위계, 사회복합성 등등의 개념과 적용이 시대마다 다르고, 사회적 격차의 기반과 표출과정 및 형태가 다양한 만큼, 양 시대의 차이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수직적인 사회분화가 분명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복합생업경제라는 측면에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는 분절사회의 범주에 해당하고, 동일 범주 내에서의 차이는 분절사회라는 큰 스펙트럼 안에서 보이는 다양성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 다양성을 설명하는 일은 매우 나열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게 된다.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초기의 사회형태를 조망하면서 분명하게 확인한 사실은-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쉽지만-소위 사회발전단계가 연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신석기시대 조~중기의 복합수렵채집사회가 후·말기로 가면서 사회 복합화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일부 연구자는 사회 복합성이 감소한다고까지 평가하기도 한다. 나아가 신석기시대 후·말기 사회 내에서도 사회형태는 다양하고, 그것이 청동기시대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청동기시대 초기 돌대문토기문화를 기원지인 마성자문화의 사회복합화에 그대로 대비시키는 것도 어렵다.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사회형태의 차이와 사회형태를 변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주요 배경으로 역시 환경변화와 생계경제가 주될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즉 사회형태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각 시대의 생업, 자연환경, 집단규모, 집단의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석기시대 복합수렵채집사회를 수평적 사회분화가 진행된(평등)사회의 한 형태(임상택 2015)로 바라본다면, 청동기시대 초기는 정착과 잉여 축적을 이끌어내는 농경사회로서 수직적 사회분화의 양상을 이미 인지하였던 집단들에 의해 형성된 서열(위계)사회였다. 신석기시대 사회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개인(리더를 포함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협동체계에 기반을 두었다면, 청동기시대 사회는 이미 사회적 격차를 인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개인(리더를 포함하는 집단)이 농경생산력 및 노동력 확대에 목적을 두고 노동력을 배분(통제)하던 사회였다. 다만, 당시의 취락규모와 인구규모로 볼 때, 청동기시대 초기의 집단은 사회적 위계(권위)관계를 여실하게 표출시키고 제도화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에 앞서 당시 사회유지에 필요한 노동력 확대와 결속력 강화를 위해 철저하게 혈연관계를 축으로 한 공동거주 형태를 기본으로 취락을 운영하며 권위를 자발적으로 표출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석기시대 사회가 조~중기의 복합수렵채집사회의 복합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및 자연환경에 따라 사회규모와 형태를 변형시키는 유연성을 갖춘 사회였다면, 청동기시대 초기는 농경 생산력 향상 및 노동력 확대 및 집중화를 위한 사회복합화가 가속화되는 한 방향의 길을 걷게 되며, 개인(리더를 포함한 집단)의 위계(권위)는 집단의 권위 및 권력으로, 나아가 개인의 권력으로 집중되는 여정을 겪으며 국가단계로 나아간다.

<참고문헌>

- 姜仁旭, 2003, 「遼寧地方 太子河上流지역 신발견 彩文土器에 대하여」, 『고고학』 제2권 제2호.
- 姜仁旭, 2011,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 청동기시대의 형성과 전개」, 『동북아역사논총』 33호.
- 강원문화재연구소, 2019, 「정선 아우라지 유적 II」, 강원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158책.
- 김범철, 2015, 「10 사회성격의 이해」,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6.
- 김승옥, 2014, 「익산 신용리 갖점유적의 신석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소고」, 『馬韓·百濟文化』第24輯(pp.53-80).
- 김승옥, 2006, 「분묘 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고고학전국대회(pp.39-82).
- 김장석, 2008,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韓國考古學報』69, 韓國考古學會(pp.94-115).
- 김장석, 2011, 「Ⅷ. 신석기문화의 종말과 청동기문화의 성립」,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3(pp.481-503).
- 김장석, 2018, 「한국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과 초기청동기시대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109, 한국고고학회(pp.8-39).
- 김재운, 2018, 「신석기 말기 남해안 고배형토기의 편년과 재지성 검토」, 『韓國新石器研究』 35.
- 모튼 프리드(박성우·박지연 옮김), 2017, 「부족의 개념」, 민속원 아르케박스 092, 민속원.
- 朴淳發, 2003, 「漢沙里類型 形成考」, 『湖西考古學』9(pp.85-112).
- 朴淳發, 2015, 「扁壘文化的 形成과 展開」, 『韓國青銅器學報』 16.
- 박순발, 2016, 「2. 청동기시대의 시말-그 전환의 획기」,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 編年』.
- 배진성, 2006, 「無文土器社會의 威勢品 副葬과 階層化」,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고고학전국대회(pp.87-109).
- 孫峻鎬·中村大介·百原新, 2010, 「복제(replica)법을 이용한 청동기시대 토기 압흔 분석」, 『야외고고학』 8.
- 송만영, 2006,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 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고고학전국대회(pp.9-29).
- 송영진·하용인, 2014, 「청동기시대 전기 마성자문화요소의 한반도 유입 일 양상-경남 남강~해안지역으로의 직접 유입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92집.
- 신숙정, 2011, 「I. 신석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3.
- 安承模, 2005, 「韓國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農耕 研究의 現狀과 課題」, 『韓國新石器研究』 第10號(pp.7-25).
- 안승모, 2006, 「동아시아 정주취락과 농경출현의 상관관계」, 『韓國新石器研究』 第11號(pp.25-54).
- 안승모, 2015, 「한국 신석기시대 연구의 최근 성과와 과제」, 『신석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립중앙박물관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pp. 3-33).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 安在皓, 2010, 「韓半島 青銅器時代의 時期區分」, 『考古學誌』 第16輯, 國立中央博物館(pp.5-56).
- 안재호, 2016, 「1. 청동기시대의 시기 구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 編年』, 서경문화사.
- 安在皓, 2019, 「松菊里文化的 起源 再考」, 『嶺南考古學』83號(pp.91-125).
- 李旻娥, 2005, 「植物遺體에 基礎한 新石器時代 '農耕'에 대한 觀點의 再檢討」, 『韓國新石器研究』 第10號(pp.27-49).
- 이경아, 2015, 「신석기시대 식물자원 활용연구 성과와 과제」, 『신석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립중앙박물관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pp.97-117).




제3발표

**계층화의 관점에서 본
남한의 청동기시대 전기 사회**

- 주거, 분묘, 청동기, 환구 -

이형원

한신대학교박물관



계층화의 관점에서 본 남한의 청동기시대 전기 사회

이형원 한신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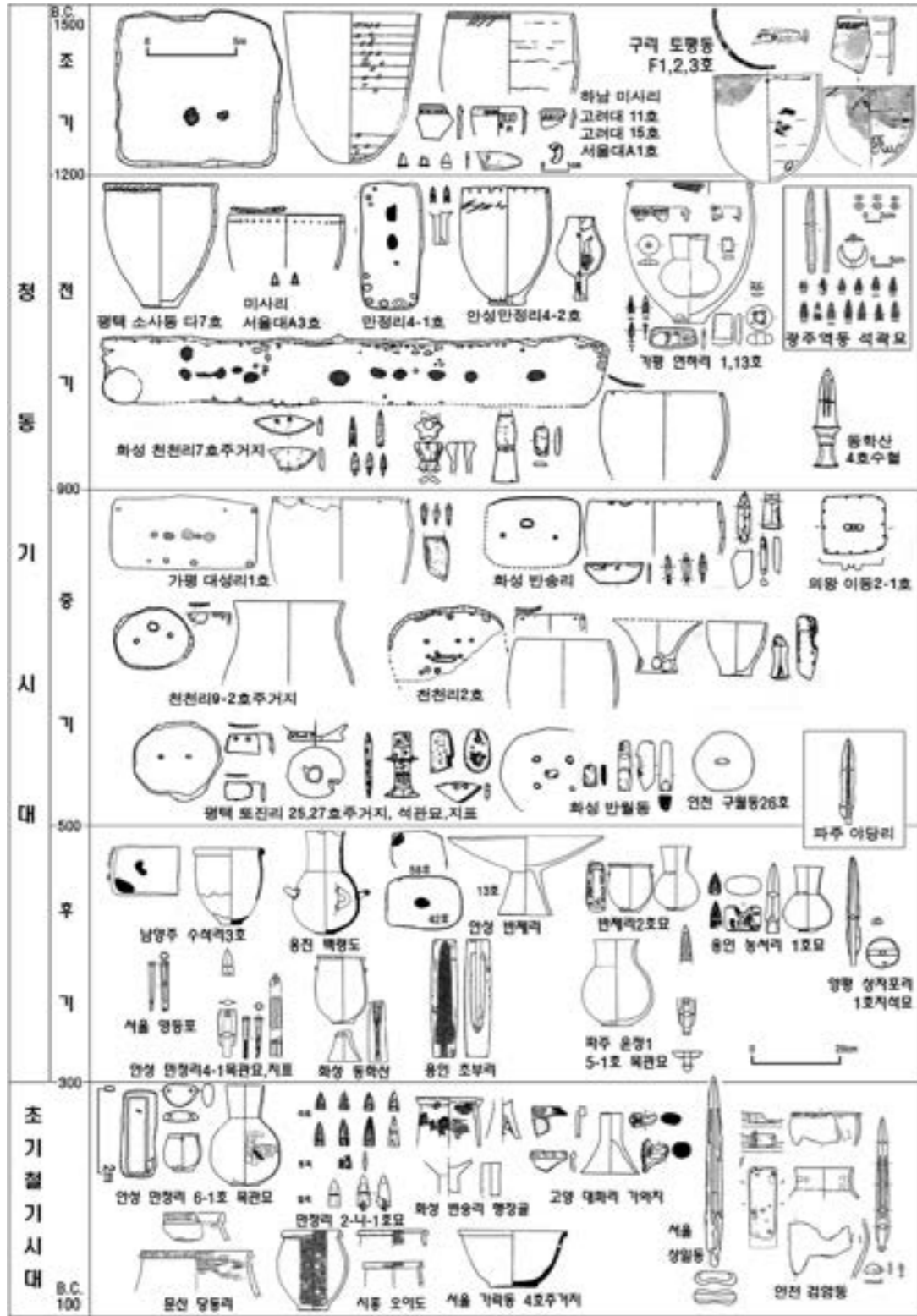
- 주거, 분묘, 청동기, 환구 -

- I. 남한 청동기시대 사회의 계층화
- II. 전기청동기시대의 주거, 분묘, 청동기, 환구
- III. 전기청동기시대의 사회구조

I. 남한 청동기시대 사회의 계층화

한국 청동기시대는 무문토기와 마제석기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청동기를 제작 사용한 시기로서, 고인돌이나 돌널무덤과 같은 정형화된 무덤이나 대규모 취락과 의례공간이 등장하고 농경을 주요 생계경제로 하면서 사회복합도가 한 층 높아진 시대에 해당한다.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전역과 요령지역을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 일대를 포함한다. 역사적으로는 고조선의 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한국 청동기시대의 사회성격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지역차가 존재하는데, 특히 고조선의 핵심 무대인 요령지역과 서북한지역은 남한지역보다 사회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남한의 전기청동기시대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들 사이에 다소 이견이 있지만, 청동기시대의 시간적 범위는 상한 연대를 기원전 1,500년으로, 하한 연대를 기원전 300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 가운데 발표자의 편년안에 따라 청동기시대 전기를 기원전 1200년 경에서 기원전 900년 경까지로 보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서울·경기지역 시기구분 : 각 시기의 물질문화는 후속 시기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공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표자는 이전에 중서부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조직에 대해서 정리한 바 있는데(이형원 2009)¹⁾, 여기에서는 당시의 검토 결과를 기본 토대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청동기시대 사회조직의 계층화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세습지위'의 존재 여부이다. 계층사회(복합사회, 수장사회, 족장사회)의 개념과 관련하여, 문화사에 토대를 둔 서구의 신진화론적 인류학에서는 평등사회와 계층사회를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혈연에 의한 지위의 세습을 들고 있지만, 이와 달리 일본의 신삼시즘에서는 서열을 매기는 작업으로 위계나 계층을 논하고 있다. 우리 학계는 이러한 두 가지 연구사조를 거의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용어가 사용되는 등 혼란한 상황을 맞고 있다(권오영 2006).

물론 구미 이론에 대한 도식적인 도입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회조직에 대한 논의에서는 서구 학계의 선행 연구성과를 어느 정도 참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비스(Service)의 분류: 군집(band)-부족(tribe)-족장(chiefdom)-국가(state), 또는 프리드(Fried)의 분류: 단순 평등사회(simple egalitarian society)-서열사회(rank society)-계층사회(stratified society) 개념, 또한 얼(Earle)이나 프라이스(Price)의 견해를 토대로 정리한 바와 같이 평등사회(egalitarian society)와 계층사회(stratified society)로 분류하는 방식(표 1)도 있을 것이다.

〈표 1〉 평등사회와 계층사회의 주요 특징 (박양진 2006)

	평등사회	계층사회
사회적 특징	수평적 차별화 사회적 분화(남녀노소)	수직적 계층화 불평등의 제도화
사회적 지위	임시 지도자 획득적 지위	세습 지배자 귀속적 지위
경제적 특징	호혜적 교환 임시 수공업자 경제적 분화(성별 및 기능적 분업)	재분배 전업수공업자 경제적 전문화

본고에서 사용하는 위계(화) 또는 계층(화)이라는 용어는 일단 서열화를 전제로 한 의미가 크지만, 구미의 계층화 개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 특히 중기의 송국리문화 시기에 상당한 정도의 사회 복잡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 시기에 유력개인, 또는 유력집단의 존재, 그리고 경제적 측면의 재분배와 전문수공업자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구미식의 사회적 계층화가 제도화된 세습적(귀속적) 지위, 즉 세습 지배자가 존재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분묘자료는 혈연에 의한 세습지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인골은 검토대상 자료가 거의 없어 논의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분묘군의 입지, 규모, 부장품에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1) 2009년에는 송국리문화를 청동기시대 후기로 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송국리문화를 중기로, 원형점토대토기문화를 후기로 구분하는 입장이다(이형원 2010·2011).

위와 관련하여 획득지위와 귀속지위를 구분하는 한 가지 유용한 기준은 어린이들에게 때로 풍부한 부장품이 공반되고 또 차별적 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 이를 세습적 계층체계가 존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가 개인적인 공적을 통해 그러한 지위를 획득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콜린 렌프류·폴 반(이희준 역) 2006, 200쪽).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최몽룡은 나주 판촌리의 소형 지식묘를 통해 지식묘사회가 세습이 인정되는 족장사회(chiefdom society)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김승옥 역시 일부 우월한 집단의 무덤군 내에서 유소아묘가 확인된다고 하여 이를 유력 세대공동체(출계집단)의 무덤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김승옥 2006, 88쪽). 이 무덤들의 피장자가 수장과 혈연적으로 연계된 유아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청동기시대 중기의 사회조직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논쟁거리로 삼을 만하다. 이영문도 고인돌사회를 공동체적인 협동사회이면 서도 어떤 질서에 의한 계층이 발생한 사회로 보고 있는데, 세습신분제에 의한 누세대적인 지배집단을 논하고 있는 점에서 최몽룡, 김승옥과 같이 세습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서부지역 송국리문화 단계의 묘제를 검토한 김승옥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일부 유적이 다른 유적에 비해 상대적 우월성이 인정되고, 일부 엘리트 친족집단의 묘는 개인의 성이나 연령, 능력에 의해 획득되는 ‘성취지위’가 당시 사회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곧바로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거나 제도적으로 고정되는 ‘귀속지위’가 당시에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김승옥 2001). 부여 송국리 유적과 보령 관창리유적의 분묘공간에서 수장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수장 가계의 권력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이형원 2009)

현재로서는 중서부지역의 일부 청동기시대 취락은 구미식의 평등사회와 계층사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송국리나 관창리와 같은 중심취락은 경제적으로 재분배, 전문수공업자, 경제적 전문화가 인정되며, 공동체성이 강화된 상태에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3단계의 계층으로 구분된 계층사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집단의 사회조직의 정점에는 획득지위에 해당하는 수장(지배자) 혹은 권력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혈연에 의해서 세습되는 제도화된 권력구조는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한시적으로 수장의 지위가 계승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회조직의 구조적 측면에서 지위가 제도화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송국리단계를 단순히 평등사회 아니면 계층사회라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계층사회에 대한 개념 역시 “획득지위만 허용되는 계층사회”와 “귀속지위가 제도화된 계층사회”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티모시 얼(Earle 1991)이 말하는 취프덤 사회를 단순 수장(simple chiefdom)과 복합 수장(complex chiefdom)으로 나누는 구분과 어느 정도 가까운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얼의 단순 수장사회가 수천명의 인구 규모를 갖는 정치체라는 점과 수장 지위의 세습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본고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을

감안하면, 전자를 “단순 계층사회”로, 후자를 “복합 계층사회”로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청동기시대 중기 사회는 “단순 계층사회”로 분류된다.(이형원 2009)

〈표 2〉 평등사회와 세분된 계층사회의 주요 특징

	평등사회 - 서열사회 (구분 필요)	단순 계층사회	복합 계층사회
사회적 특징	수평적 차별화 사회적 분화(남녀노소)	심화된 수평적 차별화	수직적 계층화 불평등의 제도화
사회적 지위	임시 지도자 획득적 지위	한시적 수장(지배자) 획득적 지위	세습 수장(지배자) 귀속적 지위
경제적 특징	호혜적 교환 임시 수공업자 경제적 분화(성별 및 기능적 분업)	재분배 전업수공업자 경제적 전문화	재분배 전업수공업자 경제적 전문화

결론적으로 중서부지역에서는 부여 송국리와 보령 관창리취락을 통해 이전 시기 또는 동시기의 여타 취락에 비해 집단의 사회조직이 보다 복잡하고 발전된 모습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 두 취락(집단)의 공동체를 상위계층-중위계층-일반계층의 3단계로 서열화하였으며, 이를 歐美의 사회조직 분류를 일부 변용한 “단순 계층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세습지위가 제도화된 “복합 계층사회”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검토나 전후 시대의 양상에 대한 통시적 검토를 진행하면서 규명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송국리단계 이전의 사회를 모두 평등사회라는 하나의 개념으로만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검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었지만,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대전 비래동이나 서천 오석리 오석산 분묘유적의 존재로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 사회는 평등사회보다는 서열사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향후의 자료증가와 함께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우선 사회조직의 발전단계를 평등사회-서열사회-단순 계층사회-복합 계층사회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형원 2009).

한편 김승옥(2007)은 족장사회를 집단지향적 족장사회와 개인화 족장사회로 구분한 렌푸류의 제안을 수용하여, 지식묘사회는 대규모 농업공동체를 이룬 집단 성향의 족장사회로, 세형동검사회는 이동성의 혼잡경제가 발달한 개인성향의 족장사회로 분류하였다.

II. 전기청동기시대의 주거,분묘,청동기,환구

〈김천 송죽리취락〉

김천 송죽리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에 걸치는 시기의 취락 구조를 검토할 수 있는 양호한

자료이다. 송죽리 1단계인 청동기시대 전기 전반은 소규모 취락으로 주거 몇 동만으로 이루어지며, 무덤은 존재하지 않는다.

송죽리 2단계인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은 취락규모가 확대되었는데, 광장을 중심으로 주거들이 환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시기의 분묘는 2기가 존재하는데, 4호 및 18호 지석묘이며, 4호 지석묘와 바로 인접한(1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비파형동검이 바닥에 꽂힌 채 노출되었는데, 취락을 위한 의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 후반부터 취락 내의 무덤 조성이 가시화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4호 지석묘는 주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45호 주거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석묘는 취락 지도자의 무덤이면서 동시에 취락민 전체를 위한 기념물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는 청동검의 의례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무덤은 지도자의 매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집단 전체를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취락의 상징성을 갖는 4호 지석묘가 취락의 최북단에 주거공간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된 점에서도 뒷받침된다(이형원 2012).

〈청원 대울리 환호취락〉

청원 대울리 환호취락은 구릉 정상부에 입지한 2동의 대형 주거(1·9호)를 중심으로 소형 주거 7동(2~8호)이 내환호를 사이에 두고 사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취락 전체를 감싸 듯이 외환호가 돌아가고 있다. 취락의 공간 구조상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2동의 주거 면적이 47.9(9호)~67.6㎡(1호 잔존면적)인 반면에, 나머지 7동의 주거들은 모두 30㎡ 이하로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2동씩 짝을 이루어 주거군을 형성하고 있는데(공민규 2005), 이와 같은 주거단위는 세대공동체일 가능성이 높다. 취락구조에 따른 입지적 우월성과 면적 차이를 기준으로 보면, 정상부의 1·9호 세대공동체를 상위계층으로, 사면부에 일렬로 늘어선 나머지 세대공동체(2·3호군, 4·5호군, 7·8호군) 또는 개별 세대(6호)는 일반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대울리 환호취락은 사회조직 원리 측면에서 2단위의 계층(상위-일반)이 존재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화성 천천리취락〉

천천리취락은 발굴범위에 한정해서 본다면, 7호 주거를 정점으로 여타 주거들이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배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 규모 및 유물상에서 최대인 7호 주거가 구릉의 상부에 위치하면서 동서로 길게 자리잡고 있고, 여기에서 서쪽으로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 7호주거와 직교하는 1호 주거가 위치한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6호와 9-1호, 5호와 3호가 마치 7호에서 1호를 향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길(道)의 양 옆으로 7호 및 1호 주거와 직교하면서 축조되어 있다. 특히 6호와 9-1

호는 7호 주거와 5m 정도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매우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7호의 남쪽에 있는 10호와 11호 역시 7호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직교 또는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아마도 전체 주거들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한 7호 주거를 중심으로 취락의 공간구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7호 주거의 유물 수량은 취락 내 최대일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비교적 高價로 판단되는 소환옥(장신구)이나 권위적인 색채를 띠는 성형석부의 존재 역시 주목할 만하다. 비파형동검과 더불어 무기이면서 위세품으로 평가하고 있는 마제석검이 5점이나 되는 점에서도 이 7호 주거의 위상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천천리의 7호 주거는 입지, 규모, 유물상 등에서 여타 주거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취락을 이끄는 지도자(리더)와 그의 가족이 살았던 가옥으로 추정된다.

〈청동기 부장 무덤〉

- 광주 역동 석곽묘
- 춘천 우두동 석관묘
- 대전 비래동 지석묘
- 서천 오석리 주구석관묘
- 김천 송죽리 지석묘
- 서북한지역 : 배천 대아리 석관묘, 신평 선암리 석관묘
- ◎ 조기청동기시대에 보이지 않던 가시적인 정형화된 무덤의 출현과 전개
 - 청동검과와 석제 무기(석검, 석촉) 부장의 의미
 - 청동기의 출현, 장거리 교역 및 최첨단 제작 기술의 발전
 - 무기의 사용과 정형적인 부장 패턴은 사회적 긴장, 갈등, 대립, 전투(폭력)관계의 표상
 - 전기청동기→(중기청동기→후기청동기→초기철기→원삼국)→삼국시대
 - 사회적 분열과 통합 → 계층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
 -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한반도 파급 : 무덤, 청동기, 무기
 - 지도자의 지도력(리더쉽) 증대, 계층간(상위계층과 일반계층) 차별화 부각

〈대형 주구묘와 군집묘의 형성〉

- 춘천 천전리 6호(42.5×5.5m)
- 홍천 철정리 2호(43.28×3.82m)
- 진주 대평리 옥방8지구 (23.2×7.4m)

◎ 대형 주구묘는 고인돌과 더불어 취락을 상징하는 기념물의 성격

- 주구내 매장주체부가 단독이거나 복수

- 최대규모의 무덤, 군집 형성 : 유력 가구공동체(세대공동체)(?)의 집단묘역

→ 중기사회(송국리문화)의 분묘군 형성과 연결

-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서천 오석리 주구석관묘의 사례를 감안하면, 천전리유적이나 철정리유적의 미조사지역에서 동검부장묘가 확인될 가능성 있음

<청동기 소유 주거>

○ 정선 아우라지 17호 주거지(청동장신구 4점)

○ 춘천 근화동 1호 주거지(용도불명청동기 1점)

○ 청주 학평리(비파형동검 1점)

○ 참고자료 : 덕천 남양리(16호-비파형동모 1점, 20호-단추모양청동기 5점)

◎ 거주자가 청동기를 소유했다는 확실한 증거

- 무덤은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나 사회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지만, 무덤을 만든 산 사람들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어려움.

- 주거지 유물이야말로 거주자의 사회적 위상을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

- 이후 시기의 춘천 중도취락 청동기(비파형동검,동부) 출토 주거지 주목

<환구(의례공간) 취락>

○ 구리 토평동

○ 평택 용이동

○ 화성 쌍송리

○ 완주 구암리

◎ 정형화된 환구(의례공간,광장)의 형성

- 환구 축조 및 운영의 주체, 공동체의 의례를 주관하는 제사장(취락의 지도자)

- 환구취락 내 최대 규모 주거의 거주자=취락의 지도자=제사장=상위계층

Ⅲ. 전기청동기시대의 사회구조

취락고고학의 측면에서 주거를 비롯하여 분묘, 청동기, 환구(의례공간)를 검토한 결과, 남한 청동기 시대 전기의 사회조직은 2단위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주거공간에서 확인되는 주거군 간의 차별화는 취락을 이끄는 지도자 또는 유력자(우월자) 및 그의 가족들(가구공동체-세대공동체)과 나머지 취락 구성원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김천 송죽리유적과 같이 일부의 전기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주거지와 함께 분묘가 발굴된 유적을 고려하면, 분묘에 묻힌 사람은 취락을 대표하는 상위계층, 즉 지도자와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계층은 분묘를 축조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분묘 또는 분묘군의 형성이 취락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지위가 혈연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귀속지위가 아닌 획득지위로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 청동기시대 전기 사회가 농경사회이긴 하지만, 논농사에 비해 화전농경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동을 수반한 불안정한 정주 취락의 성격상 취락의 지도자는 항상 새로운 농경지에 대한 탐색 및 개척과 취락민들을 관리해야 하는 등 많은 지혜와 정보를 지닌 자가 담당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무덤은 대부분 단독묘나 2기 등이 조성된 경우가 많은데, 분묘 피장자는 대부분 취락의 지도자로 생각되며 더욱이, 많은 수의 취락 가운데 분묘의 존재가 미미한 현상에 주목한다면, 지도자 가운데에서도 취락의 선조격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서 남한의 청동기시대 전기 사회는 취락의 지도자와 그의 가구공동체(세대공동체)에 해당하는 상위계층과 그 이외의 일반계층으로 이루어진 2단위의 계층이 존재했던 사회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 때 지도자의 사회적 위치는 집단에서의 여러 가지 공적을 통해 성취 또는 획득되는 지위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주거공간과 분묘공간에서 차별화가 나타나는 이유이며, 이러한 점에서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가 계층사회의 맹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광주 역동 석곽묘, 춘천 우두동 석관묘, 대전 비래동 1호 지석묘, 서천 오석리 오석산유적의 주구석관묘 등에서 청동기(비파형동검)가 부장되는 현상에서도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이형원 2009·2014).

청동기 부장 무덤의 양상으로 볼 때, 이전 시기에 보이지 않았던 청동기와 정형화된 무덤이 함께 등장하여 전개되는 것은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파급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의 존재는 장거리 교역의 결과물이며, 이것의 현지 생산은 최첨단 청동 야금 전문가의 출현을 의미한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이 전기청동기시대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중기와 후기에 발전한다. 비파형동검을 비롯하여 이것을 모방하여 제작된 마제석검 등이 마제석촉과 함께 무덤이 부장되는 것은 무기를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무기의 사용과 정형적인 부장 패턴은 사회적, 긴장, 갈등, 대립, 전투(폭력) 관계를 표상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분열과 통합 과정에서 나

타나는 것으로 사회의 계층화(복합화) 현상과 관련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기청동기시대에 정형화된 무기로써 검과 화살의 무덤 부장은 이후의 중,후기청동기시대를 비롯하여 삼국시대까지 이어지는 현상이다. 청동기 무덤은 이전 시기에 비해 공동체 지도자의 권위와 지도력의 증대, 그리고 상위계층과 일반계층의 차별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자료이다. 다만 청동기는 동검 1점이 대부분이며, 주로 단독묘인 점에서 볼 때, 상위계층의 규모는 크지 않았고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계층성이 결코 장기간 지속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요동청동기문화의 영향을 받아 사회 복잡도가 어느 정도 증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가속화 한 것은 수도농경을 기반으로 한 송국리문화부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길이 40미터가 넘는 주구묘가 확인된 춘천 천전리유적과 홍천 철정리유적은 주목된다. 이와 같은 초대형 주구묘는 고인돌과 더불어 취락을 상징하는 기념물로도 볼 수 있다. 주구 내에 매장주체부가 한 개인 것도 있지만 복수인 것도 존재하는 점, 주구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유력 가구공동체(세대공동체)의 집단묘역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기청동기시대에는 잘 보이지 않으며, 중기의 송국리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기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청동기가 출토된 정선 아우라지 17호 주거지(청동장신구4점), 춘천 근화동 1호 주거지(용도불명청동유물1점), 청주 학평리 주거지(비파형동검1점)의 사례는 거주자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해주는 양호한 자료이다. 다만 근화동과 학평리의 예는 취락의 관점에서 검토할 만한 자료는 아니다. 아우라지유적의 경우는 취락 전체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지만, 청동 장신구를 소유한 17호 주거가 다른 주거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17호 동쪽의 빈공간은 광장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볼 때 입지상으로는 제법 좋은 장소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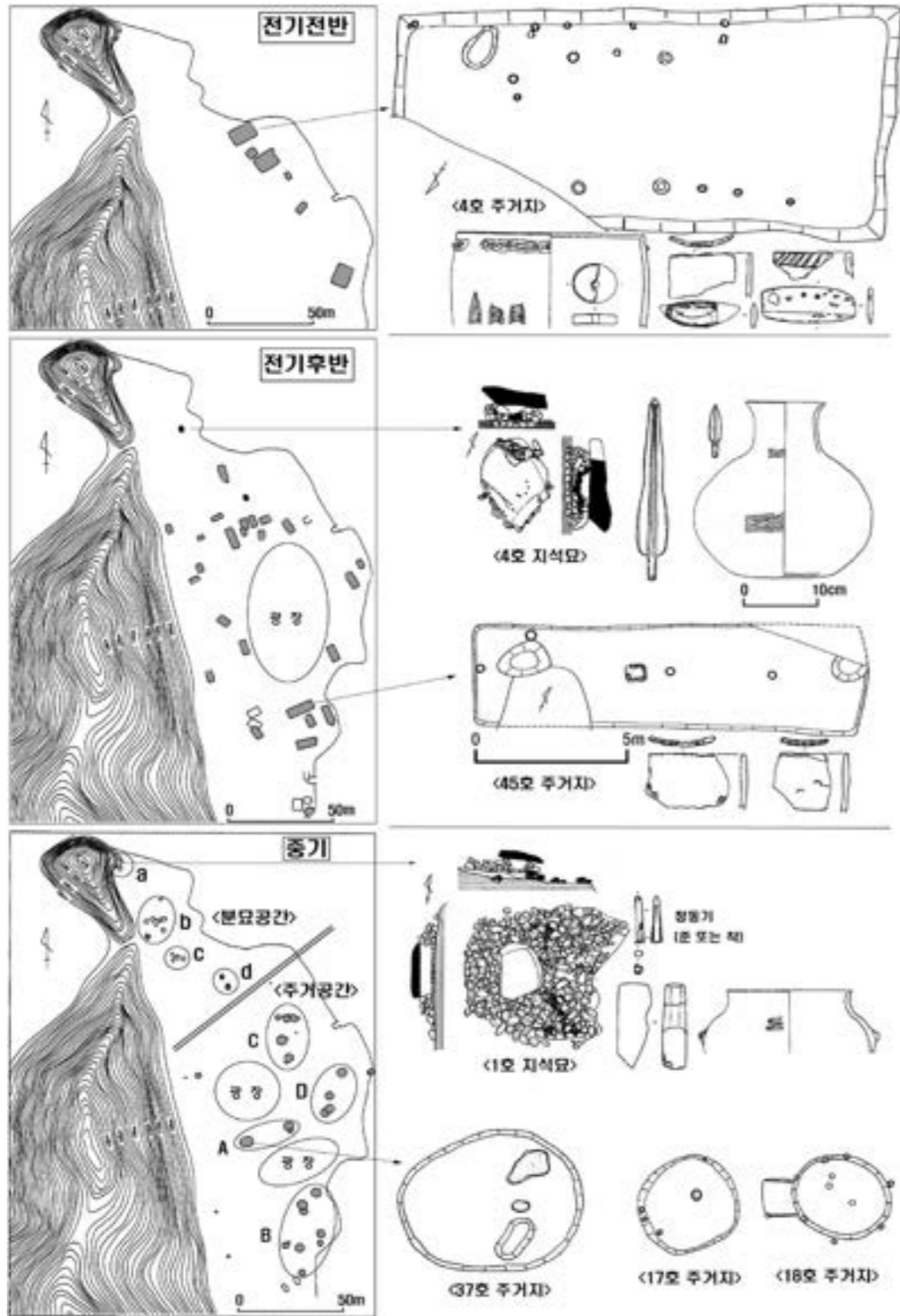
의례공간으로 추정되는 정형화된 환구의 존재는 그것을 축조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평택 용이동과 화성 쌍송리의 사례로 보면, 취락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가옥의 거주자가 공동체의 의례를 주관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취락의 지도자는 의례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면서 집단의 상위계층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발표자가 전기청동기시대의 사회구조를 상위계층과 일반계층으로 양분하였지만, 배진성(2007)은 ①위세품(검)을 부장할 수 있는 계층, ②위세품은 없지만 분묘를 축조하는 계층, 그리고 ③분묘를 축조할 수 없는 하위계층 등 3계층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분묘와 위세품의 검토를 통한 서열을 살펴보는 연구로서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거공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후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문제지만, 계층화 논의에 있어 주거와 분묘, 그리고 위세품과 의례공간 등을 함께 검토하는 광의의 취락고고학적 측면의 종합적인 해석과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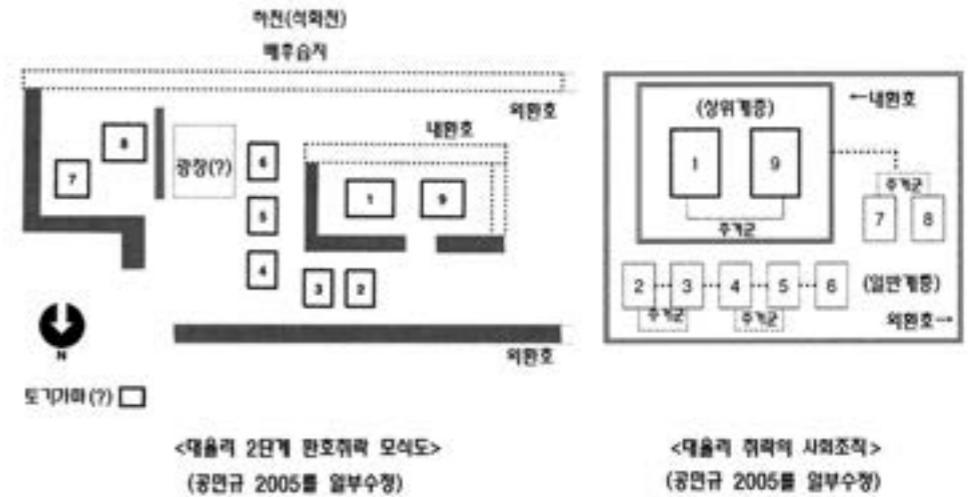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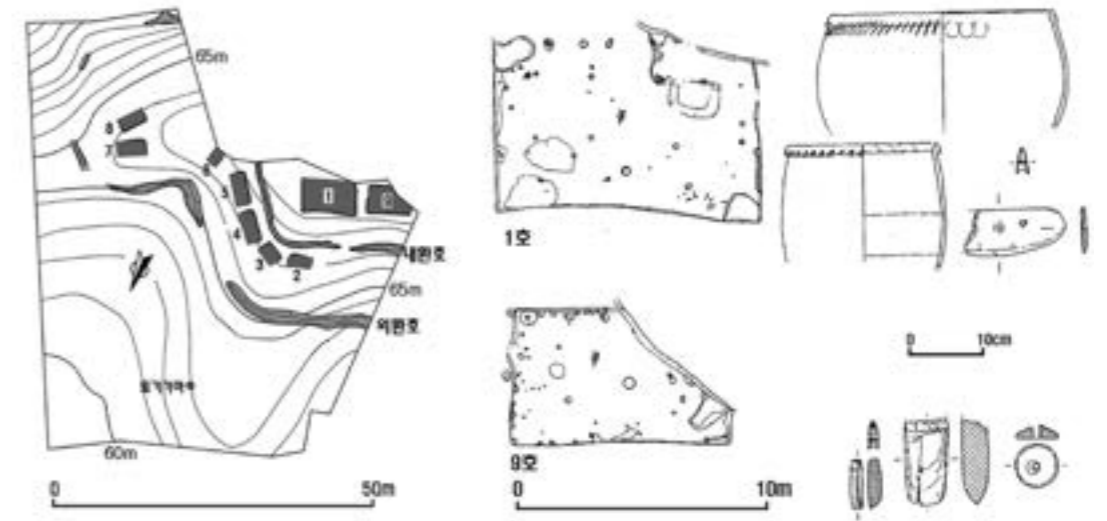
<참고문헌>

- 공민규, 2005, 「중부지역 무문토기문화 전기 환호취락의 검토-청원 대울리 환호취락의 성격-」, 『연구논문집』창간호, 중앙문화재단연구원.
- 권오영, 2006,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개별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 요지문」,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韓國考古學會
- 김승옥, 2001,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45, 한국고고학회.
- 김승옥, 2003, 「금강상류 무문토기시대 무덤의 형식과 변천」, 『한국고고학보』 49, 한국고고학회.
- 김승옥, 2006, 「묘역식(용담식) 지석묘의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53, 한국상고사학회.
- 김승옥, 2007,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편, 사회평론.
- 김용, 2012, 「고찰-청동기시대」, 『화성 쌍송리유적』, 기호문화재단연구원.
- 박양진, 2006, 「한국 지석묘사회 “족장사회론”의 비판적 검토」, 『호서고고학』 14, 호서고고학회.
- 배진성, 2007, 「무문토기시대의 계층구조와 국」,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편, 사회평론.
-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 이형원, 2010, 「청동기시대 초기설정과 송국리유형 형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고학』 9-2, 중부고고학회.
- 이형원, 2011, 「중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시간성과 공간성」, 『호서고고학』 24, 호서고고학회.
- 이형원, 2012,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분묘공간 조성의 다양성」,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 학연문화사.
- 이형원, 2014, 「취락과 사회구조」, 『청동기시대의 고고학3 취락』, 한국고고환경연구소학술총서 12, 서경문화사.
- 이형원, 2018a, 「토기로 본 고조선 연구의 비판적 검토-비파형동검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6, 한국고고학회.
- 이형원, 2018b, 「삼한 소도의 공간 구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중부지역의 환구 유적을 중심으로-」, 『백제학보』 24, 백제학회.
- 콜린 렌프류 · 폴 반(이희준 역), 2006, 『현대 고고학의 이해』, 사회평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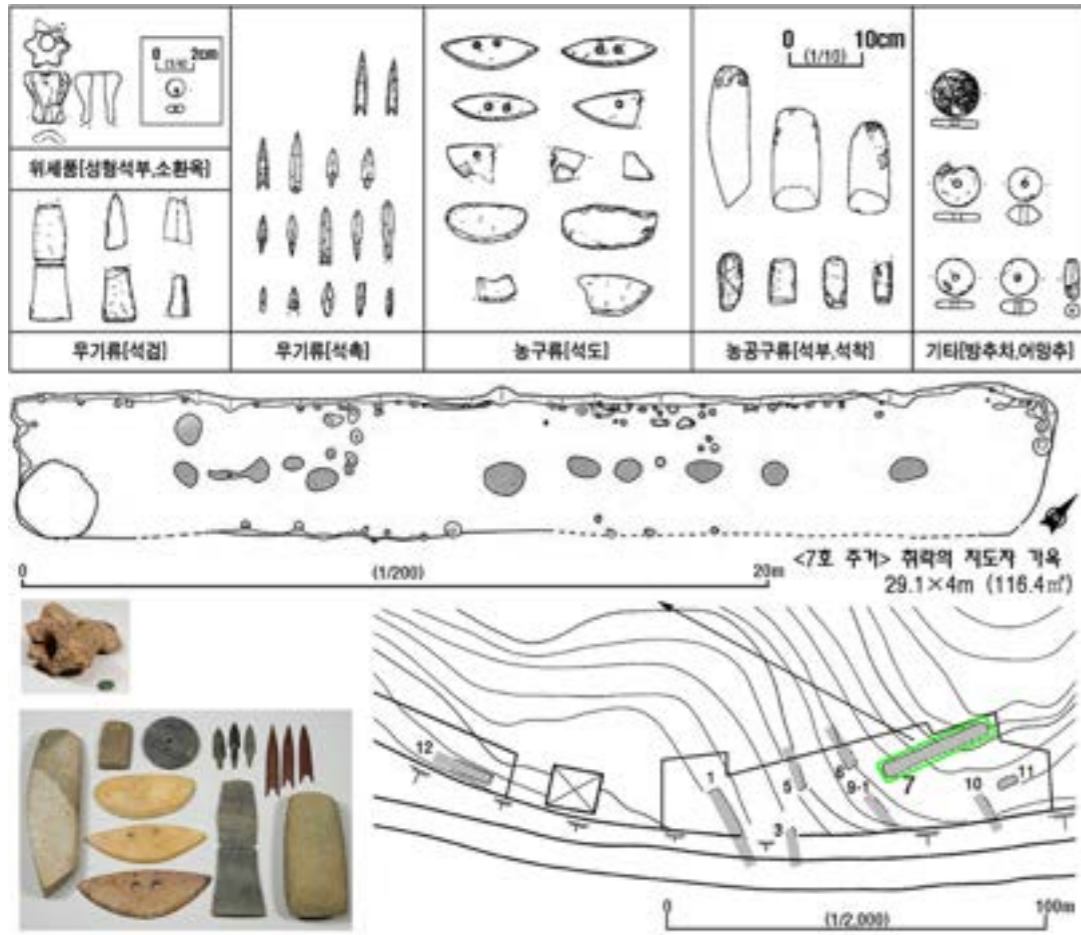
※ 발표문 작성 과정에서 손준호, 이후석, 홍주희 선생님께서도 도움을 받았기에 감사를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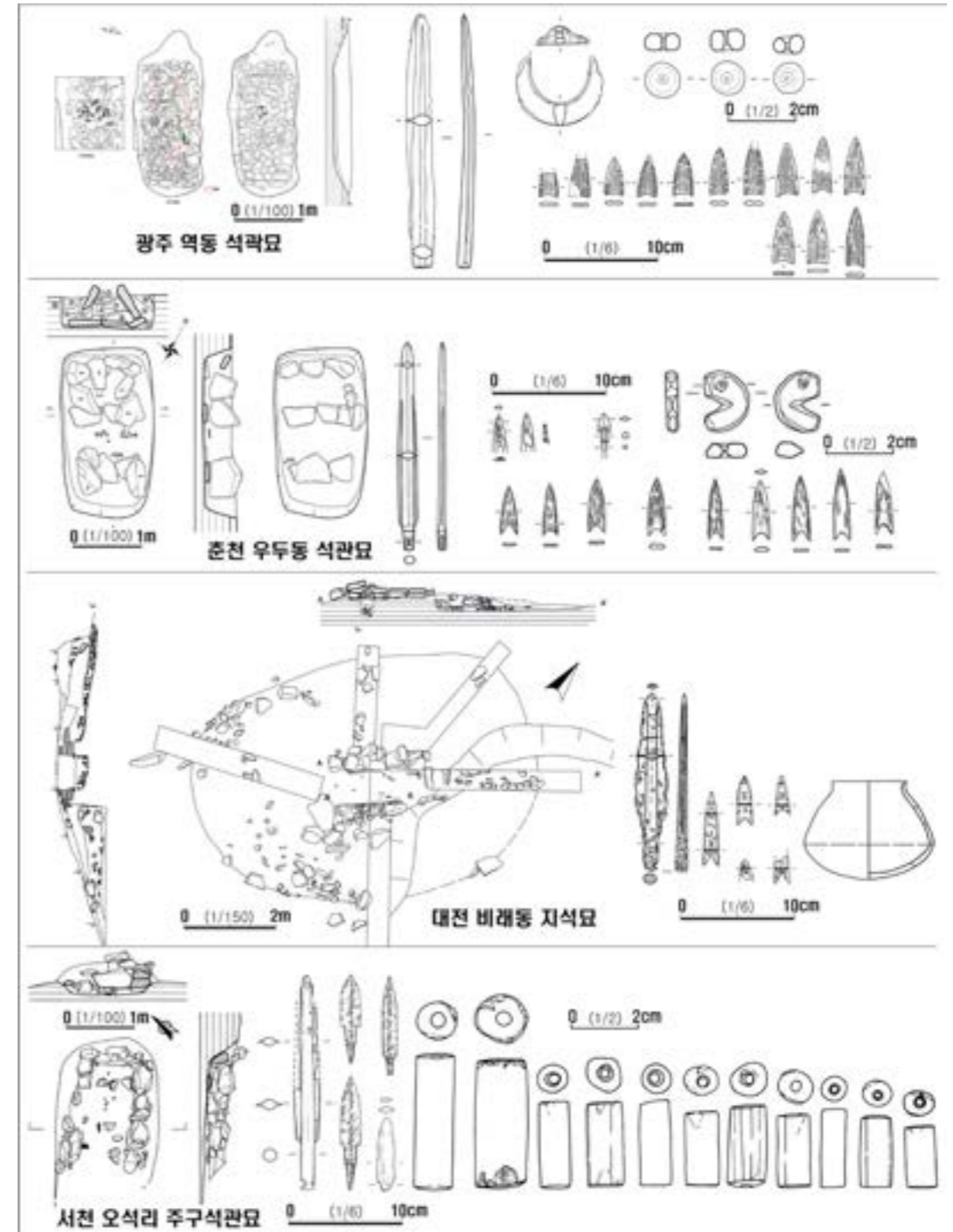
〈그림 2〉 서울·경기지역 시기구분 : 각 시기의 물질문화는 후속 시기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공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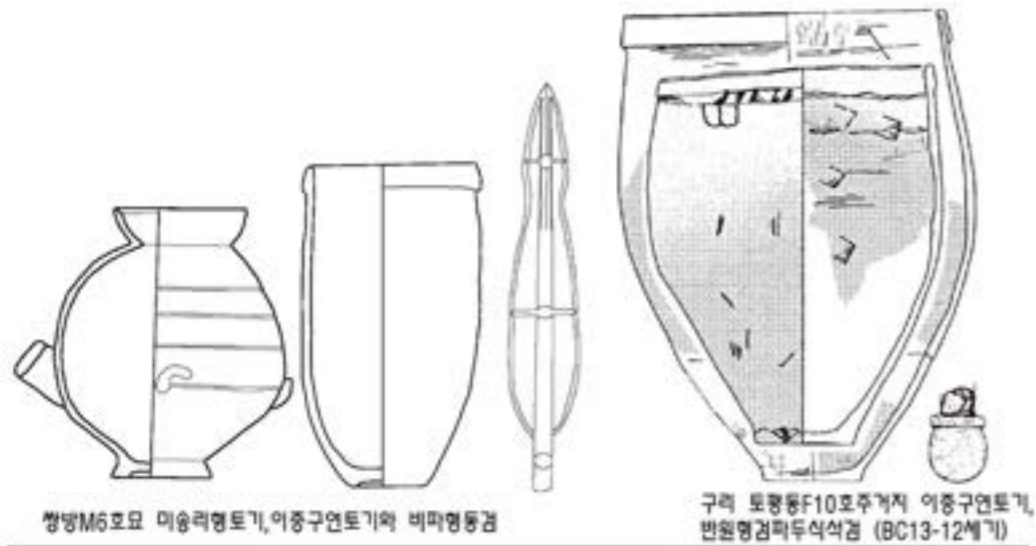
〈그림 3〉 청원 대울리 환호취락의 구조와 사회조직 : 공동체의 상위계층과 일반계층의 거주 공간이 환호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나타내는 차별화된 구조이며, 주거의 규모도 큰 차이가 있다.



〈그림 4〉 화성 천천리취락의 구조와 공동체 지도자의 가옥인 7호주거 : 주거의 규모는 최대규모이며, 유물의 수량과 위세품의 존재도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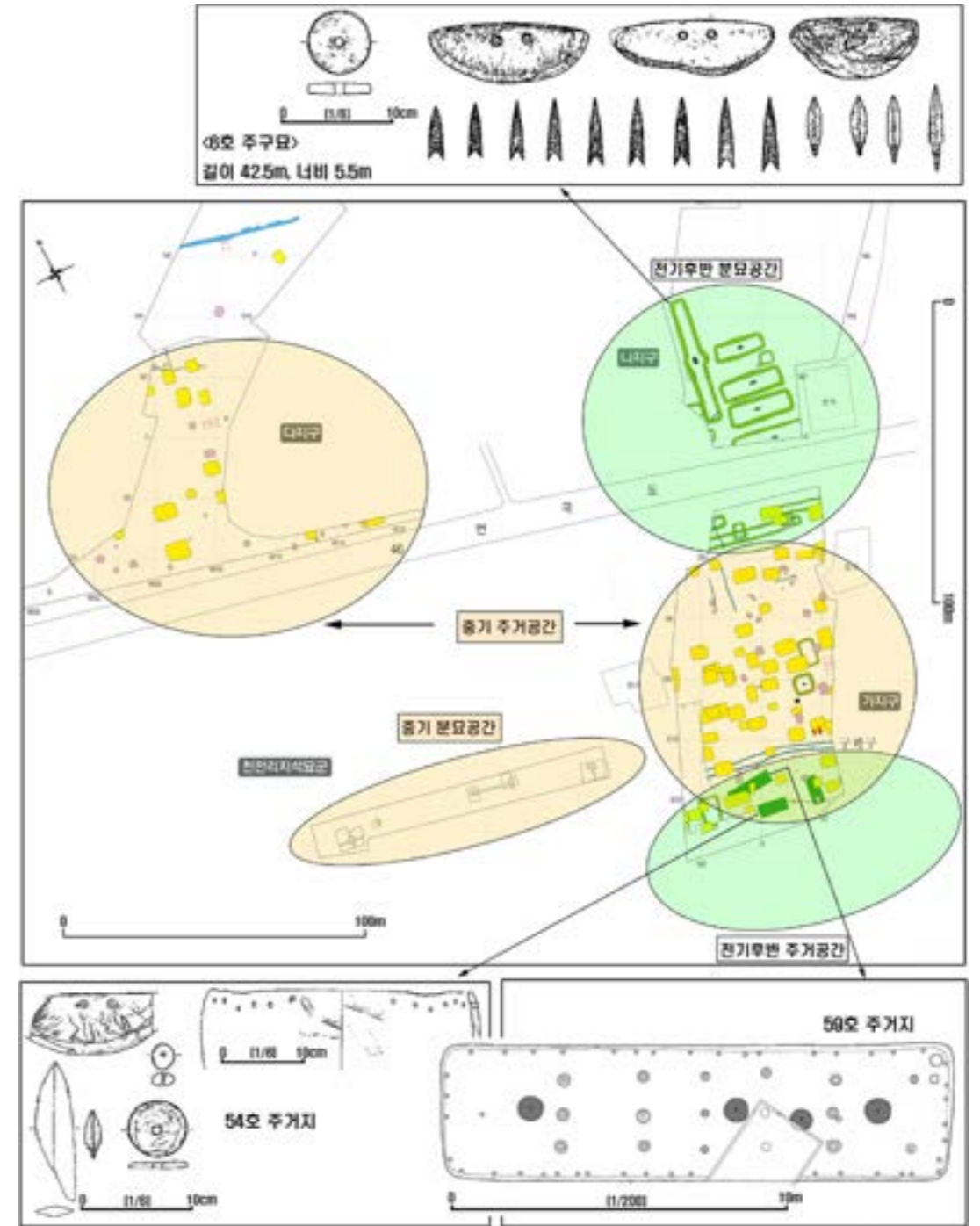


〈그림 5〉 청동검을 부장한 전기청동기시대 무덤 : 요동비파형동검문화의 영향을 받아 청동기와 무덤이 출현하며 무기가 부장된다. 사회복합도의 증가를 반영하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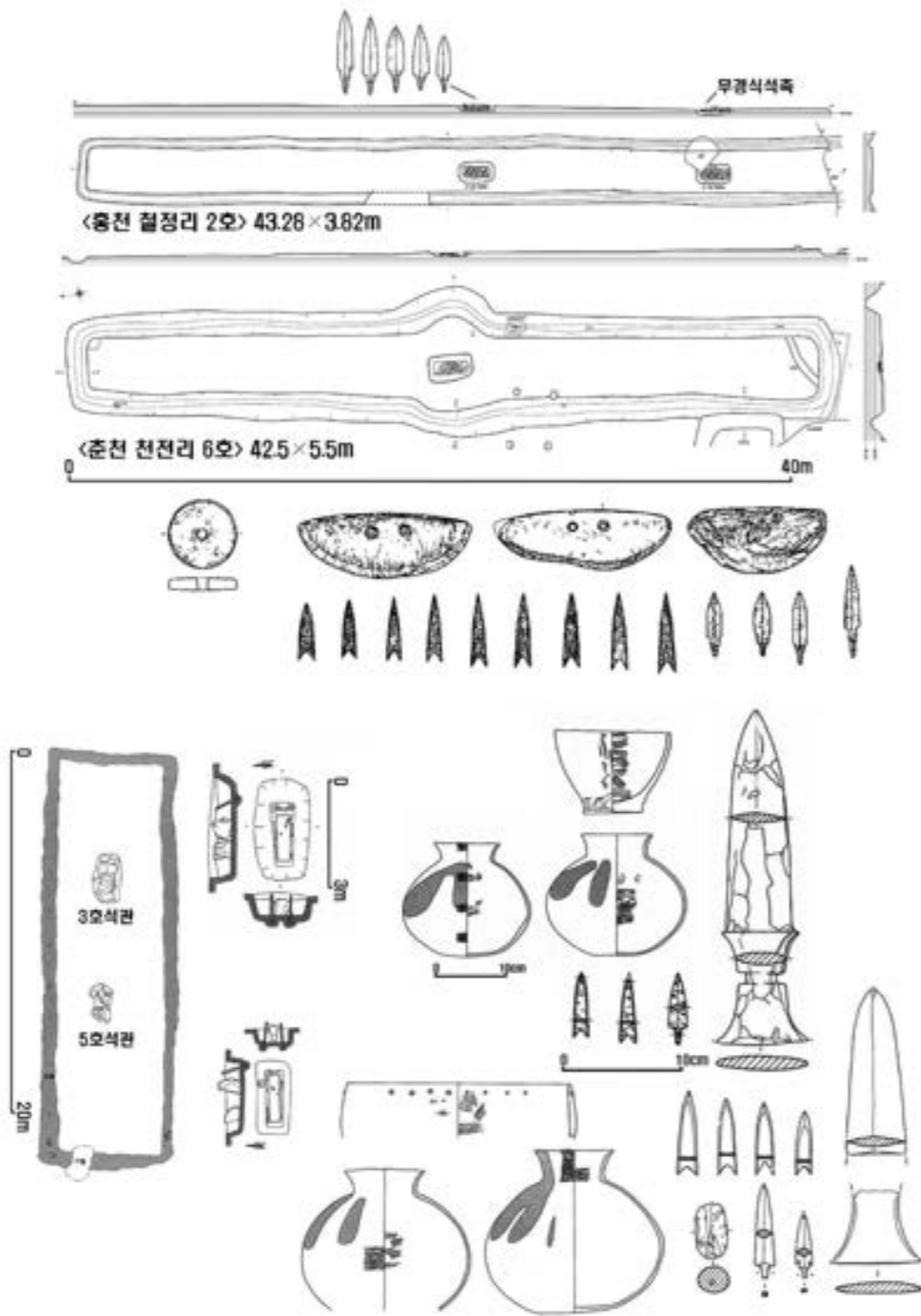


유적/유구	C14연대	보정연대범위		시료
		1σ(68.2%)	2σ(95.4%)	
쌍방 M6호묘	BP2985	BC1267-1194 (62.9%)	BC1304-1152 (87.3%)	목탄
		BC1142-1133 (5.3%)	BC1147-1129 (8.1%)	
장주 역동 석곽묘	BP2955	BC1213-1129 (63.3%)	BC1265-1111 (90.6%)	인골
		BC1251-1244 (4.9%)	BC1103-1074 (3.6%)	
대전 비래동 1호 지석묘	BP2860	BC1065-930	BC1145-900	목탄
장주 학령리	BP2896	BC1125-1020	BC1210-990	목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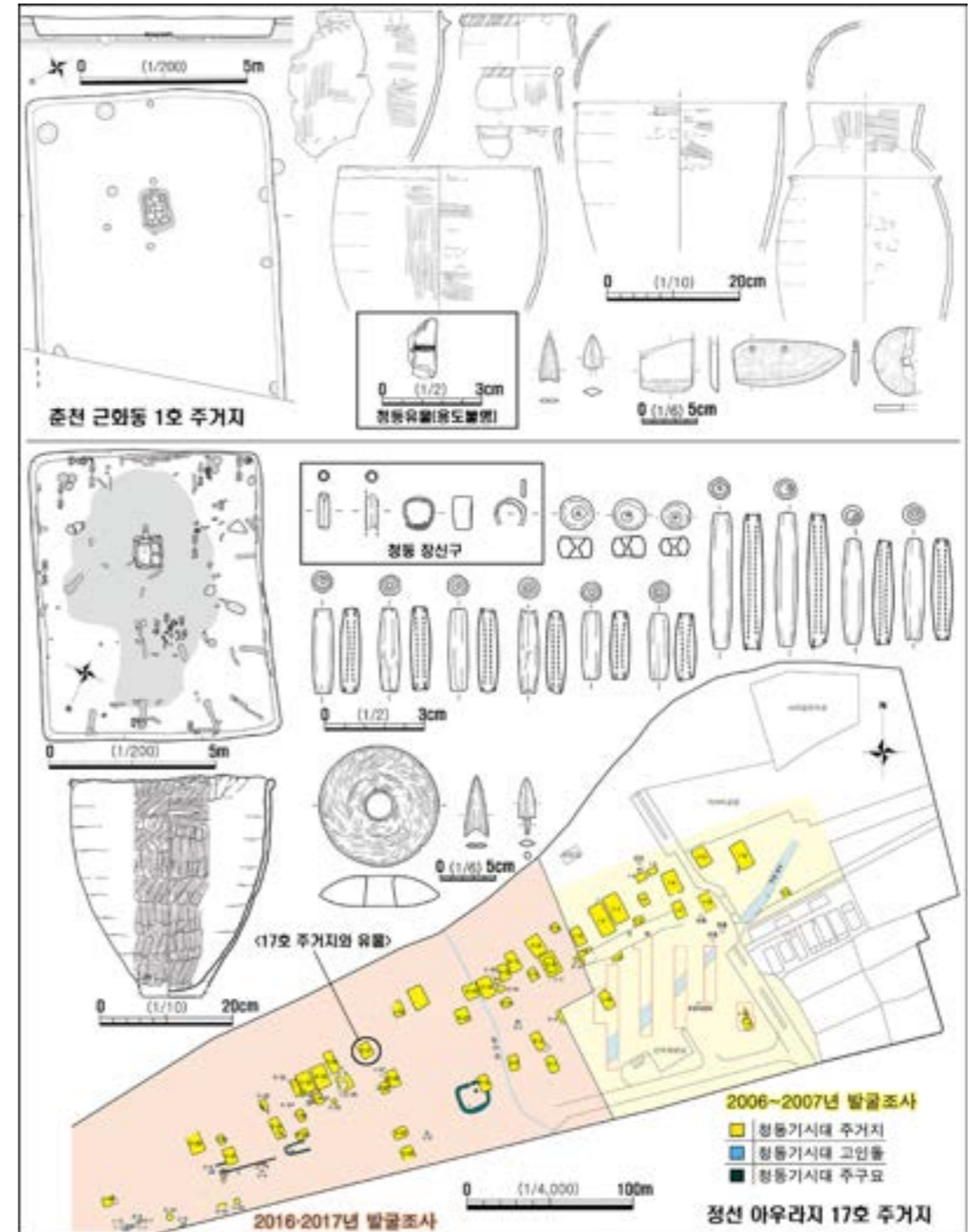
〈그림 6〉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한반도 파급 (이형원 2018a수정) : 전기청동기시대의 비파형동검의 발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북한과 남한의 비파형동검은 요동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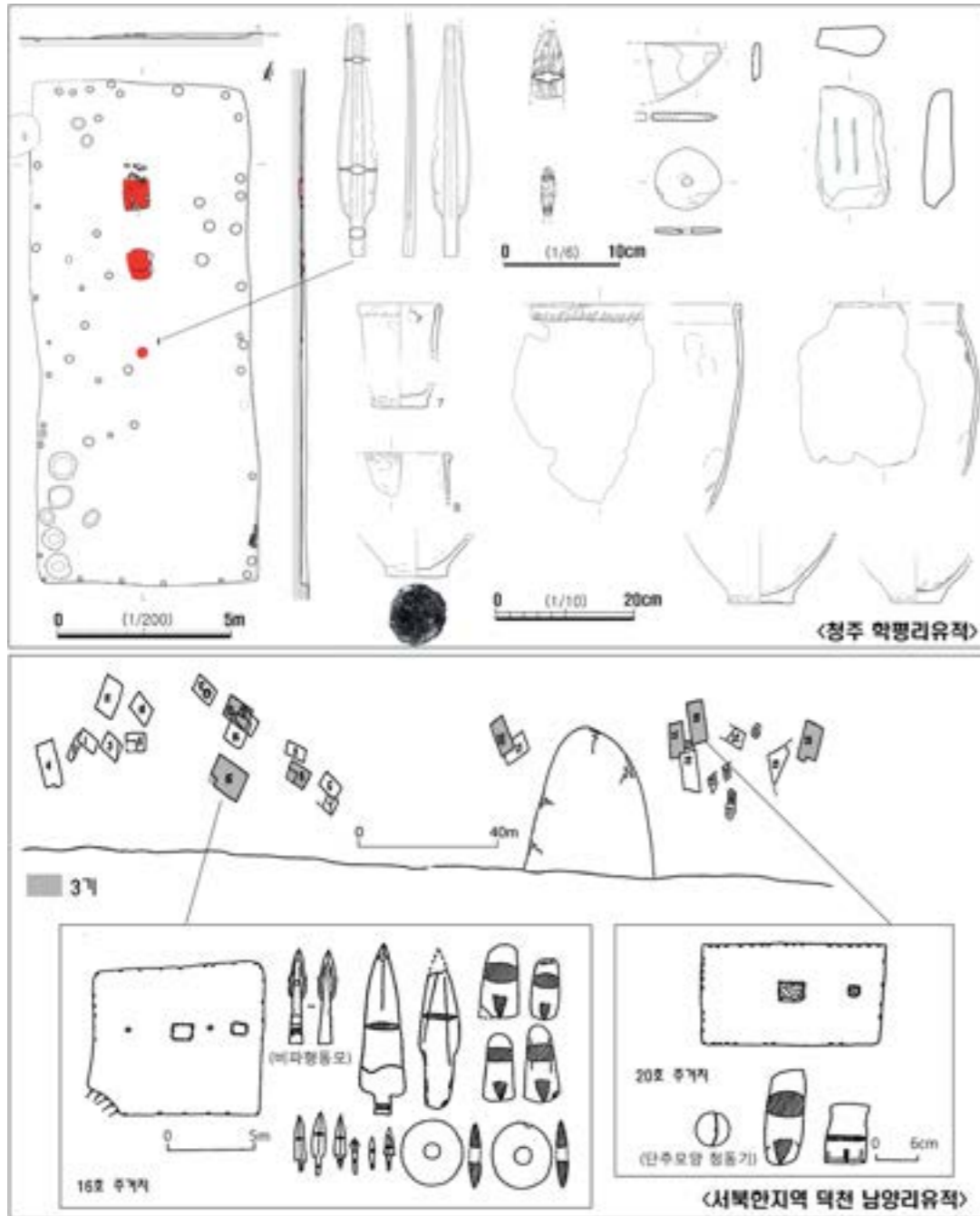
〈그림 7〉 춘천 천전리유적의 주구묘와 세장방형주거



〈그림 8〉 청동시대 전기의 대형 주구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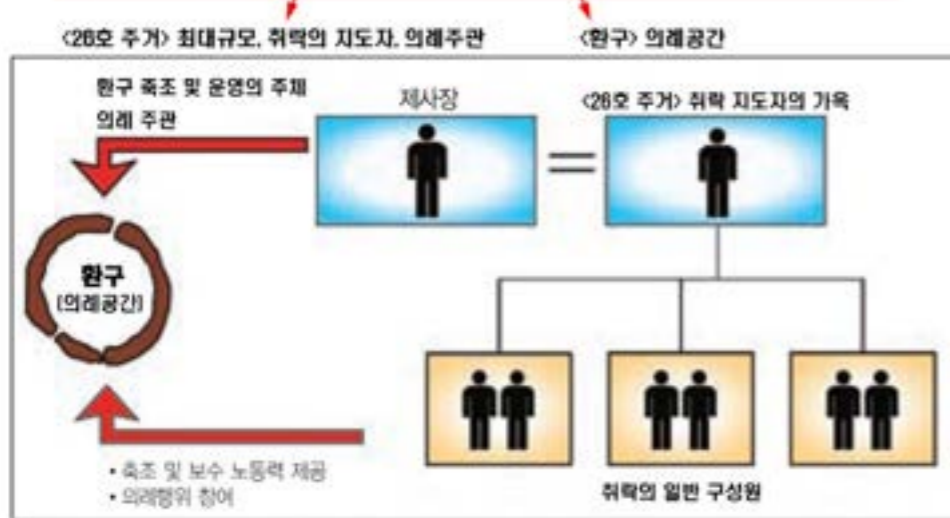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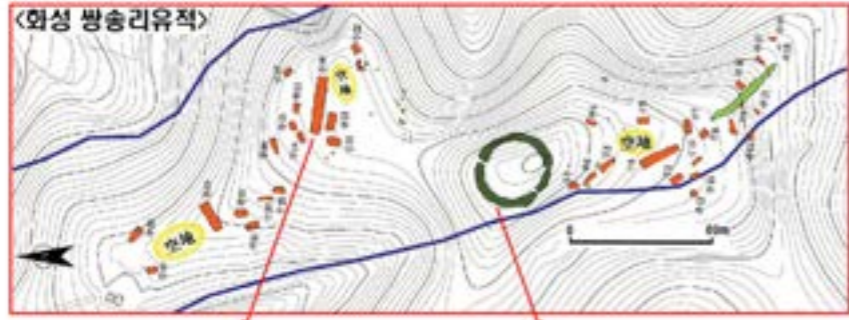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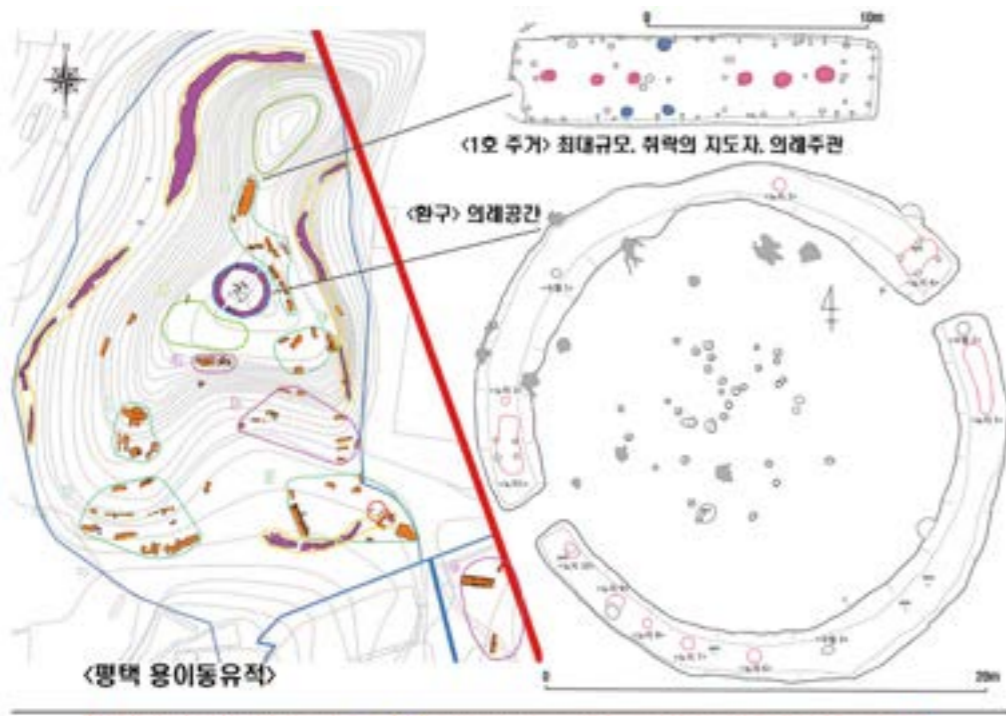
〈그림 9〉 충전 근화동유적과 정선 아우라지유적의 청동유물 출토 주거지



〈그림 10〉 청주 학평리유적과 덕천 남양리유적의 청동유물 출토 주거지



〈그림 11〉 구리 토평동 환구취락의 구조 : 환구(의례공간,광장)를 중심으로 취락이 구조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주거 규모가 크고 마제석검을 소유한 10호 주거의 거주인이 공동체의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12) 평택 용이동 및 화성 쌍송리 환구취락의 구조와 사회조직(사회조직 모식도는 김용 2012의 그림을 일부 수정)




(그림 13)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시기별 환구 (유구도면 축척 동일) : 전기청동기시대에 출현한 환구는 중기,후기로도 이어진다.



제4발표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와 사회발전단계

이종철
전북대학교박물관



-
- I. 머리말
 - II. 사회발전단계의 인식과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
 - III. 송국리형문화 단계 취락사회의 사회발전 양상
 - IV.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는 사회체계와 그 발전단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론으로, 신진화주의 영향을 받은 서어비스(E. R. Service)의 Band(무리)-Tribe(부족)-Chiefdom(족장:군장:추장 등)-State(국가)라는 진화도식에 익숙해 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사회상에 대해 족장(군장:추장), 지배와 피지배, 불평등, 위계, 계층화 등과 같은 키워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근대산업사회를 대상으로 개발된 사회학적 개념들이 고고학적 해석이나 증명 과정에서 그대로 차용됨에 따라 계층이나 계급의 관계를 등급화나 서열화 작업 정도로 이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이청규 2007: 11-12)를 안고 있다.

이번에 한국청동기학회에서 추진하는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국고고학회가 2006년에 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학술대회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한반도 전역의 고고학적 성과를 토대로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에 걸쳐 복합사회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자 기획되었으나, 남한 지역의 청동기시대에 한정된 논의로 마무리 됨에 따라 고고학적 연구역량과 폭증하는 자료 분석의 한계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이청규 2007: 12)는 숙제를 남긴 바 있다.

청동기시대의 사회발전단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어떤 시각으로, 어느 수준에서 접근할 것 인가

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진화론적 네 가지 사회형태가 문화인류학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장한 서어비스마저도 스스로 부정하였고(전경수 1988: 577-579), 이러한 신진화론의 철학적 개념을 배격하는 연구자들도 상당수이거나 한국적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네 가지 사회형태에 대한 유지·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최정필 1994) 왔기 때문이다.

현대와 같이 실시간 정보를 통해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도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선사시대의 경우에는 편린에 지나지 않는 몇몇 정보를 통해 유추 또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학술대회的主제가 증명 불가능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고고학적 자료의 상황이나 정도에 적합한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발표자는 자료의 부족과 그에 따른 해석의 비약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Chiefdom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되는 권력, 경제, 이념과 같은 주요요소들(최몽룡 1997)를 고려하여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취약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이념체계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 발전과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요소들을 추출하여 그 의미와 해석을 밀도있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작업이 사회발전단계 퍼즐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접근방식의 다양성 제시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II. 사회발전단계의 인식과 송국리형문화의 취약사회

1. 사회발전단계에 대한 인식

인류학, 고고학, 역사학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에 적용되어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 오고 있는 고전적인 사회발전모델은 서어비스의 모델이다. 무리사회→부족사회→족장(군장:추장 등)사회→국가로 연쇄되는 진화론적 발전은 그 명칭과 영역설정에도 다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지라도 의미를 상실한 모형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일 것이다(최정필 1994). 동일한 비교 기준으로 네 단계를 통시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문화·사회적 ‘큰 그림’ 또는 ‘숲’을 보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무리는 아니라는 데에 발표자 역시 지지한다. 특히 Chiefdom 단계는 플래너리(Flannery)의 국가형성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채용됨에 따라 진화적 단계 설정으로서 유의미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기(전경수 1988: 580) 때문에 번역상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갖는 시간적 범위는 Chiefdom 단계이다. 평등과 혈연에 기초한 사회나 집단을 제외하면 대부분 상위-하위, 지배-피지배, 불평등과 같은 가시적이거나 추론 가능한 위계체제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확률)가 많기(높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적 위계화를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인정해버리기 일쑤다. 그러나 Chiefdom 사회가 서양의 시각에서 설정된 계층/계급적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 관점과 특수적 관점의 사회 체계가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수평적으로는 Chiefdom 단계의 핵심적인 영역에 포함된 사회와 주변 영역에 해당하는 다른 모습의 사회가 있을 수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복합적·구조적 성격의 사회 체계가 분명하고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회로 다양하게 구분해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Chiefdom 단계의 다양한 사회나 집단에 획일적 구분이나 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는 당시 사회발전 모델에 일반진화(진보)와 특수진화(적응)를 구분하여 상호 조화를 모색(트리거 1997: 364)한 것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나의 사회나 집단을 밀도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관계 또는 역학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이 위계체계 혹은 신분제이다. 계층과 계급 또는 신분에서 따온 구조는 짜여진 틀 속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결과물을 생산해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반상班常과 사농공상士農工商, 신라의 성골-진골-6~1두품으로 구성된 골품제, 인도의 브라만-크샤트리아-바이샤-수드라로 구성된 카스트(Caste) 제도, 인도네시아 숭바섬의 왕-귀족-신관-평민-노예의 사회구성은 수평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상호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반면 이스라엘 키브츠(Kibbutz) 사회는 재산의 공유, 집단적 공동생활, 민주적이고 평등한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제도보다는 수평적 관계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고고학자들은 사회적 위계화와 관련한 불평등의 결과를 판단하고 설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매장풍습의 다양성, 체격 등위에 따른 사회 내의 음식 섭취방식의 차이, 사회 내 집단 간에 보이는 사망연령 분포의 차이, 주거건축의 양식과 크기의 차이 및 접근성과 격리의 정도, 생산·교환·소비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의 위치 등은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그러나 계급체계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접근하여 부정하거나 문제점 해결에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패터슨 1991: 133-134).

분명하고 체계적인 사회체계를 우리나라 선사시대에서 찾기로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Chiefdom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 범주에 존립했던 여러 사회 또는 집단들은 적용에 따른 다양성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성숙/미성숙, 체계적/비체계적, 문명적/비문명적(야만·미개한), 양질의 환경/적박한 환경 등 수직적·수평적으로 다양성이 존재함으로써 큰 흐름의 범주 속에서 획일적이지 않은 입체적인 시대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에 분포하는 송국리형취락 가운데 거점취락에 해당되는 대규모의 취락이 있는 반면 1~2동, 3~5동 내외, 10동 내외, 20~30동

내외, 50동 이상의 집을 짓고 살아왔던 많은 송국리형취락의 존재 및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다양성을 모두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큰 틀에서 족장사회 혹은 Chiefdom 사회의 특성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송국리형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취락사회를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지석묘 사회와 Chiefdom 사회와의 관계성에 치중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좀 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와 문화적 특성

송국리형문화는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중추적인 축을 형성하는 문화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문화에 대해서는 전기 문화를 계승·발전했느냐 아니면 외래문화이냐에 따라 연구방법과 해석을 달리한다. 발표자는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며, 지역적으로 분포하는 다양한 문화들과의 입체적인 문화변동과정 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이종철 2015).

송국리형문화는 기원전 9세기~6세기(중기) 동안에 우리나라 남부 전역으로 파급되어 거점취락과 일반취락을 형성한다. 문화상으로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까지 지속되었으며, 제주도에서는 삼국시대 일부 시기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공열토기문화, 점토대토기문화 등과 복합문화를 이루게 된다. 이 문화의 고고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와 같다.

<표 1> 송국리형문화의 구조적 특성

구분	송국리형문화		
	순수문화요소	변형·유입문화요소	
유물	무문토기	송국리식토기, 심발	구순각목문+송국리식토기, 심발, 직립구연호, 구순각목문토기, 점토대토기
	적색마연토기	플라스크형·외반구연발형·말각평저병형	원저단경호 등 일반 기형
	석기	목병식석검, 유구석부, 삼각형석도, 석검	일단병식석검, 유절이단병식석검, 유절일단병식석검, 일단경식석촉, 편인석부, 양인석부, 유단석부 등
	청동기		유구경식 요령식동검, 선형동부
유구	주거지	송국리형주거 송국리식토기+방형·원형 주거 일부	송국리식토기+방형·원형 주거 구순각목문·공열문토기+송국리형주거 점토대토기+송국리형주거
	묘제	석관묘, 석개토광묘, 옹관묘	지석묘(석곽묘 포함)
	농경	논·밭	밭

송국리형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취락사회의 주요 특성을 압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 하류역을 문화중심(culture center)으로 하며, 문화변동의 가장 긴 시간축을 갖는다. 기본 구조 개념을 바탕으로 가장 다양한 건축구조들이 확인되며, 장기적인 정주과정에서 성장한 거점취락들은 본연의 문화특질(culture trait)을 보유한 채로 발전한다.

둘째, 주변 지역으로 파급된 송국리형문화는 시기적으로 공열토기문화, 점토대토기문화와 접촉하면서 지역적 다양성에 적응하게 되며 주변문화(marginal culture)적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각 지역에 존재하던 전기 문화와의 선후관계 해석이 중심과 주변의 문화변동론적 관점이 아닌 확일적 편년체계로 인식되기도 한다.

셋째, 거점취락들은 단위주거-단위주거군-단위취락-단위취락군-대취락으로 구성된다. 취락설계에 따라 공간의 영역화(zoning)가 이루어지며, 일정한 패턴의 분포 양상을 띤다. 영역화는 주거, 생산, 매장, 저장·보관, 제의 공간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구별은 취락의 규모와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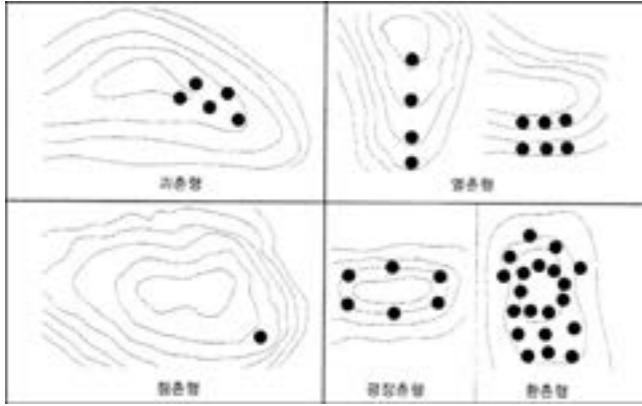
넷째, 취락 내에는 부족사회의 대인(Big man)과 같은 유력자가 존재했는데 주거영역에서는 가옥의 규모에 따라 사회적 위계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매장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잘 확인된다. 취락사회에서 유력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공의 이해와 사회적 균형·통합·안정을 위해 관리자적 지도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부의 축적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사회를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착취적 지도권을 발동(김범철 2006)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위계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이념체계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거점취락에서는 대지 조성, 대규모 공사, 매장영역의 조성 등 무덤의 기획적인 축조, 취락의 레 등 취락구성원의 결집과 통합을 위한 사회적 절차가 존재했으며, 이 과정에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취락사회는 논·밭농사 등 농경에 비중을 두면서 수렵·어로·채집경제에 의존했으며, 수준 높은 토기·석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했던 전문장인이 존재했다. 지역 통합과 위세품의 소유를 위한 지역 연계망과 유통체계가 존재했으며, 동검과 석검을 대표적인 위세의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Ⅲ. 송국리형문화 단계 취락사회의 사회발전 양상

1. 공간설계의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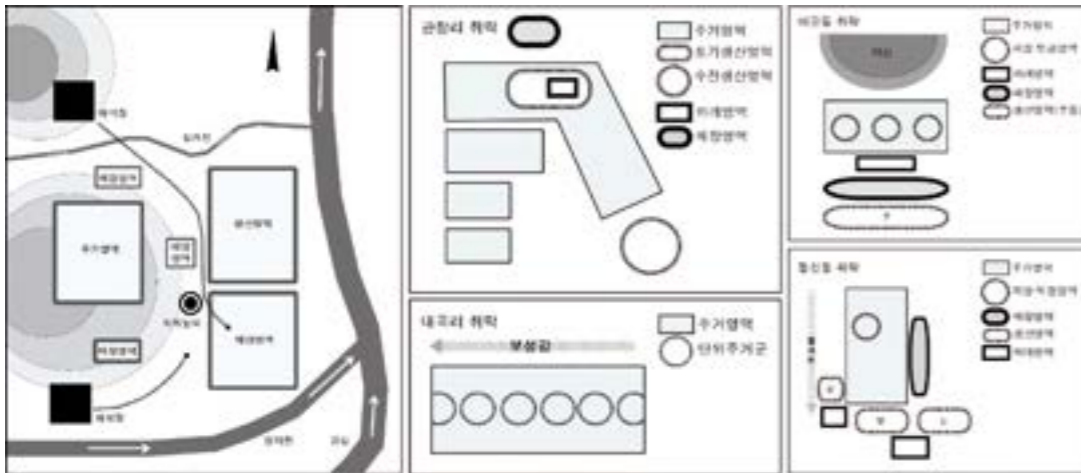


〈그림 1〉 송국리형취락의 평면구조(이흥중 2007)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가장 뚜렷한 문화적 특징은 가시적이면서 예측가능한 패턴(pattern)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간에 대한 설계(design)는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다. 영남 지역의 청동기시대 초기~전기 사이에 나타나는 취락의 구성과 패턴이 전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상대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군집분포를 이룬다는 견해(김권구 2019)를 참고하더라도 계통이 서로 다른 송국리형 문화의 취락사회가 좀 더 조직적이고 패턴화된 취락을 형성했다는 것은 대규모 취락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이흥중(2007)이 제시한 송국리형취락의 평면구조와 변화·발전 양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그림1).

발표자는 이러한 송국리형취락의 공간구성을 취락설계로 설명한 바 있다(이종철 2015). 이것은 한정된 공간에 취락의 전체적인 배치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영역화(zoning)를 적용하였다는 개념으로서 거점취락과 같은 대규모 취락에서 좀 더 잘 관찰된다(해석된다). 유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세부적인 설명은 발표자의 논고(2015)로 갈음한다.



〈그림 2〉 송국리형취락의 공간 설계(여의곡, 관창리, 대곡리, 이금동, 동천동 취락 : 이종철 2015)

그림에 제시한 대규모 유적들을 비롯한 송국리형문화의 거점취락들의 영역화 정도는 서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요약된다.

첫째, 취락은 주거, 생산, 매장, 의례, 저장·보관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공간의 배치는 유력자 혹은 '추앙받는 지혜로운자'의 지도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주거영역은 단위주거 또는 가구(1~3동 내외), 단위주거군(5~10동 내외), 단위취락, 대취락의 형태와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규모에 따라 단위주거-단위주거군-취락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거영역은 열상분포, 환상분포, 군집분포 등 공동체적 밀집성을 갖는다.

셋째, 생산영역은 생활용품의 생산과 먹거리 생산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주거영역의 일정 구역에 자리하며(관창리 취락), 후자는 천변과 가까운 충적대지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주기적인 범람에 따른 비옥한 토양과 넓은 면적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여의곡·대평리 취락). 대규모 취락에서 후자와 같은 생산영역이 조사되지 않았다면, 천변의 충적대지와 저평한 저지대에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해둘 필요가 있겠다.

넷째, 매장영역은 죽은자들의 공간으로서 조상신들과 조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다. 무덤들은 지석묘, 석관묘, 석개토광묘, 옹관묘, 토광묘 등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으나 중추적인 무덤은 지석묘와 석관묘이고 지석묘가 최고의 우위를 점한다. 특히 무덤들은 기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열상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시간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연접된 것과 독립된 것이 존재하고 있어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조합관계가 바로 매장영역에서 '미리 판을 짜놓는' 기획성이다. DNA분석 연구가 없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러한 배열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유력자의 세습과 연관되는 단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섯째, 의례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의례행사와 제의(제사) 등이 행해지는 공간이다. 현재까지 송국리형취락으로는 진안 여의곡, 김해 율하리 유적에서 입대목 제의(이종철 2015)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지석묘 유적인 고흥 한천 유적에서 동일 성격의 제의가 존재했을 것으로 해석된다(이종철 2018). 이 유적들은 모두 매장영역과 근접한 공터를 배경으로 존재하는데, 조상신이나 자연신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의행위를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름대로의 내세관이나 신앙체계가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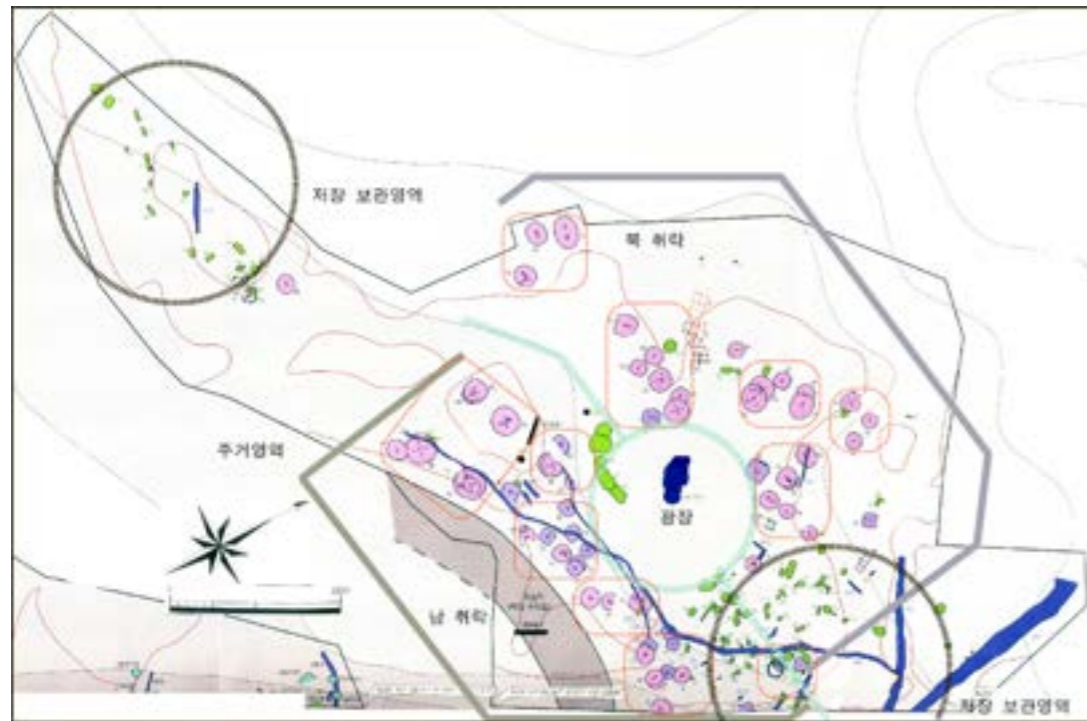
여섯째, 저장·보관영역은 대부분 군집하는 수혈유구로 구성되지만, 창고로 해석되는 굴림주건물이 군을 이루는 사례(이금동)도 있다. 수혈유구가 군을 이루는 저장·보관영역에는 일반적으로 1기 정도의 주거지가 확인되는데(청원 쌍청리, 대전 용산동, 공주 산의리) 저장·보관영역에 대한 관리체계와 연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공간적 특징을 고려하여 최근에 조사된 전주 동산동 취락의 취락설계 양상을 살펴보면

〈표 2〉 및 〈그림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서부평야지대의 동산동 취락의 공간구성은 동시대의 동부 산악지대의 진안 여의곡 취락과 좋은 비교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 2〉 전주 동산동 취락의 공간 구성

대취락	주거영역		생산영역	매장영역	저장·보관영역	
	북 취락	남 취락			서군	동군
동산동 취락	단위주거군5	단위주거군6	천변(?) 밭(?)	전주천변 쪽 웅관묘군(12) 토광묘군(11) another(?)	관리 주86	관리 주76
	단위주거 ○□	단위주거 ○□			굴립주 10	굴립주 1
	대-중-소	초대-대-중-소			독립된 위치	남북취락 공동
	굴립주건물	-			광장 내 5개 2개의 방향성	
	평지 배경	저습지 배경			의례영역	
	군집분포	열상·군집분포				
	광장을 중심으로 열상·환상분포 광장 직경 50m	공동의 장소 : 취락의 중심부 특정 제의영역의 존재 가능성(?)				
	광장 서쪽으로 큰 골목(폭 25m)	제사유구(?): 북→남 5개 수혈 시간성				
	광장 동쪽으로 저장·보관영역					



〈그림 3〉 전주 동산동 취락의 공간 구성

전주 동산동 취락의 특징을 정리하면 ①송국리형문화 발전기의 취락으로 기원전 7-6세기 중심 ②범람원인 전주천변과 특정 저습지(구하도?)를 배경으로 취락지 선택, ③1개의 대취락 내 2개의 단위 취락(남/북)-광장-골목(大小)-저장·보관영역-매장영역의 취락설계, ④공동체의식을 고무하는 구심점으로 광장 설계, ⑤저장·보관영역 관리체계 유지, ⑥주거의 초대-대-중-소 체계, ⑦단위주거군(세대/가구 관계)의 결속력 유지 등을 추출할 수 있다.

송국리형취락은 규모와 취락설계 양상에 따라 거점취락과 일반취락으로 대별할 수 있다. 거점취락은 유력자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일반취락은 중간적 위계의 상대적으로 발달된 취락사회도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당시 취락 간 유대관계와 위계에 대해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대규모이면서 발달된 거점취락 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취락에 해당된다.

2. 사회구조의 체계화

티모시 얼(Timothy Earle)의 연구에 따르면, 족장사회 내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세 가지 틀이 존재하는데(최몽룡 1997: 59-60) 이를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표 3〉 티모시 얼의 족장사회

항목	세분	체제	비고
단순 : 복합	단순족장사회	수천 명 작은 마을들↔중심정치체	2단계
	복합족장사회	수만 명 3단계, 발달된 계층사회	
주생산 자원 : 富	주생산자원 사회	장거리교역 없음, 노역의 댓가는 음식과 기술적 재화 유통	
	부의 사회	장거리교역, 후원받은 장인 제작 수공품, 하사품 등 유통, 위신품 = 사회적 지위·특권	
집단지향 : 개인지향	집단지향사회	집단노동에 의한 건설, 집단 의미 강조	
	개인지향사회	장식품, 집, 무덤 등을 통해 엘리트의 구별을 강조	

이와 같은 모델을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모로 무리이다. 다만, 단순과 복잡, 기본과 복합 등의 관계로 구별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각 항목들의 조합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가는 중요한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송국리형취락에서 사회구조에 대한 접근은 주거영역과 매장영역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1) 주거영역에서의 사회구조

주거영역에서 사회구조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주거의 규모와 출토유물에 근거한다. 특히 주거지의 규모에 계층구조를 연관시키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거지의 규모가 크면 상위로 보는 관점

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의 규모가 계층화와 깊은 관련이 있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상 상류계층과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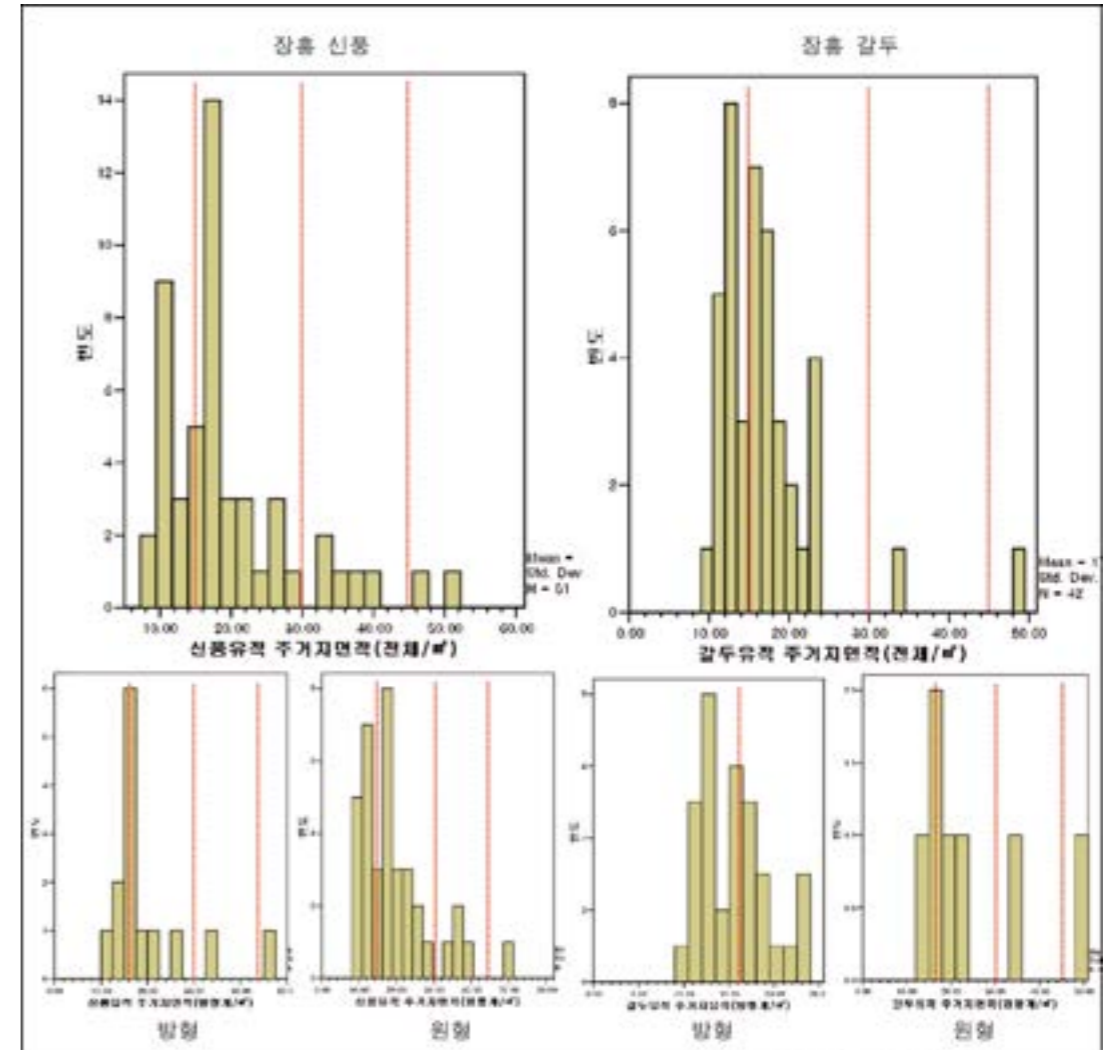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 조에 기록된 '대가(大家)'와 같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호(下戶)라는 사람들이 곡식이나 물고기, 소금 등을 바침으로써 앉아서 먹고 사는 상류계층의 존재는 하호들과 다른 주거 규모와 재산 및 생활방식이 존재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즉 상위 및 하위와 같은 신분계층에 따라 주택의 규모나 형태 등에 제한을 두는 가사규제(家舍規制)의 필요성이 핵심으로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주거문화의 계층적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강영환 1991).

그러나 청동기시대의 취락 내 상위와 하위의 결정은 연구자의 작위적 판단일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주거의 규모는 대형 또는 공동창고나 집회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의 대소 차이를 단순히 위계와 결부짓는 것보다는 취락 내 구성비율과 규모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즉 주거의 일반적인 규모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고고학자료는 장흥 신봉 유적과 갈두 유적을 들 수 있다(이종철 2012).

장흥 신봉과 갈두 유적은 3km 거리를 둔 동시대(기원전 7~6세기 전후) 신봉 취락은 내주공식(A①) 원형계 주거가 중심(73%)인 반면, 갈두 취락은 내주공식 방형계 주거가 중심(83%)을 이루고 있어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두 취락의 주거면적을 분석해본 결과, 초대형-대형-중형-소형의 공통된 기준을 추출할 수 있었다. 즉 초대형은 50㎡ 내외, 대형은 40~33㎡ 내외, 중형은 30~15㎡ 사이, 소형은 15㎡ 미만에 해당한다. 다만, 중형과 소형을 가르는 15㎡는 유적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매우 근접한 기준선으로 판단된다(그림4).

〈표 4〉 송국리형주거의 면적구간별 성격

규모	구간	△활성 / ▼비활성의 해석	비고
초대형	50㎡ 내외	△ 공공장소 : 집단지향성, 공동체의식 활성화 사회적 위계 : 大小의 구별, 대가족적 성향 자연자원-노동량-축조기술 증대	대형과 상호관계
대형	40~33㎡ 내외	▼ 공공장소 : 제한적이나 집중적인 집단지향성 사회적 위계 : 개인지향성, 특정인에게 특권 집중	초대형과 상호관계
중형	30~15㎡ 사이	△ 취락 인구의 안정성, 일정 규모의 한 가구 활성화 자연 자원 및 노동량 증대	
		▼ 취락 규모의 축소	
소형	15㎡ 미만	△ 가구의 분화, 개인지향적 성향, 보관소의 활성화	
		▼ 개인지향 감소, 보관소의 대체(굴립주 건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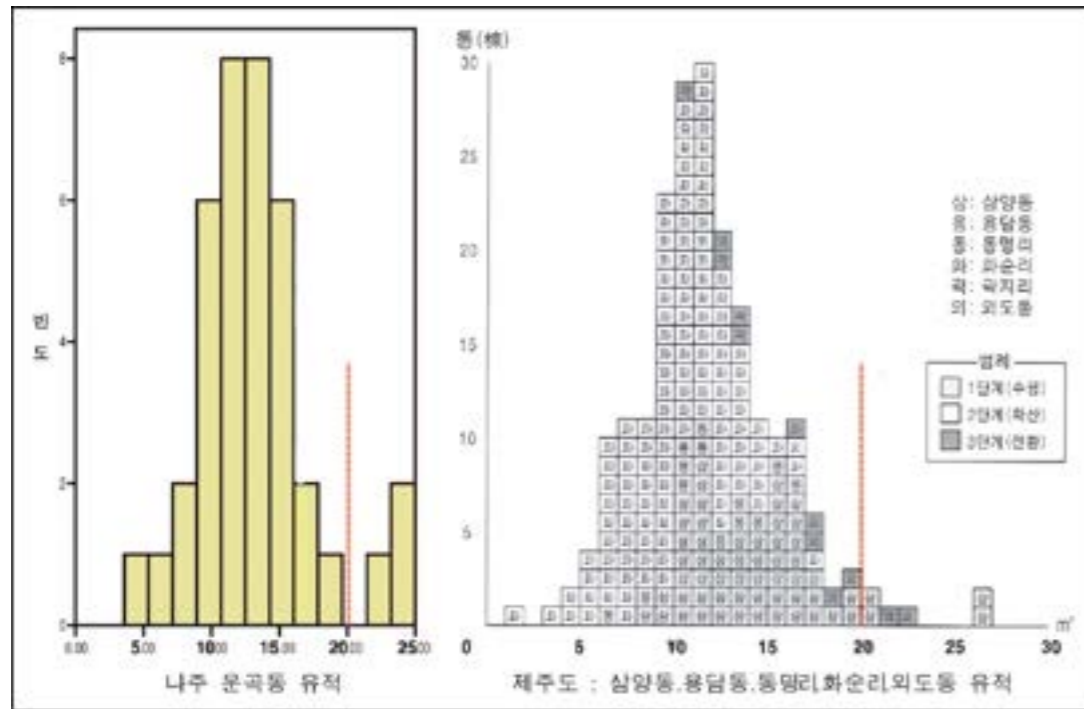
〈그림 4〉 장흥 신봉 · 갈두 취락의 주거 면적 분포 비교

이러한 주거면적의 구분은 어느 구간에서 주거 축조가 활성화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취락 구성원들의 가족구성과 건축에너지(자원량, 축조기술, 노동량 등)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 〈표 4〉과 같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신봉과 갈두 취락은 군집별로 중형 주거의 안정적 분포를 배경으로 소형 주거가 안정적인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다만, 신봉은 군집별로 대형과 초대형이 균형있게 축조된 반면, 갈두는 대형과 초대형이 없이 중형 주거가 중심을 이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신봉은 각 군별로 대형-중형-소형의 체계를 이루고 있고, 가장 규모가 큰 주거군에 초대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군집별로 자치적인 공동체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모(母)집단의 위계가 좀 더 강력한 취락체계를 유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갈두 취락은 군집별 결정체제(자치적 독립성)라기보다는 취락

중앙부에 마련된 대형 주거를 바탕으로 의견수렴과 공동체적 결정을 이끌어 내는 형태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석은 주거의 규모와 공간배치 사이에는 공동체적 가치체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그리고 신풍의 대형 주거와 갈두의 중앙부 대형 또는 중형 주거는 빅맨(Big man)과 같은 성격의 유력자를 설정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이종철 2012). 그의 역할 중 취락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한 의사결정력은 매우 비중있고 중요한 항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주거규모별 특성은 한반도(육지)에서는 일정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나주 운곡동 유적과 제주도와 같은 섬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필요하다(그림 5).



〈그림 5〉 나주 운곡동(이종철 2015) · 제주도(김경주 210) 송국리형취락의 주거면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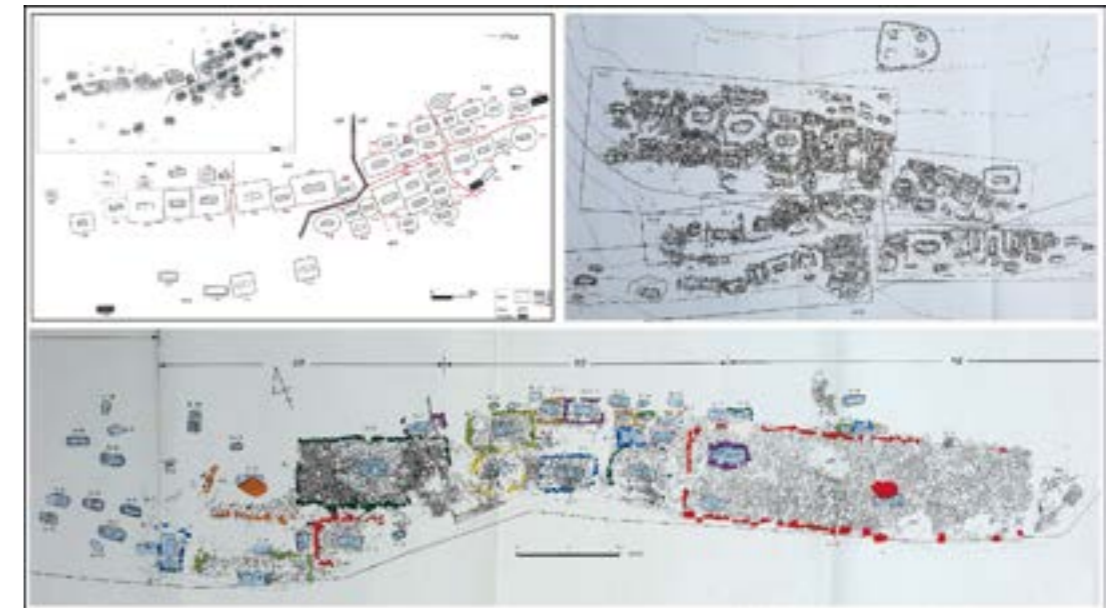
나주 운곡동 유적은 75기의 주거지 중에서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주거지 수가 38기인데, 이들의 대부분이 15~9㎡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적은 수의 중형 주거들이 축조되는 가운데 소형 주거들이 대세를 이루는 양상이다. 제주도 역시 18~7㎡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형 주거의 수는 극히 적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을 장흥 신풍이나 갈두 유적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운곡동과 제주도는 소위 '소인국'처럼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취락 구성원의 신장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면, 이러한 수치 결과는 가족구성원의 주거방식과 생계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자연환경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소형 주거의 대세는 가구(가족)의 분화, 개인지향적 성향 증대, 보관환경의 상대적 활성화 등을 사회적 특징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거면적의 분

포가 거의 동일하다고 하여 운곡동과 제주도의 사회구조와 발전단계를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다. 왜냐하면 자연환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취락의 이데올로기나 체계모니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매장영역에서의 사회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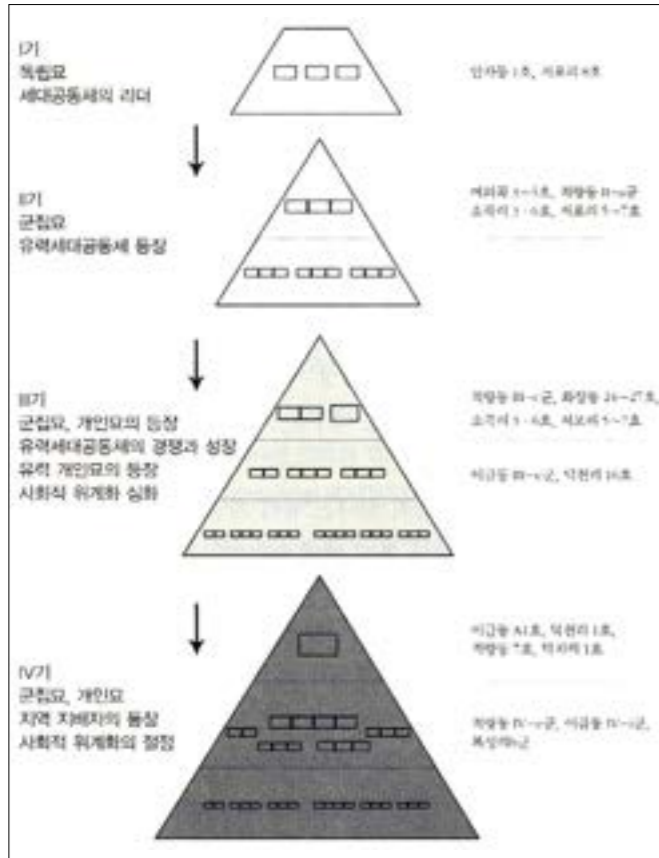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수 많은 유적에서 주거군과 무덤군의 연계성을 찾아 볼 수 있는 사례는 송국리형취락이 대표적이다. 청동기시대 초기나 전기는 주거군 중심이고, 후기로 접어들 시기에는 주거군은 주거군대로, 무덤군은 무덤군대로 이원화되어 있어 삶과 죽음의 세계를 하나의 취락으로 엮을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구고(2015)에서 주거영역에서는 조직적이거나 수직적인 양상이 상대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 위계의 가시적 표현은 무형적인 가치체계에 의존했던 반면, 매장영역에서는 조직적·체계적·계획적인 양상이 매우 뚜렷하여 사회 내면에 존재했던 무형의 위계체계가 무덤의 형식과 매장영역의 조직적인 축조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론한 바 있다. 이러한 상대적인 차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식'과 '표현'의 차이로 해석하였다. 진안 여의곡, 여수 월래동(동북아시아석묘연구소), 사천 이금동 유적 등에서 조사된 묘역식 지식묘의 축조방식과 기획력은 이러한 해석에 어울리는 고고학자료라고 생각한다(그림 6).



〈그림 6〉 체계적으로 기획화된 매장영역(上左 진안 여의곡, 上右 여수 월래동, 下 사천 이금동)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무덤의 축조를 통해 김승욱(2007)은 분묘에 내포된 계층화 양상을 추출하여 사회적 위계화를 4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I 기는 세대공동체 내에서 빅맨(Big man)사회와



〈그림 7〉 무덤으로 본 취락사회의 위계화(김승욱 2007)

이 지역 지배자와 족장사회의 출현으로 대표된다(그림 7).

이와 같은 취락사회의 위계화 혹은 계층화가 지역적으로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사회적 위계화의 변천 과정을 분묘를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는 위계의 표현 방식이 무덤군에 반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 변화 과정이 존재했다는 점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덤에서 나타나는 수직적·수평적 노동력의 차이는 위계화와 직결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회적 위계화의 집중화는 후기 단계로 갈수록 심화된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위계화가 특정 유력자 또는 특정 유력세대공동체에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II기(그림 7)부터는 취락사회 내부에서 경쟁과 갈등이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한 직접적인 증거가 진안 여의곡 유적에서 확인된다. 즉 피장자가 된 유력자와 매장예를 담당했던 세대공동체 혹은 추종집단이 다량의 할석·토기·석기의 파쇄행위를 이용한 장송예를 명분으로 기존에 축조된 유력세대공동체의 무덤(3·4·5호) 위를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내부적인 갈등과 그에 대한 강력한 위계적 표출을 과시했던 것으로 해석된다(이종철 2015)(그림 8). 무덤 축조의 체계성과 기획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일탈적인 고고학적 정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자료와 해석을 통해 송

같은 성취서열이 존재하고 마을 간에 노동력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단독묘 혹은 독립묘로 대표된다. II기는 유력한 세대공동체가 등장함으로써 잉여생산물을 창출하기 위한 출계집단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노동력의 상이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친족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군집묘로 대표된다. III기는 군집묘의 전통 속에서 유력 개인묘의 등장이 특징이며, 유력 세대공동체의 경쟁과 성장에 따라 무덤 간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최소 3등급 정도의 사회적 위계화로 대표된다. IV기는 군집묘와 개인묘의 전통이 지속되지만 일반 취락민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개인묘들이 축조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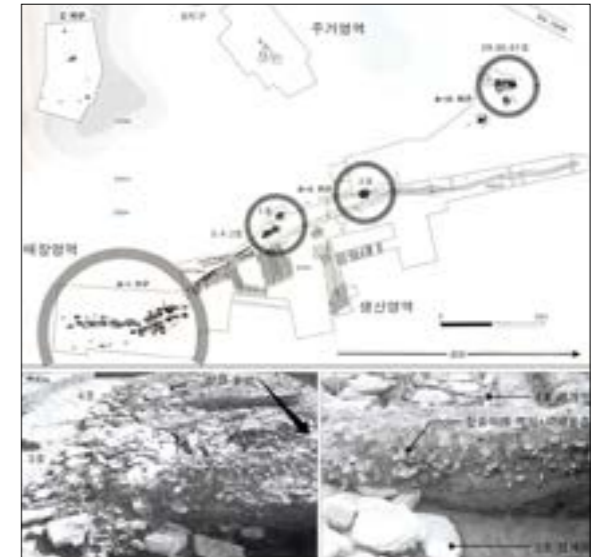
국리형문화 단계의 취락사회에 유력자, 지도력 또는 지배력, 공동체적 단결성 외에도 갈등과 물리적 분쟁과 같은 사회적인 현상이 존재했음을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다.

3. 대규모 공사와 부의 재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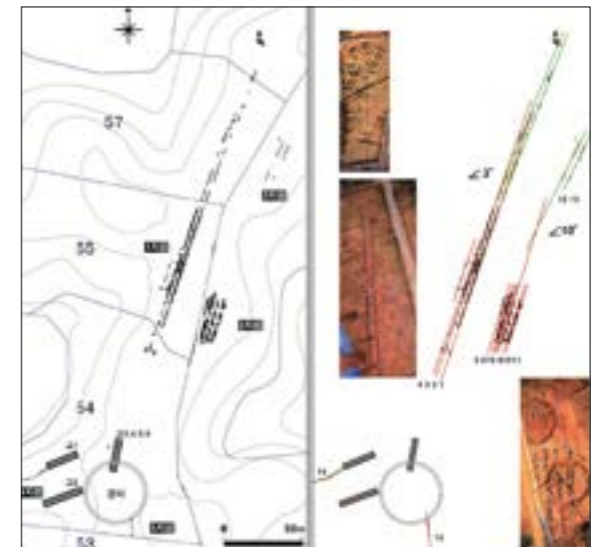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에 대규모 노동력을 들여 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지식묘, 고상가옥(이금동, 송국리), 목주열 또는 선상열주(송국리)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선사시대에 대규모 노동력을 수반하는 기념물들, 예를 들면 카르나 열석, 스톤헨지, 말타 신전, 오크니 거석물과 같은 것들이 강력한 지도자 중시이 아닌 집체적 구조를 가졌다고 여겨지는 다수의 사회에서도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념물들이 시간을 조직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고, 신성한 저승세계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는 점(렌프류, 콜린·폴 반 2006:407)에서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력, 그들의 운동에너지와 동선에 대한 지도력 또는 운용 능력, 노동력에 대한 부의 재분배는 어떤 식으로든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그 정도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취락사회가 갖는 가치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대규모 공사에 따른 노동력과 부의 재분배를 설명하는 데에는 부여 송국리와 사천 이금동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는 성격 미상의 대규모 목주열이 조사되었다(그림 9). 처음 조사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방형계 주거군의 방어용 목책(김길식 1993)으로 추정되었으나 연차적인 확장조사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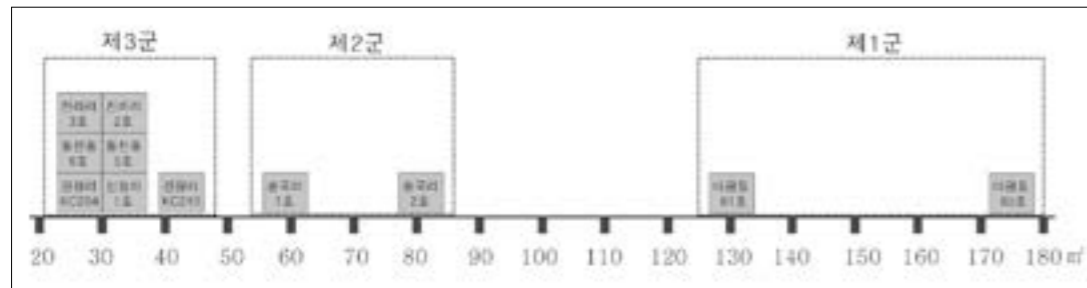


〈그림 8〉 취락사회 내부에서 세력집단 간 갈등의 흔적 (진안 여의곡, 이종철 2015)



〈그림 9〉 송국리 선상열주의 분포(이종철 2018)

해 그 전모가 밝혀짐에 따라 북미 원주민사회의 롱하우스와 같은 건물(김경택·주동훈·박병욱 2017), 곡물 저장용 고상창고(김미경 2017), 의례공간인 고상가옥과 연결되는 통로(정치영 2012), 공공의례용 기념물의 주랑이나 회랑(이형원 2018)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발표자 (2019) 역시 가장 긴 목주열(1·2호) 등을 고상가옥을 중심으로 하는 의례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제의용 기념물로서 유력자의 리더십 제고와 위계체계 확립이라는 목적성을 실현하기 위해 축조된 선상열주(線狀列柱 Songguk-ri Alignments)로 명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주열이 어떤 성격으로 축조되었건 200여 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주혈거리 120~150cm, 대청거리 3~4m를 유지하여 만들어진 목주열에는 대규모 노동력과 대량의 자연자원이 소요된 것은 분명하다. 직경이 40~60cm 내외의 통나무를 조달해야 하고, 현지에서 통나무를 잘라 송국리 취락까지 운반해야 하며, 운반해온 통나무를 일직선상으로 세워야 하는 작업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러한 대규모 작업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그림 10〉 초대형 고상가옥의 규모(평면적) 분포(이종철 2015)

사천 이금동 유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상가옥이 조사된 바 있다(그림 10). 가장 큰 이금동 60호는 송국리에서 가장 큰 2호 보다 2배 이상의 규모로 축조되었다. 이러한 초대형의 고상가옥은 신전이나 제전으로 해석되는데, 이 역시 공동체적 노동력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대상이다. 진보한 건축기술을 바탕으로 자연자원의 확보, 운반, 치목, 지도력, 부의 재분배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야만 가능했던 대규모 공사인 것이다. 송국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규모 건물의 최종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와 같은 대규모 공사가 일시에 혹은 기간별로 나뉘어서 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동력의 양과 질-시간(기간)-지도력(운용력)-부의 재분배를 핵심으로 하는 역학관계는 자연스러운 예상일 것이다. 특히 이 역학관계가 한 유력자만을 위한 특정행위라기보다는 취락공동체적인 성격을 띠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으로 집체적인 목적성 내에 특정 개인(세력)의 권력이나 특권과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대규모 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부의 재분배가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의 출처 역시 사회발전단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항목이다. 취락민 전체가 아무런 댓가없이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평등체계에서 집체적 성향의 공동목표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누군가로부터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다면 능동과 피동의 관계가 성립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특정한 유력자나 세력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잉여생산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경으로부터 확보된 잉여물은 물론 다양한 생계체계에서 발생한 잉여생산물의 축적은 결과적으로 집단 전체에게로 전환되고, 그 정점에서 시스템을 운용하는(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정인이나 세력이 존재한다면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족사회와 족장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불평등의 제도화인데, 지위가 성취되는 빅맨사회와는 달리 족장들은 지위를 세습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일정량의 식량과 수공업품을 족장에게 바치고, 족장은 다시 이러한 재화를 종교지도자나 장인 등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위계의 기반으로 삼는다. 이러한 재분배를 통해 노동분화, 전문화 성장, 수공업 기술과 효율성이 제고되기도 하지만 정책 결정, 혁신, 집약화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스든 2001; 171-172).

청동기시대에 가장 정점의 위계를 가지는 송국리 유적 동검묘의 존재(배진성 2007)와 이금동 유적 대규모 묘역식 지석묘의 존재는 이러한 정치전략을 도모했던 유력자의 존재를 대변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무덤의 피장가 간에는 동일한 시간성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두 유적 모두 농경, 제의(의례), 위신제, 잉여의 축적(창고: 굴립주건물), 대규모 공사(송-대지조성·고상가옥·선상열주, 이-고상가옥, 무덤 축조)와 같은 사회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러한 유력자나 Big man들은 신화와 의례를 통해 그들의 정당성을 강화해감으로써(키징 1990: 371) 사회적 위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토대로 삼았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석물의 축조와 그에 따른 공훈잔치가 부와 권력이 있는 상위신분자들의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공훈잔치라는 경제적 재분배로 인해 상위신분자들은 씨족공동체의 결속 강화와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이승래 1999: 174-175). 상황은 약간씩 다르겠지만, 부의 재분배가 갖는 순환적 구조와 결과는 송국리 및 이금동 취락과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순환적 구조를 거점취락에서 일반화시킨다면, 진안 여의곡의 지석묘 상석운반시스템(이종철 2003)도 지석묘의 축조를 매개로 집체적 노동력과 부의 재분배가 장송의례 등의 취락의례와 잘 섞여 취락의 정치경제적 조직화와 위계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3만여 기의 지석묘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2만여 기가 집중된 호남 지역, 2,600여 기로 집계된 전북 지역의 지석묘 중 63.3%인 1,665기가 집중되어 있는 고창 지역은 단일구역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이기(이영문·신경숙 2009) 때문에 여의곡과 같은 상석운반시스템과 정치경제적 전략이 잘 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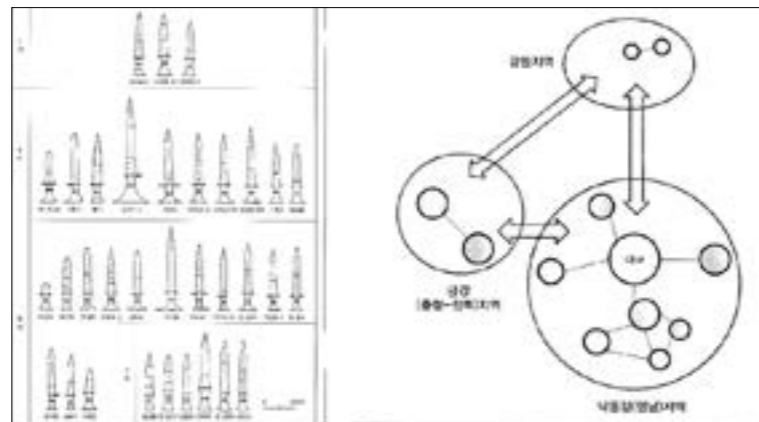
4. 생산·소비·유통과 사회적 위계

청동기시대에는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그에 따른 다양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취락이 형성되고 소멸하였다. 근·현대와 같은 지역 간 네트워크 정도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을 달리하는 거점취락과 일반취락들 간에는 전방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서로를 엮는 지역연계망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요령식동검이나 특정 석검과 같은 물질문화가 소비재이자 위신재로서 공유되는 현상은 생산과 소비, 유통의 관계가 이러한 연계망과 무관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청동기시대의 위세품으로 널리 알려진 동검(청동기), 석검 등의 동일 형태, 동일성격의 물질문화가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취락에서 확인된다는 것은 직·간접적인 문물교류나 교역의 존재를 말해준다. 특히 인접한 취락 간의 단거리 교류라기보다는 원거리 교류(교역)의 정황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취락 간 교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동희(2002: 37-38)는 한반도의 요령식동검 분포가 내륙 지역에는 거의 없고 여수반도와 고흥반도와 같은 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해상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원거리 교역의 결과로 보았다. 해양을 통해 선진문화를 좀 더 용이하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결과는 여수반도 일원의 남해안 일대가 보성강 유역권보다 진전된 위계화를 이끌었다고 추론하였다. 고대의 종교 지도자는 권위를 상징하는 물품을 원거리 교역망을 통해 입수하는데, 여수 적량동 일대에 위신재인 다량의 요령식동검과 동모가 출토된 것은 경제를 통제하고 총괄하는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견해(최정필 1997)와도 맥을 같이한다.

한편 한반도 전역에서는 마제석검이 출토되는데, 이 가운데 유절병식석검은 금강수계권과 낙동강수계권에서 매우 긴밀한 친연성이 확인되고 금강수계권과 경기·강원 지역 간에도 일정 수준의 관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몇몇 국지적인 문화전통을 교차하는 일련의 거래/



〈그림 11〉 유절병식석검의 분류와 상호작용망(장용준·平郡達哉 2009)

계약 체계인 상호작용망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그림 11)(장용준·平郡達哉 2009). 이러한 석검 역시 동검과 마찬가지로 위세품의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 동일한 형식의 유절병식석검이 갖는 지역적 분포, 즉 석검의 생산과 소

비는 수계와 내륙의 육로를 통해 각 지역으로 유통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량이 갖는 사회적 위계화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동일선상에서 병부과장식석검의 생산과 유통망(이종철 2019) 역시 좀 더 ‘특별한’ 위세품의 소유를 갈망했던 지식묘 사회의 유력자들과 연계해볼 수 있다. 병부과장식석검은 우리나라에 세 점밖에 없는 매우 희귀한 일단병식석검으로서, 송국리형문화단계에 가장 성행했던 일단병식석검의 특수 변화형으로 이해된다.¹⁾ 여러 이견이 있지만, 석검은 여수반도 지식묘 사회의 전문장인이 공통된 U자본들을 적용하여 생산했으며, 김해와 부산 지역의 지식묘 사회로 유통되었다고 추정된다. 특히 對馬島의 太田原丘 유적에서도 과장화 단계의 동일 형식이 확인됨으로써 여수반도↔김해·부산·對馬島를 잇는 해상로와 원거리 교역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2). 다만, 여수반도에서는



〈그림 12〉 병부과장식석검의 생산과 유통

아직까지 병부과장식석검의 존재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맹점인데, 김해·부산·對馬島 석검의 본(本)이 여수반도에 있으며(적량동, 가장리), 봉계동 월양 8호 지식묘에서 과장화 단계의 석검편이 존재하기 때문에(그림 12 왼쪽) 병부과장식석검의 ‘전통적 조형성’에 근거할 때 극히 일부에서 출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위계적 상징성을 갖는 동검과 석검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이 단순한 교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중있는 장거리 교역을 의미한다면, 당시 사회적 위계화에 대한 접근은 좀 더 조직적이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비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력을 가진 전문장인의 존재, 지역과 지역을 잇는 유통망에 밝은 제작자(또는 집단)나 중개자의 존재, 상호 유통의 방법(육로/해로 등), 그리고 생산품에 대한 댓가의 존재가 서로 엮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과 사회적 위계를 희망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광역적인 연계망을 구축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1) 병부과장식석검은 석검 편년상 가장 늦은 시기에 위치하는데(심봉근 1989), 발표자는 이러한 석검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고고학적 정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

청동기시대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가(장인) 집단의 정체성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상위와 하위의 상하관계만을 중시했던 기존의 사회조직과 관련해 본다면 이러한 장인 집단의 위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

청동기시대에 전문기술자 또는 장인집단은 개인적 성향이거나 집단적 성격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들은 하나의 취락 구성원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왔을 것이고, 전업과 반전업의 형태로 점진적인 변화를 거쳤다고 여겨진다. 전문성의 필요와 강화는 전업 형태의 전문장인의 양산을 이끌었고, 취락의 유력자나 집체적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취락에서 비중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이들에게는 전업적인 생산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정 생산업에 종사하거나 유력자나 유력한 세력에 의지 또는 종속되어 생계를 유지했을 것은 자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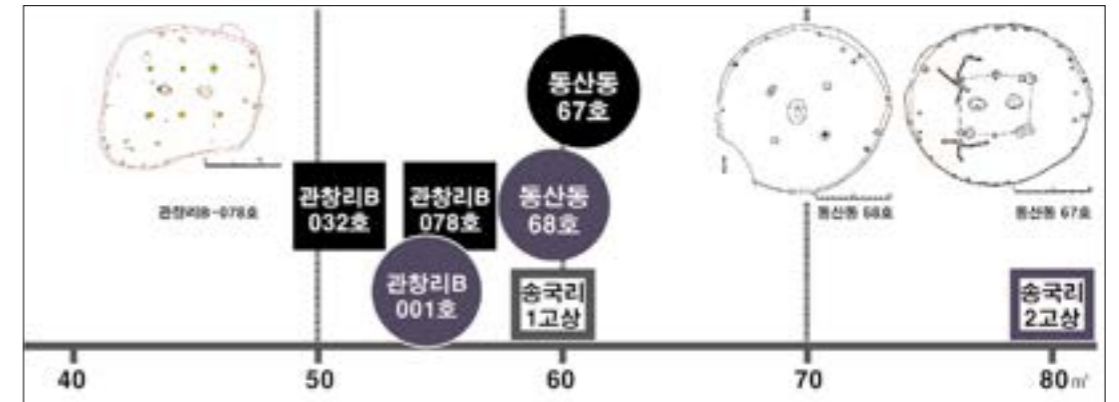
보령 관창리에는 토기 생산을 담당했던 전문적인 장인집단이 존재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취락이 입지하는 대단위 구릉의 한쪽에 대량의 토기 요지가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시기 차이는 있겠지만 대량생산된 토기는 주로 관창리 취락민들에게 공급되었겠지만, 교류(교환 등)의 목적으로 취락 외부로도 반출되었다고 추정된다.

석기 제작 가운데 옥제품의 생산은 진주 대평리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玉房이라는 명칭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점 대평리 취락에서 조사된 옥 원석과 가공 도구들, 완제품과 반제품의 존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취락 내 옥제품의 제작 분업화(소다 신야 2009)는 좀 더 세분화된 장인집단의 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어쩌면 반제품과 완제품 공정을 두고 전문장인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단계별(수준별) 도제식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취락의 점유와 규모를 고려하고, 옥방이라는 명칭의 전통성을 유추해보면 체계적이면서 장기적인 제작공정과 체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화의 생산과 관련한 장인집단들 외에도 건축기술과 관련된 전문기술자의 존재를 추측해볼 수 있다. 특히 송국리형취락에서 대형 주거의 축조와 관련되는 복합형의 건축기술은 기본형(내주공식/외주공식/타원형구덩식)과 4주형을 적절하게 조합한 증축·확장형의 응용가옥으로서 일반 취락민의 기술로 축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주형의 주거에서 더욱 발전된 건축기술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축·확장형의 주거는 보령 관창리, 서천 한성리, 전주 동산동 유적에서 확인된다. 특히 동산동 67호(60.7㎡)는 타원형구덩이 2개가 나란하게 있고, 6주가 설치된 가옥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유한 송국리형주거이다. 그리고 관창리B-078(55.8㎡)과 관창리B-032(51.4㎡)는 동일 형식의 증축·확장형으로서 복수의 타원형구덩이와 6주를 기본으로 한다. 이외에 동산동 68호(타원형구덩이+4주 : 59.5㎡)와 관창리B-001호(내주공+4주 : 54.1㎡)는 기본형으로서 증축·확장형 주거들과 동일 분포권을 이루는데(그림 13), 동산동 68호는 기본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이러한 건축기

술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전문기술자(장인)를 보유한 특정 취락이나 거점취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락사회의 발전단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전문장인의 존재는 취락사회에서 기술력의 정도, 기여도 등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위치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력의 분야는 취락사회를 이끄는 유력자나 권력화된 대인과 같은 존재들에게 정치적·경제적 전략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훌륭한 자산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3〉 송국리형주거 초대형의 주거면적 비교

IV. 맺음말

지금까지 송국리형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거점취락을 대상으로 사회발전단계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과거에는 지식묘의 규모, 유물의 다소, 유물의 등급 등을 통해 사회적 위계화와 사회발전단계를 논의해왔는데, 수평적 접근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위계의 해상도를 좀 더 높여 보 고자 몇몇 세부 항목들을 제시해보았다. 족장 성격을 갖는 유력자의 존재와 지도력, 유력자와 그 공동체 또는 세력집단 간 갈등과 같은 사회현상, 대규모 공사를 위한 노동력의 집결과 부의 재분배, 위세 품의 존재와 장거리 교역, 사회적 위계화와 장인집단(전문화·분업화)의 존재, 거점취락과 지역사회의 통합, 사회결속을 위한 취락의례(제의)의 존재 등은 Chiefdom 사회의 발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들로서 연속적이거나 분명하는 않지만, 송국리형문화단계의 취락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을 통시적 관점에서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는 사회발전단계상 Chiefdom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나 모든 취락사회가 동일한 체계로 운영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지역에 따라 거점취락의 형성과 발

전이 있었지만, 그 주변지역에 산재했던 일반취락들(中小취락)은 주어진 환경과 자체적인 사회가치를 기반으로 점진적이거나 또는 현상유지의 취락 규모로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점취락과 일반취락들 사이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사회적 위계화는 취락사회마다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이 달랐을 것이기 때문에 정점의 유력자를 구심점으로 삼아 자체적인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체계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관리자적 또는 착취적 지도권이 시행되고 이었을지라도 그 형태와 방식은 세부적으로 달랐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러한 차이를 고고학적으로 제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역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범답안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을 전제하기로 한다.

〈표 5〉 송국리형문화 취락사회의 사회발전 양상

구분	형성기(기원전 9세기대)	발전기(기원전 8~6세기)	쇠퇴기(기원전 5~3세기)
주요 유적	보령 관창리 부여 송국리	보령 관창리 부여 송국리
	(서부 해안지대?)	진안 여의곡
		전주 동산동 장흥 신 풍 장흥 갈 두 나주 운곡동
		진주 대평리 대구 동천동 사천 이금동
			보령 진죽리 제주 삼양동
취락 구성과 수준 (상대적 관점)	중-----상-----	---최상-----	--하----- 상---최상---중---
	환경 적응기, 거점화	지역 거점취락의 성장	小취락으로 전락·존속
사회현상	취락 조성과 인구 통합 사회체계 구축 관리자적 지도권	취락설계의 절정 인구증가 사회적 위계화 정립 : 관리자적 지도권 유지 및 착취적 지도권 발생 지역사회 연계망·통합 대규모 공사·노동력운용 취락의례의 융성 조직적인 부의 재분배 전문장인 집단의 성장 유통망 구축·장거리교역	거점취락의 부재(미발견) 취락사회의 헤게모니 상실과 규모 축소 대대적인 이주 신진 세력의 결집(제주) 대외교역 문화접촉
사회체계	족장사회 : 무형적 가치	족장사회의 체계 완성 : 무형적·유형적 가치	취락사회의 대전환 : 사회적·환 경적 격변

〈참고문헌〉

김경택·주동훈·박병욱, 2017, 「부여 송국리 유적 : 조사 현황과 과제」, 『부여 송국리』 특별전 도록, 국립부여박물관.

고스든, 크리스(성춘택 역), 2001, 『인류학과 고고학』, 사군자.

金權九, 2019, 「嶺南地域 青銅器時代 早期와 前期의 聚落構造」, 『신·한일교섭의 고고학-청동기~원삼국시대-를 논함』 발표자료집, 신·한일교섭의 고고학-청동기~원삼국시대- 연구회.

金吉植, 1993, 『松菊里 V-木柵(1)-』, 國立公州博物館.

김미경, 2017,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의 구조와 변천」, 『부여 송국리』 특별전 도록, 국립부여 박물관.

金範哲, 2006, 「중서부지역 青銅器時代 水稻 生産의 政治經濟-錦江 中·하류역 松菊里型 聚落體系의 위계성과 稻作集約化-」, 『한국고고학보』 58, 한국고고학회.

김승옥, 2007, 「분묘 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姜榮煥, 1991,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技文堂.

렌프류, 폴린·폴 반(이희준 역), 2006, 『현대 고고학의 이해』, (주)사회평론.

裨眞眞,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패터슨, 토마스(배기동 역), 1991, 『고고학이론입문』, 학연문화사.

쇼다 신야, 2009, 『청동기시대의 생활활동과 사회』, 학연문화사.

沈奉謹, 1989, 「日本 彌生文化 初期의 磨製石器에 대한 研究」, 『嶺南考古學』 6, 嶺南考古學會.

李東熙, 2002,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와 發展段階-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15, 湖南考古學會.

이승래, 1999, 「세계의 지식묘 : 인도·인도네시아」, 『한국 지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I)』,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이영문·신경숙, 2009, 『세계유산 고창고인돌』, 고창군·동북아지식묘연구소.

李宗哲, 2003, 「支石墓 上石 運搬에 대한 試論」, 『한국고고학보』 50, 한국고고학회.

이종철, 2012, 「탐진강 유역 송국리형주거의 특징과 편년」, 『湖南考古學報』 42, 湖南考古學會.

李宗哲, 2015, 『松菊里型文化의 聚落體制와 發展』, 全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宗哲, 2015, 「청동기시대 立大木 祭儀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한국고고학보』 96, 한국고고학회.

李宗哲, 2018, 「立大木·숯대 祭儀의 등장과 전개에 대한 試論」, 『한국고고학보』 106, 한국고고학회.

李宗哲, 2019, 「부여 송국리 線狀列柱의 성격과 시간성」, 『호남고고학보』 61, 호남고고학회.

李宗哲, 2019, 「병부과장식석검의 생산과 유통」, 『한국고고학보』 112, 한국고고학회.

이청규, 2007,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 남한에서의 고고학적 접근」,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이홍중, 2007, 「송국리형취락의 공간배치」, 『湖西考古學』 17, 호서고고학회.

이형원, 2018, 「청동기시대 중심취락의 지역적 양상 -송국리유형 시기의 대규모 기념물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송국리 유적, 왜 중요한가?』, 서울대학교박물관·충북고고학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全京秀, 1988, 「신진화론과 국가형성론-인류학이론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韓國史論』 19,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정치영, 2012, 「부여 송국리유적-삶과 죽음의 공간이 공존한 청동기시대의 마을 구조-」, 『한국고고학저널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제5발표

일본 야요이시대 정치·사회 변동

宮里 修
日本 高知大學



弥生時代の政治、 社会変動

宮里 修 日本 高知大學

-
-
- I. 議論の前提—政治、社会変動—
 - II. 弥生時代の政治、社会変動
 - III. 結び
-
-

I. 議論の前提—政治、社会変動—

1. 「政治」「社会」「変動」の概念について

弥生時代は、稲と青銅と鉄の出現が立て続けに社会の有り様を大きく変化させた時代である(森編 1985、佐原編 2002)。戦いなど新たな社会関係が登場し、弥生社会は大規模化、複雑化の過程を経て、やがて古代国家の誕生にいたる。弥生時代における、こうした政治体や権力が成長する歴史的過程を、政治や社会変動といった観点で捉え直すことが本稿の課題である。やや抽象度の高い主題であるため「政治」「社会変動」などの概念をまず整理しておく。

「政治」の語は「統治者・為政者が民に施す施策。まつりごと」(『大辞林第三版』、2006年)を第一義とし、広義には「諸権力・諸集団の間に生じる利害の対立を調整すること」の意を含む。広義の「政治」を社会の発展過程において検討する人類学では、広義の政治について「社会に統一をあたえるもの」「共同生活を成り立たせるもの」の定義をあたえる(嶋田 1993:244)。広義の「政治」において「権力」の濃度が増せば、より狭義の政治に近づく。「権力」は「他人を支配し従わせる力。とくに国家や政府が国民に対して持っている強制力」

(『大辞林第三版』)であり、その及ぶ範囲や程度が併せて本稿の検討課題となる。

広義の政治によって統一をあたえられる「社会」は「生活空間を共有したり、相互に結びついたり、影響を与えあったりしている人々のまとまり」「人々の総合の関係」(『大辞林第三版』)の語義をもつ。すると人々の関係の総称である「社会」に統一をあたえる政治は「人々の結びつきをつくりだす機構」と言い換え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変動」を「事態が大きく変化すること」(『大辞林第三版』)と理解すると、「政治」を前提とした「社会変動」は「人々の結びつきをつくり出す機構に大きな変化が生じること」と言い換えることができる。

よって本稿では、「弥生時代の政治、社会変動」を「稲・青銅・鉄などの出現によって生じた、人々の結びつきをつくりだす機構の大きな変化」と指し議論を進める。

2. 人の繋がりをつくる「物質文化」の2つの側面

筆者は近年「物質文化論」に関心をもち、その基本枠と論点整理に取り組んでいる。前稿(宮里 2018b)では物質文化を「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物的条件」と論じたが、本主題にあわせて違った表現をとれば、物質文化は「人の繋がりをつくる機構」といえる。この「人の繋がりをつくる」物質文化には2つの側面がある。やや抽象的であるが、一つは「世界を生きる繋がり」であり、また一つは「世界を保つ繋がり」である。

「世界を生きる」

1つめの「生きられる世界」とは「人と自然、人と人、がどう繋がるかに関わる観点である。筆者はこの観点について「構え」「場」の概念を提示した。物理的存在としての物質文化は「道具」「施設」として生み出される。その痕跡を考古学は「遺物」「遺構」として把握する。もとより道具や施設は何か役に立つものとしてつくり出されている。

「道具」は人と自然(環境、世界)を繋ぐものであり、自然のなかに何らかの有用性を見出しそれを取り出す。道具は「出来るの世界(cf. affordance、佐々木他 1997)」をつくり出し、世界に新しい価値(有用性)が生じる。

「施設」は土地に何らかの有用性を見出し、世界を選り分けるものである。人が世界という「地」に有意味な「図」を描いて、身の置き所をつくるものである。物理的存在としての人間による「身分けの世界」(市川 1993)

である。環境の社会化といってもよい。

人々は世界(出来るの世界、見分けの世界)を物質文化として共有する。「出来る」「身分け」は人々の世界に対する態度である。これを「構え」と表現する。そして「場」とは「構え」が

具体的に実現(使用)されたところである。考古学は「構え」を同時代の資料群として把握し、「場」を遺跡として把握する。

新たな物質文化の登場は新たな世界の登場であり、物質文化の(大きな)変化は世界の更新である。

「世界を保つ」

2つめの側面は、世界を維持するための人の繋がりである。筆者はこの観点に「ものづくり循環」の概念を提示した。「ものづくり循環」は、ものづくりの経済的側面を各局面で成り立たせる「組織」を配慮した概念である。物質文化は物理的存在であるから、ものづくり循環の機構的安定があってはじめて反復・維持される。

ものづくり循環の各局面と関連する組織は以下の通りである。

- ㉑必要とする(欲求、使用価値・記号価値)
- ㉒材料を揃える(原材料へのアクセスとその権利)
- ㉓つくる(製作者の社会的地位、製作者の共有範囲)
- ㉔行き渡る(「交換様式」「交易」、交換価値)
- ㉕使う(使用価値・記号価値、「場」における体験)
- ㉖捨てる・廃棄する・納める

各局面で共同体内、共同体間の様々な関係が取り結ばれ、繰り返し機能する「組織」が構成される。物質文化を維持するために構成された組織こそが、先述した世界を安定させ維持するための人の繋がりである。各局面における「交易」(後述、今村 2016)によって共同体間の関係は内面化され、「社会」はひろく統一を与えられる。

3. 世界の維持と更新

以上のように、2つの側面において人の繋がりをつくる物質文化は、また「恒常性」という特徴をもつ。物質文化は本来的に「安定・維持」機構である。物質文化(考古学)の時間は、「社会史(アナル学派)」における、目まぐるしく変転する表層的な「事件史」ではなく、基盤的で社会的・地理的な時間にあたる「構造史」にあたる(ブローデル 1991、遅塚 2010)。物質文化の構成・構造は一定期間維持されるのであり、長期変動が特徴である。

型式を単位とする考古年代で把握されるような一定期間に「構え」が反復して生産され、「場」によって実現され、物質文化による世界(諸関係)が(間身体的に)「体験」される。「場」における体験は、「意識への作用」を及ぼす。体験は「価値」の体験でもあり、また価

値が生成される契機でもある。体験によって内面化され、また生成する価値には、①使用価値、②交換価値、③記号価値(伊藤 1997、矢部 2009)がある。

①使用価値は機能的・道具的であり、「出来るの世界」(可能世界)の基盤となる。可能世界が安定すれば使用価値は意識下に沈んでいく。②交換価値は贈与・交易に係るものであり、「繋がるの世界」(関係世界)に属する。③記号価値は差異化意味論に係るものであり、「意味の世界」(象徴世界)に属する。①には他者の介在がなく、②③は他者を必要とする。諸価値の維持と生成はモノの変化として把握することが可能で、考古学では型式(形式)分類がその基礎作業となる。

「場」における体験と意識への作用は、世界の維持と更新の動力因である。イノベーションによって斬新さをもって出現した新たな世界は、一般に安定化→標準化→定型化→形骸化の道程をたどる。更新された新世界は、やがて安定し、背景に退き、意識下に沈んでいく。すなわち使用価値が背景に退き、記号価値や交換価値が生成し前面に立ち現れるのである。

4. 「交換様式」論、「交易」論

人の繋がりに関連して「交換様式」「交易」論に言及しておく。

柄谷行人(2015)は、世界史の観点として「生産様式」を放棄し、経済的下部構造の新たな観点として「交換様式」を提唱した。交換様式はA~Dに区分され、交換様式Aが互酬(贈与と返礼)、交換様式Bが略取と再分配(支配と保護)、交換様式Cが商品交換(貨幣と商品)、交換様式Dが高次元で回収された様式Aと説明される。本稿が深く関わるのは交換様式Aであり、マルセル・モースの贈与論が議論の核となっている。贈与され、返礼される互酬的システムが社会構成体を形成する原理とされる。今村(2016)の「交易論」も「贈与と交換」を社会構成体を形成するための重要な原理とみなす。今村の「交易」は人の繋がり(総称)としてよく吟味された用語であり、「関係・交通・交換などを指示しつつ相互行為一般を表現する言葉として」(今村 2016:59)用いられる。「交易」や「交換様式」は、社会の史的発展をとらえるための概念としてながら重要な位置を占めてきた、「生産様式」の議論を更新する新たな観点として注目される。

「贈与と返礼」を俎上にあげるとき「(等価)交換」との違いが重要となる。嶋田(1993)の「異次元交換」はマルセル・モースの「全体的社会的事実」を下敷きにした概念で、贈与によって結び結ばれた関係は必ずしも贈与に見合う返礼を期待した「交換」ではなく、贈与で結ばれたものとは異なる次元の結びつきが発生することを説明する。「異次元交換」の概念は、

ものづくり循環の組織を検討するとき参考となる。ものづくり循環の組織が、従来の表現でいえば重層的に、全体的社会的な結びつきを維持するための繋がりをつくるのである。

II. 弥生時代の政治、社会変動

1. 稲と青銅と鉄

弥生文化の構成要素には、中国・朝鮮など大陸から伝わった技術や習俗、弥生文化独自のもの、縄文時代から継承したのものがある(山内 1939、佐原 1975)。うち縄文時代から弥生時代を分かち、時代に大きな変革をもたらしたのは、稲と青銅と鉄である。水稻耕作を皮切りに順に朝鮮から伝わり、弥生文化・社会に大きなイノベーションをもたらした。武器の登場がもたらした戦いという新たな社会関係もまた重要である。

水稻耕作は、縄文時代にはさほど重視されてこなかった沖積平野に、生産地・居住地としての有用性を生み出した。新たな眼差しで世界を捉え直した農耕開拓民は適地を求めて東へ東へと移動し、環濠をはじめとする新たな施設群をもって、有用性を見出した沖積平野に農村を営んだ。筆者のフィールドである南四国は伝統(縄文文化)と変革(弥生文化)が顕著な対比をみせる格好の地域である(宮里 2019b)。居徳遺跡は縄文・弥生移行期にむしろ東北や北陸の縄文文化との結びつきを強め、土偶や漆器などの文化を開花させた。一方、東に20km離れた田村遺跡は、無人の野に取り付いた農耕開拓民の集落で、縄文文化伝統と交わることなく、西日本でも最初期の農村として新たな土地に根づいていった。田村遺跡のその後の展開が典型的に示すように、農耕という新たな「構え」(物質文化)をもった人々が、新たな環境の社会化を継続して進めていったのである。

農耕文化複合につづいて青銅と鉄が弥生人の世界を更新していくのであるが、森岡秀人(2018)は近畿を中心とした初期農耕活動を再評価する取り組みのなかで「新石器弥生時代」「金属器弥生時代」という概念を示した。年代問題以後の再検討で、金属器のない弥生時代の存在が明確となったことにより、かねてより大きな画期と認識されてきた弥生前期末・中期初を境界として新たな時代観を示したのである。「新石器弥生時代」と「金属器弥生時代」の評価を念頭におけば、弥生時代は農耕文化複合によって世界が更新されたあと、青銅器が次いで出現し世界をさらに大規模に更新したと捉えられる。既往の研究が示すように青銅器は「権力」をはかる格好の材料でもある。

以下、農耕文化複合の構成要素である磨製石器(石庖丁)と、次いで出現した青銅器を対

象に、上述の物質文化論的観点から、弥生社会にどのような規模・内容の統一が与えられていたのかを検討し、弥生時代の政治、社会変動という本稿の課題に一定の回答を示したい。

2. 農耕文化複合による新たな世界と人の繋がり

新石器時代としての縄文時代の延長にあたる「新石器弥生時代」は、既往の弥生時代前期であり、農耕文化複合（水田・環濠集落・磨製石器類・木製農具類など）により土地に新たな有用性が見出され、環境が社会化されていく時代といえる。水稻耕作に適した沖積平野を居住域に定め、水田を拓くと共に、生産・生活道具のものづくり循環を構築する。新たな人と自然の繋がり、人と人の繋がりが整えられていくのである。縄文人が種実の恵みを期待した母なる木であるアカガシ類は木製農具の用材として伐採の対象に変わる（村上 2018）。水田景観は生態系や季節性を変化させ、優占種は生活域の変化によってシカからイノシシへと変わり、農事暦と抵触する貝類の捕食が大きく減退して貝塚の規模が縮小し、湖沼や水田に飛来するカモ科の出土量増加も顕著となる（石丸 2018）。

新たに登場した磨製石器のうち、縄文石器に代替品のない石庖丁は、新石器弥生時代に新たに構築されたものづくり循環、および社会の規模が拡大する過程をよく示す。弥生時代における石庖丁生産については、特定石材の独占・共有、ブランド品の生産といった特徴が、研究の早い段階から明らかとされてきた（酒井 1974、下條 1989）。近畿地方では北部の粘板岩、南部の結晶片岩を主要石材として、石材産出地をひろい範囲の共同体が共有し、各集落で粗割りされた素材石を入手し自前で石庖丁を製作した。農耕生活の「構え」である収穫具（石庖丁）が必須の道具となり、安定的供給をはかるにあたって、適した素材の存在が近畿北部、南部でそれぞれ把握され、ひろい地域が入会地のように産出地を共有し、それぞれが必要な粗割り素材を手に入れ、自前で製作を行ったのである。

しかしながらこの状況は弥生時代中期（金属器弥生時代）になって確立したものである。弥生時代前期（新石器弥生時代）には、まだ石庖丁に適した素材の産地が把握できずにいた。兵庫県神戸市大開遺跡（神戸市教育委員会編 1993）は近畿地方最古の農村として、六甲山南麓の沖積地に拓かれた環濠集落である。段階的に拡張された環濠は70×40m範囲を楕円形に囲み、環濠の内外に住居址5棟、貯蔵穴11基、木棺墓1基ほか多数の土坑・ピットが出土した。先行する突帯文期の遺物があるが、第3遺構面の環濠集落は外来系の農耕開拓民が拓いた初期農耕集落といってよい。ところが大開遺跡の石器、石庖丁はすべてが金山産のサヌカイトである。大開遺跡を拓いた人々は金山産サヌカイトを恒常的に利用する集団に出自

があり、新天地での生活は故地のネットワークに支えられていた（寺前 2011）。

高知県南国市田村遺跡（高知県教育委員会編 1986）も大開遺跡と同様の状況を示す。田村遺跡は周囲に先行する縄文晩期の遺跡がなく、農耕開拓民が新たに拓いた農村といってよい。当初は孤立無援で周囲に集落が現れるまでには一型式分の時間の経過があった。田村遺跡が地元の頁岩を利用した石庖丁生産を安定させるのは前期末以降であり、それ以前の石庖丁はほとんどが九州で産出する流紋岩や白色泥岩製であった。田村遺跡を拓いた集団は東北部九州との関係が深く（宮里 2019b）、田村遺跡での生活は一定期間、故地との連絡を保った状態にあった。その後、弥生前期の長い期間を通じて周辺環境の有用性を認識し、周辺にひろがった集落ととも環境を社会化していったのである。

北部九州においても状況は同様で、著名な立岩製の輝緑凝灰岩石庖丁や、今山産の大型蛤刃石斧が本格的に流通するのは中期以降である。立岩製の石庖丁は、分布圏内の各集落で周辺に産出する石材を用いて自給的に石庖丁生産を行うなかで、ある種のブランド品として希求された。立岩や今山はブランド品の搬出によって広域社会における優位性を高めたのであり、そうした石器生産の優位性を背景に三雲南小路や立岩10号甕棺のような突出したエリートが登場したと理解される。しかし北部九州にあっても、弥生前期には各集落が周辺の硬砂岩や粘板岩で石庖丁の生産をまかなっており、やはり当初の石庖丁に係るものづくり循環は限られた範囲のなかで完結していた（下條 1975a・b）。

各地域の新石器弥生時代における初期農耕社会でみられたように、当初の農耕文化複合が繋げた地域社会の規模は小さく限定されたものであった。時の流れとともに土地の有用性が新たにされると、社会の繋がりは広く安定的なものに変わっていった。さらに石材の獲得や優品の製作でアドバンテージをもつ共同体が、交換価値や記号価値の生成をもって他共同体より優位な立場にたっていく状況もあわせ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

以上のように、新石器弥生時代になって更新された新たな世界は、時間をかけて、ひろく社会を結びつけるものづくり循環を構築し（農耕）社会に統一を与えていった。

3. 青銅器の登場がもたらした新たな世界と人々の結びつき

磨製石器のものづくり循環が社会に新たなつながりをつくり出した頃、青銅器が朝鮮半島から新たにもたらされ、時代は金属器弥生時代へと移行していった。北部九州の武器形青銅器に限定して議論を進めると、弥生社会における青銅器生産の始まりは、直接的な証拠となる鋳型からは中期前葉、甕棺等に副葬された製品の特徴からは中期初頭が初現と把握され

る(吉田 2008)。早い段階の製品は玄界灘沿岸を中心にひろがり、早い段階の鋳型は有明海沿岸にやや偏るなど跛行があるが、いわゆる「初期鋳型」は擬朝鮮系無文土器と関わりがあり(片岡 1999)、いずれにしても最初の青銅器は渡来人によってもたらされ、また製作が始まった。

「構え」としての青銅器

前章(2)にもとづいて物質文化としての弥生青銅器を検討する。

「構え」としての青銅器は武器である。武器は金属器弥生時代を遡る弥生前期に新たに登場した。磨製石剣や磨製石鏃であり、糸島市新町24号墓や長野宮ノ前12号墓では人体に打ち込まれた磨製石鏃が発見された(橋口 2007)。時期は下るが飯塚市スダレ3号甕棺では磨製石剣が嵌入した人骨が発見された(橋口 2007)。武器は人を殺傷するための道具であり、縄文時代にはなかった戦いによる殺傷可能性という新たな可能世界が生み出された。北部九州にもたらされた青銅器は、武器と多鈕細文鏡である。細文鏡は筆者分類の4段階以降の製品で、格付けの確立した5段階においては中位・下位ランクの鏡式に限定される(宮里 2010)。須玖タカウタ遺跡出土の石製鋳型(春日市教育委員会編 2017)が多鈕鏡である可能性も検討されたが、いずれにせよ多鈕鏡は朝鮮での製作途絶もあって普及せず、確固たる記号価値の生成に至らず消滅した。

青銅武器は剣、矛、戈の3種類からなる。銅剣は朝鮮青銅器文化がそうであるように、石剣が転化して出来たものではない。朝鮮青銅器文化における剣の記号価値は銅剣を主、石剣を従として生成した。弥生文化においても銅剣は石剣を継承したものではない。「戦い」という社会関係は引き継ぐが、むしろ青銅器の記号価値の生成には素材の希少性や、高カロリーを要するテクノロジーという側面が大きく作用した。青銅武器がまず実用品として受け入れられたことは間違いなく、筑紫野市永岡K-95やK-100のように人骨に嵌入した事例は銅剣の実用を示す。しかしながら、「明器銅戈」(橋口 2007)のように当初から実用性を失ったものが製作され、また銅剣では中細形への変化が受容からさして間を置かず始まるなど(北島 2011)、記号価値の生成は活発であった。青銅武器は、非実用化・大型化の方向性をもって武器形祭器へと変化していくが、型式変化の初期には有柄式銅剣(向津具、吉野ヶ里SJ1002)や漆塗飾鞘(柚比本村SJ1137)のように装飾性を高める試みもあった。須玖タカウタの土製鋳型も当初おこなわれた製作における試みのひとつである。様々な可能性をもつなかで、結果、武器形青銅器は中細形・中広形・広形と型式変化し、形象としては形骸化しながらも祭器としての意義を高めていった。

3種類の武器にはそれぞれ異なる記号価値が生成した。分布の限定性やその後の展開から、武器形3種には当初から矛・戈・剣の格付けがあった(岩永 1997)。銅矛は受容した地域で取り扱いに若干の差異があるものの、中広形・広形段階には生産が集中管理され求心的な分布圏を形成した(田尻 2012)。他方、銅戈は石・木・鉄と様々な素材に転化し、近畿でも製作が行われ、絵画に表現され、いち早く棺外副葬の対象となるなど、とにかく高い関心がよせられた(宮里 2019a)。銅戈は分布も特徴的で、中細形・中広形は二日市地峡帯南部への高い集中傾向をみせる。鉄戈の分布もこれに連動する。北部九州製の銅戈はもとより九州の外にはほとんど出ないが、長野県柳沢遺跡をのぞけば九州外の分布はほぼ高知県に限定され、何らかの意図の反映と思える。銅剣は僅少な中広形をのぞけば、ほぼ中細形で生産が終わるが、剣は逆に鉄製武器として継承される。このように、内実についてはさらなる研究が必要であるが、各器種は段階ごとに様々な記号価値や交換価値を生成しながら展開したと分かる。ただし、銅鐸も含めてであるが、最終的に祭器として地中に一定の作法で埋める作法がひろく共通し、ゆるやかではあるが「構え」としての青銅祭器の世界は共有されていた。共同的・集団的な器物としてその存在と効力が期待されたのである。

青銅器の「ものづくり循環」

弥生青銅器の生産については、細部に不詳な部分が多いが、田尻(2012)の研究によりある程度全体像を掴むことができる。まず「⑥材料を揃える」局面であるが、鉛同位体比によれば青銅原料はすべて輸入品に頼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弥生時代の「交易」は先験的に先述の交換様式Aにあたる。異次元交換の観点からすれば、複合的な繋がりの中に青銅原料の流通がある。銅鐸製作では青銅原料の可能入手量と銅鐸型式と関係が説かれ(難波 2011・16)、青銅原料の大きな転換(中広形→広形)はあるが、少なくとも大きな途絶はなく、必要な原料の獲得する組織は維持されたようである。鋳型石材については福岡県南部の矢部川流域で採取できる石英斑岩が弥生時代に青銅器鋳型用の石材として用いられたという(田尻他 2012)。燃料の(大規模な)確保なども集団的・共同的な作業である。「⑦つくる」局面においては、鋳型の分布によれば、当初有明海沿岸への集中傾向がみられるが、段階的に春日丘陵に集約される過程が把握される。田尻(2012)の整理によれば、中細形・中広形など祭器化・埋納行為が進行する弥生時代中期中葉以降は小地域単位の製作拠点がある程度自立的な生産体制をとり、ほぼ広形にあたる弥生時代後期には、大規模な青銅器製作地を中心としたネットワークを形成され生産の管理がおこなわれるという。「⑧行き渡る」局面は不明な部分が多い。製作の契機が不明であり、生産量も分からない。「⑨つくる」と密接に関

わるであろうが、先述のようにやや特徴的な分布を示す(中広形・広形)銅戈の生産地はやや分散的で(宮里 2019a)、製作主体が大きな組織の管理下にあったかどうかはさらなる検討課題である。また南四国で出土する青銅器は破損品や破片が多く、大分など東九州の様相と類似している(宮里 2019a)。南四国の青銅器は中央の管理が及ばない、周縁部同士の「交易」によりもたらされたとも考えられる。多方、高知平野にもたらされた銅鐸をみると、文様に特徴のある銅鐸(縦帯複線分割)の集中がみられ、特定製作地との関係が一定期間維持された可能性が指摘される(宮里 2018a)。「㊦使う」の局面は、土坑など施設内に埋めるといった一定の作法が共有されていることが指摘できるに過ぎない。使用価値を大きく離れ、記号価値(象徴世界)がいつそう展開した姿が青銅器埋納坑として確認されるのみである。供犠やポトラッチなどの概念を駆使した理解もあろうが(岩永 1998)、現状手に余る課題であり今後二期したい。

不明な部分が多いが、弥生時代の青銅器についてある程度論及できるのは、広い地域が青銅祭器の「構え」を共有するに至り、その効力の恩恵を願ったこと、「つくる」を核として、ものづくり循環が春日丘陵という特定の製作拠点に集約されたこと、である。ひろく社会が求める物質文化のものづくり循環組織を掌握することは、各局面でつよい強制力、すなわち「権力」の成長があつてこそ可能である。その霊力により意識に強く作用したであろう青銅祭器は、よりひろい範囲の社会に統一をあたえるものとなり、その世界を維持するための機構が権力の成長を促したのである。

Ⅲ. 結び

共有された世界を維持するためのものづくり循環が社会に統一をあたえた例として、磨製石器と青銅器を検討した。弥生時代における稲と青銅と鉄は、社会の規模を段階的に拡大する契機となった。それらは生産や精神の面で大きなインパクトを引き起こした物質文化である。そして本稿が言及していない「鉄」は古墳時代へいたる大きな変化を引き起こした要因と考えられている。青銅器の終焉と古墳の始まり、それに関わる鉄器のものづくり循環組織は大きく重要な研究テーマである。手に余るが機会があれば取り組んでみたい。

通常、弥生時代の政治、社会変動といえば墳丘墓など特定個人墓の成長をとりあげるであろう。吉武高木区画墓(3号木棺墓を含む)、吉野ヶ里墳丘墓、須玖岡本D地点、三雲南小路、平原1号墓や、加味Y1号墳丘墓、楯築墳丘墓、西谷3号墓といった資料により、権力の成長を

描くの常道であつたと思うが、敢えて違ったアプローチを試みた。多くの批判、叱責を請う次第である。

〈文献〉

石丸恵利子、2018、「動物考古学からみた農耕化現象と集落立地の反映」『初期農耕活動と近畿の弥生社会』、雄山閣、133～145頁

市川浩、1993(1984)、『〈身〉の構造—身体論を超えて』、講談社

伊藤眞、1997、「消費と欲望の形成」『岩波講座文化人類学第3巻「もの」の人間世界』、岩波書店、111～136頁

今村仁司、2016(2000)、『交易する人間(ホモ・コムニカンス)：贈与と交換の人間学』、講談社

岩永省三、1994、「日本列島産青銅武器類出現の考古学的意義」『古文化談叢』第33集、九州古文化研究会、37～60頁

岩永省三、1997、『歴史発掘7 金属器登場』、講談社

岩永省三、1998、「青銅器祭祀とその終焉」『日本の信仰遺跡』、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75～99頁

春日市教育委員会(中村昇平・吉田佳広他)編、2017、『須玖タカウタ遺跡3—第5次調査—』春日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77集

柄谷行人、2015(2010)、『世界史の構造』、岩波書店

北島大輔、2011、「弥生青銅器の発達と終焉」『弥生時代の考古学4 古墳時代への胎動』、同成社、121～138頁

高知県教育委員会編、1986、『田村遺跡群第2分冊』、高知県教育委員会

神戸市教育委員会(前田佳久)編、1993、『大開遺跡発掘調査報告書』、神戸市教育委員会

酒井龍一、1974、「石庖丁の生産と消費をめぐる二つのモデル」『考古学研究』第21巻第2号、考古学研究会、23～36頁

櫻井拓馬、2018、「大陸系磨製石器の伝播と選択的受容」『初期農耕活動と近畿の弥生社会』、雄山閣、59～68頁

佐々木正人・松野孝一郎・三嶋博之、1997、『複雑系の科学と現代思想 アフォーダンス』、青土社

佐原眞、1975、「農業の開始と階級社会の形成」『岩波講座日本歴史1』、岩波書店、113～182頁

佐原眞編、2002、『古代を考える 稲・金属・戦争—弥生—』、吉川弘文館

嶋田義仁、1993、『異次元交換の政治人類学—人類学的思考とはなにか—』、勁草書房

下條信行、1975a、「北九州における弥生時代の石器生産」『考古学研究』第22巻第1号、考古学研究会、7～14頁

下條信行、1975b、「未製石器よりみた弥生時代前期の生産体制」『九州考古学の諸問題』、福岡考古学研究会、181～209頁

下條信行、1989、「ムラと工房」『古代史復元4 弥生農村の誕生』、講談社、113～124頁

田尻義了、2012、『弥生時代の青銅器生産体制』、九州大学出版会

田尻義了・足立達朗・中野伸彦・米村和紘・小山内康人・田中良之、2012、「弥生時代北部九州における鑄型石材の原産地同定と鑄型素材の加工と流通」『日本考古学』第33号、日本考古学協会、95～112頁

遅塚忠躬、2010、『史学概論』、東京大学出版

寺前直人、2011、「石器の生産と流通」『講座日本の考古学5 弥生時代(上)』、青木書店、618~650頁

難波洋三、2011、「扁平鈕式以後の銅鐸」『大岩山銅鐸から見えてくるもの』、滋賀県立安土城考古博物館、71~89頁

難波洋三、2016、「銅鐸の価格」『季刊考古学』第135号、雄山閣、70~74頁

橋口達也、2007、『弥生時代の戦い—戦いの実態と権力機構の生成—』、雄山閣

宮里修、2010、『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사회평론

宮里修、2014、「朝鮮半島／韓半島青銅器文化の列島における受容と変容」『平成26年度瀬戸内海考古学研究会第4回公開大会予稿集』、瀬戸内海考古学研究会、21~30頁

宮里修、2018a、「土佐出土銅鐸の系譜」『高知考古学研究』第2号、高知考古学研究会、1~19頁

宮里修、2018b、「中世城郭研究における考古学の役割について—物質文化試論—」『海南史学』第56号、高知海南史学会、1~18頁

宮里修、2019a、「太平洋沿岸地域の交流—南四国と銅戈—」『西相模考古学研究会・兵庫考古学談話会合同シンポジウム予稿集 弥生時代における東西交流の実態—広域な運動性を問う—』、西相模考古学研究会・兵庫考古学談話会合同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69~86頁

宮里修、2019b、「東松木式土器の系統と編年的位置について—南四国最古の弥生土器—」『高知考古学研究』第3号、高知考古学研究会、1~28頁

村上由美子、2018、「縄文—弥生移行期におけるアカガシ亜属の利用—初期農耕集落の木材利用と生産活動の特質—」『初期農耕活動と近畿の弥生社会』、雄山閣、111~124頁

森岡秀人、2018、「近畿初期農耕社会の成立にみられる諸変動と画期」『初期農耕活動と近畿の弥生社会』、雄山閣、281~295頁

森貞次郎編、1985、『稲と青銅と鉄』、日本書籍

矢部謙太郎、2009、『早稲田大学ブックレット [現代社会学のトピックス5] 消費社会と現代人の生活—分析ツールとしてのボードリヤール』、学文社

山内清男、1997(1939)「日本遠古之文化(補注付・新版)」『先史考古学論文集(一)』、示人社

吉田広、2008、「日本列島における武器形青銅器の鑄造開始年代」『新弥生時代のはじまり第3巻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雄山閣、39~54頁

吉田広、2014、「弥生時代青銅器祭祀の展開と特質」『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85集、国立歴史民俗博物館、239~282頁

ブローデル、F.(浜名優美訳)、1991、『地中海I 環境の役割』、藤原書店

일본 야요이시대의 정치, 사회 변동

미야자토 오사무 일본 고치대학

- I. 논의의 전제 - 정치, 사회 변동-
- II. 야요이시대의 정치, 사회변동
- III. 맺음말

I. 논의의 전제 - 정치, 사회 변동-

1. 「정치」「사회」「변동」의 개념에 관하여

야요이시대는 벼와 청동, 철의 연이은 출현으로 사회의 모습이 크게 변화된 시대이다(森編 1985, 佐原編 2002). 전투 등의 새로운 사회관계가 등장하고, 야요이사회는 대규모화, 복잡화의 과정을 거쳐 결국 고대국가의 탄생에 이른다. 야요이시대에 이와 같은 정치체나 권력이 성장하는 역사적 과정을 정치나 사회변동이라는 관점으로 다시금 검토해 보는 것이 본고의 과제이다. 조금 추상적인 측면이 많은 주제이기에「정치」「사회변동」등의 개념을 우선 정리해둔다.

「정치」라는 단어는「통치자·위정자가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정책. 政(まつりごと)」(『大辭林第三版』, 2006)이 첫 번째 뜻이며, 광의로는「제권력·제집단의 사이에 생기는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광의의「정치」를 사회 발전과정에서 검토하는 인류학에서는, 광의의 정치에 대하여「사회에 통일을 주는 것」「공동생활을 성립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嶋田 1993:244). 광의의「정치」에서「권력」의 농도가 짙어지면 보다 협의의 정치에 가까워진다. 「권력」은「타인을 지배하고 따르게 하는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강제력」(『大辭林第三版』)으로, 그

미치는 범위나 정도 역시 본고의 검토 과제이다.

광의의 정치에 의해 통일된 「사회」는 「생활공간을 공유하거나 상호에 연결되어 있어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집합체」, 「사람들의 총합의 관계」(『大辭林第三版』)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관계의 총칭인 「사회」를 통일시키는 정치는 「사람들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기구」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변동」을 「사태가 크게 변화하는 것」(『大辭林第三版』)으로 이해한다면 「정치」를 전제로 한 「사회변동」은 「사람들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기구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야요이시대의 정치, 사회변동」을 「벼·청동·철 등의 출현으로 생겨난, 사람들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기구의 큰 변화」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사람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물질문화」의 두 가지 측면

필자는 최근 「물질문화론」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기본틀과 논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전고(宮里 2018b)에서는 물질문화를 「커뮤니케이션의 물적 조건」으로 논하였는데, 본 주제에 맞추어 다른 표현을 쓴다면, 물질문화는 「사람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기구」로 말할 수 있다. 이 「사람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물질문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하나는 「세계를 사는 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계를 유지하는 관계」이다.

「세계를 살다」

첫 번째의 「사는 세계」라는 것은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관점이다. 필자는 이 관점에 대해서 「태세(構え)」, 「장(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물리적 존재로서의 물질문화는 「도구」, 「시설」로서 만들어진다. 그 흔적을 고고학은 「유물」, 「유구」로서 파악한다. 원래 도구나 시설은 무언가 쓸모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도구」는 사람과 자연(환경, 세계)을 연결하는 것으로, 자연 중에 어떠한 유용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꺼내는 것이다. 도구는 「가능의 세계(cf. affordance, 佐々木他 1997)」를 만들어내고, 세계에 새로운 가치(유용성)가 생겨난다.

「시설」은 토지에 무엇인가의 유용성을 찾아내고 세계를 골라내는 것이다. 사람이 세계라는 「땅」에 유의미한 「그림」을 그리고, 장소를 만든 것이다. 물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의한 「구별(身分け)의 세계」(市川 1993)이다. 환경의 사회화라고 말해도 좋다.

사람들은 세계(가능의 세계, 구별의 세계)를 물질문화로서 공유한다. 「가능」, 「구별」은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태도이다. 이것을 「태세」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장」이라는 것은 「태세」가 구체적으로 실현

(사용)된 것이다. 고고학은 「태세」를 동시대의 자료군으로 파악하고, 「장」을 유적으로 파악한다. 새로운 물질문화의 등장은 새로운 세계의 등장이며, 물질문화의 (큰)변화는 세계의 갱신이다.

「세계를 유지하다」

두 번째의 측면은,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연결이다. 필자는 이 관점에 「물건 만들기 순환(ものづくり循環)」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물건 만들기 순환」은 물건 만들기의 경제적 측면을 각 국면에 성립시키는 「조직」을 고려한 개념이다. 물질문화는 물리적 존재이기에 물건 만들기 순환의 기구적 안정이 있으므로 비로소 반복·유지된다.

물건 만들기 순환의 각 국면과 관련된 조직은 아래와 같다.

- ㉠ 필요로 하다(욕구, 사용가치·기호가치)
- ㉡ 재료를 준비하다(원재료에 대한 접근과 그 권리)
- ㉢ 만들다(제작자의 사회적 위치, 제작자의 공유 범위)
- ㉣ 나르다(「교환양식」, 「교역」, 교환가치)
- ㉤ 사용하다(사용가치·기호가치, 「장」에서의 체험)
- ㉦ 버리다·폐기하다·바치다

각 국면에서 공동체내, 공동체간의 다양한 관계가 맺어지고, 반복해서 기능하는 「조직」이 구성된다. 물질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야말로 앞에서 말한 세계를 안정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사람의 연결이다. 각 국면에 있어 「교역」(후술 市村 2016)에 의해 공동체간의 관계는 내면화되고, 「사회」는 널리 통일된다.

3. 세계의 유지와 갱신

이상과 같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사람의 연결을 만드는 물질문화는 또한 「항상성(恒常性)」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물질문화는 본래 「안정·유지」기구이다. 물질문화(고고학)의 시간은 「사회사(社会史, 아날학파)」있어서 어지럽게 변화되어 가는 표층적인 「사건사(事件史)」가 아니고, 기반적(基盤的)으로 사회적·지리적인 시간에 해당되는 「구조사(構造史)」이다(Braudel 1991, 遲塚 2010). 물질문화의 구성·구조는 일정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장기변동이 특징이다.

형식(型式)을 단위로 하는 고고연대로 파악되는 것과 같은 일정 기간에 「태세」가 반복되어 생산되고, 「장」에 의해서 표현되고, 물질문화에 의한 세계(체관계)가 (상호신체적으로) 「체험」된다. 「장」에서의 체험은 「의식에 대한 작용」까지 미친다. 체험은 「가치」의 체험이기도 하며, 또한 가치가 생성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체험에 의해 내면화되고 또한 생성하는 가치는 ① 사용가치, ② 교환가치, ③ 기호

가치(伊藤 1997, 矢部 2009)가 있다.

① 사용가치는 기능적·도구적으로, 「가능의 세계」(가능세계)의 기반이 된다. 가능세계가 안정되면 사용가치는 의식 아래로 가라앉는다. ② 교환가치는 증여·교역에 관계된 것으로, 「연결되는 세계」(관계 세계)에 속한다. ③ 기호가치는 차이화(差異化)·의미론에 관계된 것으로, 「의미의 세계」(상징세계)에 속한다. ①에는 타자의 개재가 없으며, ②, ③은 타자가 필요하다. 제가치의 유지와 생성은 물건의 변화로서 파악할 수 있는데, 고고학에서는 형식(型式)(형식(型式))분류가 그 기초 작업이 된다.

「장」에 있어서 체험과 의식으로서의 작용은 세계의 유지와 갱신의 동인력이다. 이노베이션에 의해 참신하게 출현한 새로운 세계는, 일반적으로 안정화→표준화→정형화→형해화(形骸化)의 과정을 거친다. 갱신된 신세계는 결국 안정되고, 배경으로 물러나고, 의식 아래로 가라앉는다. 즉 사용가치가 배경으로 물러나고 기호가치나 교환가치가 생성되어 전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4. 「교환양식」론, 「교역」론

사람의 연결에 관련하여 「교환양식」, 「교역론」을 언급하고자 한다.

柄谷行人(2015)은 세계사의 관점으로 「생산양식」을 포기하고, 경제적 하부구조의 새로운 관점으로 「교환양식」을 제창하였다. 교환양식은 A~D로 구분되는데 교환양식 A가 호수(互酬, 증여와 반례(返礼)), 교환양식 B가 약취(略取)와 재분배(지배와 보호), 교환양식 C가 상품교환(화폐와 상품), 교환양식 D가 고차원(高次元)에서 회수된 양식 A로 설명된다. 본고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교환양식 A로,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贈与論)이 논의의 핵심이 된다. 증여되고, 반례(返礼)되는 호수(互酬)적 시스템이 사회구성체를 형성하는 원리로 이해된다. 今村(2016)의 「교역론」역시, 「증여와 교환」을 사회구성체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로 여긴다. 今村의 「교역」은 사람의 연결을 표현하는, 잘 음미(吟味)되는 용어로, 「관계·교통·교환」등을 지시하면서 상호행위 일반을 표현하는 용어로서(今村 2016: 59)사용된다. 「교역」이나 「교환양식」은, 사회의 사적발전(史的發展)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오랫동안 중요한 위치를 점해온 「생산양식」의 논의를 갱신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주목된다.

「증여와 반례」를 논의의 장에 올려놓을 때, 「(등가)교환」과의 차이(違い)가 중요해진다. 嶋田(1993)의 「이차원교환(異次元交換)」은 마르셀 모스의 「전체적 사회적 사실(全体的社会的的事实)」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으로, 증여에 의해 연결된 관계는 반드시 증여에 걸맞은 반례를 기대하는 「교환」이 아니라, 증여로 맺어진 것과는 다른 차원의 연결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차원교환」의 개념은 물건 만들기 순환의 조직을 검토할 때에 참고가 된다. 물건 만들기 순환의 조직은, 종래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중층적으로, 전체적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연결을 만드는 것이다.

II. 야요이시대의 정치, 사회변동

1. 벼와 청동과 철

야요이시대의 구성요소에는 중국·한국 등 대륙에서 전해진 기술이나 습속, 야요이문화 독자의 것, 조몽시대로부터 계승된 것이 있다(山内 1939, 佐原 1975). 그 중 조몽시대와 야요이시대를 구분하는, 시대에 큰 변혁을 가지고 온 것은 벼와 청동과 철이다. 수도경작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한국에서 전해져 야요이문화·사회에 큰 이노베이션을 가져왔다. 무기의 등장이 가져온 전투(戦い)라는 새로운 사회관계 역시 중요하다.

수도경작은, 조몽시대에는 그리 중요시되지 않았던 충적평야에 생산지·거주지로서의 유용성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시선으로 세계를 다시 파악한 농경개척민은 적합한 땅을 구해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여 환호를 비롯한 새로운 시설군을 갖추고, 유용성을 드러낸 충적평야에 농촌을 영위하였다. 필자의 필드인 南四国은 전통(조몽문화)과 변혁(야요이문화)이 현저한 대비를 보이는 좋은 지역이다(宮里 2019b). 居徳遺跡은 조몽·야요이 이행기에, 오히려 東北이나 北陸의 조몽문화와의 관계가 강하여, 토우나 칠기 등의 문화를 개화시켰다. 한편 동쪽으로 20km 떨어진 田村遺跡은 아무도 없던 들만에 만들어진 농경개척민의 마을로, 조몽문화의 전통과 접촉 없이, 서일본에서도 가장 초기의 농촌으로 새로운 토지에 뿌리내렸다. 田村遺跡의 그 후의 전개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듯이, 농경이라는 새로운 「태세」(물질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의 사회화를 계속해서 진행한 것이다.

농경문화복합에 이어서 청동과 철이 야요이인의 세계를 갱신해나가는데, 森岡秀人(2018)은 近畿를 중심으로 한 초기 농경 활동을 재평가하는 가운데, 「신석기야요이시대(新石器弥生時代)」, 「금속기야요이시대(金属器弥生時代)」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연대문제 이후의 재검토 과정에서 금속기가 없는 야요이시대의 존재가 명확해진 것에 의해, 이전보다 더 큰 획기로 인식되어 왔던 야요이시대 전기말·중기초를 경계로 새로운 시대관을 제시한 것이다. 「신석기시대야요이시대」와 「금속기야요이시대」의 평가를 염두에 둔다면, 야요이시대는 농경문화복합으로 세계가 갱신된 후, 청동기가 이어서 출현하여 세계를 더욱 대규모로 갱신하였다고 인식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청동기는 「권력」을 평가하는 좋은 재료이기도 하다.

다음에서는 농경문화복합의 구성요소인 마제석기(반월형석도)와 이어서 출현한 청동기를 대상으로 앞에서 말한 물질문화론적 관점에서 야요이사회에 어떻게 규모·내용의 통일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야요이시대의 정치, 사회변동이라는 본고의 과제에 일정한 대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농경문화복합에 의한 새로운 세계와 사람의 연결

신석기시대로서의 죠평시대의 연장에 해당되는「신석기야요이시대」는 기존의 야요이시대 전기로, 농경문화복합(수전·환호취락·마제석기류·목제농구류 등)에 의해 토지에서 새로운 유용성을 찾아내고, 환경이 사회화되어 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수도경작에 적합한 충적평야를 거주지역으로 정하고, 수전을 개간하는 것과 함께 생산·생활도구의 물건 만들기 순환을 구축한다. 새로운 사람과 자연의 연결,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정비되어 가는 것이다. 죠평인이 나무열매의 축복을 기대한 어머니로서의 나무인 붉가시나무류는 목제농구의 용재로서 벌목의 대상으로 변한다(村上 2018). 수전경관(水田景觀)은 생태계나 계절성을 변화시키고, 생활영역의 변화로 우점종(優占種)은 사슴에서 멧돼지로 바뀌고, 농사력(農事曆)에 저축되는 패류의 포식(捕食)이 크게 감소하여 패총의 규모가 축소되고, 호소나 수전에 날아오는 오리과(カモ科)의 출토량 증가 역시 현저해진다(石丸 2018).

새롭게 등장한 마제석기 중, 죠평석기에 대체품이 없는 반월형석도는 신석기야요이시대에 새롭게 구축된 물건 만들기 순환 및 사회의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야요이시대의 반월형석도 생산에 관해서는 특정 석재의 독점·공유·브랜드품의 생산이라는 특징이 연구의 이른 단계부터 밝혀져 왔다(酒井 1974, 下條 1989). 近畿地方에서는 북부의 점관암, 남부의 결정편암을 주요 석재로 하여, 석재산출지를 넓은 범위의 공동체가 공유하고, 각 취락이 거칠게 조정(粗割り)한 소재 석재를 입수하여 스스로 반월형석도를 제작하였다. 농경생활의「태세」인 수확구(반월형석도)가 필수 도구가 되고, 안정적 공급을 계획하는데 있어 적합한 소재의 존재가 近畿 북부, 남부에서는 각각 파악되어, 넓은 지역이 입회지(入会地)처럼 산출지를 공유하고 각각 필요한 거칠게 조정(粗割り)한 소재를 입수하여 스스로 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야요이시대 중기(금속기야요이시대)에 들어와 확립된 것이다. 야요이시대 전기(신석기야요이시대)에는 아직 반월형석도에 적합한 소재의 산지가 파악되지 못하였다. 兵庫県 神戸市 大開遺跡(神戸市教育委員会編 1993)은 近畿地方에서 가장 이른 농촌으로, 六甲山 남쪽의 충적지에 개척된 환호취락이다. 단계적으로 확장된 환호는 70×40m의 범위를 타원형으로 감싸고, 환호의 안팎에 주거지 5동, 저장수혈 11기, 목관묘 1기 외 다수의 토광, 피트가 확인되었다. 선행하는 돌대문기(突帯文期)의 유물이 있으나, 第3遺構面の 환호취락은 외래계의 농경개척민이 개척한 초기농경취락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大開遺跡의 석기, 반월형석도는 모두 金山産 사누카이트(サヌカイト)이다. 大開遺跡을 개척한 사람들은 金山産 사누카이트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에 기원이 있어, 신천지에서의 생활은 기원지의 네트워크로 지탱된 것이다(寺前 2011).

高知県 南国市 田村遺跡(高知県教育委員会編 1986)도 大開遺跡과 동일한 상황을 보여준다. 田村

遺跡은 주변에 선행하는 죠평 만기의 유적이 없고, 농경개척민이 새롭게 개척한 농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당초는 고립무원으로, 주위에 취락이 나타나기까지는 한 형식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했다. 田村遺跡이 그 지역의 혈암(頁岩)을 이용한 반월형석도 생산을 안정시킨 것은 전기말 이후로, 그 이전의 반월형석도는 거의가 구주에서 산출되는 유문암이나 백색이암제(白色泥岩製)였다. 田村遺跡을 개척한 집단은 東北部九州와의 관계가 깊어(宮里 2019b), 田村遺跡에서의 생활은 일정 기간, 기원지와의 연락을 유지하는 상태였다. 그 후 야요이 전기의 긴 기간을 통해 주변 환경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주변에 확산된 취락과 함께 환경을 사회화하였던 것이다.

北部九州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유명한 입암제(立岩製)의 휘록응회암(輝綠凝灰岩) 반월형석도나 금산산(金山産)의 태형합인석부가 본격적으로 유통하는 것은 중기 이후이다. 입암제의 반월형석도는, 분포권내의 각 취락이 주변에 산출되는 석재를 사용해 자급적으로 반월형석도를 생산하는 중에, 어떠한 브랜드품으로서 희구(希求)되었다. 입암(立岩)이나 금산(金山)은 브랜드품의 반출로, 광역사회에 있어서 우위성을 높였으며, 그러한 석기생산의 우위성을 배경으로 三雲南小路나 立岩10号甕棺과 같이 돌출된 엘리트가 등장하였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北部九州에 있어서도 야요이 전기에는 각 취락이 주변의 경사암(硬砂岩)이나 점관암으로 반월형석도를 생산하고 있어, 역시 당초의 반월형석도에 관계된 물건 만들기 순환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완결되었다(下條 1975a·b).

각 지역의 신석기야요이시대의 초기 농경사회에 보듯이, 당초의 농경문화복합이 연결한 지역사회의 규모는 작고 한정된 것이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토지의 유용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사회의 연결이 넓고 안정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더욱이 석재의 획득이나 우수한 물품의 제작으로 어드밴티지를 가진 공동체가, 교환가치나 기호가치의 생성으로 다른 공동체보다 우위의 입장에 서는 상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신석기야요이시대가 되어 갱신된 새로운 세계는, 시간을 들여 폭 넓게 사회를 연결하는 물건 만들기 순환(ものづくり循環)을 구축하고 (농경)사회를 통일한 것이다.

3. 청동기의 등장이 가져온 새로운 세계와 사람들의 관계

마제석기의 물건 만들기 순환이 사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내었을 무렵, 청동기가 한반도에서 새롭게 전해지고, 시대는 금속기야요이시대로 이행하였다. 北部九州의 무기형청동기(武器形青銅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전시키면, 야요이사회에 있어 청동기생산의 시작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용범으로는 중기 전엽, 옹관 등에 부장되는 제품의 특징으로는 중기 초두가 초현으로 파악된다(吉田 2008). 이른 단계의 제품은 현해탄 연안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이른 단계의 용범은 有明海沿岸에 조

금 치우치는 등 파행적인 측면은 있으나, 소위「초기 용범」은 의(擬)한반도계무문토기와 관계가 있으며(片岡 1999), 어느 쪽이든 최초의 청동기는 도래인에 의해 전해졌고 또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이다.

「태세(構え)」로서의 청동기

앞의 (2)장을 바탕으로 물질문화로서의 야요이 청동기를 검토하겠다.

「태세」로서의 청동기는 무기이다. 무기는 금속기야요이시대를 거슬러올라 야요이 전기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마제석검이나 마제석촉으로, 糸島市 新町 24号墓나 長野宮ノ前12号墓에서는 인체에 박힌 마제석촉이 발견되었(橋口 2007). 시기는 내려가지만 飯塚市 スタレ3号甕棺에서는 마제석검이 박힌 인골이 발견되었다(橋口 2007). 무기는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도구로, 조몽시대에는 없었던 전투(戦い)에 의한 살상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가능 세계가 만들어졌다. 北部九州에 전해진 청동기는 무기와 다뉴세문경이다. 세문경은 필자 분류의 4단계 이후의 제품으로, 등급이 확립된 5단계에 있어서는 중위·하위랭크의 경식(鏡式)에 한정된다(宮里 2010). 須玖タカウタ遺跡 출토의 석제 용범(春日市教育委員会編 2017)이 다뉴경일 가능성도 검토되는데, 어느 쪽이든 다뉴경은 한반도에서 제작이 끊기는 등 보급되지 않고, 확고한 기호가치의 생성까지 이르지 못하고 소멸하였다.

청동무기는 검(劍), 모(矛), 과(戈)의 3종류로 구성된다. 동검은 한반도 청동기문화가 그러하듯이 석검이 전화(轉化)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한반도 청동기문화에 있어서 검의 기호가치는 동검을 주(主), 석검을 종(從)으로 생성되었다. 야요이문화에 있어서도 동검은 석검을 계승한 것이 아니다. 「전투」라는 사회관계는 이어지지만, 오히려 청동기의 기호가치의 생성에는 소재의 희소성이나 고칼로리를 필요로 하는 테크놀로지라는 측면이 크게 작용하였다. 청동무기가 우선 실용품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틀림없으며, 筑紫野市 永岡K-95나 K-100처럼 인골에 박힌 사례는 동검의 실용을 보여준다. 그러나 「明器銅戈」(橋口 2007)처럼 당초부터 실용성을 잃어버린 것이 제작되고, 또한 동검을 수용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중세형(中細形)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등(北島 2011), 기호가치의 생성은 활발하였다. 청동무기는 비실용화·대형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무기형제기(武器形祭器)로 변화해 가는데, 형식변화의 초기에는 유병식동검(有柄式銅劍)(向津具, 吉野ヶ里SJ1002)이나 漆塗飾鞘(柚比本村SJ1137)처럼 장식성을 높이는 시도도 있었다. 須玖タカウタ의 토제 용범도 당초의 제작 시도(試み) 중 하나였다.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중에, 결과적으로 무기형청동기는 중세형(中細形)·중광형(中広形)·광형(広形)으로 형식변화하고, 형상으로는 형해화(形骸化)하면서도 제기로서의 의의를 높여갔다.

3종류의 무기에는 각각 서로 다른 기호가치가 생성되었다. 분포의 한정성이나 그 후의 전개로 보아, 무기형 3종에는 당초부터 모, 과, 검의 등급이 있었다(岩永 1997). 동모는 수용한 지역마다 취급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광형(中広形)·광형(広形) 단계에는 생산이 집중 관리되어 구심

적인 분포권을 형성하였다(田尻 2012). 한편 동과는 돌, 나무, 철과 다양한 소재로 전화(轉化)하고, 近畿에서도 제작되어 그림에 표현되고, 곧 관외부장(棺外副葬)의 대상이 되는 등, 여하튼 높은 관심을 받았다(宮里 2019a). 동과는 분포 또한 특징적으로, 중세형(中細形)·중광형(中広形)은 二日市地峡帶南部에 높은 집중 경향을 보여준다. 철과의 분포도 이것에 연동한다. 北部九州製の 동과는 원래 구주 밖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長野県 柳沢遺跡을 제외하면九州 외의 분포는 거의 高知県에 한정되어, 어떠한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동검은 적은 수의 중광형(中広形)을 제외하면, 거의 중세형(中細形)에서 생산이 끝나는데, 검(劍)은 반대로 철제무기로 계승된다. 이렇게 내실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나, 각 기종은 단계별로 다양한 기호가치나 교환가치를 생성하면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동탁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는 제기(祭器)로서 땅속에 일정한 규칙으로 묻는 법식이 폭 넓게 공유되고, 느슨하기는 하지만 「태세」로서의 청동제기의 세계는 공유되었다. 공동적·집단적인 기물로 그 존재와 효력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청동기의 「물건 만들기 순환」

야요이청동기의 생산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불명인 부분이 많은데, 田尻(2010)의 연구에 의해 어느 정도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㉔ 재료를 준비하다」의 국면으로, 납동위체비(鉛同位体比)에 의하면, 청동원료는 모두 수입품에 의존했다고 생각된다. 야요이시대의 「교역」은 선형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교환양식 A에 해당된다. 이차원교환(異次元交換)의 관점으로 본다면 복합적인 연결 중에 청동원료의 유통이 있는 것이다. 동탁 제작에서는 청동원료의 기능 입수량과 동탁 형식과의 관계가 이야기되고(難波 2011:16), 청동원료의 큰 전환(중광형→광형)이 있으나 적어도 크게 중단되는 적은 없으며, 필요한 원료를 획득하는 조직은 유지되었던 듯하다. 용범 석재에 대해서는 福岡県 南部의 矢部川流域에서 채취 가능한 석영반암(石英斑岩)이 야요이시대에 청동기 용범용의 석재로서 사용되었다고 한다(田尻他 2012). 연료의 (대규모의) 확보 등도 집단적·공동적인 작업이다. 「㉕ 만들다」의 국면에서는, 용범의 분포에 의하면 당초 有明海沿岸에 집중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단계적으로 春日丘陵에 집약되는 과정이 파악된다. 田尻(2012)의 정리에 의하면 중세형(中細形)·중광형(中広形) 등의 제기화, 매납행위가 진행되는 야요이시대 중기 중엽 이후는 소지역단위의 제작거점이 어느 정도 자립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고, 광형(広形)에 해당되는 야요이시대 후기에는 대규모의 청동기제작지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산의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㉖ 나르다」국면은 불명인 부분이 많다. 제작의 계기가 불명이며 생산량도 알 수 없다. 「㉗ 사용하다」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을 테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금 특징적인 분포를 보이는 (중광형, 광형)동과의 생산지는 조금 분산적으로(宮里 2019a), 제작 주체가 큰 조직의 관리 아래에 있었는지 어떤지는 앞으로의 검토 과제이다. 또한 南四国에서 출토되는 청동기는 파손품이나 파편이 많아, 大分 등

東九州의 양상과 유사하다(宮里 2019a), 南四国の 청동기는 중앙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주변부들의 「교역」에 의해 전해졌다고 생각된다. 高知平野에 전해진 동탁을 보면 문양에 특징이 있는 동탁(縦帶複線分割)의 집중이 보이는데, 특정 제작지와의 관계가 일정기간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된다(宮里 2018a). 「© 사용하다」의 국면은 도광 등의 시설 내에 묻는다고 하는 일종의 범식이 공유되었던 점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용가치를 크게 벗어나 기호가치(상징세계)가 한층 전개된 모습이 청동기 매납구덩이로 확인되는 것뿐이다. 공양(供犧)이나 포틀래치(potlatch) 등의 개념을 사용한 이해도 있을 것이다(岩永 1998), 지금은 버거운 주제로 금후를 기약하고자 한다.

불명인 부분이 많지만 야요이시대의 청동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넓은 지역이 청동제기의 「태세」를 공유하기에 이르렀고, 그 효력의 은혜를 기원했던 것, 「만들다」를 핵으로 물건 만들기 순환(のづくり循環)이 春日丘陵이라는 특정의 제작거점에 집약되었다는 점이다. 널리 사회가 요구하는 물질문화의 물건 만들기 순환 조직을 장악하는 것은 각 국면에 강한 강제력, 즉 「권력」의 성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영력(靈力)에 의해 의식에 강하게 작용하였을 청동제기는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에 통일을 주는 것이 되고, 그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가 권력의 성장을 촉진시킨 것이다.

Ⅲ. 맺음말

공유된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물건 만들기 순환이 사회를 통일한 예로서, 마제석기와 청동기를 검토하였다. 야요이시대에 있어 벼와 청동과 철은 사회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들은 생산이나 정신의 측면에 큰 임팩트를 발생시킨 물질문화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언급하지 않은 「철」은 고분시대에 이르는 큰 변화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의 종언과 고분의 시작, 그것에 관계되는 철기 만들기 순환 조직은 매우 중요한 연구 테마로, 버거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루어보고자 한다.

통상 야요이시대의 정치, 사회변동이라고 하면 분구묘 등 특정 개인묘의 성장을 다룰 것이다. 吉武高木区画墓(3号木棺墓를 포함하여), 吉野ヶ里墳丘墓, 須玖岡本D地点, 三雲南小路, 平原1号墓나 加味Y1号墳丘墓, 楯築墳丘墓, 西谷3号墓 등의 자료로 권력의 성장을 그려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았다. 많은 비판, 질책을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石丸恵利子, 2018, 「動物考古学からみた農耕化現象と集落立地の反映」『初期農耕活動と近畿の弥生社会』、雄山閣、133~145頁

市川浩, 1993 (1984)、『〈身〉の構造—身体論を超えて』、講談社

伊藤眞、1997, 「消費と欲望の形成」『岩波講座文化人類学第3巻 「もの」の人間世界』、岩波書店、111~136頁

今村仁司、2016 (2000)、『交易する人間 (ホモ・コムニカンス) : 贈与と交換の人間学』、講談社

岩永省三、1994, 「日本列島産青銅武器類出現の考古学的意義」『古文化談叢』第33集、九州古文化研究会、37~60頁

岩永省三、1997, 『歴史発掘7 金属器登場』、講談社

岩永省三、1998, 「青銅器祭祀とその終焉」『日本の信仰遺跡』、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75~99頁

春日市教育委員会 (中村昇平・吉田佳広他) 編、2017, 『須玖タカウタ遺跡3—第5次調査—』春日市文化財調査報告書第77集

柄谷行人、2015 (2010)、『世界史の構造』、岩波書店

北島大輔、2011, 「弥生青銅器の発達と終焉」『弥生時代の考古学4 古墳時代への胎動』、同成社、121~138頁

高知県教育委員会編、1986, 『田村遺跡群第2分冊』、高知県教育委員会

神戸市教育委員会 (前田佳久) 編、1993, 『大開遺跡発掘調査報告書』、神戸市教育委員会

酒井龍一、1974, 「石庖丁の生産と消費をめぐる二つのモデル」『考古学研究』第21巻第2号、考古学研究会、23~36頁

櫻井拓馬、2018, 「大陸系磨製石器の伝播と選択的受容」『初期農耕活動と近畿の弥生社会』、雄山閣、59~68頁

佐々木正人・松野孝一郎・三嶋博之、1997, 『複雑系の科学と現代思想 アフォーダンス』、青土社

佐原真、1975, 「農業の開始と階級社会の形成」『岩波講座日本歴史1』、岩波書店、113~182頁

佐原真編、2002, 『古代を考える 稲・金属・戦争—弥生—』、吉川弘文館

嶋田義仁、1993, 『異次元交換の政治人類学—人類学的思考とはなにか—』、勁草書房

下條信行、1975a, 「北九州における弥生時代の石器生産」『考古学研究』第22巻第1号、考古学研究会、7~14頁

下條信行、1975b, 「未製石器よりみた弥生時代前期の生産体制」『九州考古学の諸問題』、福岡考古学研究会、181~209頁

下條信行、1989, 「ムラと工房」『古代史復元4 弥生農村の誕生』、講談社、113~124頁

田尻義了、2012, 『弥生時代の青銅器生産体制』、九州大学出版会

田尻義了・足立達朗・中野伸彦・米村和紘・小山内康人・田中良之、2012, 「弥生時代北部九州における鑄型石材の原産地同定と鑄型素材の加工と流通」『日本考古学』第33号、日本考古学協会、95~112頁

遅塚忠躬、2010, 『史学概論』、東京大学出版

寺前直人、2011, 「石器の生産と流通」『講座日本の考古学5 弥生時代 (上)』、青木書店、618~650頁

難波洋三、2011, 「扁平鈕式以後の銅鐸」『大岩山銅鐸から見えてくるもの』、滋賀県立安土城考古博物館、71~89頁

難波洋三、2016, 「銅鐸の価格」『季刊考古学』第135号、雄山閣、70~74頁

橋口達也、2007, 『弥生時代の戦い—戦いの実態と権力機構の生成—』、雄山閣

宮里修、2010, 『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사회평론

宮里修、2014, 「朝鮮半島／韓半島青銅器文化の列島における受容と変容」『平成26年度瀬戸内海考古学研究会第4回公開大会予稿集』、瀬戸内海考古学研究会、21~30頁

宮里修、2018a、「土佐出土銅鐸の系譜」『高知考古学研究』第2号、高知考古学研究会、1~19頁

宮里修、2018b、「中世城郭研究における考古学の役割について—物質文化試論—」『海南史学』第56号、高知海南史学会、1~18頁

宮里修、2019a、「太平洋沿岸地域の交流—南四国と銅戈—」『西相模考古学研究会・兵庫考古学談話会合同シンポジウム予稿集 弥生時代における東西交流の実態—広域な連動性を問う—』、西相模考古学研究会・兵庫考古学談話会合同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69~86頁

宮里修、2019b、「東松木式土器の系統と編年的位置について—南四国最古の弥生土器—」『高知考古学研究』第3号、高知考古学研究会、1~28頁

村上由美子、2018、「縄文-弥生移行期におけるアカガシ亜属の利用—初期農耕集落の木材利用と生産活動の特質—」『初期農耕活動と近畿の弥生社会』、雄山閣、111~124頁

森岡秀人、2018、「近畿初期農耕社会の成立にみられる諸変動と画期」『初期農耕活動と近畿の弥生社会』、雄山閣、281~295頁

森貞次郎編、1985、『稲と青銅と鉄』、日本書籍

矢部謙太郎、2009、『早稲田大学ブックレット [現代社会学のトピックス5] 消費社会と現代人の生活—分析ツールとしてのボードリヤール』、学文社

山内清男、1997 (1939)「日本遠古之文化 (補注付・新版)」『先史考古学論文集 (一)』、示人社

吉田広、2008、「日本列島における武器形青銅器の鑄造開始年代」『新弥生時代のはじまり第3巻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雄山閣、39~54頁

吉田広、2014、「弥生時代青銅器祭祀の展開と特質」『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85集、国立歴史民俗博物館、239~282頁

ブローデル、F. (浜名優美訳)、1991、『地中海I 環境の役割』、藤原書店

제6발표

장례습속으로 본 초기철기시대 사회의 발전단계

- 점토띠토기문화를 중심으로 -

서길덕

한성문화재연구원

장례습속으로 본 초기철기시대 사회의 발전단계

서길덕 한성문화재연구원

- 점토띠토기문화를 중심으로 -

-
- I. 머리말
 - II. 점토띠토기문화의 장례습속
 - III. 장례습속의 영역과 의미
 - IV. 장례습속으로 본 사회의 구조와 변화
 - V.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나라의 초기철기시대는 고조선이 걸쳐있고 위만조선이 포함되어 있어 시,공적 영역을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논지를 전개하기에 앞서 공간적 영역은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적으로는 초기철기시대에 대한 이견이 많기 때문에 무덤에 나타난 점토띠토기류의 등장과 소멸 시기까지 정하여 잠정적으로 '점토띠토기문화기'로 하여 검토하겠다. 따라서 일부는 청동기시대로 일부는 원삼국시대(삼한)로 편입될 수 있다.

물론 한반도 남부의 초기철기시대 사회는 무문토기문화와 점토띠토기문화가 오랫동안 공존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존기의 무문토기문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점토띠토기문화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한 사회의 발전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속 및 생활유적을 포함한 고고자료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강한 보수성과 전통성을 가진 장례습속을 연구하는 것은 그 사회의 발전단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점토띠토기문화의 장례습속을 추적하여 그 의미와 영역을 검토하고 당시 사회의 계층화 및 발전 과정 등 일면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점토띠토기문화의 장례습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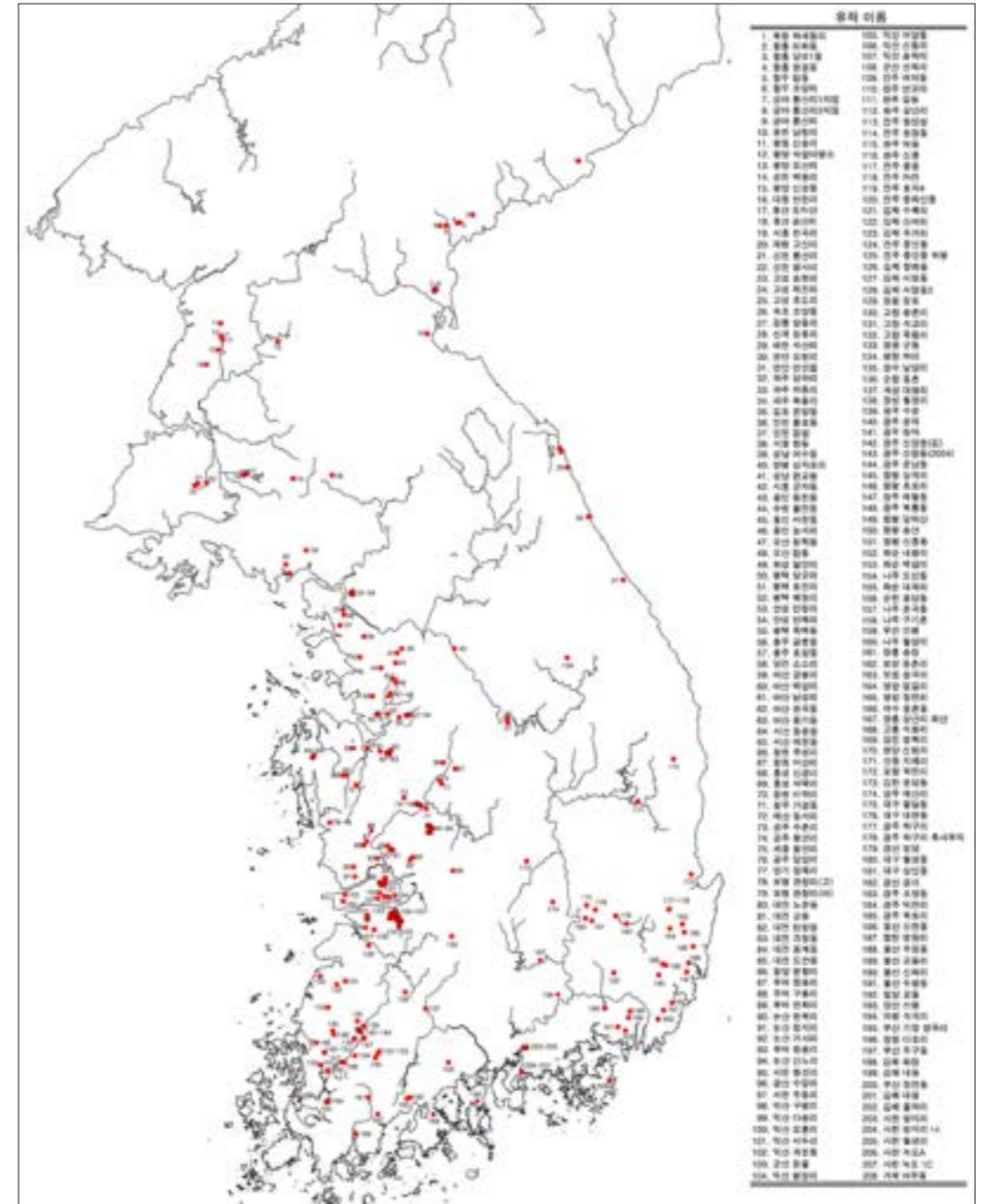
점토띠토기문화의 장례습속 중에서 무덤의 위를 돌로 덮는 습속, 토기를 죽은 사람의 발치에 끼우는 풍습, 무덤을 구릉의 비탈에 쓰면서 방향을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성하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이 외에도 무덤바닥을 비스듬하게 조성하거나 무덤 속에 검이나 투겁창 등의 무기를 꽂는 행위 등의 독특한 습속도 관찰된다. 또한 무문토기문화의 무덤에 일부 보이는 껍묻거리를 훼손하는 습속은 점토띠토기문화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밖에 재지의 돌널무덤 등에서 껍묻기칸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은 점토띠토기문화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늦은 시기로 가면(주로 삼각형점토띠토기 단계) 무덤 바닥에 구덩이를 파서 부장갱을 만든 '요갱'이 나타난다. 통나무널을 사용하는 풍습도 점토띠토기문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인돌의 하부구조와 비슷한 2단움을 조성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독무덤은 무문토기문화의 세워묻기 방식이 아닌 눕혀묻기로, 흠독에서 이음독으로 점차 변화된 장법을 보인다. 이 외에도 사천 늑도 유적에서 보이는 조개무지 민무덤, 세골장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이 시기에 들어 새롭게 나타난다.

이렇듯 초기철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점토띠토기문화의 등장과 함께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진 장법과 장례습속이 관찰된다. 특히 점토대토기문화 속에서도 무문토기문화의 전통인 고인돌이나 돌널무덤도 함께 사용한 점이 확인되고 있어 그 다양성이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화장무덤은 아직 보고된 바 없으나 돌무지 사이에서 불탄재와 숯이 검출되었다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다. 이는 장례절차에 추가될 수 있는 중요한 행위 중의 하나일 수 있어 앞으로의 발굴에서 관심이 요구된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장례습속 들 중에서 일부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그림 1>과 같이 보고서가 간행된 한반도의 208개 유적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1> 점토띠토기문화기 무덤 분포도(서길덕 2008)

1. 비스듬한 무덤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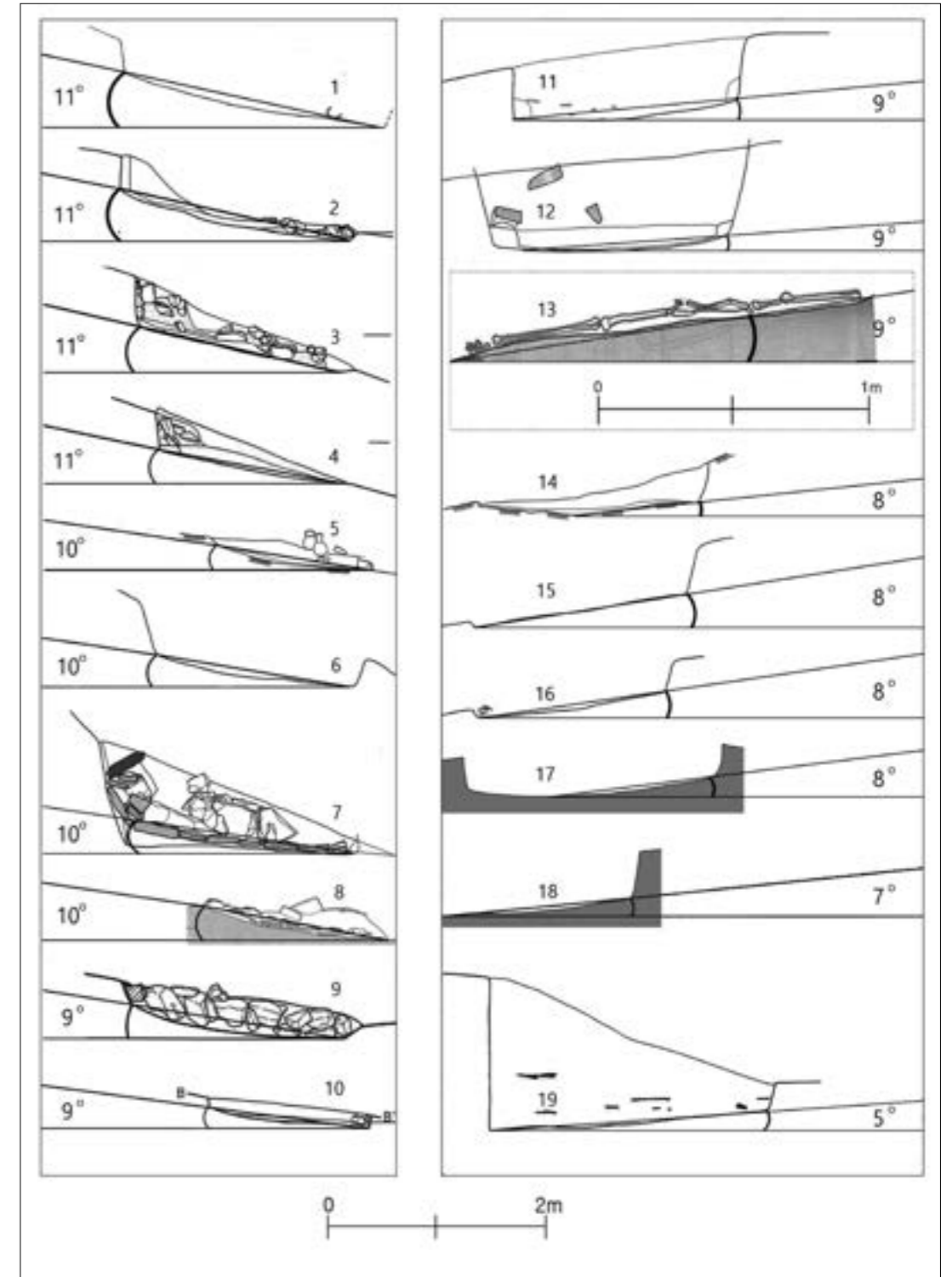
재지 무문토기문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점토띠토기문화의 장례습속 가운데 하나는 무덤 바닥을 비스듬하게 조성하는 점이다.¹⁾ 일반적으로 무덤바닥이 비스듬한 상태로 드러나면, 최초 굴착과정의 하나로 여겨서 기반층은 그렇게 파여졌으나 실제 매장시에는 편평하게 흙을 돋군 다음 시신을 눕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물의 위치나 여러 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의도적으로 비스듬하게 깔았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매장시에 머리쪽을 높이고 발쪽을 낮춘, 비스듬한 상태로 시신을 눕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본 근거로는 우선, ((그림 2)의 13)과 같이 사천 늑도 유적에서 비스듬하게 놓여진 인골이 발굴된 사례가 있고 합천 영창리 13호와 같이 주검받침대(屍床)를 비스듬하게 만든 경우(그림 2의 7)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원 울전동Ⅱ, 안성 반제리, 청원 마산리, 전주 중인동 등의 유적에서는 기울기가 10° 이상에 해당한다.((그림 2)의 1~8)

10° 정도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인지 바꾸어 말하면, 가장 높은 바닥과 가장 낮은 바닥이 45~50cm 차이가 난다. 구릉의 비탈에 위치한 비스듬한 무덤바닥은 대부분 죽은 사람의 머리를 위쪽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의 머리를 높여서 묻는 장례가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는 앞으로 밝혀야 할 숙제이다.

반면, 머리를 낮게 하고 발치를 높인 주검도 확인되었다. 인골이 남아 있는 사천 늑도 유적의 일부 무덤(A지구 가-121호·123호, 1C지구 7호·9호·35호·37호)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검 처리방식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고고학 자료로 해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 정상적인 주검과는 달랐을 것이다. 한편, 기울기가 10° 이상으로 급한 경사를 가지는 무덤바닥은 아직까지는 안성 반제리, 수원 울전동 유적 등 주로 이른 시기에만 관찰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향후 장례습속의 변화상 뿐만 아니라 무덤의 시기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비스듬한 무덤 바닥 사례(서길덕 2008)(1. 수원 울전동Ⅱ-1, 2~4, 안성 반제리1~3, 5. 청원 마산리, 6. 전주 중인동2, 7. 합천 영창리13, 8. 사천 늑도A-105, 9. 서울 향동, 10. 홍천 신경리·예산 목리, 11. 완주 신평 나24, 12. 대구 팔달동55, 13. 사천 늑도A-124, 14. 논산 원북리 나-6, 15~16. 전주 중인동5·9, 17~18. 김제 서정동 4~5, 19. 청원 다호리3)

1) 조사해본 결과 기울기 3° 이상이 74기가 넘었다. 물론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껌문거리의 휘기

껌문거리를 휘기하는 습속은 흥노무덤(양시은·G에렉젠, 2017) 등 북방유목민족을 비롯해 중국의 요령지역, 한반도의 고인돌, 및 신빈지역 돌널무덤에서도 찾아진다. (하문식 2016)

한반도에서는 무문토기사회의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에서도 껌문거리의 휘기가 종종 확인되고 있으나 점토틈토기문화가 들어오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껌문거리의 휘기 목적에 대해서는 죽음을 사회적으로 공인시키는 목적(이상길 1994, 하문식 2016) 죽은 사람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도한 목적, 무덤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한 목적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고대 중국인은 인간의 영혼을 혼(魂)과 백(魄), 두 가지의 요소로 구분하였다고 한다. (마이클·로이, 이성규 역 1987) 사람이 죽을 때는 이 혼과 백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오늘날 한국인들도 ‘혼이 떠난다’는 말로 죽음을 나타내므로 같은 측면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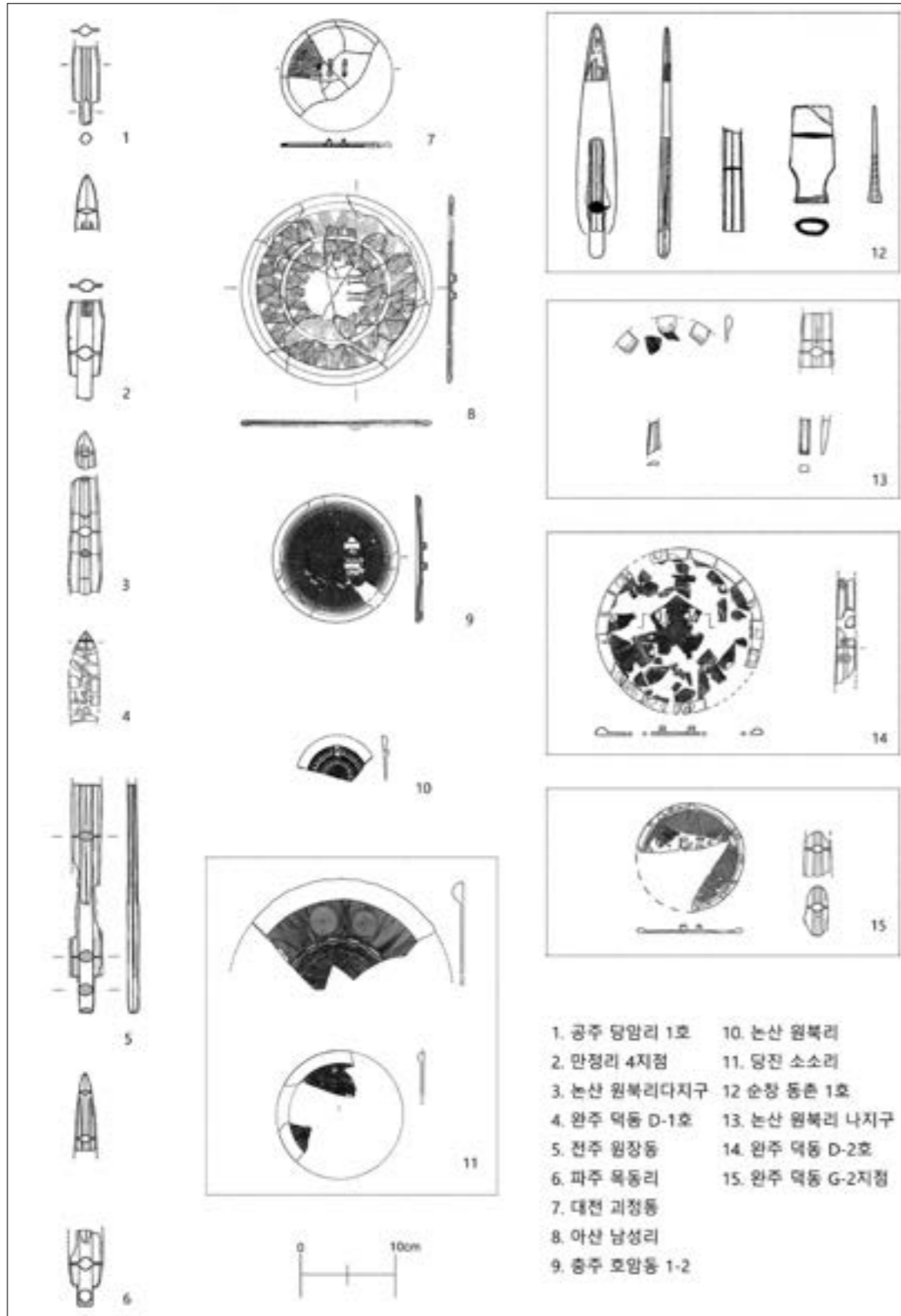
위 생사관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서 혼이 육체를 떠나더라도 백은 육체에 남는다고 보았다. 만약 백이 육체를 떠나 생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오면, 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혼과 백이 육체에 함께 있던 생전의 물건들을 껌문어서 죽은 사람의 신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바 있다. (마이클·로이, 이성규 역 1987) 따라서 위 견해에 따르면, 무덤에 껌문거리를 묻는 행위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둘 다를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한편, 19세기 미국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망자가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무덤에 깨진 토기들을 놓았다거나 민족지연구에서 죽은 이가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지로 가는 도중에 길을 이리저리오가거나(마다가스카르 전역) 시냇물 너머에 무덤을 쓰는 사례(보르네오 이반(Iban)족), 무덤에 칼을 한 개 넣는 사례(보르네오 이반(Iban)족)가 언급되고 있다. (마이크 파크 피어슨, 이희준 역 2009) 이러한 예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분리하려는 의도가 목적이요, 여기에는 죽은 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

이상 껌문거리의 휘기현상과 그 의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러 민족지연구에 저승과 이승을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주 확인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당시 점토틈토기문화기 사람들의 사유관은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이승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1〉 껌문거리의 휘기 현황(●-토기 흠뿌림)(서길덕 2008)

지역	유적	무덤분류	휘기		출처
			토기	금속	
중서	파주 목동리(파주 운정1)	나무널무덤		동검	中央文化財研究院, 2011
중서	인천 검암동	나무널무덤	○		中部考古學研究所, 2011
중서	안성 만정리4지점	나무널무덤		동검	京畿文化財研究院, 2009
중서	평택 죽백동(평택 소사벌)	움무덤	○		中央文化財研究院, 2009
중서	충주 호암동1-2지점	돌무지나무널무덤		청동도끼	중원문화재연구원, 2015
중서	충주 호암동2-1지점 1호	나무널무덤		동검	중원문화재연구원, 2015
중서	연기 장재리 1호	돌무지나무널무덤		동검/청동도끼	百濟文化財研究院, 2013
중서	대전 괴정동	돌무지나무널무덤		청동거울	李殷昌, 1968
중서	논산 원북리 나-돌무지1	돌무지나무널무덤		청동새기개	中央文化財研究院, 2001
중서	논산 원북리 나-6	움무덤		동검/청동거울/동새기/청동골	中央文化財研究院, 2001
중서	논산 원북리 나-10	움무덤		동검	中央文化財研究院, 2001
중서	논산 원북리 다-1	움무덤		동검/청동거울	中央文化財研究院, 2001
중서	논산 정지리1	나무널무덤		동검	嘉耕考古學研究所, 2013
중서	논산 정지리2	나무널무덤		동검	嘉耕考古學研究所, 2013
중서	논산 거사리	나무널무덤		동검	中部考古學研究所, 2017
중서	부여 합송리	돌무지		청동거울	李健茂, 1990
중서	부여 연화리	돌무지돌덧널		청동거울	金載元, 1964
중서	부여 청송리	나무널무덤		동검/청동꺽창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7
중서	김천 문당동	나무널무덤(판재)		동검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8
중서	익산 구평리 II-1	나무널무덤		동검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중서	완주 덕동 G-2지점2	나무널무덤		동검/청동거울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중서	전주 원장동1	나무널무덤		동검/청동새기개	全北文化財研究院, 2013
중서	전주 중화산동 2	움무덤		동검봉부	全北文化財研究院, 2008
중서	전주 중인동 하봉	움무덤	●	청동도끼	全北文化財研究院, 2009
중서	완주 덕동 D-1호	움무덤		동검/청동거울/청동새기개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중서	완주 갈동 1	움무덤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5
중서	완주 갈동 4	나무널무덤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5
중서	완주 갈동 5	나무널무덤		청동거울	湖南文化財研究院, 2009
중서	완주 갈동 6	나무널무덤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9
중서	완주 갈동 9	나무널무덤		청동도끼	湖南文化財研究院, 2009
중서	완주 갈동 12	나무널무덤		동검	湖南文化財研究院, 2009
중서	완주 신평 가2	움무덤	○	청동거울	湖南文化財研究院, 2014
중서	완주 신평 나1	나무널무덤		청동거울	湖南文化財研究院, 2014
중서	완주 신평 나7	움무덤	○		湖南文化財研究院, 2014
중서	완주 신평 나10	움무덤	●		湖南文化財研究院, 2014
중서	완주 신평 나21	나무널무덤		청동거울	湖南文化財研究院, 2014
중서	완주 신평 나23	나무널무덤		청동꺽창	湖南文化財研究院, 2014
중서	완주 신평 나24	나무널무덤	●		湖南文化財研究院, 2014
중서	김제 수록리 3	나무널무덤	○		군산대학교박물관, 2014
중서	김제 수록리 4	나무널무덤	○		군산대학교박물관, 2014
중서	김제 서정동 2	나무널무덤(통나무)		청동거울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중서	장수 남양리 4	돌무지돌덧널무덤		청동거울	全北大學校博物館, 2000
서남	함평 당하산 2호	움무덤	●		木浦大學校博物館, 2001
서남	순창 동촌	나무널무덤		동검/청동새기개/청동골/청동도끼	全北大學校博物館, 2011
서남	순천 용당동 망북	나무널무덤	○		순천대학교박물관, 2001
동남	대구 팔달동 71	나무널무덤(통나무)		쇠검	嶺南文化財研究院, 2000
동남	경산 임당 F1-42	나무널무덤		청동새기개	嶺南文化財研究院, 1999
동남	대구 팔달동 124	순움무덤		쇠도끼	嶺南文化財研究院, 2000
동남	밀양 교동 13	나무널무덤(통나무)		동검	密陽大學校博物館, 2004
동남	창원 다호리 73	나무널무덤(판재)		쇠검	國立中央博物館, 2001
동남	사천 월성리	나무널무덤(채움돌)		청동거울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그림 3) 금속유물의 획기 사례(서길덕 2008)

3. 무기를 꽂는 습속

끝이 뾰족한 무기류를 무덤의 일정 부분에 꽂는 장례습속은 점토띠토기문화에서만 관찰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무기의 종류는 칼, 검, 투검창으로, 무기가 꽂힌 위치는 무덤의 바닥, 벽면, 채움흙으로 구분되며, 죽은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주로 머리쪽 주변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무기 꽂힌 무덤 현황(서길덕 2008에서 수정)

번호	유적	무덤	무기	꽂은 위치
1	인천 검암동	움무덤(널)	세형동검	머리 쪽 모서리
2	장수 남양리 4호	돌무지돌덧널	동투검창	측벽(상부)
3	함평 당하산 토광	움무덤	동검	가운데 바닥
4	나주 구기촌 10호	움무덤	쇠검	머리 쪽 벽면
5	울산 교동 1호	움무덤(널)	둥근고리 자루칼	머리 쪽 채움흙
6	대구 월성동 12호	움무덤(널)	쇠검	머리 쪽 벽면
7	밀양 교동 10호	움무덤(널)	쇠투검창 2점	머리 쪽 모서리 채움흙
8	밀양 교동 11호	움무덤(널)	쇠투검창	머리 쪽 모서리 채움흙
9	창원 다호리 73호	움무덤(널)	쇠검	머리 쪽 단벽 및 바닥
10	창원 다호리 135호	움무덤(널)	쇠투검창	머리 쪽 벽면
11	창원 다호리 138호	움무덤(널)	쇠투검창	머리 쪽 단벽 밑 바닥
12	창원 다호리 141호	움무덤(널)	쇠검/쇠투검창	머리 쪽 모서리 바닥
13	창원 다호리 144호	움무덤(널)	쇠검/쇠투검창	머리 쪽 모서리 바닥

무덤 단벽의 벽면에 옆으로 누어 무기를 꽂은 곳은 나주 구기촌 10호와 창원 다호리 135호, 대구 월성동 1-12호 무덤²⁾으로, 구기촌 10호에는 쇠검을, 창원 다호리 135호에는 쇠투검창을 꽂았다. 이밖에 창원 다호리 73호 무덤에서는 하나의 쇠검을 부르뜨려 각각 두 조각을 단벽 아래에 꽂았기 때문에 유물의 파쇄와 꽂기 습속이 함께 나타난다.

창원 다호리 141호와 144호는 같은 위치에 같은 종류의 무기, 즉 쇠검과 쇠투검창이 각각 꽂힌 채 노출되었으므로 이렇듯이 무기를 꽂는 위치와 종류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무덤에서 무기가 꽂힌 곳은 동쪽의 모서리에 해당하므로 주검의 머리 쪽이라고 추정된다.³⁾ 한편, 바닥이나 벽면 외에 나무널의 채움흙에 무기를 꽂은 곳은 울산 교동리 1호와 밀양 교동 10호·11호를 예로 들 수 있다.

울산 교동리의 경우 치아가 확인된 쪽이므로 주검의 머리 쪽에 칼을 꽂았다고 판단되며 밀양 교동

2) 보고서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도면으로 볼 때 쇠검의 위치가 어깨선 바깥에 위치하므로 벽면에 꽂았던 것이 평면을 노출 하면서 찾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3) 창원 다호리유적의 경우 유물의 노출 상태로 보아 주검의 방향은 주로 동쪽 또는 동남향으로 추정된다.

10호 및 11호는 머리 쪽 모서리⁴⁾ 채움흙에 쇄투갑창을 각각 2점, 1점씩 꽂아 겨묻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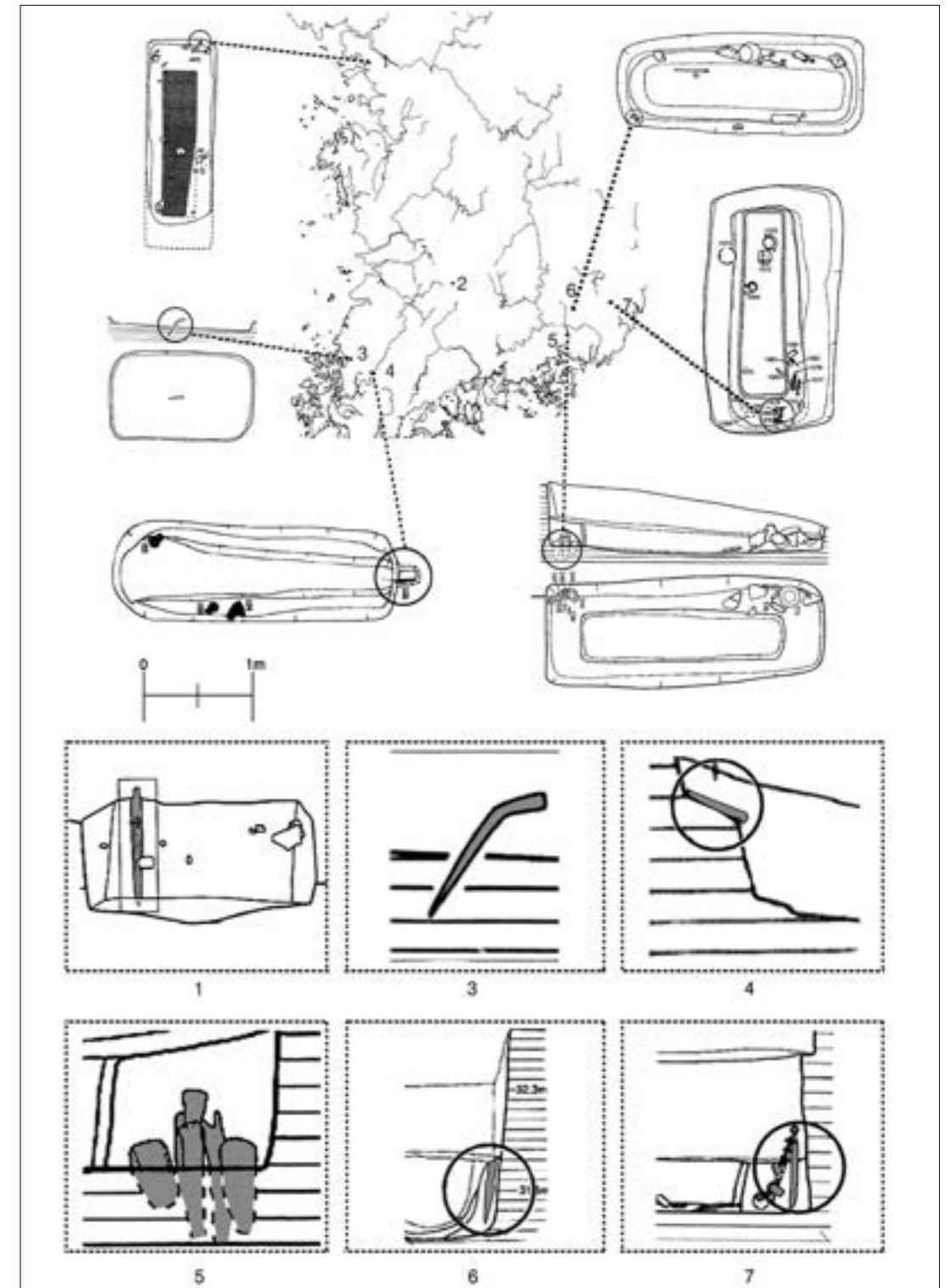
따라서 무기를 꽂을 때 모두 머리 쪽에 꽂는다는 점도 공통된 특징이다. 특히 창원 다호리(141호, 144호)와 밀양 교동유적은 좀 더 특정한 위치, 즉 '머리 쪽 모서리'에서 확인되므로 두 유적 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무덤에서 무기를 꽂은 사례가 약 12곳인 점은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청동기나 철기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무덤에는 나무로 만든 무기를 대신 꽂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장례습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시 장례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왜 무기를 무덤에 꽂았을까? 끝이 뾰족한 무기이기에 가능한 겨묻기 방법이지만 무기가 가지는 공격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귀신을 아내는 벽사의 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도 경상도의 농촌사회에서는 무속인들이 병든이(病者)를 치유할 때 칼을 집 마당에 던져서 꽂는 행위를 반복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이러한 관념과 관련되었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르네오 이반족처럼 무덤에 칼을 한 개 넣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관계를 끊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향후 민족지자료 및 민간신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무기 꽂힌 무덤의 현황도(서길덕 2008)
 (1. 인천 검암동 2. 장수 남양리 4호 3. 함평 장년리 당하산 토광 4. 나주 구기촌 10호 5. 창원 다호리 144호 6. 밀양 교동 11호 7. 울산 교동리 1호)

4) 밀양 교동유적은 치아 및 유물의 위치로 보아 주검의 머리 방향은 모두 동쪽 또는 동남쪽으로 통일되었다고 판단된다.

4. 늑도유적의 조개무지 민무덤과 세골장

사천 늑도 A지구 가구역에서는 보고서에 '直葬墓'로 이름한 무덤 31기가 확인되었다. 무덤공간이 위치한 곳이 해발 5m에서 2.5m 사이로, 이곳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발굴모습을 통해 무덤의 내용을 정리하면, 땅을 10cm 내외로 약간만 정리하거나 맨바닥에 주검을 놓고 조금의 흙을 덮은 무덤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덤의 성격에 대해 보고자는 '초분(草墳)'과 '애묘(崖墓)⁵⁾'의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중에서도 사천 늑도의 급경사면과 관련된 애묘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최종규 2006)

그런데 이 애묘는 한반도에서 전시기를 통틀어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초분은 우리나라 서해안과 도서지방에서 1970년대까지 이어져왔던 장제이기 때문에 사천 늑도유적의 조개무지 민무덤은 초분의 시원적 형태가 아닌지 의심된다.

민속조사를 통해 밝혀진 초분을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대략 여섯 가지 정도이다. 첫째, 아직 육신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매정하게 묻을 수 없다는 효도관념에 따른 것이다. 둘째, 음력 정월과 2월에 땅을 파서 무덤을 쓰면 토지신이 노하기 때문이다. 셋째, 섬사람이 멀리 고기잡이를 떠났을 때 그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돌아와서 유골이라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풍습이다. 넷째, '조상대대로 지켜온 옛 관습이니 그만둘 수 없다'는 이유이다. 다섯째, '육탈되지 않은 진송장 상태로는 조상들과 함께 묻힐 수 없다'는 이유이다. 여섯째, 임산부가 죽었을 때 그대로 땅에 묻으면 두 사람의 죽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두현 1984 ; 장철수 1995)

초분의 목적은 2차장이므로 뼈를 추리기 위한 1차 장례에 속한다. 뼈는 땅속에 묻게 되면 검게 되지만 지상에서 육탈을 시키면 흰 뼈를 추릴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뼈를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세골장(洗骨葬)'이라고도 부른다. (이광규 1969) 사천 늑도 독무덤 중에서 A지구 경133호 및 경137호 독무덤은 유아의 뼈가 주 독널 중앙에 동그랗게 모여진 점을 근거로 세골장(洗骨葬)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또한 경94호 및 경100호와 같은 어울무덤(合葬墓)도 동시에 죽어서 한 곳에 묻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육탈하여 동시에 묻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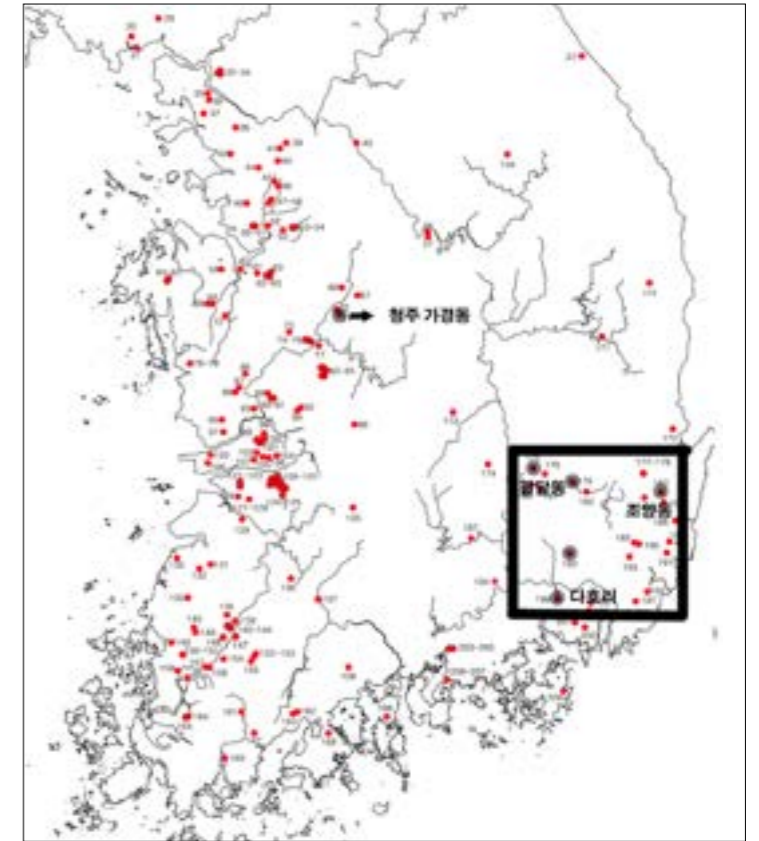
5) 崖墓는 양자강 상류지역과 중국 남해안 일대에서 유행한 장법으로, 급경사면에 나무널을 두어 널이 자연 망실되도록 하는 장법이라고 한다.

Ⅲ. 장례습속의 영역과 의미

1. 요갱의 영역

요갱은 나무널 아래의 무덤 바닥에 조성되는 것으로, 유물을 꺼내기 위한 '부장갱'에 해당한다.

평면형태는 주로 방형, 타원형, 원형이며, 대부분 삼각형 점토띠토기 단계에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의 영남지역, 예를 들어 북으로 대구 팔달동, 남으로 창원 다호리, 동으로 경주 조양동 유적까지를 하나의 동일한 장례습속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밖에 청주 가경동 유적에서 나무널의 양쪽 바깥에 두 개의 구덩이가 확인되었고 한 개의 구덩이 속에서 원형의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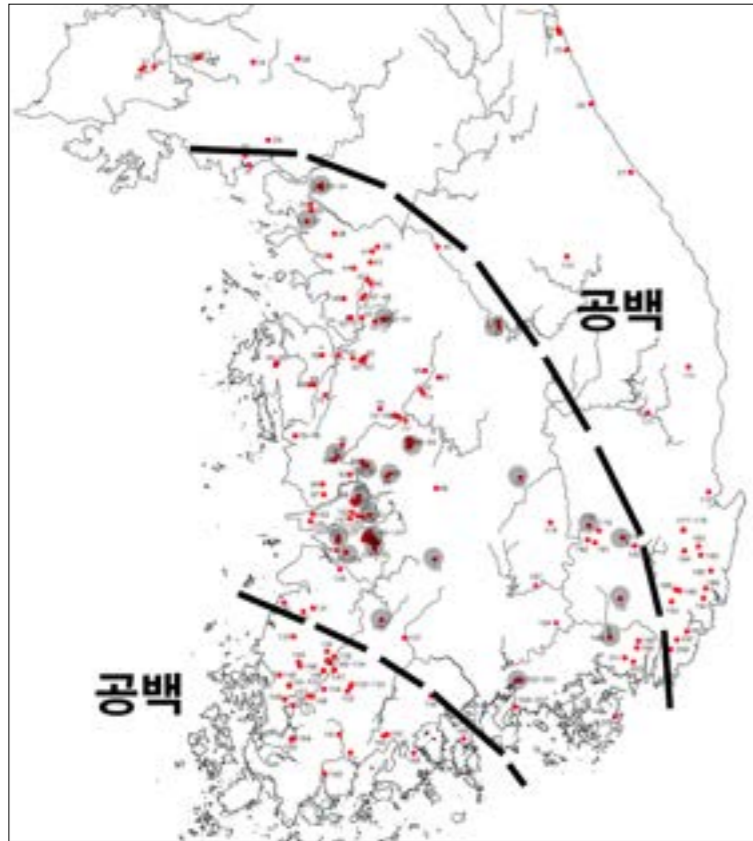


〈그림 5〉 요갱의 영역

기가 발견된 바 있다. 이러한 예도 요갱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북한계선이 청주로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일대에서 단 1기의 무덤에 불과하다. 따라서 요갱은 辰韓과 弁韓지역의 고유한 장례습속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물은 창원 다호리 1호 무덤의 예에서 보듯이 요갱 안에서 청동기 등 각종 위세품이 출토되기 때문에 최상위 계층 무덤의 부속시설로 판단된다. 한편, 요갱시설도 늦은 시기로 갈수록 위세품이나 유물의 양이 줄다가 중국에는 유물은 없거나 변형의 형태가 보이는 등 관습에 의한 흔적만 남게 된다는 견해(정민, 2008)가 있다.

2. 꺼묻거리(금속류) 훼손 습속의 영역



〈그림 6〉 꺼묻거리(금속류) 훼손 습속의 분포도

점은 초기 세형동검문화에 내재되어 있던 장례습속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원형점토띠토기 단계로 한정하면, 금강유역에, 삼각형점토띠토기 단계는 낙동강유역에 집중된다. 따라서 점토띠토기문화 전기간에 걸쳐 유지되었던 습속이며, 훼손 행위 자체가 금속유물에 해당하므로 지배층에 해당하는 우월적 신분계층에 적용되는 장례습속이다.

3. 점토띠토기문화 관련 고인돌 영역

점토띠토기와 관련된 고인들의 분포영역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중서부지역이 공백이고, 영산강유역이 집중 분포지이다.

특히 이러한 분포범위는 금속유물의 훼손습속 권역과 대비되는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밖에 동남부의 남해안지역(弁韓지역)은 영산강유역과 마찬가지로 점토띠토기문화의 고인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는 남해안 일대가 같은 어업권에 해당하여 나타난 문화적 친연성일 가능성이 있다.

금속류 꺼묻거리를 훼손하는 습속은 주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그 밖에 한강유역과 낙동강유역에 일부 확인된다. 특징적인 것은 영산강유역과 동해안지역에는 이러한 훼손습속이 잘 관찰되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장례습속의 영역은 점토띠토기문화와 관련된 고인들의 분포권과 대비된다. 따라서 영산강유역은 장례습속의 몇 가지 예에서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편, 훼손습속의 분포권이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는

중서부지역에는 원형점토띠토기 단계의 무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고인돌에는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현상을 정복이나 장악 측면에서 해석하면 안되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이후 삼각형점토띠토기 단계로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서부지역에서는 세형동검을 위시한 새로운 세력이 일정 지역에서 활동함과 동시에 여전히 무문토기문화의 지식묘사회도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질적 문화가 공존하였던 여타지역에 비해 서로의 독자성을 유지한 결과가 이러한 장례습속 영역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된다.

4. 무기 꽃기 습속의 영역

무덤에 무기를 꽃는 습속은 중부지역이 공백이다. 특히 아산만 및 금강유역 일대는 꺼묻거리의 훼손습속이 집중된 지역이고 요갱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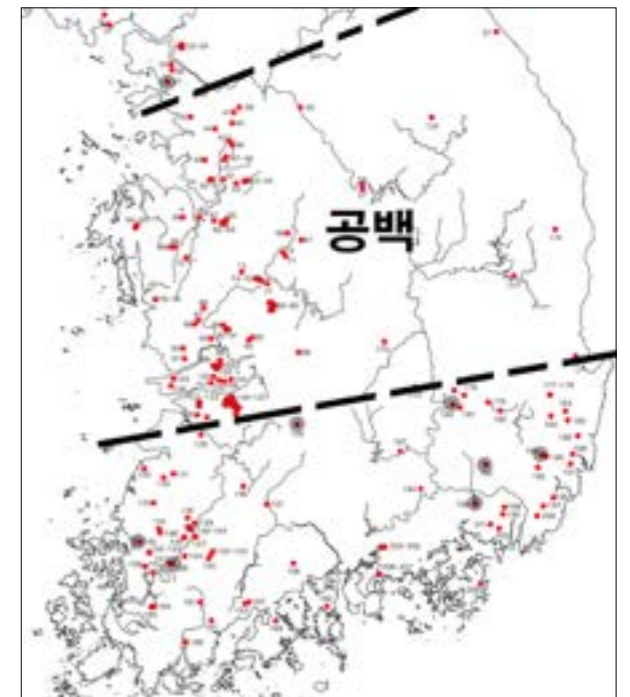
특히 이 습속이 확인되는 유적은 모두 철기 등장 이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철기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나타난 장례습속일 수 있다.

시간상 철기등장 이후의 삼각형점토띠토기 단계에 유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달리 말하면, 남한에서 무기꽃기 습속이 확인되지 않는 곳은 삼각형점토띠토기의 중심분포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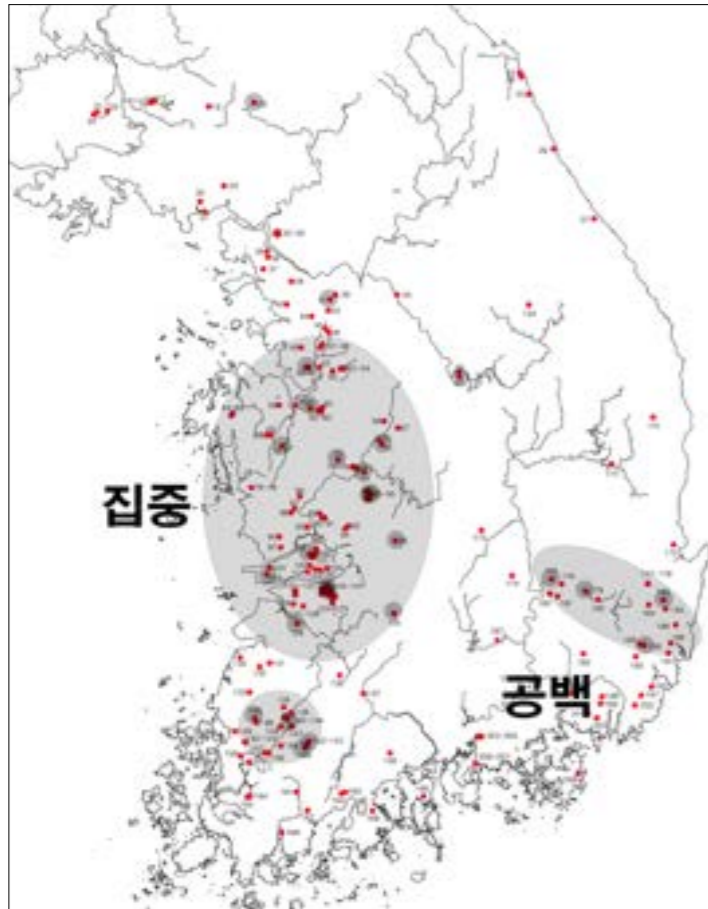
〈그림 7〉 점토띠토기문화 관련 고인돌 분포도



〈그림 8〉 무기 꽃힌 무덤 분포도

이 습속의 공간적 분포는 영남지역에 집중된다. 이 지역은 통나무관의 성행, 요갱의 사용에서 독자적인 장례습속에 해당한다. 특히 밀양 교동 유적과 창원 다호리 유적(141호, 144호)는 좀 더 특정한 위치, 즉 죽은 사람의 머리쪽 모서리에 무기를 꽂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한 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돌무지 한 무덤의 영역



〈그림 9〉 돌무지 한 무덤의 분포도

원형점토띠토기 단계에 돌무지 한 무덤은 차령산맥 이남, 노령산맥 이북의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유행한 지배계층의 장례습속이고 삼각형점토띠토기 단계에는 울산 신화리 유적을 남한계, 대구 팔달동을 북한계로 하는 영남지역에 나타난다.

영산강유역에도 함평 초포리, 화순 대곡리 등 금강유역 초기 세형동검에 비해 한 단계 늦은 시기에 돌무지 무덤이 등장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변한 지역에는 이렇게 돌무지 한 무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다. 아직 초기철기시대 또는 삼한 전기에 辰韓과 弁韓을 구분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돌무지를 한 무덤은 대부분 청동 위신재와 함께 출토되므로 일반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계층의 무덤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무덤의 분포는 점토띠토기문화의 수장층이 존재했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IV. 장례습속으로 본 사회의 구조와 변화

1. 무덤방향의 통일과 의미

점토띠토기문화기 무덤에서 일정 시기가 되면 주검의 머리를 동쪽으로 통일시키기 시작한다. 그 시기는 대략 삼각형점토띠토기 단계부터이며, 공간적 범위는 현재의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청규 2002, 조진선 2003)

이 일대는 辰韓과 弁韓지역에 해당한다. 특히 辰韓의 성립은 위만조선 유민의 남하와 관련짓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원룡 1961; 최병현 1992; 권오영 1996; 이성주 1997)

그렇다면 辰韓이 성립된 이후에 무덤방향이 동향으로 통일되었을까? 아니면 영남지역에서 무덤방향이 동향으로 통일된 후 辰韓으로 불리어졌을까? 이러한 의문을 갖는 이유는 고대 중국에서 '辰'자가 동쪽을 뜻한다는 점은 조선 후기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제시되어왔던 견해(전진국 2016)이기 때문이다.

만약 後者의 경우라면 辰韓의 성립 시기를 고고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를 확보한 셈이다. 이러한 가설적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일정 시기와 영역에서 나타나는 통일된 무덤 방향은 당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한 세력의 장악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며, 사회구성원들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영남지역에서 새로운 방위관에 기초한 매장관념이 등장한 것은 당시 사회가 겪었을 급격한 사회변동을 반영하고 있는 점(조진선 2003)은 분명한 것 같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삼한에서 국가형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장례습속의 공간적 확장으로 추정되며, 한 사회가 다음 단계로 진보한 중요한 고고학적 변환점에 해당한다.

2. 무덤에 드러나지 않은 불평등

기존에 초기철기시대의 청동위신재를 통한 수장층 등 계층화 논의는 여러 차례 진행되어왔다. (이청규 2000; 배진성 2006) 그런데 상위계층 안에서의 등급을 구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알려진 무덤을 통해 극단적인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초기철기시대 이른 시기에 각종 청동유물이 출토된 곳은 대부분 무덤의 위를 돌로 덮은 형태임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따라서 돌무지널무덤, 돌무지덧널무덤, 돌무지돌널무덤 등은 상위계층의 무덤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무덤 위를 돌로 덮는 습속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소멸해 가므로 점토띠토기문화기 전기간에 적용되는 차별성은 아니다.

따라서 '원형점토띠토기단계'라는 시간성을 한정하여 돌무지를 한 무덤의 속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

다. 또한 돌무지의 양이 극히 적거나 보고가 애매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현황을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원형점토띠토기단계의 돌무지 한 무덤의 수는 의외로 적어서 25기 정도에 불과하다. 출토유물별로 살펴보면, 청동거울이 나온 곳이 13기, 세형동검이 18기, 옥이 출토된 곳이 14기이다. 특히 三種의 神器로 일컬어지는 劍·鏡·玉이 함께 나온 무덤이 8기로, 전체에서 33%를 차지하며, 한 가지라도 출토되지 않은 무덤은 단 1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1기에 해당하는 논산 원복리 나-1호 돌무지나무널무덤에서 조차 청동새기개 조각과 옹형토기가 출토되었다.

따라서 원형점토띠토기단계의 상위계층 무덤에는 돌무지를 하는 습속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또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단독무덤으로 조성된 점⁶⁾, 깊이 2m 이상의 무덤이 존재하는 점, 2단움의 비율이 높은 점이 관찰된다.

따라서 최상위계층의 무덤은 2단움을 파거나 깊이 2m이상의 대형급에 돌무지를 한, 劍·鏡·玉을 위시한 위신제가 출토되는 무덤일 것이다.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무덤은 아산 남성리와 대전 괴정동 무덤이다.⁷⁾

그렇다면 최하위 계층의 무덤은 어떤 형태일까? 앞서 사천 늑도유적의 조개무지 민무덤에 대해 살펴본 바 있는데 그 형태의 무덤을 패총의 알칼리성이 아닌 강한 산성토양을 가진 내륙으로 옮겼다고 가정할 시에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점토띠토기문화에서 군집무덤이 나타나기 이전의 원형점토띠토기 단계 무덤의 부재는 장례방식의 불평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 하위계층의 장례 처리방식이 늑도유적과 같이 땅을 파지 않거나 얇게 정지하여 그 위를 흙으로 덮은 형태라고 한다면 그 흔적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청동위신제가 다량으로 꺼문힌 구릉의 대형급 무덤과 인적이 드문 곳에서 풍우에 씻겨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무덤, 그 사이에 존재했을 극단적인 불평등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 사천 늑도유적의 조개무지 민무덤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무덤 사이에 계층 또는 빈부의 차를 나타내는 여러 무덤이 존재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점토띠토기문화에 드러난 최상위와 최하위 계층의 무덤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으로 진행된다면 좀 더 다양하고도 정확한 계층분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6) 삼각형점토띠토기 단계의 창원 다호리, 경주 조양동 등에서는 수장급의 무덤이 군집무덤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 사이에 사회적 변동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7) 상당수의 돌무지 무덤이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무덤이 적은 것 같다.

<표 3> 원형점토띠토기 단계 돌무지를 한 무덤의 현황

번호	유적	청동거울	세형동검	옥	검은간토기	화살촉	이단움	깊이(cm)
1	예산 동서리	●	●	●	●	7		?
2	함평 초포리	●	●	●				?
3	아산 남성리	●	●	●	●			200
4	대전 괴정동	●	●	●	●	3	○	260
5	화순 대곡리	●	●				○	160
6	전주 여의동	●	×		●		○	100
7	충주 호암동	●	●		●		○	200
8	전주 효자4	●	●	●				45
9	화순 백암리	●	●	●	●	1	○	146
10	부여 연화리	●	●	●				?
11	익산 다송리	●	×	●				?
12	장수 남양리1	●	●					?
13	장수 남양리4	●	●	●				?
14	군산 선제리		●	●	●			54
15	연기 장제리1		●		●			152
16	공주 수촌리2		●	●				50
17	공주 당암리		●		●			71
18	신계 정봉리		●			10		210
19	청주 가경동		●		●		○	200
20	장수 남양리3		●					55
21	장수 남양리2			●		2		52
22	평택 양교리			●				78
23	금산 수당리M6			●				25
24	장수 남양리5				●			?
25	논산 원복리 나-1호 적석목관묘							70

3. 祭와 政의 분리흔적

점토피토기문화기 무덤에서 祭政의 분리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오늘날까지 巫具로 사용되는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동북아시아의 샤머니즘에 사용되고 있는 巫具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동북아시아 神具(현용준 1986에서 발췌)

지역	巫具	악기
시베리아	거울, 방울, 삼지창형 각종 장식, 장식물 :요령, 인형, 해, 달, 세계, 동물형, 어류형, 조류형, 색형겉등	단면고(북)
몽골, 만주	거울, 방울, 칼, 기타 각종 장식	단면고, 양면고, 삼현고, 가야금,
한국	거울(영경), 요령, 방울, 神刀(칼), 명도, 삼지창, 부채, 旗類, 울쇠	장구, 양면고, 징, 팽가리, 피리, 대금 등
일본	미테구라, 죽엽, 부채, 신목기, 거울, 검, 방울, 호코	
오키나와	아다하, 부채, 거울	양면고

위의 표에서 공통적인 巫具는 거울이다. 좀 더 확대한다면 거울, 칼이나 검, 방울은 오늘날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의 巫具에서 거의 필수품이다.

초기철기시대로 보면 鏡, 劍, 鈴에 해당한다. 현대의 무구에서 보듯이 초기철기시대 무덤에 청동 거울이 없다면 하위의 제사장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다른 계급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의 (표 3)에서 군산 선제리 무덤부터 장수 남양리 3호까지는 세형동검은 있으나 청동 거울은 없는 무덤이다. 따라서 이 경우 세형동검이라는 무기를 소지한 武將 신분⁸⁾으로 보는 쪽이 타당한 듯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武將의 무덤 규모가 제사장의 무덤과 비슷해지는 시점을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는 시간대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되는 무덤은 신계 정봉리와, 청주 가경동 무덤이다. 두 무덤 모두 깊이 2m이상의 대형급⁹⁾의 돌무지돌덧널무덤에 해당하는데 청동거울은 없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신분이 武將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이러한 무덤 등장 이후부터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두면서 제사와 정치가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4. 불평등과 세습

불평등 사회에서 권위보다 '권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핵심은 그 지위의 세습일 것이다. 점토피토기문화기 무덤에서 수장 또는 제사장의 지위가 혈연을 통해 세습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

8) 화살촉은 巫具가 아닌 武器로 판단되며, 신계 정봉리 무덤에서 화살촉이 10점이나 나온 점도 이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무기와 무구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한 듯 하다.

9) 신계 정봉리 무덤 보고문에서 나온 돌만 화물자동차로 2차분이 되었다고 한다. 라명관, 1983, 「신계군 정봉리 돌곽무덤」 『고고학자료집』 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하다. 다만 유아 또는 어린이의 무덤 중에서 차별적 지위를 가진 무덤이 있다면 우월적 지위가 세습되었을 개연성으로 접근할 수 있다.

유아무덤에 해당하는 점토피토기문화기의 독무덤 약 230기를 살펴본 결과 독무덤에서 청동기 등 위신재가 꺼묻힌 예는 없다. 또한 무덤의 규모나 구조에서도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사천 늑도 유적 A지구의 몇몇 독무덤에서 자안패, 숫돌, 뼈송곳, 전복 등이 소량 출토된 예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유아무덤의 자료에서는 우월적 지위의 세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아무덤의 분석을 통해 차별적 지위가 세습되는 것은 김해 예안리유적부터 나타난다는 견해(이재현 2003)가 있다. 또한 남한에서도 5세기 이후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권력이나 지위의 세습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최지혜 2010) 따라서 남한지역 유아무덤에서 귀속지위의 세습 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국가 형성 즈음에 나타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한편, 장례습속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까?

발표자는 장례습속 중에서도 회기습속, 그 중에서도 '청동거울의 회기'를 주목하고자 한다. 청동거울의 회기는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충주 호암동, 부여 합송리·연화리, 장수 남양리, 당진 소소리, 논산 원북리, 완주 덕동·신평, 김제 서정동, 사천 월성리 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동거울은 당시 사회에서 제사장적 수장의 대표적 神物로 여겨지고(이건무 1991, 이청규 2002))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도교, 불교, 민간신앙, 샤머니즘 등 여러 신앙에 사용되고 있다. (하정숙 2000) 이러한 청동거울을 깨트려서 주검과 함께 묻는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權能의 종결'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산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의 발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당시 제사장적 지위가 혈연을 기반으로 세습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닌지 의심된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당시 제사장 또는 수장의 우월적 지위는 세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5. 점토피토기문화기 장례습속의 영역과 해석

초기철기시대의 남한 사회는 동일한 장례습속을 지니지 않았다. 남한을 동/서로 나누었을 때 서쪽은 한강유역, 금강유역, 영산강유역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동쪽은 영동 및 동해안이 남쪽의 낙동강 유역과 다르게 나타난다.

영남지역은 辰韓과 弁韓이 성장한 곳으로, 삼각형점토피토기의 성행에서 와질토기로의 계기적 변

화가 이어진다. 특히 통나무관, 요강을 사용하는 습속은 다른 지역과 구분¹⁰⁾되며, 이는 三韓 중에서 辰韓과 弁韓이 바탕으로 했던 장례습속으로 판단된다.

특히 삼각형점토피토기단계 영남지역에서 무덤방향(시신의 머리방향)을 동쪽으로 통일한 사건은 당시 지배층의 장악력을 말해주는 것으로, 만약 여러 '國'들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연합보다는 '연맹'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 것이다.¹¹⁾ 따라서 군집무덤에서 무덤방향이 통일되기 시작한 시점이 진변한의 성립과 관계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영남지역은 삼각형점토피토기 이전의 원형점토피토기 자료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영남지역은 삼각형점토피토기 이전에는 주로 무문토기문화가 늦게까지 유지되었을 것이다. 반면, 영동과 영서지역은 삼각형점토피토기가 없고 원형점토피토기도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에서 나온다. 따라서 위 지역도 영남지역과 마찬가지로 무문토기문화를 제외하고 논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남한의 서쪽은 마한의 故地에 해당하는 곳이다. 장례습속의 영역을 살펴본 결과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 지역은 장례습속이 한강유역, 금강유역, 영산강유역으로 구분되는데, 만경강유역을 포함한 금강유역이 원형점토피토기문화가 가장 성행한 곳이고, 한강유역과 영산강유역은 점토피토기의 무덤도 간헐적으로 있지만 주된 무덤은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을 위시한 무문토기문화라는 점이다.

특히 영산강유역은 금속유물의 훼손습속이 관찰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금강유역과 달리 점토피토기문화와 관련된 고인돌의 집중 분포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산강유역은 금강유역과 무덤의 종류와 장례습속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장례습속권역에 금강유역과 다른 또 하나의 연합 또는 연맹 정치체를 가정하고 이후 새로운 자료를 통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馬韓이 성립한 이후에도 남한의 서해안 쪽은 크게 세 권역의 연합 또는 연맹단계의 정치체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伯濟國, 目支國, 그리고 영산강유역의 세가지 세력이 이끌었던 정치체의 바탕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돌무지를 한 무덤은 규모나 입지 및 겨문거리에서 일반적인 움무덤에 비해 우월적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상 원형점토피토기단계에 주로 국한되며, 삼각형점토피토기 단계에는 대구 팔달동, 경산 임당, 경주 조양동 등을 끝으로 점차 사라진다. 한편, 변한지역에는 돌무지를

한 무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자료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계속 유지되는 특징이라면 진한과 변한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산만일대와 금강유역은 재지의 고인돌과 혼합되지 않고 초기 세형동검이 정착한 곳이다. 하지만 이후 삼각형점토피토기로 계기적 전승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문토기문화에 대해 새로운 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초기철기시대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점토피토기문화만을 다룬다는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토피토기문화에서 새롭게 알려진 장례습속과 그 영역이 의미하는 바는 일정 부분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장례습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세형동검문화 초기에 돌무지를 한 2m 정도로 깊은 무덤이 등장하면서 각종 청동의기들이 나타난 시점, 그리고 삼각형점토피토기 단계 영남지역에서 무덤의 방향을 동서향으로, 시신의 머리쪽을 동쪽으로 통일 시킨 시점으로 볼 수 있다.

前者의 경우 대형급 무덤에서 나타난 청동거울, 옥, 청동의기류, 동검 등은 시베리아 및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통해 제의적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은 기존의 무문토기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제사장적 수장의 등장을 의미한다. 기타의 무덤에서 이보다 우월적 위치를 점한 예가 없으므로 선행연구와 같이 제사와 정치를 총괄하였던 이의 무덤으로 해석된다.

後者の 경우 기존의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던 무덤에서 탈피하여 일관된 두침방향을 유지한 점과 이러한 습속의 영역이 다소 넓게 확대되어 辰弁韓지역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진변한의 성립 시점 등 해석의 여지가 많다.

한편, 점토피토기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생사관과 장례습속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는 시신의 머리를 높이는 습속, 무기를 무덤에 꽂는 습속, 겨문거리를 훼손하는 습속 등이다. 특히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머리를 오히려 낮게 둔 무덤은 형벌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한편, 삼각형점토피토기 단계 사천 늑도유적을 중심으로 대외 무역이 활발하게 된다. 소위 대외무역의 확보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던 당시 남한 사회에 대규모 상업이 더해진 것은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일 것이다. 사회발전 단계에서 하나의 지표로 제시되던 소위 '장거리무역'의 흔적이 작은 섬에서 상당량 찾아졌다고 볼 수 있다.

10) 통나무관은 다른 지역에도 일부 존재하나 지금까지 집중 분포지는 영남지역이다.

11) 『國』과 『國』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속되었을 때 이를 포괄적 의미에서 '연합'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관계가 일시적, 단발적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면서 맹주국이 돌출하여 여타의 『國』을 영도하는 경우 '연맹'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견해를 따른 것이다.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212쪽.

이밖에 최상위계층의 무덤의 입지가 초기에는 단독에서 후기에는 군집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까지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기간동안에 사회적 변동성이 컸음을 짐작할 뿐이다.

한 사회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당시 남한사회는 점토티도기문화의 유입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치, 사회, 경제 등에서 이전보다 더 복합사회로 진전한 점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세계사에 통용되는 인류학적 사회발전 단계는 계층사회로서 우월적 지위가 세습되지 않았던 제정일치의 족장사회(chiefdom)로 볼 수 있다. 다만 일정시점(신계 정봉리, 청주 가경동)부터 武將의 권위가 높아지기 시작해 제정분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삼각형점토티도기단계 영남지역에 일어난 장례습속의 변화를 한국사적 특수주의를 인정해서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남한의 초기철기시대 사회를 논하면서 무문토기문화를 제외한 결과 어김없이 '단절'과 '공백'을 느끼게 된다. 향후 초기철기시대로 편입될 무문토기문화를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된 연후에 이 시대의 사회 발전 단계를 살펴본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유적 참고문헌 생략 -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6, 『勒島貝塚』Ⅱ~Ⅴ.
-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元龍, 1961, 「十二台營子の 靑銅短劍墓 - 韓國靑銅器文化의 起源問題-」 『역사학보』 16.
- 마이클 파크 피어슨, 이희준 역, 2009, 『죽음의 고고학』, 영남문화재단연구원 학술총서5, 사회평론.
- 마이클 로이, 이성규 역, 1987, 『古代中國人의 生死觀』, 지식산업사.
- 서길덕, 2018, 『한국 점토티도기문화기 무덤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시은·G에렉젠, 2017, 「몽골지역 흉노시대 분묘연구」 『중앙고고연구』 22, 85쪽.
- 이광규, 1969, 「초도의 초분」 『민족문화연구』 3.
- 이두현, 1984, 『한국민속학논고』, 학연사.
- 李健茂, 1992, 「韓國 靑銅儀器의 研究 -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28.
- 이상길, 1994, 「支石墓의 葬送儀禮」 『古文化』 45.
- 李盛周, 1997, 「木棺墓에서 木槨墓로 - 蔚山 中山里遺蹟과 茶雲洞遺蹟에 대한 檢討 -」 『신라문화』 14.
- 李在賢, 2003,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李清圭, 2000, 「『國』의 形成과 多紐鏡副葬墓」 『先史와 古代』 14.
- 李清圭, 2002, 「細形銅劍時期的 嶺南地域 墓制」 『細形銅劍文化의 諸問題』,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5회 합동고고학대회.
- 장철수, 1995, 『옛무덤의 사회사』, 웅진.
- 田鎮國, 2016, 『三韓의 실제와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趙鎮先, 2003, 「細形銅劍文化期 埋葬施設의 枕向 選定」 『湖南考古學報』 18.
- 정 민, 2008, 「영남지역 목관묘의 구조와 특징」 『영남문화재단연구』 21, 영남문화재단연구원.
-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일지사.
- 崔志惠, 2010, 『嶺南地域 古代 幼兒墓를 통해 본 社會的 位階化』,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崔鐘圭, 2006, 「考察6-勒島遺跡의 構造」 『勒島 貝塚Ⅴ - 考察編』, 慶南考古學研究所.
- 하문식, 2016, 「고조선 시기 요남지역 무덤의 몇 예」 『白山學報』 104.
- 하정숙, 2010, 『韓·日 銅鏡文化의 샤머니즘적 성격에 관한 연구』, 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 현용준, 1986,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제7발표

청동기~초기철기시대 무기 조합과 정치사회 발전단계

조진선
전남대학교



-
- I. 머리말
 - II. 인류학적 측면에서 전쟁과 무기조합
 - III. 남한지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무기조합
 - IV. 중국동북지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무기조합
 - V. 맺음말 - 무기조합 · 전쟁유형 · 정치사회유형-
-

I. 머리말

한국고고학에서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정치사회유형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인류학의 신진화론에 기대어 이루어졌다. 그것이 서비스(Elman R. Service)가 제안한 무리사회(band), 부족사회(tribe), 군장사회(chiefdom), 국가사회(state)이건, 아니면 세습화된 신분차가 발생하는 군장사회부터를 복합사회(complex society)로 분류하는 것에 의한 것이건 이미 한국고고학 연구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한국 청동기시대를 복합사회로 진입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적지 않다(김범철 2015).

초기철기시대의 정치사회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진다. 노혁진(2001)은 점토대토기인 들은 잡곡농사를 포함하는 식물경작, 어로와 사냥 등이 혼합된 복합적인 생계경제를 영위하다가 무문토기문화집단에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계를 정립해가면서 점차 정착농경민화 되어간 집단으로 보았다. 그래서 한반도는 점토대토기문화의 등장을 계기로 본격적인 계급적 복합사회의 수준으로 발전해 갔으며, 철기의 수용은 복합사회의 질적 수준과 복합의 양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송만영(2011)은 점토대토기 단계 취락 내부는 2단계 이상 계층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취락 간의 위계도 2단계로 계층화되어 있어서 청동기시대보다 사회 복잡도가 오히려 감소된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환호와 무기 양상으로 보아 점토대토기 단계의 전쟁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

으로 보았다. 그러나 박순발(1997: 22)의 견해처럼 韓을 고고학적으로 보면 점토대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사회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점토대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유적뿐 아니라 세형동검문화의 청동기들이 출토되는 분묘유적들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사회유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고조되는 즈음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로 자주 거명되는 것은 농업을 비롯한 생산의 집약화, 인구의 증가, 구성원 간 결속 강화나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확충, 위세품을 중심으로 한 사치품의 장거리 교역, 친족집단의 수준을 넘어서는 공동의례의 등장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방의 변화에 주목하여 복합사회로의 진입을 언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김범철 2015: 187).

그러나 한 연구에서 이러한 모든 변화들을 망라해서 살펴보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필자는 민족지와 전쟁인류학에서 보이는 사회유형과 전쟁유형의 상관관계, 그리고 전쟁유형의 물질적 표상인 무기조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무기조합과 그 변동 양상을 통해 전쟁유형을 유추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사회유형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인류학적 측면에서 전쟁과 무기조합

1. 부족사회의 전쟁과 무기조합

민족지에서 관찰되는 부족사회의 전쟁은 정규전 성격의 “전투(의례전쟁)”와 비정규전 성격의 “습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족사회 전쟁의 모습은 아마존분지의 야노마모와 뉴기니의 다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야노마모에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있는데, 가슴 때리기 결투, 옆구리 때리기 결투, 몽둥이 싸움 등이다. 이 중 가장 격한 폭력의 형태는 몽둥이 싸움인데, 보통 길이 2.5~3m 정도의 장대를 사용한다. 전쟁은 공격적 충돌의 마지막 단계인데, 야노마모의 전쟁은 습격을 의미한다. 습격의 목적은 적의 일부를 죽인 다음 들이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다. 습격은 두 집단 사이에 아주 오랫동안 다툼이 벌어진 후에 시작된다. 습격대는 방심한 적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을 항상 생각해 두고 있다. 습격대는 요행히 누군가 그 화살에 맞기를 바라면서 마을로 무턱대고 일제히 화살을 쏜 다음 도망친다. 자기들이 쏜 화살에 누군가 맞았는지는 나중에 다른 마을들로부터 소문으로 알게 된다. 대부분의 습격대는 매복을 하고 있다가 적어도 한 명을 죽이고 들지기 전에 돌아오려고 한다. 습격대는 10명 내외인데 2개조 이

상으로 조를 나눈다. 한 조에 적어도 4명이 들어가고 6명이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정해진 방법대로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Clastres, P. 1994; 나폴레옹 사농(양은주 역) 2003; 나폴리언 새그넨(강주현 역) 2014).

다니의 갈등은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 집단 내 갈등은 당사자끼리의 문제지만 집단 간의 갈등은 워(wim)이라고 불리는 전쟁으로 발현할 수 있다. 다니의 전쟁은 크게 “전투(의례전쟁)”와 “습격”으로 나누어진다. 1961년의 사례를 보면, 5개월 보름 동안 9건의 의례전쟁과 9건의 소규모 습격이 있었다. 의례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2명이 사망했으며, 6명의 남자와 소년들이 습격당했다.

의례전쟁은 적에게 도전을 외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전투 장소가 합의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시작된다. 실제 전투는 오전 9~11시 사이에 시작되고, 비가 오거나 어두워지면 멈춘다. 무기는 활과 화살, 던지기용 짧은 창(투창), 찌르기용 긴 창을 주로 사용하지만 무기의 선택은 집단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호에 따른다. 전투는 주로 활을 쏘거나 짧은 투창을 던지는 형태이며, 길이 4.5m 정도인 찌르기용 긴 창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양측 남자들은 좁은 전장을 따라 1km 이상 뒤로 뺀어 있다. 최전방은 20~30m 정도에 형성되는데, 18~30세의 젊은 남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접전하는 사람은 보통 10명을 넘지 않는다. 전사들은 움직이면서 화살이나 투창을 던지고 나서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화살로 인한 상처가 가장 빈번하다. 최전방 뒤편에는 잠시 쉬고 있는 남자들이 있으며, 전장의 지휘자도 여기에 있다. 화살 범위를 벗어난 곳에는 전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일견 편안해 보이는 자세로 모여 있다. 전투는 위험하지만 전사에게 그다지 치명적이지는 않다. 관찰자가 지켜본 8번의 전투에서 죽은 적은 없었으며, 전투에서 얻은 상처로 9개월 10일 후에 죽은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전투에는 일정한 절차가 없어서 정오에 양측이 철수하기도 하고, 집단으로 앉아 담배를 피우며 휴식하기도 한다. 때로는 바위에 앉아 서로 모욕을 주고받기도 한다. 습격은 의례전쟁(전투)과 달리 적을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습격대는 12~50명 정도의 남성으로 구성되며, 적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례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Gardner, R. 1964;



〈그림 1〉 다니의 의례전쟁 모습(Gardner, R. and K. G. Heider 1969)

Gardner, R. and K. G. Heider 1969; Karl G. Heider, 1970).

아프리카의 줄루 역시 부족사회 단계였을 때 의례전쟁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90m정도 간격을 두고 시작해서 50m정도에서 서로 투창을 던지는 방식으로 전투를 시작한다 (Otterbein, K. F. 1994). 이러한 전투 양상은 무기의 종류만 다를 뿐 원격전이라는 점에서는 다니와 다르지 않다.

이상과 같이 부족사회의 전쟁은 의례전쟁이건 습격이건 기본적으로 활과 화살, 또는 투창으로 원격전을 벌인다. 다니에는 찌르기용 긴 창도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족사회의 전쟁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부족사회의 전쟁은 활과 화살, 또는 투창으로 원격전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족사회에서 전쟁이 원격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Keeley, L. H. 1996). 즉, 원격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근접전을 강제할 수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군장·국가사회의 전쟁과 무기조합

군장사회와 국가사회에 대한 민족지학적인 연구는 사실상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강제력이 수반된 수장권이 형성된 사회에서 참여관찰을 통해 전쟁을 연구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인류학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사회는 아프리카의 줄루이다. 줄루 역시 참여관찰을 토대로 한 연구는 아니다. 그러나 줄루는 1879년 이산들로나 전투에서 영국에 크게 승리하는 등 서구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줄루는 짧은 시간동안에 정치사회유형이 크게 변화되었다. 부족사회에서 샤카(1787?~1828)가 이끄는 국가사회로 짧은 시간에 변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무기류는 던지기용 긴 투창을 대신해서 찌르기용 짧은 창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무기의 변동은 전쟁유형이 열지어 행하던 원격전 대신 양익 포위형을 바탕으로 한 근접전으로 바뀐 것과 연동되어 있다. 그리고 전쟁유형의 변화는 샤카에 의해 창안된 찌르기용 짧은 창 의 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찌르기용 짧은 창은 전쟁유형을 원격전에서 근접전으로 바꿨고, 근접전이 가능한 사회는 샤카와 같은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의 등장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찌르기용 짧은 창 의 등장은 줄루가 짧은 시간에 부족사회에서 군장사회를 거쳐 국가사회로 변해 간 것을 표징하는 것이다(표 1).

〈표 1〉 줄루의 사회유형과 전쟁유형 및 무기(Otterbein, K 1994, 趙鎭先 2017 일부 수정)

특징	단계	부족사회	딩기스와요 (?~ 1817)	샤카 (1787?~1828)
군대 조직		부계	연령대별 연대	연령대별 연대
전투 대형		열	열	양익 포위형
무기		투창 (투사무기)	던지기용 긴 (투)창 (투사무기)	찌르기용 짧은 창 (충격무기)
전쟁 목적		분쟁 해결	征伐(subjugation) 예속	征服(conquest) 점령
사망자 비율		매우 낮음 (3%)	낮음 (15%)	높음 (44~80%)
사회정치 시스템		부족사회 (tribe)	군장사회 (chiefdoms)	국가사회 (state)

국가사회에서 검과 도, 창 같은 근접전용 충격무기가 전쟁 수행의 중요 무기가 되었음은 굳이 인류학적 연구에 기댈 필요조차 없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삼국시대 이후에는 원격전용 투사무기(활과 화살), 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환두대도 등),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철모 등 각종 창)의 무기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3. 전쟁인류학적 측면에서 폭력, 전쟁, 정치사회유형

전쟁에서 전투유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투 간격을 기준으로 전투유형을 구분하면 일정 간격 이상을 두고서 전투를 벌이는 원격전과 서로 맞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혼전을 벌이는 근접전(백병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격전과 근접전은 전투를 벌이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무기도 다를 수밖에 없다. 무기를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投射(fire 또는 missile)무기와 衝擊(shock)무기로 구분할 수 있다 투사무기는 던지거나 쏘는 형태의 활과 화살, 투창, 포창, 돌, 탄환 등을 들 수 있다. 충격무기는 때리거나 베거나 찌르는 형태의 검, 창, 도끼, 몽둥이 등을 들 수 있다 (Turney-High, H. H. 1971: 10-15; Keeley, L. H. 1996: 49-55). 투사무기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적에게 사용되기 때문에 원격전에 적합한 무기이며, 충격무기는 지근거리여야만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접전(백병전)용 무기이다. 그래서 필자는 무기를 원격전용 투사무기와 근접전용 충격무기로 구분하였고, 근접전용 충격무기는 다시 검이나 도처럼 짧은 자루를 가진 단병기와 모나 과처럼 긴 자루를 가진 장병기로 구분하였다(趙鎭先 2017).

민족지에서 확인된 무기들의 사용방법은 현재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활과 화살은 비교적 먼 거리에서 적을 살상하는 무기이고, 쏘나 곁 같은 檣은 지근거리에서 있는 적을 살상하는데 사용된다. 길이가 1m 내외인 鐵劍이나 鐵大刀는 창보다 가까이에 있는 적을 살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역사시

대이 일반적인 쓰임새이다. 그러나 칼(검)이 石劍이나 銅劍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는 길이 30cm 내외인 短劍이었다. 단검은 가까이에 있는 적을 살상하는데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남아메리카의 차고(Chaco) 원주민들처럼 화살을 맞고 죽은 적의 머리가죽을 벗기는 데도 사용되었을 것이다(Clastres, P. 1994: 183-184). 또는 원격전에서 화살을 맞고 부상당한 적을 지근거리에서 살상하는데 사용되었거나 목파기 전쟁이 성행하는 시기에는 목을 베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단검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같은 전투를 수행하는 중요 무기라기보다는 사후 처리용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길이가 늘어나면서 지금과 같이 근접한 적을 찌르거나 베는 무기로 기능을 확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활과 화살, 투창 같은 투사무기를 사용한 원격전은 부족사회의 전쟁유형이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차고 원주민 사회처럼 소수의 남자들이 부단히 전쟁을 하는 전사적 사회는 원격전용 투사무기로 적을 제압하고 나서 부상당한 적을 살상하거나 적의 머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단검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족사회에서 전쟁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가 중심을 이루며, 이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전사적 사회는 단검이 등장하면서 무기가 투사무기+단병 충격무기로 조합되게 된다.

원시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쟁유형은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이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즉, 군장사회부터는 근접전이 벌어질 수 있는 정치사회적 필요조건이 갖추어진다. 근접전은 근거리에서 적을 직접 타격해야 하는 충격무기로 무장한 전사들에 의해 수행된다. 충격무기는 투사무기보다 적에게 훨씬 위협적이지만 소유자 역시 위협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근접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원격전용 투사무기의 살상반경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근접전용 충격무기는 투사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상율이 높기 때문에 강제력이 수반된 수장권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벌어지기 어려운 전쟁유형이다. 근접전은 잘 훈련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기강을 갖춘 군대만이 벌일 수 있다(Keeley, L. H. 1996: 49-50). 때로는 아군의 배후에 참수부대를 배치하기도 한다. 근접전은 조직화된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이 형성되어야만 벌어질 수 있는 전쟁인 것이다. 그래서 국가사회의 전쟁은 원격전과 근접전을 체계적으로 조직화 할 수 있는 무기조합, 즉 원격전용 투사무기(활과 화살 등)+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검과 도 등)+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과와 모 등)를 모두 갖추고 있다.

〈표 2〉 무기조합과 정치사회유형의 상관관계

정치사회유형		무기조합	원격전용 투사무기		근접전용충격무기		비고
			원격전용 투사무기	단병기	장병기		
부족사회	원시적	○				평등한 수장권	
	전사적	○	○				
군장사회		○	○	○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 형성	
국가사회		○	○	○	○		

무기조합과 정치사회유형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부족사회는 원격전용 투사무기, 부족사회에서도 보다 발달된 전사적 사회는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이 형성된 군장사회와 국가사회에서는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가 조합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고고학에서 물질적으로 확인되는 일정한 무기조합은 당시의 전쟁유형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당시의 정치사회유형을 추정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 사회에서 전쟁이 없는 시기는 있을 수 있지만 폭력마저 없었던 시기는 없다. 전쟁과 폭력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폭력의 한 종류가 아니다. 전쟁은 사전 계획을 필요로 하는 조직적인 활동이고, 나이와 성별에 따라 그 이상의 분업화를 수반하며, 참가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과 폭력의 가장 큰 차이는 적을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점이다. 수렵사회의 살인율은 발전된 농경사회보다 높기 때문에 전쟁 없는 사회가 살인율이 낮을 것이라는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 중앙집권적 정치체(Chiefdom, State)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 통제(조공과 세금을 얻을 수 있는 영토 정복 추구)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중앙집권적 정치체(Band, Tribe)는 복수, 방어, 약탈, 위신 등을 목적으로 전쟁을 한다. 전쟁의 기원은 평화로운 비폭력에서 치명적인 무력충돌로의 전환이 아니라 집단 폭력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다, 그래서 사회유형과 전쟁유형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과 사회는 분명히 함께 진화한다(Kelly, R. C. 2000, 130-143).

Ⅲ. 남한지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무기조합

1. 청동기시대 무기조합

남한지역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무기류로는 석기와 청동기가 있다. 석제 무기로는 석촉, 석검, 석창이 주로 언급되며, 석부 역시 광의의 무기류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석촉은 전체적인 형태와 스페의 유무, 횡단면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구분되며, 석검은 유경식과 유병식으로 구분된다(한국고고학회 2007; 이기성 2015). 석창은 개론 수준의 책들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지만 자세하게 설명된 경우는 많지 않다. 그것은 아마도 실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비파형동검문화의 청동제 무기로는 비파형동검이 가장 많고, 동촉과 비파형동모도 확인된다.

청동기시대 석창은 어떤 유물을 지칭할까? 일찍이 최몽룡(1975)은 현재 우리들이 유경식석검으로 지칭하는 석기를 석창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부여 송국리 54-11호 주거지에서 목병 흔적이 확인되면서 지금은 유경식석검으로 보고 있다(이영문 1997). 석창으로 지목된 또 다른 석기는 보령 교성리 8

호 주거지나 포항 학천리 4호 석관묘 등에서 출토된 삼각형의 무경식석검이다(李秀鴻 2012). 무경식석검은 보령 교성리유적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함께 출토되었고, 상연암 토광적석묘에서 삼각형석촉과 함께 출토되었다. 포항 학천리 4호 석관묘에서는 입주부십자형검과두식과 함께 출토되었고, 최근 울산 두왕동 석관묘에서도 검과두식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무경식석검이 검과두식과 동반 출토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당초 이를 석창으로 분류하였던 이수홍(2019)은 최근 자설을 수정해서 석검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 유경식석검과 무경식석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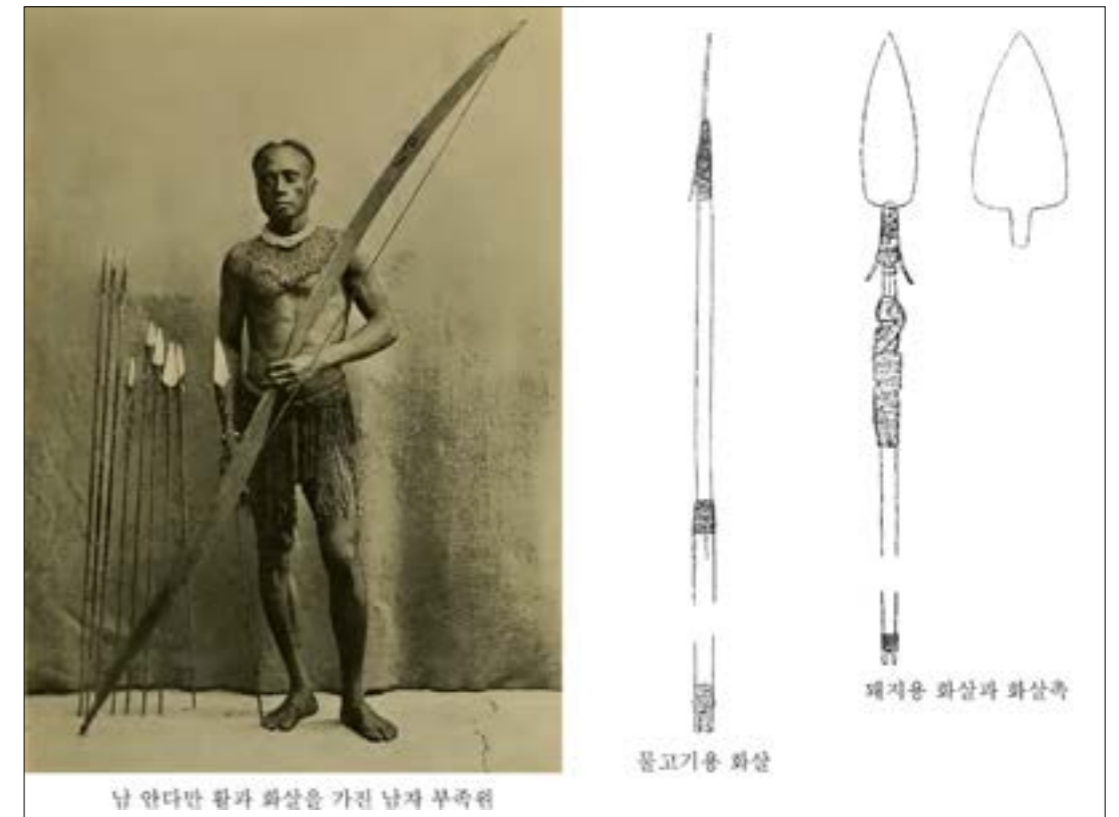
손준호(2006)는 유경식 석기를 부여 송국리 54-11호 주거지 출토품을 기준으로 석검과 석창을 구분하였다. 송국리 출토품과 같이 경부 길이가 전체길이의 1/4 이하이면 유경식석검으로, 1/4을 초과하면 석창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유경식 석기는 기본적으로 석창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아래 자루와 함께 출토된 형태만 석검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래서 손준호(2018)는 보령 교성리 유적에서 출토된 삼각형의 무경식석검 역시 석창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발표자는 최근 자료들로 보아 유경식 석기는 기본적으로 석검이라는 전제 아래, 그 중 도저히 석검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석창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한다.



〈그림 3〉 손준호(2018)가 언급한 유경식석검과 석창

손준호(2018)가 석창으로 분류한 석기들을 보면, 신부가 화살촉보다는 크지만 일반적인 석검보다는 작거나 좁은 것들이 많다. 그래서 석검으로 보기에 작고 석촉으로 보기에 크다. 목제 검병이 동반된 부여 송국리의 유경식석검은 남은길이 7.5cm, 너비 3.9cm여서 봉부가 유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길이가 10cm를 크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검과두식이 동반된 포항 학천리 4호 석관묘의 무경식석검(보고서의 돌창)은 길이 14.5cm(복원길이 15cm 내외), 너비 4.4cm이고, 보령 교성리 8호 주거지의 무경식석검(보고서의 돌창)은 길이 13.3cm, 너비 4.2cm(보고서에는 1.9cm로 되어 있지만 도면을 보면 4.2cm 정도일 것이다)이다. 그래서 모두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석검 중에는 생각보다 작은 것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지 자료들을 보면, 석촉도 생각보다 큰 것들이 있다. 〈그림 4〉는 안다만 제도에서 확인된 활과 화살인데(Radcliffe-Brown 1922), 화살촉이 생각보다 크다. 또한 〈그림 5〉는 아마존분지 야노마모의 활과 화살인데(나폴레옹 샤농(양은주 역) 2003), 화살대가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활과 함께 촬영되지 않았다면 창으로 오인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크기만으로 석검과 석창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화살촉일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그것도 이른 시기에 석창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림 4〉 남 안다만의 활과 화살(Radcliffe-Brown 1922)



〈그림 5〉 아마존분지 야노마모의 활과 화살(Ettore Biocca 1970)

이상과 같이, 청동기시대 석제 무기류는 석촉과 석검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석창은 존재 가능성 정도만 상정할 수 있다. 석창으로 추정된 유경식 석기들이 대체로 소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석창이라고 하더라도 찌르기용 창이 아니라 던지기용 창(투창)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비파형동검문화에 이르면, 청동제 무기류는 비파형동검이 중심을 이루면서, 비파형동모와 동촉도 확인된다.

이렇게 본다면,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 동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석검과 비파형동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인 비파형동모도 확인되며, 석창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한지역에서 청동제 무기류는 청동기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조기·전기)의 무기류는 석촉과 석검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비파형동검문화가 시작되고 나서도 석촉과 석검은 여전히 사용되며, 여기에 비파형동검이 새로 추가되었다. 비파형동모의 등장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그 수량으로 보아 비파형동검보다 늦은 시기에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한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무기 조합은 이른 시기에는 원격전용 투사무기인 활과 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인 석검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비파형동검문화가 시작되고 나서도 이러한 석제 무기류 조합은 지속되며, 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에 비파형동검이 추가되는 정도이다. 화살촉은 발사된

후 유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동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비파형동검문화에서 주목되는 점은 비파형동모의 등장이다. 비파형동검에 비하면 수량이 많지 않다. 비파형동모는 여수 적량동 2호 석곽 출토품처럼 30cm 내외인 대형과 보성 봉릉리 지석묘 출토품처럼 15cm 내외인 소형으로 양분된다. 적어도 대형 비파형동모는 찌르기용 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파형동검문화의 어느 시기엔가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가 등장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확인된 비파형동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파형동검문화 단계에도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는 제한적으로 등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초기철기시대 무기조합

초기철기시대는 철기의 등장 여부, 세형동검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동시기성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편의상 철기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세형동검문화가 등장한 시기부터 초기철기시대로 규정한다. 이와 더불어 세형동검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는 기본적으로 동시기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청동기시대에서 다루었던 삼각형의 무경식석검은 보령 교성리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동반 출토되었고, 포항 학천리유적에서 입주부 십자형검과두식과 동반 출토되었기 때문에 초기철기시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크기만 다를 뿐 형태상 삼각형석촉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무경식석검은 시기적으로 초기철기시대에 해당되겠지만 청동기시대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본 절에서는 청동제 무기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세형동검문화는 비파형동검문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청동기들이 출토되었다. 그래서 청동기의 기종과 형식을 토대로 4개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趙鑣先 2005). 세형동검문화의 무기류로는 세형동검, 중원식동검, 동과, 동모, 동촉 같은 청동제와 철검, 철과, 철모, 철촉 등 철제가 있으며, 석촉 등 석제도 여전히 확인된다. 동촉은 전형적인 세형동검문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역시 발사 후에 유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세형동검문화에서도 화살촉은 여전히 석촉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동촉이나 철촉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낙랑계 유물들이 들어올 즈음부터이다.

세형동검문화의 1기(성립기)는 이형청동기와 다뉴조문경이 특징적인 유물이며, 무기류로는 석촉과 세형동검뿐이다. 2기(발전 I 기)는 동령류와 다뉴정문경이 특징적인 유물이며, 무기류로는 1기의 무기조합에 동과와 동모가 추가된다. 3기(발전 II 기)는 팔주령 등의 동령이 사라지고 주조철부 등의 철기가 등장하며, 무기류는 2기(발전 I 기)의 양상이 이어진다. 4기(쇠퇴기)는 철제 무기류가 등장해서 청동제 무기류를 대체하기 시작하지만 무기조합은 별다르게 변화되지 않았다. 다만 낙랑의 영향

을 받은 무기류도 등장한다. 그래서 세형동검문화의 1기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이고, 2~4기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이다.

3. 남한지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무기 조합의 변동

남한지역에서 청동기~초기철기시대는 무기의 재질이 석기, 청동기, 철기로 바뀌어가서 원삼국-삼국시대 무기조합의 토대를 형성한다. 무기조합에서 재질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기조합의 변화이다.

남한지역에서 신석기시대 무기류는 수렵구를 포함해서 활과 화살(석촉)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 석촉과 함께 석검이 새로 등장한다. 비파형동검문화가 등장하고 나서도 석촉과 석검은 지속되며, 동촉과 비파형동검, 비파형동모가 새로 나타난다. 비파형동검과 비파형동모가 동시에 등장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비파형동모의 수량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면, 비파형동검보다 나중에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남한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에서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철기시대에 들어서, 1기에는 다시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세형동검) 조합으로 되돌아가지만 시간 폭이 길지 않다. 2기에 들어서면 동과와 동모가 등장하게 되면서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 조합이 완성되게 된다. 그래서 청동기시대 늦은 시기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의 종류와 수량이 훨씬 다양해지고 많아져서 청동기시대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이다. 2기의 무기조합은 재질상에 변화가 생기는 하지만 3기와 4기까지 지속되며, 이러한 무기조합은 삼국시대로까지 이어진다.

남한지역에서 신석기~초기철기시대 무기조합은 기종이 다양해지면서 무기조합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해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남한지역 신석기~초기철기시대 무기조합의 변천 양상

시대	무기		원격전용 투사무기	근접전용 충격무기		무기조합
	비파형 동검 문화	이른 시기 / 늦은 시기		단병기	장병기	
신석기시대			석촉			원격전용 투사무기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 문화	이른 시기	석촉	석검		원격전용 투사무기 + 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
		늦은 시기	석촉 동촉	석검 비파형동검	동모	
초기 철기 시대		1기 (성립기)	석촉	세형동검 (석검)		과도기
		2기 (발전 I기)	석촉	세형동검	동과, 동모	
		3기 (발전 II기)	석촉	세형동검	동과, 동모	
		4기 (쇠퇴기)	석촉 동촉, 철촉	세형동검 철검	동과, 동모 철과, 철모 등	

IV. 중국동북지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무기조합

1. 중국동북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무기조합

중국동북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는 대·소농하유역의 십이대영자문화, 요동 북부~길림성 중부의 이도하자유형, 요동반도의 강상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청천강 이남의 한반도 역시 하나의 분포권을 이루고 있다(趙鎭先 2014). 비파형동검문화의 4개 지역권은 유사성이 강하면서도 차이도 뚜렷하다. 이 중 비파형동검문화가 가장 먼저 등장해서 가장 성행한 지역은 십이대영자문화로 생각된다.

1) 십이대영자문화

십이대영자문화는 대·소농하유역부터 심양 일대까지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서 지역색도 있다. 대릉하 종류의 조양지역은 십이대영자문화 본연의 색채가 강하다. 대릉하 상류의 서북부지역은 하가점상층문화(남산근유형)와 연접하기 때문에 하가점상층문화의 색채도 가지고 있으며, 중원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대릉하 상류의 중남부지역과 소농하유역은 중원문화의 색채도 지니고 있다. 심양지역은 조양지역과 유사하지만 중기부터 등장하고 있다.

단계	전기	중기	후기		
그림					
	A식 (십이대영자 2호)	B식 (십이대영자 1호)	C식 (정가와자 6512호)		
			D식 (남동구)		
			E식 (개북수영자)		
연년	기원전9~8세기	기원전8~7세기	기원전6~5세기		
			기원전5~4세기		
			기원전4~3세기		
속성	봉부	단봉형	중봉형	장봉형	
	돌기부	뚜렷	→	덜 뚜렷	미약
	기부	호형		사절형	직절형
	용기부	뚜렷	→	덜 뚜렷	미약
검법	목제 검맹?(청동제 검맹 미등장)		청동제 검맹 등장		

〈그림 6〉 비파형동검의 형식분류와 단계(趙鎭先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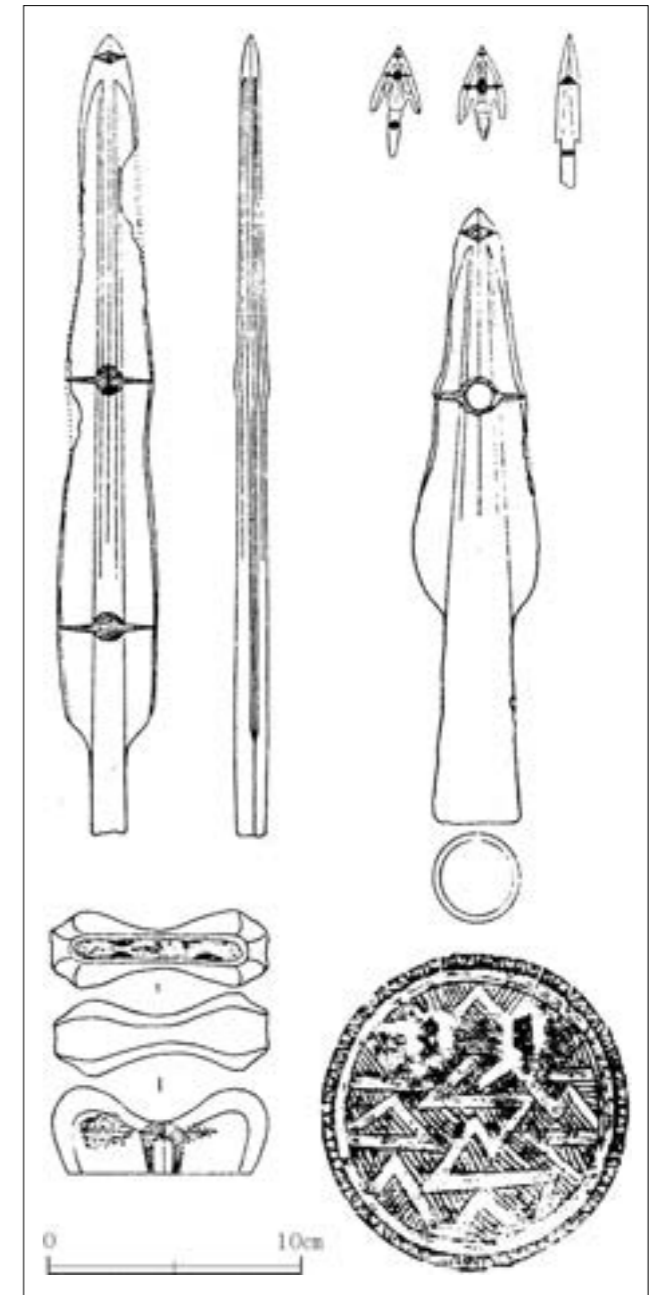
십이대영자문화의 청동기는 크게 무기류, 공구류, 의기류, 거마구류, 장신구류로 구분할 수 있다. 무기류로는 비파형동검이 대표적이며, 동촉과 동모도 확인된다. 후기에는 중원식동검이나 중원식동과, 중원식동모 같은 중원계 무기류와 요령식동과 같은 새로운 재지계 무기가 등장한다. 십이대영자 문화는 기원전 9~8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경까지 발달하였는데, 비파형동검의 검신과 청동제 검맹을 기준으로 형식분류할 수 있다(趙鎭先 2010, 2014, 2017). 기원전 9~7세기의 전기 비파형동검은 돌기부와 결입부가 뚜렷해서 곡인의 형태가 뚜렷하며, 검신 하부가 발달하였고, 봉부는 단봉형이다. 기원전 6~5세기의 중기 비파형동검은 돌기부와 결입부가 덜 뚜렷하지만 곡인의 형태는 여전히 있다. 검신 하부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며, 봉부는 약간 길어졌지만 여전히 단봉형에 가깝다. 기원전 5~3세기의 후기 비파형동검은 돌기부와 결입부가 미약해지면서 곡인의 형태 역시 덜 뚜렷해졌다. 검신 하부가 더욱 축소되면서 검신이 세신화되었고, 봉부는 장봉형으로 변화되었다(그림 6).

전기를 대표하는 유적은 朝陽 十二臺營子 유적인데, 다양한 종류의 청동기들이 출토되었다. 무기류로는 검과두식을 포함한 비파형동검과 동촉뿐이다(朱貴 1960). 중기를 대표하는 유적은 瀋陽 鄭家

窪子 6512호묘인데 청동기, 도기, 석기, 골기 등 42종 797점이 출토되었다. 무기류는 모두 청동제인데, 검과두식과 칼집장식이 포함된 비파형동검 3점, 양익동촉 98점, 삼릉동촉 71점, 활집과 활고자가 있다(瀋陽市故宮博物館·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75). 그래서 조양 십이대영자 유적과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에서는 다종다량의 유물들이 출토되었지만 무기류는 원격전용 투사무기(동촉)와 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비파형동검)뿐이다.

중기에는 새로운 무기가 부장된 유적이 출현한다. 대능하 상류에 있는 建平 炮手營子 881호묘에서는 무기, 공구, 차마구, 장식품 등 70여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무기류로는 검과두식을 포함한 비파형동검 1점, 비파형동모 1점, 동촉 16점이 있다. 비파형동검은 남아 있는 상태가 좋지 않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파악할 수 있다. 검신은 돌기부와 결입부가 미약해져서 곡인의 형태가 덜 뚜렷해졌고, 검신 하부가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세신화되었지만 봉부는 여전히 단봉형이다. 그래서 비파형동검은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 출토품과 비슷한데, 함께 출토된 다뉴조문경도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 출토 다뉴조문경과 같은 형식이다(趙鎭先 2007). 그러므로 중기에 비파형동모가 얼마나 일반화되었는지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가 등장한 것은 확실하다.

요서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서도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가 확인되는데, 寧城 南山根 101호묘 등 夏家店上層文化 유적들에서 출토된 중원식동과가 대표



〈그림 7〉 建平 炮手營子 881호묘 출토 무기류와 다뉴조문경

적이다. 중원식동과는 십이대영자문화에 속하는 錦西 烏金塘 유적에서도 비파형동검, 동축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錦州市博物館 1960). 금서 오금당 유적은 십이대영자문화의 전기 후반, 즉 기원전 8~7세기로 추정된다. 하지만 십이대영자문화의 전기에 중원식동과가 출토된 사례는 금서 오금당유적 뿐이어서 일반화되었다기보다는 전리품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십이대영자문화에 중원식동과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기원전 5~4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십이대영자문화의 후기이다. 이때 대능하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원식동과와 중원식동모가 급증한다(趙鎭先·成環塘 2007; 趙鎭先 2009; 李厚錫 2013). 또한 재지적인 요령식동과도 등장한다. 于道溝 90M1호에서는 재지계인 비파형동검, 요령식동과와 중원계인 중원식동검, 중원식동과가 동반 출토되어(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6) 이 시기에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이 함께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建昌 東大杖子 유적을 비롯한 십이대영자문화의 후기 유적들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이후석 2016). 요령식동과는 기원전 5~4세기에 요서지역에서 등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趙鎭先 2009; 李厚錫 2013). 그래서 요서지역 십이대영자문화에서는 기원전 5~4세기부터 중원식동검과 중원식동과·중원식동모 등 중원계 근접전용 무기들을 수용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요령식동과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십이대영자문화의 중기까지 간헐적으로 확인되던 근접전용 장병기가 후기부터는 다종다양해졌다. 이러한 양상은 기원전 5~4세기부터 십이대영자문화에서 근접전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대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동지역에서도 기원전 5~4세기에 비슷한 변화가 일어난다. 요동은 중원지역과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지 중원계 무기류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한 징후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문화는 십이대영자문화에 포함되는 정가와자유형과 토착적인 성격을 가진 이도하자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요령식동과는 정가와자유형에서만 확인된다. 지금까지 요동지역은 요서지역보다 늦게 요령식동과가 등장한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것들이 한반도 세형동검문화에서 확인되는 세형동과의 조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趙鎭先 2009; 李厚錫 2013).

하지만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동지역에서도 요서지역과 비슷한 시기에 요령식동과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요양박물관에는 遼陽 晷水 출토품으로 알려진 비파형동검, 동부, 동축 용범이 전시되어 있으며, 비파형동검용범에 새겨진 주형과 비슷한 형식의 비파형동검 1점이 전시되어 있다(遼陽博物館 2009). 그중 하나인 동축용범의 설명을 보면, 한쪽 측면에 “舌形戈”의 주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축용범의 사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것이 요령식동과의 주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축용범의 길이가 11.2cm인 것을 감안하면, 이 주형에서 생산된 요령식동과의 길이는 12cm 내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다른 요령식동과보다 소형이다. 하여튼 요양 침수에서 요령식동과 용범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요동지역에서도 요령식동과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양 침수 요령식동과 주형은 그 시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요령식동과 주형이 새겨진 동축용범은 비파형동검용범이나 동부용범과 일괄유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시기로 판단된다. 비파형동검용범에 새겨진 비파형동검 주형과 요양박물관에 침수 출토품으로 해서 전시된 비파형동검은 형식학적으로 비슷하다. 봉부는 중기의 심양정가와자 6512호묘 출토품에 비해 확실하게 길어졌지만 후기의 장봉형 봉부보다는 짧다. 돌기부와 결입부는 미약해졌지만 검신 하부는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이러한 형식의 비파형동검은 요



〈그림 8〉 遼陽 晷水 용범 일괄유물에서 확인된 요령식동과 주형(바탕사진: 遼陽博物館 2009)

서의 喀左 南洞溝 유적에서도 출토된 바 있는데, 남동구 유적은 십이대영자문화의 후기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원전 5~4세기로 추정된다. 그래서 요양 침수 용범 일괄유물의 연대는 기원전 5~4세기로 볼 수 있으며, 요령식동과의 주형 역시 기원전 5~4세기로 추정된다. 요양 침수 요령식동과 주형은 과신부와 난설의 폭이 넓다. 하지만 호는 요서지역처럼 넓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혈구 하단부의 벌어진 폭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요서지역에서 발견된 요령식동과 보다는 요동지역에서 발견된 비교적 늦은 형식의 요령식동과들과 유사하다. 따라서 기원전 5~4세기에 요서와 요동에서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요령식동과가 동시에 등장했지만 일찍부터 요동형과 요서형으로 구분되어 형식학적 변천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상을 정리하면, 십이대영자문화에서는 전기 후반의 금서 오금당 유적에서 중원식동과가 출토되었고 중기에도 건평 포수영자 유적에서 요령식동모가 출토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두 사례를 제외하면 무기류는 동축과 비파형동검뿐이다. 그래서 십이대영자문화의 전기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중기에 이르면 요령식동모 같은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십이대영자문화의 무기조합은 기원전 5~4세기부터 중원계 무기류가 대폭 증가하고 재지계인 요령식동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크게 변화되는데, 변화의 핵심은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가 대폭 증가한다는 것이다.

2) 강상유형

강상유형은 요동반도 남단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주된 묘제는 적석묘이다. 강상 적석묘에서는 23기의 무덤이 발굴되었고, 누상 적석묘에서는 10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대부분 화장묘이다.

강상 적석묘에서는 청동기, 석기, 골기, 도기 등 87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무기류는 청동기와 석기로 만들어졌는데, 동축 2점, 석축 30점, 석제 검과두식을 포함한 비파형동검 6점, 동모 1점과 석제 곤봉두 3점이 있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그래서 강상 적석묘의 전체적인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축, 동축)+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비파형동검)+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동모)이다. 하지만 동모는 1점뿐이고 그나마 모신 일부만 남아있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또한 동모가 출토된 M5호묘에서는 다른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다만, M7호묘를 중심으로 하는 적석묘의 방형 구획을 벗어나 외곽에 따로 붙여진 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원전 8~7세기로 편년되는 적석묘 중심부의 연대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강상 적석묘의 무기조합은 이른 시기에는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축, 동축)+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비파형동검)이고, 늦은 시기에 동모가 등장하면서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축, 동축)+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비파형동검)+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비파형동모)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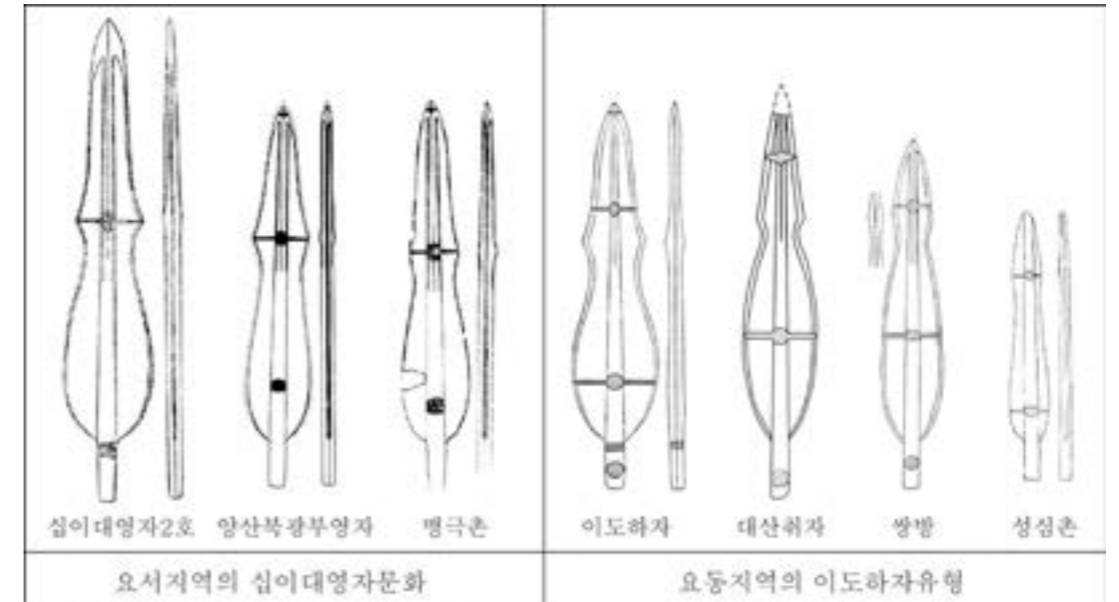
루상 적석묘의 무기류는 비파형동검과 동축, 석축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창으로 볼만한 유물은 없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와룡천 적석묘의 무기류 역시 비파형동검과 석축뿐이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강상유형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지만 늦은 시기에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인 비파형동모가 부분적으로 등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이도하자유형

이도하자유형은 요동 북부부터 길림성 중남부에 분포하는데, 중심묘제는 석관묘와 지석묘이다. 이도하자유형에서는 本溪 梁家村 유적처럼 비파형동검과 다뉴조문경이 공반되기도 하지만 비파형동검, 비파형동모, 동축 등의 무기류와 동부, 동착 등의 공구류가 주로 출토된다.

이도하자유형의 비파형동검은 짧은 검신이 특징인데, 주조 당시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사용과정에서 봉부 쪽이 닳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도하자유형의 시작은 본계 양가촌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비파형동검과 검과두식은 조양 십이대영자 2호묘 출토품과 유사하고, 뇌문의 다뉴조문경은 십이대영자 3호묘 출토품과 유사하다. 따라서 조양 십이대영자유적과 유사한 형식의 비파형동검이나 다뉴조문경이 출토된 본계 양가촌이나 요양 이도하자 유적이 가장 이른 시기로 판단된다.

다. 그리고 普蘭店 雙房 유적이거나 鐵嶺 大山嘴子 유적에서처럼 검신 하부가 좁아들어 세신화된 비파형동검, 그리고 西豐 誠信村 유적에서 출토된 이보다 더 세신화된 비파형동검은 요동지역에서 자체적인 변천과정을 거친 형식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형식의 비파형동검을 이른 시기로 보기도 하지만 필자는 비파형동검의 전체적인 변천 과정이 세신화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趙鎮先 2014, <그림 9>).



<그림 9> 십이대영자문화의 비파형동검과 이도하자유형의 비파형동검(趙鎮先 2014)

이도하자유형에서 이른 시기로 판단되는 본계 양가촌 1호묘의 무기류는 비파형동검뿐이며, 요양 이도하자 1호 석관묘 역시 비파형동검만 출토되었다. 하지만 함께 출토된 활석제 용범에 도기와 화살촉 주형이 새겨져 있어서 이도하자 1호 석관묘의 무기조합은 동축+비파형동검이라고 할 수 있다. 淸原 門臉 석관묘에서는 이도하자 1호 석관묘 출토품과 유사한 형식의 비파형동검과 석축이 출토되었다. 磐石 小西山에서는 2개군 6기의 석관묘가 조사되었는데, 이중 갑M2호묘에서 이도하자 1호 석관묘 출토품과 유사한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이도하자유형의 이른 시기 석관묘에는 화살촉이 모두 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로 판단된다.

이도하자유형에서는 비파형동모의 출토 사례가 적지 않은데, 비파형동검과 동반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우선 비파형동검과 동반 출토된 사례로는 撫順 李家卜 석관묘에서는 말굽형 검과두식과 비파형동검, 비파형동모, (유엽형)동모가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비파형동검은 이도하자 출토품과 대산취자 출토품 사이 형식에 해당한다. 西豐 誠信村 석관묘에서는 도기, 석기, 동기 등 3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무기류로는 비파형동검 1점, 비파형동모 1점, 동촉 3점, 석촉 16점이 있으며, 도끼와 화살촉 주형이 새겨진 용범도 출토되었다. 비파형동검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늦은 형식이다. 비파형동모는 전체길이 14cm, 모신 길이 9.5cm, 모신 최대너비 3cm이다. 이밖에도 비파형동모만 출토된 유적들이 적지 않은데, 撫順 大伙房 수고 4호 석관묘에서 비파형동모가 동부, 석부, 토기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비파형동모는 봉부와 공부 일부가 유실되었으며, 크기는 남은길이 10.4cm이다. 吉林 星星哨 AM11호묘에서는 비파형동모 1점과 함께 석부, 석도, 토기 등이 출토되었고, DM13호묘에서는 비파형동모 1점과 석부, 석도,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상과 같이 이도하자유형에서는 비파형동모의 출토 사례가 적지 않지만, 비파형동검과 동반 출토된 사례는 무순 이가복 석관묘와 서풍 성신촌 석관묘 정도이다. 이 두 유적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은 이도하자 1호 석관묘 출토품보다 늦은 형식이어서 이도하자유형에서 비파형동모는 비파형동검보다 늦게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대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도하자 1호 석관묘 출토품에 비해서 지역화된 형식의 비파형동검들과 동반 출토되기 때문에 기원전 6~5세기경으로 추정해 둔다. 그러므로 이도하자유형의 무기조합은 기원전 8~7세기에는 원격전용 투사무기(동촉과 석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비파형동검)이며, 기원전 6~5세기경에 비파형동모가 등장하면서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원격전용 장병충격무기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특이한 점은 비파형동모만 부장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인데, 비파형동검 또한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장 양상은 이도하자유형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2. 중국동북지역 세형동검문화의 무기조합

중국동북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단계에 이르면 요서지역에서는 재지적인 청동기문화가 거의 사라지지만 요동지역에서는 재지적인 세형동검문화가 유행하고 철기가 유입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요동반도 남단을 중심으로 하는 윤가촌유형, 요동 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상보유형, 길림성 중남부 제2송화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황산둔유형으로 구분된다.

윤가촌유형을 대표하는 유적은 윤가촌 12호묘인데, 이 무덤에서 출토된 무기류는 윤가촌식 세형동검뿐이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하지만 윤가촌유형이 집중분포하고 있는 요동반도 남단에서는 중원계 무기류들이 빈번하게 출토되는데, 중원식동검·중원식동과·중원식동모 등이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보아 윤가촌유형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로 생각된다.

상보촌유형을 대표하는 유적은 本溪 上堡村 유적과 昌圖 翟家村 유적이다. 본계 상보촌 M1호묘에

서 출토된 무기류는 대청산식 세형동검뿐이고(魏海波·梁志龍 1998), 창도 적가촌유적에서는 대청산식 세형동검과 중원식동검, 유공삼익동촉이 출토되었다(李弼利 1993). 그래서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이다. 그러나 상보촌유형이 유행한 지역에서 유엽형동모가 유행하였으며, 丹東 望江村이나 寬甸 雙山子에서는 요령식동과도 출토되었는데, 그 연대는 기원전 300년경부터로 추정하고 있다(李厚錫 2013). 그래서 상보촌유형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동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대청산식 세형동검, 중원식동검)+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유엽형동모, 요령식동과)로 생각된다.

윤가촌유형과 상보촌유형을 비교해보면, 상보촌유형에도 중원식동검 등 중원계 무기류가 들어와 있지만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는 재지적인 유엽형동모와 요령식동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뉴경이 상보촌유형에서만 확인될 뿐 윤가촌유형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과도 동일한 양상이다.

서황산둔유형은 樺甸 西荒山屯 유적이 대표적인데, 무기류로는 대청산식 세형동검과 촉각식동검이 있으며, 동촉도 확인된다. 그러나 동모나 동과는 출토되지 않았다(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 1982). 따라서 서황산둔 유형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로 생각된다. 서황산둔유형에서는 다뉴경도 출토되고 있어서 재지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상과 같이 중국동북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유형들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아직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그러한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중국동북지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무기조합의 변천

중국동북지역의 청동기~초기철기문화는 비파형동검문화와 세형동검문화로 구분된다. 비파형동검문화는 요서의 십이대영자문화, 요동반도 남단의 강상유형, 요동 북부~길림성 중남부의 이도하자유형 나누어지며, 요동의 세형동검문화는 윤가촌유형, 상보촌유형, 서황산둔유형으로 구분된다.

비파형동검문화 전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9~6세기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 동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비파형동검)이다.

비파형동검문화의 중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6~5세기의 무기조합은 십이대영자문화는 물론, 강상유형과 이도하자유형에서도 근접전용 장병기인 비파형동모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중기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 동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비파형동검)+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비파형동모)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는 아직까지는 부분적인 양상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비파형동검문화의 중기는 전기와 후기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비파형동검문화의 후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5~4세기는 무기조합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변화의 바람은 중원식동검, 중원식동과, 중원식동모 같은 중원계 무기류가 십이대영자문화에 들어오면서 시작되며, 요령식동과 같은 재지계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후기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 동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비파형동검, 중원식동검)+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중원식동과, 중원식동모, 요령식동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의 기종과 수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비파형동검문화의 후기에 근접전이 더욱 격화되었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형동검문화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시작된다. 윤가촌유형과 상보촌유형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로 구성되어 비파형동검문화의 후기 양상을 계승하고 있다. 차이라면 윤가촌유형은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가 중원계 무기인 중원식동과와 중원식동모이지만 상보촌유형은 재지계 무기인 요령식동과와 유엽형동모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 여기에 비해서 서황산둔유형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의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황산둔유형의 분포지역이 변두리라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세형동검문화라고 하더라도 변두리에서는 여전히 근접전용 충격무기가 등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서황산둔유형의 분포지역에도 철제 무기들이 들어오면서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인 철모가 등장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표 4〉 중국동북지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무기조합의 변천 양상

시대	무기	원격전용 투사무기	근접전용 충격무기		무기조합
			단병기	장병기	
청동기시대 (비파형동검문화)	전기	석촉 동촉	비파형동검		원격전용 투사무기 + 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
	중기	석촉 동촉	비파형동검	비파형동모	과도기
	후기	석촉 동촉	비파형동검 중원식동검	요령식동과 중원식동과 중원식동모	원격전용 투사무기 + 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 +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
초기철기시대 (세형동검문화)	윤가촌유형	동촉	윤가촌식동검 중원식동검	중원식동과 중원식동모	원격전용 투사무기 + 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 +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
	상보촌유형	동촉	대청산식동검 중원식동검	유엽형동모 요령식동과	
	서황산둔유형	동촉	대청산식동검 촉각식동검		과도기?

이상과 같이 중국동북지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에서 동모, 동과와 같은 새로운 무기들이 추가되면서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 조합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양상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V. 맺음말 - 무기조합·전쟁유형·정치사회유형 -

한국 청동기문화를 대표하는 비파형동검문화와 세형동검문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서 통합적인 연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료로 보면, 무기조합은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지역에서 신석기시대의 무기류로는 사실상 석촉뿐이다. 신석기시대에 전쟁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쟁이 있었다면 활과 화살을 사용한 원격전만 가능했다는 뜻이다. 한국 고대문화권에서 무기조합의 극적인 변동은 청동기시대부터이다. 남한지역을 보면, 청동무기류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석촉과 석검 등 석제 무기류가 등장해 있었다. 그래서 청동기시대 조·전기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석검)로 생각된다. 물론 석창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 석창으로 분류하였던 석기들은 대부분 유경식석검이나 무경식석검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석창으로 보아 온 일부 석기들은 민족지 자료로 보아 석촉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의 조합은 비파형동검문화가 등장하고 나서도 청동제 무기류가 추가됐을 뿐 한동안 지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비파형동검문화는 기원전 9~8세기에 요서의 십이대영자문화에서 시작되었다. 십이대영자문화 전기의 무기류는 동촉과 비파형동검뿐이어서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무기조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기원전 6~5세기의 중기부터로 생각된다. 건평 포수영자 881호묘에서는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와 유사한 형식의 비파형동검과 다뉴조문경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중기로 판단되는데, 이 무덤에서 비파형동모가 출토되었다. 십이대영자문화 중기에 비파형동모가 출토된 사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크게 유행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비파형동모는 강상유형에 속하는 강상 적석묘에서도 확인되는데, 적석묘의 외곽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시기는 적석묘 중심부보다 늦은 기원전 6세기경으로 볼 수 있다. 요동 북부와 길림성 중남부의 이도하자유형에서는 비파형동모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토되었다. 이도하자유형에서 비파형동모는 지역화 된 형식의 비파형동검과 동반되고 있어서 그 시기 역시 기원전 6세기를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비파형동모가 출토되는데, 역시 기원전 6세기를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파형동검문화권에서는 기원전 6~5세기에 비파형동모가 광역적으로 등장했지만 그 수량은 한정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무기조합의 근본적인 변화는 십이대영자문화 후기에 일어난다. 기원전 5~4세기에 이르면, 십이대영자문화에 중원계 무기류인 중원식동검, 중원식동모, 중원식동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지계인 요령식동과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요령식동과는 기원전 5~4세기에 십이대영자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기원전 5~4세기가 되면, 요동의 정가와자유형을 포함한 십이대영자문화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 동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비파형동검, 중원식동검)+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중원식동모, 중원식동과, 비파형동모?, 요령식동과)로 이루어진다. 특히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는 종류와 수량이 대폭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어디까지나 십이대영자문화에 한정되어 있고, 이도하자유형이나 한반도 비파형동검문화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기원전 6세기경 비파형동검문화권에 비파형동모가 등장하면서 광범위하게 시작된 무기조합의 새로운 변화가 기원전 5~4세기에 이르러 십이대영자문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원전 300년경부터 비파형동검문화를 대신해서 세형동검문화가 나타난다. 이전까지 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지였던 요서지역에서는 재지계 청동기문화가 급속하게 사라진다. 요동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요동반도 남단의 윤가촌유형, 요동 북부의 상보촌유형, 길림성 중남부의 서황산둔유형으로 구분된다. 윤가촌유형과 상보촌유형에서는 십이대영자문화 후기에 형성된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의 조합이 이어진다. 다만 윤가촌유형에서는 중원식동과와 중원식동모 같은 중원계 무기가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보촌유형은 재지계인 요령식동과와 유엽형동모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다뉴경의 존재 여부와 결부시켜 보면, 윤가촌유형은 중원문화에 포섭된 재지문화로 이해되며, 상보촌유형은 재지문화가 독자적으로 연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趙鎭先 2008). 하지만 가장 변방에 위치한 서황산둔유형에서는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가 부재하는데, 이는 이 지역이 재지적 초기철기문화의 변두리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반도의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도 성립기에는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세형동검)뿐이지만 발전기에 들어서면 동모와 동과가 곧바로 등장해서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세형동검, 중원식동검)+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세형동과, 세형동모)의 조합을 갖춘다. 쇠퇴기에는 소재가 청동에서 철로 바뀌어 갈뿐 무기조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반도 중남부에서 무기조합의 큰 변화는 기원전 3세기 중엽경에 일어났다.

일본의 야요이문화는 한국 청동기-초기철기문화와 깊은 관련 속에서 형성되었다. 일본열도에서도 죠몬시대 무기류는 활과 화살(석촉)뿐이다. 이러한 일본열도의 무기조합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야요이시대 시작이다. 기원전 5세기경 야요이시대가 시작되면서 한반도로부터 마제석검과 마제석촉이 파급되어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석검)의 조합이 들어간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에 한반도로부터 다시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가 파급되면서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석검, 세형동검)+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세형동과, 세형동모, 석과) 조합이 형성된다(趙鎭先 2016; 松木武彦 2001). 일본학계에서는 國의 등장을 세형동검문화의 등장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대국가인 삼국의 무기조합을 생각해 보면,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의 조합은 국가의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민족지와 정치인류학적 견지에서 보면, 근접전(육박전)은 원격전에 비해 훨씬 위험해서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평등한 수장권 아래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전쟁유형이다. 그래서 근접전은 강제력이 수반된 수장권이 형성되어야만 벌여질 수 있는 전쟁유형이라는 것이 서구의 정치인류학과 전쟁고고학의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하면, 청동기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근접전용 단병기인 석검이 등장하고 이어서 동검이 등장하는 것은 석촉뿐인 신석기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전쟁유형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민족지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무기조합은 활과 화살로 원격전을 수행하고, 단검은 그로 인해 부상당한 적을 살해하거나 머리가죽을 벗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전쟁을 벌이는 사회는 이전의 일반적인 부족사회보다 진전된 사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강제력이 수반된 강력한 수장권이 형성된 사회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원전 6세기경에 등장한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인 비파형동모는 전쟁유형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온 물질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도기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원전 5~4세기에 이르면, 십이대영자문화는 중원식동검, 중원식동과, 중원식동모 같은 중원계 무기류들을 대폭 수용하고 요령식동과 같은 재지적 성격의 새로운 무기류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무기류들은 모두 근접전용 무기, 특히 장병충격무기라는 점에서 기원전 5~4세기에 이르면 십이대영자문화에서 근접전이 한층 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물결은 시차를 두고 요동과 한반도는 물론 일본열도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로 구성된 무기조합의 확립은 한국 고대문화권에 군장사회나 국가사회와 같은 강제력에 기반한 수장권이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원전 6세기경에 비파형동모가 비파형동검문화권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현상의 심화는 요서를 중심으로 하는 십이대영자문화에

서 기원전 5~4세기에 시작된다. 십이대영자문화는 기원전 300년경에 급작스럽게 쇠퇴하며, 이 즈음에 형성된 요동지역의 상보촌유형과 윤가촌유형 세형동검문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한반도의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에서는 기원전 3세기 중엽에 나타난다. 기원전 2세기 전반에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가 일본열도로 파급되는데, 이때 이러한 무기조합이 일본열도로 전해지면서 일본열도에서 國의 형성 배경이 된다. 그러므로 한국 고대문화권에서 처음으로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의 조합을 완성한 십이대영자문화의 발전과 확산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사회유형을 한국 고대문화권과 일본열도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동북아시아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무기조합과 변천과정 비교

지역	시대		무기조합			비고	
			원격전용	근접전(백병전)용			
			투사무기	단병충격무기	장병충격무기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시대 (비파형동검문화)	전기	○	○	×		
		중기	○	○	△		
		후기	○	○	○		
	초기철기시대 (세형동검문화)	윤가촌유형	○	○	○		
		상보촌유형	○	○	○		
		서황산둔유형	○	○	×		
한반도 중남부	신석기시대		○	×	×		
	청동기시대	조기·전기		○	○	×	
		비파형동검문화	전반	○	○	×	
			후반	○	○	△	
	초기철기시대	세형동검문화	성립기	○	○	×	
			발전 I 기~쇠퇴기	○	○	○	
일본 열도	조몬시대		○	×	×		
	야요이시대	조기·전기	○	○	×		
		중기	○	○	○		

지역	연대	BC1000	BC500	ADI
중국 동북 지역	요서		발 동 계 투사무기+ 단병충격무기	과도기 (비파형동검) 투사+단병충격 +장병충격 무기
	요동		발 동 계 투사무기+ 단병충격무기	과도기 (비파형동검) 투사+단병충격 +장병충격 무기
한 반 도	무사 무기	발 동 계 투사무기+ 단병충격무기	발 동 계 투사무기+ 단병충격무기	과도기 (비파형동검) 투사+단병충격 +장병충격 무기
일본열도		발 동 계 투사무기	발 동 계 투사+단병충격	발 동 계 투사+단병 충격 +장병 충격

〈그림 10〉 한국 고대문화권과 일본열도의 무기조합 변천과정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1987, 『松菊里Ⅲ』.

김범철, 2015, 「사회성격의 이해」,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진인진.

나폴레옹 사냥(양은주 역), 2003, 『야노마모 - 에텐의 마지막 날들-』, 파스칼복스.

나폴리언 새그년(강주현 역), 2014, 『고결한 야만인』, 생각의힘.

盧焜眞, 2001, 「粘土帶土器文化的 社會性格에 대한 一考察 - 住居遺蹟의 特色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45.

朴淳發, 1997, 「漢江流域의 基層文化和 百濟의 成長過程」, 『韓國考古學報』 36.

孫峻鎬, 2006, 『靑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서경.

宋滿榮, 2011, 「中部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聚落 構造와 性格」, 『한국고고학보』 80.

이기성, 2015, 「도구와 수공생산」,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진인진.

李秀鴻, 2012, 「靑銅器時代 檢丹里類型的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文學博士 學位論文.

이수홍, 2019, 「蔚山지역 靑銅器時代 終末期의 地域相」, 『한국청동기학보』 24.

李榮文, 1997, 「全南地方 出土 磨製石劍에 관한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24.

李厚錫, 2013, 「세형동검 단계 중국 동북지역의 동과와 동모 - 遼寧式銅戈와 柳葉形銅銚·細身形銅銚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87.

이후석, 2016, 「동대장자유형의 계층 분화와 그 의미」, 『한국상고사학보』 94.

趙鎭先, 2005, 「細形銅劍文化的 研究」, 學研文化社.

趙鎭先, 2008, 「多鈕粗文鏡의 形式變遷과 地域的 發展過程」, 『韓國上古史學報』 62.

趙鎭先, 2009, 「韓國式銅戈의 登場背景과 辛庄頭 30號墓」, 『湖南考古學報』 32.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趙鎭先, 2014, 「中國 東北地域의 靑銅器文化和 古朝鮮의 位置 變動」, 『東洋學』 56.

조진선, 2015, 「청동기의 제작과 사용」,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진인진.

趙鎭先, 2016, 「細形銅劍文化的 日本列島 波及」, 『호남고고학보』 53.

趙鎭先, 2017, 「遼西地域의 琵琶形銅劍文化和 種族」, 『한국상고사학보』 96.

崔夢龍, 1975, 「月出山地區의 先史遺蹟」, 『文化人類學』 7.

한국고고학회, 「개정 신판 한국고고학 강의」.

錦州市博物館, 1960, 「遼寧錦西烏金塘東周墓調查記」, 『考古』 5.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 1982, 「吉林樺甸西荒山屯靑銅短劍墓」, 『東北考古與歷史』 1.

瀋陽市故宮博物館·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75, 「瀋陽鄭家窪子的兩座靑銅時代墓葬」, 『考古學報』 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管所, 2006, 「遼寧建昌于道溝戰國墓地調查發掘簡報」, 『遼寧省博物館館刊』創刊號, 遼海出版社.

魏海波·梁志龍, 1998, 「遼寧本溪縣上堡靑銅短劍墓」, 『文物』 6.

李矛利, 1993, 「昌圖發現青銅短劍墓」, 『遼海文物學刊』1.

李殿福, 1991, 「建平孤山子·榆樹林子青銅時代墓葬」, 『遼海文物學刊』2.

趙鎮先·成璟瑯, 2007, 「關於中國東北地區和朝鮮半島銅戈的考察—以中原式銅戈爲中心—」, 『內蒙古文物考古』37.

朱貴, 1960, 「遼寧朝陽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雙砣子與崗上—遼東史前文化的發現與研究』, 科學出版社.

邢愛文, 2009, 『遼陽博物館館藏精品圖集』, 遼寧大學出版社.

松木武彦, 2001, 『人はなぜ戦うのか 考古学からみた戦争』, 講談社.

As told to Ettore Biocca, 1970, Yanoama, E. P. DUTTON & CO.

Clastres, P., 1994, Archaeology of Violence, New York: Semiotext.

Gardner, R. and K. G. Heider, 1969, Gardens of War: Life and Death in the New Guinea Stone Age, New York: Random House.

Gardner, R., 1964, Dead Birds (16-mm film, 83 min) [Video File], Cambridge Peabody Museum · Harvard University.

Gluckman, M., 1960, The Rise of A Zulu Empire, Scientific American 202(4): 157-168.

Gluckman, M., 1974, The Individual in A Social Framework: The Rise of King Shaka of Zululand, Journal of African Studies 1(2):113-144.

Heider, K. G., 1970, Dugum Dani, WENNER-GREN FOUNDATION FOR ANTHROPOLOGICAL RESEARCH, INCORPORATED.

Keeley, L. H., 1996, War Before Civilization: The Myth of The Peaceful Savage,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elly, R. C., 2000, Warless Societies and the Origin of Wa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Kokh, H., 2006, Persepolis and Its Surroundings: A Guide in English, Tehran: Yassavoli.

Otterbein, K. F., 1994, Feuding and Warfare: Selected Works of Keith F. Otterbein, Amsterdam: Gordon and Breach.

Radcliffe-Brown, 1922, THE ANDAMAN ISLANDERS,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Turney-High, H. H., 1971, Primitive War: Its Practice and Concepts, 2nd ed.,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국립청주박물관 /
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청동기 — 초기 청동기 정치·사회 변동 시대

발행일 2019년 10월 11일

주 최 **국립청주박물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TEL 043,229,6300
<https://cheongju.museum.go.kr>

한국청동기학회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내 한국청동기학회
TEL 033,640,2594~6
<https://www.bronzeculture.or.kr>

디자인 · 편집 (주)컴엔시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 45-28
TEL 053,252,6336

<비매물>